

# 2023 통일 의식 조사

김범수 · 김병로 · 김성희 · 김학재 · 이성우 · 조용신 · 조현주 · 김민지

#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60

## 2023 통일의식조사

인 쇄 2023. 12. 21  
발 행 2023. 12. 21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김범수  
저 자 김범수·김병로·김성희·김학재·이성우·조용신·조현주·김민지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전 화 031) 5176-2332  
팩 스 031) 624-4751  
홈페이지 ipus.snu.ac.kr  
편집·제작 희망커뮤니케이션즈(02-2268-1968)  
가 격 비매품/무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

(2023)통일의식조사/  
저자: 김범수·김병로·김성희·김학재·이성우·조용신·조현주·김민지  
--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연구 : 60)  
ISSN 3022-4535 비매품/무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60

## 2023 통일의식조사



# 목차

서 장	16
-----	----

## 제1부 기초분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26
---------------	----

1. 서론	26
2. 통일의 이미지, 필요성과 이유	29
3. 통일에 대한 견해와 가능 시기	38
4.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43
5. 통일정책의 시급성과 통일한국의 체제	49
6. 소결	54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58
---------------	----

1. 서론	58
2.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60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64
4.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68
5. 북한 관련 경험, 인지도 및 이질성	71
6. 소결	75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78
-----------------	----

1. 서론	78
2. 대북정책 만족도	82
3. 대북정책 효용성	87
4. 대북정책의 방식 및 목표	93
5.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96
6. 소결	106

제4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110
-------------------	-----

1. 서론	110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친근감, 수용성, 지원정책 지지도	112
3. 세대 및 정치적 성향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116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요인	121
5. 소결	130

제5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132
-----------------	-----

1. 서론	132
2.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친밀감과 위협감	134
3. 주변국 이미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139
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역할	144
5. 지정학적 상황과 국제 협력 인식	148
6. 통계적 분석	152
7. 소결	156

## 제2부 심층분석

제6장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분석	162
1. 서론	162
2. 한미관계인식과 그 형성요인	164
3. 한미관계인식의 영향 분석	168
4. 윤석열 정부 효과 분석	173
5. 소결	177

제7장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	180
1. 서론	180
2. 세대별 통일의식 현황	182
3. 세대별 통일의 이유 응답 현황	186
4. MZ세대의 통일의식 결정요인	190
5. 소결	194

결 장	198
-----	-----

## 부 록

1. 조사 개요	208
2. 조사 결과 집계표	218
3. 설문지	368

# 표 목차

〈표 1-1-1〉 통일의 이미지(2018~2023)	29	〈표 1-2-1〉 변수별 북한인식(2023)	62
〈표 1-1-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2007~2023)	31	〈표 1-2-2〉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2014~2023)	66
〈표 1-1-3〉 통일 필요성 연령대별 응답 비율(2018~2023)	33	〈표 1-2-3〉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22~2023)	74
〈표 1-1-4〉 통일의 가장 큰 이유(2007~2023)	36	〈표 1-5-1〉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변국 인식 변인에 대한 순위 로지스틱 분석	154
〈표 1-1-5〉 통일의 가장 큰 이유 연령대별 응답 비율(2023)	37	〈표 2-6-1〉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영향분석	166
〈표 1-1-6〉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2018~2023)	37	〈표 2-6-2〉 한미관계 인식의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169
〈표 1-1-7〉 통일에 대한 견해(2007~2023)	39	〈표 2-6-3〉 한미관계 인식의 대북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172
〈표 1-1-8〉 통일에 대한 견해 연령대별 응답 비율(2019~2023)	40	〈표 2-6-4〉 연도별 한미관계 인식 영향요인분석	174
〈표 1-1-9〉 통일의 가능 시기(2007~2023)	42	〈표 2-6-5〉 연도별 한미관계 영향 인식 분석	176
〈표 1-1-10〉 통일의 가능시기 연령대별 응답 비율(2023)	43	〈표 2-7-1〉 출생연도에 따른 세대 분류	182
〈표 1-1-11〉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 남한과 개인(2007~2023)	44		
〈표 1-1-12〉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익 교차 분석(2023) (남한 전체)	46		
〈표 1-1-13〉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익 교차 분석(2023) (개인)	47		
〈표 1-1-14〉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2023)	48		
〈표 1-1-15〉 대북 사안별 시급성(2023)	50		
〈표 1-1-16〉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2009~2023)	53		

# 그림 목차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추세(2007~2023)	32	〈그림 1-3-9〉 효과적 대북정책의 방식(2021~2023)	94
〈그림 1-1-2〉 통일의 가장 큰 이유 응답 추세(2007~2023)	36	〈그림 1-3-10〉 대북정책의 목표(2021~2023)	96
〈그림 1-1-3〉 통일에 대한 견해 추세(2007~2023)	39	〈그림 1-3-11〉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 추이(2013~2023)	98
〈그림 1-1-4〉 통일의 가능 시기 추세(2007~2023)	42	〈그림 1-3-12〉 정치성향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2013~2023)	99
〈그림 1-1-5〉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 추세(2007~2023)	45	〈그림 1-3-13〉 통일의 필요성 응답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2013~2023)	100
〈그림 1-1-6〉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2023)	48	〈그림 1-3-14〉 통일에 대한 견해 응답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2013~2023)	101
〈그림 1-1-7〉 대북 사안별 시급성(2023)	51	〈그림 1-3-15〉 핵무장 방식에 대한 의견(2023)	103
〈그림 1-1-8〉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2009~2023)	53	〈그림 1-3-16〉 핵무장 찬반 의견별 핵무장 방식에 대한 의견(2023)	104
〈그림 1-2-1〉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2007~2023)	61	〈그림 1-3-17〉 선호하는 대북정책 방식별 핵무장 방식에 대한 의견(2023)	105
〈그림 1-2-2〉 북한정권과 대화·타협 가능성 여부(2009~2023)	65	〈그림 1-4-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2016~2023)	112
〈그림 1-2-3〉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2011~2023)	67	〈그림 1-4-2〉 한국거주이주민에 대한 친근감(2021~2023)	113
〈그림 1-2-4〉 정치성향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17~2023)	70	〈그림 1-4-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에 따른 거리감 정도(2021~2023)	114
〈그림 1-2-5〉 북한관련 경험 유무, “경험한 적이 있다”(2017~2023)	71	〈그림 1-4-4〉 북한이탈주민 수용도(2007~2023)	115
〈그림 1-2-6〉 북한사회 인지도(2019~2023)	73	〈그림 1-4-5〉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추가지원 여부(2007~2023)	116
〈그림 1-3-1〉 대북정책 만족도(2007~2023)	83	〈그림 1-4-6〉 세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2022~2023)	117
〈그림 1-3-2〉 연령대별 대북정책 만족도(2007~2023)	84	〈그림 1-4-7〉 세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2022~2023)	117
〈그림 1-3-3〉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도(2007~2023)	86	〈그림 1-4-8〉 세대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추가지원 여부(2022~2023)	118
〈그림 1-3-4〉 지역별 대북정책 만족도(2007~2023)	87	〈그림 1-4-9〉 정치 성향별 친근감(2016~2023)	119
〈그림 1-3-5〉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북한 개혁개방(2017~2023)	89	〈그림 1-4-10〉 정치 성향별 ‘친근하다’고 느끼는 정도(2020~2023)	119
〈그림 1-3-6〉 연령대별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북한 개혁개방(2017~2023)	90	〈그림 1-4-11〉 정치 성향별 수용도(2007~2023)	120
〈그림 1-3-7〉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북한의 비핵화(2020~2023)	91	〈그림 1-4-12〉 정치 성향별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2020~2023)	120
〈그림 1-3-8〉 연령대별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북한의 비핵화(2020~2023)	92	〈그림 1-4-13〉 정치 성향별 지원정책추가지원 여부(2007~2023)	120

# 그림 목차

〈그림 1-4-14〉 정치 성향별 추가지원여부에 동의하는 비율(2020~2023)	120	〈그림 1-5-13〉 북중협력에 대한 우려(2011~2023)	150
〈그림 1-4-15〉 북한이탈주민 친근감과 대북인식 교차분석(2023)	123	〈그림 1-5-14〉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2018~2023)	151
〈그림 1-4-16〉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대북인식 교차분석(2023)	123	〈그림 1-5-15〉 미중 갈등시 미국, 중국과의 협력 강화(2018~2023)	152
〈그림 1-4-17〉 북한이탈주민 친근감과 만남 유무 교차분석(2023)	124	〈그림 2-7-1〉 2007~2023년 통일의 필요성	183
〈그림 1-4-18〉 북한이탈주민 친근감과 통일의 필요성 교차분석(2023)	126	〈그림 2-7-2〉 2007~2023년 통일의 시급성	183
〈그림 1-4-19〉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통일의 필요성 교차분석(2023)	126	〈그림 2-7-3〉 2007~2023년 현 상태 선호	184
〈그림 1-4-20〉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다문화 포용성 교차분석(2023)	127	〈그림 2-7-4〉 2007~2023년 통일에 대한 무관심	184
〈그림 1-4-21〉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북한 인권 상황 심각성 교차분석(2023)	129	〈그림 2-7-5〉 2007~2023년 30년 이내 통일 가능성	185
〈그림 1-4-22〉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북한 인권 개선 시급성 교차분석(2023)	129	〈그림 2-7-6〉 2007~2023년 통일의 불가능성	185
〈그림 1-5-1〉 주변국 친밀감 정도(2007~2023)	136	〈그림 2-7-7〉 2011~2023년 통일의 필요성 예측확률	186
〈그림 1-5-2〉 주변국 위협감 정도(2007~2023)	138	〈그림 2-7-8〉 '같은 민족이니까' 응답비중	187
〈그림 1-5-3〉 미국의 국가 이미지(2007~2023)	140	〈그림 2-7-9〉 '전쟁위협 제거' 응답비중	187
〈그림 1-5-4〉 일본의 국가 이미지(2007~2023)	141	〈그림 2-7-10〉 '선진화 되기 위해' 응답비중	188
〈그림 1-5-5〉 중국의 국가 이미지(2007~2023)	141	〈그림 2-7-11〉 '통일이 국가에게 이익' 응답비중	188
〈그림 1-5-6〉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2007~2023)	142	〈그림 2-7-12〉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 응답비중	189
〈그림 1-5-7〉 한반도 전쟁시 주변국의 남북한 지원 여부(2007~2023)	144	〈그림 2-7-13〉 통일 필요성 결정요인: 2018년	191
〈그림 1-5-8〉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2018~2023)	145	〈그림 2-7-14〉 통일 필요성 결정요인: 2023년	191
〈그림 1-5-9〉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2008~2023)	147	〈그림 2-7-15〉 통일 시급성 결정요인: 2018년	192
〈그림 1-5-10〉 남북, 한미, 한중 협력의 중요성(2015~2023)	148	〈그림 2-7-16〉 통일 시급성 결정요인: 2023년	192
〈그림 1-5-1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한중, 한일 협력 필요성(2023)	149	〈그림 2-7-17〉 현 상태 선호 결정요인: 2018년	193
〈그림 1-5-12〉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의 군사 조치 가능성(2023)	150	〈그림 2-7-18〉 현 상태 선호 결정요인: 2023년	193



# 서 장





# 서 장

2023년 통일외교조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미중 패권 갈등 등 불안한 국제정세, 그리고 보수 정부로 교체된 국내의 정치사회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냉전 이후 처음 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지구촌 곳곳에 안보불안은 물론 경제불안까지 초래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북중협력의 재개와 북러 군사관계의 밀착으로 '신냉전' 질서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남한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가 누그러지지 않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시기였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미국과 남한에 대해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극도의 경색국면이 조성되었다. 북한은 최근 남한과 미국, 일본의 협력 강화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국제연대를 추구하며 남한과 미국 등에 대해서는 '적대세력'으로 대응할 것을 피력했다. 2023년 1월 1일 공개한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문에서 북한은 격양된 어조로 남한과 미국을 향해 '강대강 정면승부'와 '대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핵무기 사용에 대해 2022년 4월 25일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회의에

서는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법제화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였다. 2023년 1월에는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의 선제적 사용 의지를 재차 밝혔다. 즉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전술핵무기를 다량으로 생산하고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천명했다.

이번 통일외교조사가 실시된 7월까지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미연합 군사력에 강경 대응하였다. 1월 1일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파 실험 등 다각적인 무력시위를 단행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한미동맹 강화를 '아시아판 나토' 군사블럭 형성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23년을 "공화국 무력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 전쟁 동원 준비와 실전 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이를 위한 '중대한 정책적 결단'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북한의 이와 같은 강경한 태도는 최근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진전에 고무된 바 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봉쇄했던 북중 간 왕래가 일정 부분 회복되어, 2022년 9월 화물열차 운행에 이어 2023년 5월에는 단둥-신의주 간 육로 교역, 8월에는 항공편이 재개되어 북중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북러 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협력으로 자신

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11월 21일 3차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ICBM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이 대립하는 ‘신냉전’ 국제질서와 북한의 적대적 도발은 전쟁의 기억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한반도 전쟁이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주었다. 푸틴 대통령이 영토 수복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보도로 맞대응하면서 핵전쟁에 대한 불안이 한층 고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혼란을 틈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것이 북한의 대남도발로 이어져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야기되었다.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과 정책도 2023년 통일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난해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발언으로 대북 강경정책을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한국인의 북한인식을 자극하였다. 2023년 1월 국가위기관리센터 및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을 응징해야 한다,” “도발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똑같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몇 배, 몇십 배의 수준으로 우리는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며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2023년 4월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합의를 하였고, 9월 26일 국군의날 행사에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단호히 언급했다.

최고지도자의 이러한 대북 강경 발언은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한국인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가장 논쟁적인 대목으로는 2023년 6월 28일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대북제재에 반대하거나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북 인식 지형을 흔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윤대통령은 연설에서 “반국가세력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습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북 유화적 태도를 신랄히 비판했다. 나아가 대북정책에서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북한인권상황의 국내외 홍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발언과 정책변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인의 북한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2023년 통일의식조사는 7월 4일부터 27일 사이에 진행되었고 주로 올해의 전반기에 이루어진 상황들의 영향을 받은 여론이다. 조사개요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기초분석과 심화분석으로 구성되었다. 기초분석에서는 기본적인 국민의 통일에 대한 생각, 북한에 대한 인식,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문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이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보는지,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등에 대한 질문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두 번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개혁개방으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유튜브, SNS, 웹사이트를 묻는 보기가 포함되었다. 더불어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북한의 현 인권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이 설문에 포함되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의 재개 여부,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북한인권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평가 문항도 이 부문의 주요 조사 항목이다. 작년에 비핵화를 위한 대외국가 협력 방식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목적을 묻는 문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네 번째 부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와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국이 통일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 국민들의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들이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들이 향후 어

떠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만의 노력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입장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외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분석에 더하여 올해에도 다음의 두 가지 주제로 심화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한미관계 인식에 관한 주제다. 미중갈등이 확대되는 신냉전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관심이 높다. 이런 점에서 한미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 심화 분석의 주제는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이다. 통일의식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20~30대 연령층이 통일 필요성이나 통일 이유, 통일 개념 등에서 다른 세대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의 통일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통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MZ세대가 X세대 및 1차, 2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통일의식에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2023년 통일외식조사』는 2023년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의 성인 남녀 전체이다. 유효 표본수는 1,2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 이다.

모집단의 정보는 조사 시점 기준 가장 최신 행정자료인 행정안전부의 월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을 이용하였다. 모집단의 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라 연령별 할당이 주어지며, 면접원은 해당 조사지점 내에서 성별/연령별 할당을 고려하여 거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강원, 제주 등)에 표본이 과소 표집 되거나 누락돼 전국 단위의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14년부터는 우선 할당 후 비례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별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1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다.

책의 본문에서는 교차분석 등을 위해 가중치를 반영(모집단의 분포와 표집분포의 차이를 고려한 사후보정)하기 전의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책의 부록에 제시된 통계도 원자료에 기반한다. 부록에서는 응답자 특성 및 설문 문항별 기본 빈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의 기본 변수와의 교차분석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가중 표본에 대한 자료는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제1부 기초분석

---

-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 제4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 제5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 제1장

## 통일에 대한 인식

|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1. 서론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확대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약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2023년 8월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연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식화한 문건을 채택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유럽의 NATO와 유사한 동맹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sup>1)</sup>

이처럼 동북아 정세가 신냉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힘

1) 신지혜, 「원칙·정신·약속 ... 캠프 데이비드의 세 문건, 어떤 내용 담겼나」, 『KBS뉴스』, 2023년 8월 19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52121>.

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까짜 평화”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위협에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sup>2)</sup> 또한 취임 1주년을 앞둔 2023년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댈던 대한민국 안보”가 힘의 우위에 입각해 탈바꿈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로 강경 대응할 방침을 천명했다.<sup>3)</sup>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2023년 4월 7일 이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이용한 한국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철저한 대남 무시전략을 펴고 있다.<sup>4)</sup> 더 나아가 2023년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 회담을 갖는 등 신냉전 구도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독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남북관계의 경색과 ‘강대강’ 긴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은 이처럼 동북아 지역에서 신냉전 구도가 명확해지고 남북관계

2) 한지훈·이동환, 「尹대통령 “日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고 하겠나 ... 막기 어려워」, 『연합뉴스』, 2023년 1월 1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1128651001>.

3) 김환용,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 선의에 안보 기대지 않아” ... 전문가들 “남북 ‘강대강’ 국면 장기화」, VOA 2023년 5월 9일. <https://www.voakorea.com/a/7084803.html>.

4) 이재훈, 「윤석열 정부 1년 ... 남북, 서로 ‘적’이라며 대화 0회에 직통선도 끊겨」, 『한겨레』, 2023년 5월 10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1148.html](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1148.html).

의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전국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구체적으로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통일의 이미지와 필요성, 통일이 되어야 하는 또는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통일에 대한 견해와 가능 시기, 통일이 남한 전체 또는 응답자 개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통일이 한국의 사회문제 개선에 미치는 영향, 통일 정책의 시급성 및 통일 한국의 체제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견해와 가능 시기, 통일의 이유, 통일이 남한 전체 또는 개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통일 한국의 체제 등의 항목은 2007년 조사부터 매년 조사해온 항목으로 지난 16년 간 통일과 관련한 국민 인식의 시계열적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통일에 관한 이미지,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관련한 항목은 2018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과 관련한 국민 인식을 드러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장은 이러한 통시적, 공시적 분석을 통해 한편으로는 지난 16년 간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와 지속성을 추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지역에 신냉전 구도가 두드러진 상황에 나타난 통일과 관련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태도 등을 조사해 왔다. 2023년 조사는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24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 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포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8%이다.

## 2. 통일의 이미지, 필요성과 이유

### 1) 통일의 이미지와 필요성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점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과 별개로 국민 개개인은 통일에 대해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통일의식조사」는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2018년부터 “○○님은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1-1-1>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1-1-1> 통일의 이미지(2018~2023)

통일의 이미지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58.1	60.6	62.9	64.3	58.1	60.3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14.8	15.0	13.3	11.6	13.2	12.7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19.3	20.0	17.7	17.8	20.0	21.3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7.5	4.1	5.8	6.3	8.8	5.8
기타	0.3	0.3	0.3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 통일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표 1-1-1〉에 따르면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이미지는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으로 그 비중은 과반이 넘는 60.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궁극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수립을 통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2023년 조사 결과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21.3%)’,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심화되는 것(12.7%)’,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5.8%)’ 등을 통일로 생각하는 국민들 또한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8년 분단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을 통일로 규정해왔음을 고려할 때 약 40%의 응답자들이 이렇게 응답했다는 사실은 통일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졌음을, 즉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2국가 체제 하에서 경제 협력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통일로 인식하는 국민들 또한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2007~2023)

(단위 %)

연도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④+⑤
2007	34.4	29.4	63.8	21.1	12.7	2.4	15.1
2008	26.1	25.4	51.5	23.1	20.0	5.4	25.4
2009	24.7	31.2	55.9	23.6	16.1	4.4	20.5
2010	27.3	31.8	59.0	20.4	16.6	4.0	20.6
2011	28.8	24.9	53.7	25.0	16.8	4.5	21.3
2012	26.8	30.3	57.0	21.6	17.2	4.3	21.4
2013	23.6	31.3	54.8	21.5	18.5	5.2	23.7
2014	26.9	28.9	55.8	22.5	18.1	3.6	21.7
2015	21.6	30.4	52.0	24.5	17.8	5.8	23.5
2016	21.0	32.7	53.7	22.5	18.3	5.6	23.8
2017	18.0	36.1	54.1	24.5	17.3	4.1	21.4
2018	21.9	37.8	59.8	24.2	13.5	2.6	16.1
2019	20.5	33.1	53.6	26.4	15.3	4.7	20.0
2020	20.9	31.9	52.8	22.5	19.8	4.9	24.7
2021	13.8	30.8	44.6	26.0	24.6	4.8	29.4
2022	14.8	31.1	45.9	28.1	20.8	5.3	26.1
2023	15.3	28.6	43.8	26.3	24.2	5.7	29.8

\* 2021년 조사부터 이전까지 사용했던 “반반/그저 그렇다”를 “반반/보통이다”로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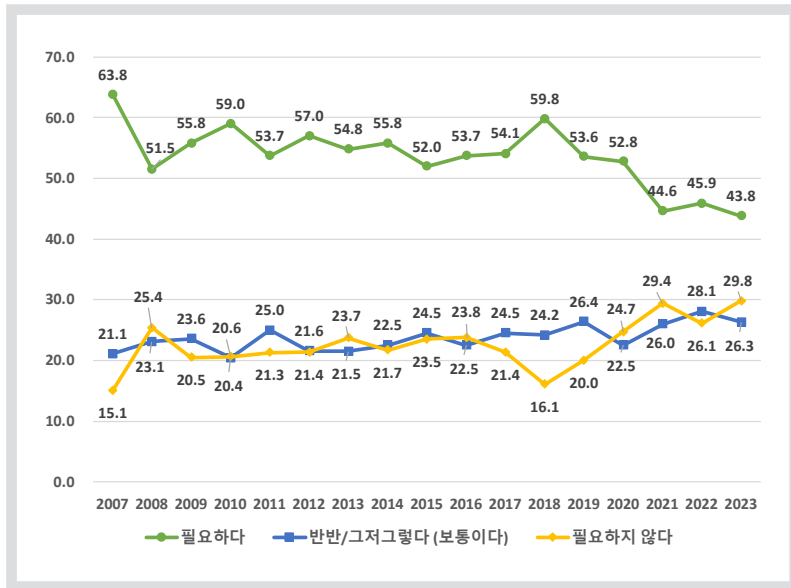
「통일외식조사」는 또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부터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1-1-2〉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1-1〉은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를 ‘필요하다’로 합산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필요하지 않다’로 합산하여 정리한 추세를 보여준다. 우선 〈표 1-1-2〉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5.3%,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8.6%, ‘반반/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6.3%,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24.2%,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5.7%이다. 한편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한 응답 비중은 43.8%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합한 응답 비중은 29.8%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추세(2007~2023)

(단위 %)



〈표 1-1-3〉 통일 필요성 연령대별 응답 비율(2018~2023) (단위 %)

연령대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그렇다(보통이다)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9~29세	13.3	14.4	7.6	5.0	6.1	7.3	40.8	26.7	27.7	22.8	21.7	20.9	28.3	33.7	29.5	29.2	32.5	30.6
30대	17.3	11.7	16.8	9.6	7.3	8.5	35.6	26.5	26.2	31.3	26.7	25.5	27.4	36.9	26.2	24.5	33.8	31.0
40대	23.2	21.7	23.0	16.5	13.4	9.2	35.4	32.3	35.9	30.0	36.9	33.1	26.4	27.0	21.8	29.6	24.3	25.9
50대	27.2	25.9	28.0	15.1	18.6	17.7	42.2	36.1	34.9	31.8	31.8	34.2	16.0	21.0	18.4	26.4	30.3	22.7
60대 이상	24.6	25.1	26.9	20.6	23.8	28.1	37.5	41.7	33.6	36.4	37.4	27.5	23.4	15.6	18.2	21.0	18.4	23.7
연령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9~29세	14.0	17.6	28.6	36.1	29.0	32.5	3.6	7.7	6.7	6.8	10.6	8.7						
30대	17.5	21.5	23.8	28.8	24.2	28.0	2.3	3.4	7.0	5.8	8.1	7.0						
40대	13.8	14.4	16.5	20.2	20.6	25.5	1.1	4.6	2.8	3.7	4.9	6.3						
50대	13.3	14.6	13.0	22.5	16.3	20.8	1.2	2.5	5.8	4.3	3.0	4.6						
60대 이상	9.3	11.4	18.6	18.0	16.5	17.6	5.2	6.2	2.8	4.0	3.9	3.1						

이처럼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1-1-3〉에 따르면 19~29세 연령대에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한 비중은 2018년 54.1%에서 2019년 41.1%, 2020년 35.3%, 2021년 27.8%, 2022년 27.8%, 2023년 28.2%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합한 비중은 2018년 17.6%에서 2019년 25.3%, 2020년 35.3%, 2021년 42.9%, 2022년 39.7%, 2023년 41.2%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30대의 경우도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한 비중이 2018년 52.9%에서 2019년 38.2%, 2020년 43.0%, 2021년 40.9%, 2022년

34.0%, 2023년 34.0%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합한 비중도 2018년 19.8%에서 2019년 24.9%, 2020년 30.8%, 2021년 34.6%, 2022년 32.3%, 2023년 35.0%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20대와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앞으로 어떠한 추세로 변화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겠다.

## 2) 통일의 이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통일외식조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약 45%에 달하는 응답자가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일부는 ‘같은 민족이니까’ 등과 같은 민족적 이유로, 일부는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등과 같은 실용적 이유로, 또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이유로, 아니면 여러 복합적 이유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한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통일외식조사」는 국민들이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7년 이래 지난 16년 간 “OO님은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또한 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8년부터 “만약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OO님은 그 이유

로 가장 큰 것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1-1-4>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응답을 정리한 표이며 <그림 1-1-2>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응답 결과의 추세를 보여준다. 한편 <표 1-1-5>는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의 이유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 결과를 보여주며, <표 1-1-6>은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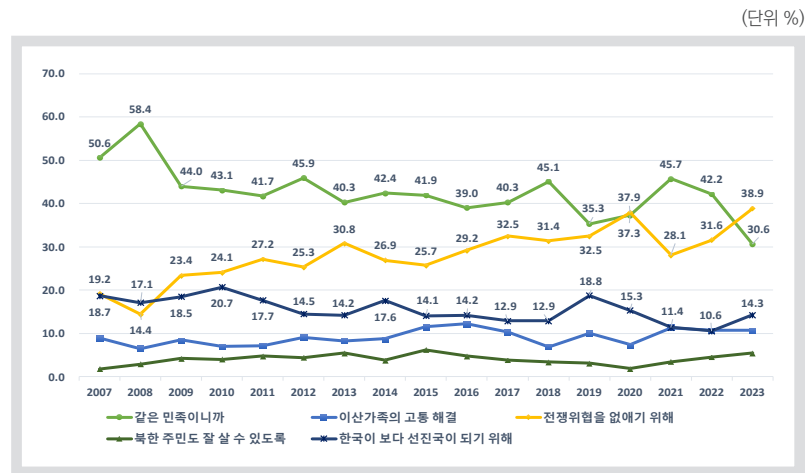
우선 <표 1-1-4>와 <그림 1-1-2>에 따르면 통일의 이유와 관련하여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 비중은 하락 추세에 있는 반면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 비중은 상승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4>에 따르면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 비중은 2008년 58.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2007년 조사 이래 최저치인 30.6%로 하락하였다. 반면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 비중은 2008년 14.4%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에는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인 38.9%로 상승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대와 30대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1-1-5>에 따르면 19~29세와 30대의 경우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22.8%와 22.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족적 당위 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줄어드는 반면 실용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4〉 통일의 가장 큰 이유(2007~2023)

(단위 %)

연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없다/모름/무응답
2007	50.6	8.9	19.2	1.8	18.7	0.7
2008	58.4	6.5	14.4	2.9	17.1	0.1
2009	44.0	8.5	23.4	4.2	18.5	0.8
2010	43.1	7.0	24.1	4.0	20.7	0.6
2011	41.7	7.2	27.2	4.8	17.7	1.1
2012	45.9	9.1	25.3	4.4	14.5	0.8
2013	40.3	8.3	30.8	5.5	14.2	0.8
2014	42.4	8.8	26.9	3.8	17.6	0.4
2015	41.9	11.5	25.7	6.2	14.1	0.5
2016	39.0	12.2	29.2	4.8	14.2	0.7
2017	40.3	10.3	32.5	3.9	12.9	0.1
2018	45.1	6.9	31.4	3.4	12.9	0.2
2019	35.3	10.0	32.5	3.1	18.8	0.4
2020	37.3	7.4	37.9	1.9	15.3	0.3
2021	45.7	11.3	28.1	3.5	11.4	-
2022	42.2	10.7	31.6	4.6	10.6	0.1
2023	30.6	10.7	38.9	5.5	14.3	-

〈그림 1-1-2〉 통일의 가장 큰 이유 응답 추세(2007~2023)



〈표 1-1-5〉 통일의 가장 큰 이유 연령대별 응답 비율(2023)

(단위 %)

연령대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19~29세	22.8	11.7	37.9	7.3	20.4
30대	22.5	11.5	43.5	6.0	16.5
40대	32.6	8.4	36.4	7.1	15.5
50대	32.7	8.5	42.3	3.8	12.7
60대 이상	38.0	13.2	35.6	4.1	9.2
전체	30.6	10.7	38.9	5.5	14.3

한편 〈표 1-1-6〉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며 다음으로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등의 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지난 몇 년간 세부적으로는 다소 변동이 있긴 하나 큰 틀에서는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정부가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안감과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1-6〉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2018~2023)

(단위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19.2	17.9	21.1	21.3	21.5	20.0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13.7	12.7	13.4	16.3	20.1	13.3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35.2	38.8	34.8	32.1	34.1	33.9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26.8	25.4	27.6	26.7	20.3	28.7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4.5	4.6	2.6	3.3	4.0	4.1
기타 / 무응답	0.7	0.5	0.6	0.5	0.1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3. 통일에 대한 견해와 가능 시기

#### 1) 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외식조사」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기 위해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라고 묻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표 1-1-7>은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그림 1-1-3>은 2007년 조사 이래 현재까지 추세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우선 <표 1-1-7>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5.2%에 달하는 반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 13.8%를 포함할 경우에도 적극적 통일 지지층의 비중은 16.8%에 불과하다. 이외에 ‘현재대로가 좋다’가 28.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림 1-1-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현재대로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분단 체제인 현재 상태를 선호하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7> 통일에 대한 견해(200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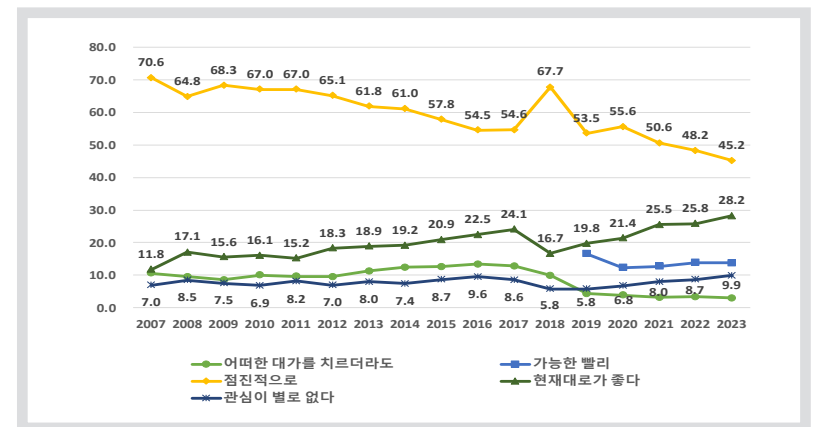
(단위 %)

연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합계 (N)
2007	10.6	70.6	11.8	7.0	1,200
2008	9.2	65.8	16.3	8.6	1,213
2009	8.6	68.3	15.6	7.5	1,203
2010	10.0	66.9	16.1	6.9	1,200
2011	9.6	66.9	15.3	8.2	1,201
2012	9.6	65.1	18.3	7.0	1,200
2013	11.3	61.8	18.9	8.0	1,200
2014	12.1	61.3	19.6	7.0	1,200
2015	11.7	57.5	21.8	9.0	1,200
2016	13.1	54.2	23.2	9.5	1,200
2017	12.1	54.7	24.7	8.4	1,200
2018	9.7	68.0	16.8	5.5	1,200
2019	4.3	16.7	53.5	19.7	1,200
2020	3.9	12.3	55.6	21.4	1,200
2021	3.2	12.7	50.6	25.5	1,200
2022	3.2	13.6	48.0	26.3	1,200
2023	3.0	13.8	45.2	28.2	1,200

\* 2019년 조사부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와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두 가지 응답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1-3> 통일에 대한 견해 추세(2007~2023)

(단위 %)



〈표 1-1-8〉 통일에 대한 견해 연령대별 응답 비율(2019~2023)

(단위 %)

연령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19	'20	'21	'22	'23	'19	'20	'21	'22	'23	'19	'20	'21	'22	'23
19~29세	1.9	1.7	2.6	2.9	2.4	14.6	6.3	7.8	8.7	5.8	48.2	49.7	38.6	39.3	35.0
30대	2.7	1.7	2.0	1.0	3.0	12.8	9.0	10.7	8.0	7.0	54.2	57.8	48.9	49.7	45.0
40대	2.6	6.1	2.0	1.7	2.5	20.3	12.0	12.3	12.7	11.3	56.2	60.5	57.6	48.9	49.4
50대	5.8	4.7	3.1	5.3	3.5	18.1	16.5	15.9	15.0	16.2	56.2	56.2	51.1	52.4	50.0
60대 이상	8.2	4.6	6.0	4.5	3.4	17.1	15.3	14.2	20.9	23.7	51.7	54.8	55.9	48.6	44.7

연령대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19	'20	'21	'22	'23	'19	'20	'21	'22	'23					
19~29세	27.4	30.6	32.9	32.4	41.3	7.9	11.7	17.8	16.7	15.5					
30대	26.7	25.5	30.7	34.2	30.0	3.6	6.0	7.7	7.1	15.0					
40대	16.7	17.1	22.2	28.8	26.8	4.2	4.3	5.8	7.9	10.0					
50대	14.6	18.4	23.1	19.9	24.6	5.4	4.1	6.7	7.5	5.8					
60대 이상	14.7	18.2	21.0	19.7	22.0	8.3	7.3	2.8	6.3	6.1					

이러한 추세는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8〉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19~29세 응답자의 경우 ‘현재대로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41.3%,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15.5%로 둘을 합할 경우 과반이 넘는 56.8%의 응답자가 현재의 남북한 분단체제를 선호하거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와 함께 ‘MZ세대’로 불리는 30대의 경우도

2023년 조사에서 ‘현재대로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30.0%,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15.0%로 둘을 합할 경우 약 45%의 응답자가 현재의 남북한 분단체제를 선호하거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통일의 가능 시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 국민은 통일을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일의 식조사」는 2007년 조사 이래 매년 “OO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1-1-9〉는 이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우선 〈표 1-1-9〉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0%,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6.2%인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3.3%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18년 통일이 ‘5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6.3%,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25.3%에 달하고,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14.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결과는 통일이 5년 또는 10년 이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18년의 1/4 이하로 줄어든 반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1-9〉 통일의 가능 시기(2007~2023)

(단위 %)

연도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모름/무응답	합계(N)
2007	3.7	23.5	30.8	14.7	13.8	13.3	0.2	1,200
2008	2.3	13.4	22.3	14.8	25.1	22.1		1,213
2009	2.7	17.0	27.7	16.3	16.5	19.8	0.1	1,203
2010	3.4	17.8	24.1	13.4	20.8	20.6		1,200
2011	2.5	16.3	26.1	14.0	19.7	21.4		1,201
2012	2.9	14.5	25.9	17.8	19.8	19.2		1,200
2013	3.7	13.3	25.3	13.7	18.3	25.8		1,200
2014	2.3	13.8	22.5	17.7	19.8	23.9		1,200
2015	3.7	17.9	25.8	14.3	19.2	19.3		1,200
2016	3.8	14.2	25.2	14.9	17.8	24.2		1,200
2017	2.6	14.1	22.8	15.4	20.7	24.3	0.1	1,200
2018	6.3	25.3	28.3	13.5	12.3	14.4		1,200
2019	3.8	18.5	24.9	18.2	14.8	19.9		1,200
2020	2.4	11.7	25.2	16.7	18.9	25.1	0.1	1,200
2021	1.3	7.9	20.0	20.0	25.2	25.6	0.1	1,200
2022	1.3	6.3	17.8	17.8	25.2	31.6		1,200
2023	1.0	6.2	14.8	14.7	30.2	33.3		1,200

〈표 1-1-10〉 통일의 가능시기 연령대별 응답 비율(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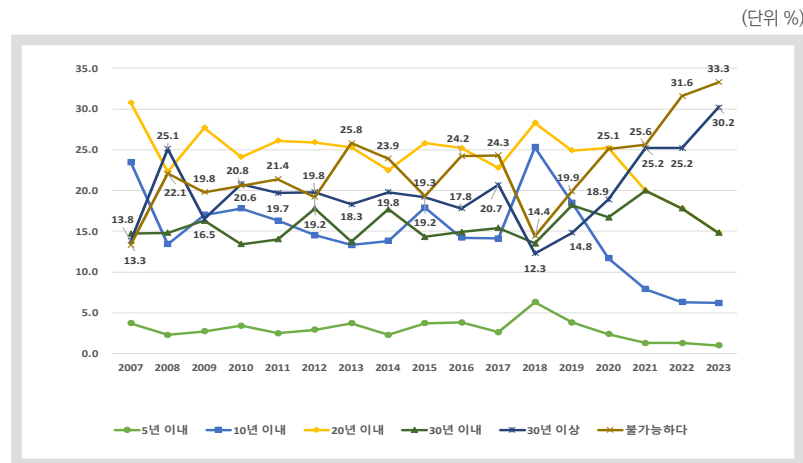
(단위 %)

연령대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합계(%)
19~29세	0.0	4.4	12.6	11.7	32.0	39.3	100.0
30대	1.0	4.5	12.5	16.5	30.5	35.0	100.0
40대	0.4	6.7	13.0	15.5	33.5	31.0	100.0
50대	1.2	6.9	16.5	17.7	28.1	29.6	100.0
60대 이상	2.0	7.5	17.6	12.2	27.8	32.9	100.0
전체	1.0	6.2	14.8	14.7	30.2	33.3	100.0

\* 합계는 각 개별 항목에서 올림과 내림, 무응답 등으로 인해 단순합계와 약 ±0.1의 차이가 있음.

이처럼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20대와 3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1-1-10〉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각각 39.3%와 35.0%에 달하는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29.6%와 32.9%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1-4〉 통일의 가능 시기 추세(2007~2023)



#### 4.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 1) 통일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통일의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통일이 남한 전체에 또는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해 왔다. 〈표 1-1-11〉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이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이며 〈그림 1-1-5〉는 ‘매우 이익이 된다’와 ‘다소 이익이 된다’라고 응답한 두 범주를 합한 결과의 추세를 보여준다. 우선 〈표 1-1-11〉과 〈그림 1-1-5〉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와

‘다소’를 합해 53.6%로 2022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와 ‘다소’를 합해 27.9%로 2022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이 결과는 통일이 남한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는 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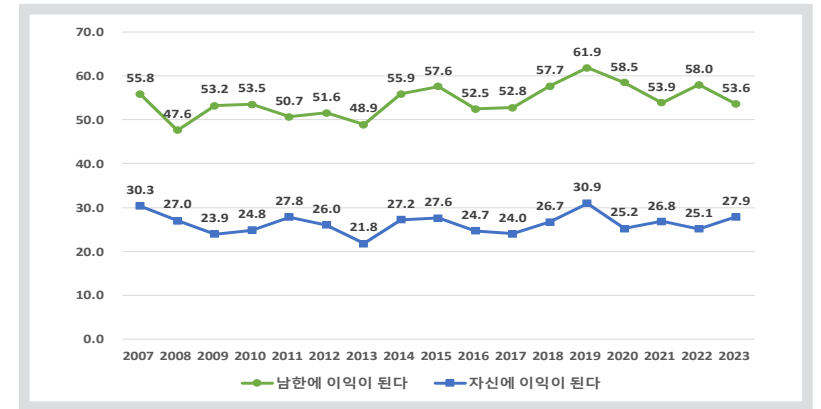
〈표 1-1-11〉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 남한과 개인(2007~2023)

(단위 %)

구분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합계 (N)
		매우 이익	다소 이익	별로	전혀				
2007	남한	16.8	38.9	55.8	36.4	7.8	44.2	0.1	1,200
	자신	5.7	24.6	30.3	51.2	18.5	69.7	0.1	
2008	남한	12.2	35.1	47.6	38.8	13.8	52.6		1,213
	자신	3.4	23.6	27.0	43.9	29.2	73.1		
2009	남한	14.0	39.2	53.2	36.9	9.9	46.8		1,203
	자신	4.1	19.8	23.9	53.4	22.7	76.1		
2010	남한	14.6	38.9	53.5	38.0	8.5	46.5		1,200
	자신	3.6	21.2	24.8	55.1	20.1	75.2		
2011	남한	14.2	36.6	50.7	38.5	10.8	49.3		1,201
	자신	5.6	22.2	27.8	50.0	22.2	72.2		
2012	남한	13.1	38.5	51.6	38.5	9.9	48.4		1,200
	자신	4.2	21.8	26.0	53.5	20.5	74.0		
2013	남한	11.1	37.8	48.9	42.3	8.7	51.0	0.1	1,200
	자신	2.9	18.9	21.8	56.3	21.8	78.2		
2014	남한	13.1	42.8	55.9	37.4	6.7	44.1		1,200
	자신	3.3	23.8	27.2	55.3	17.6	72.8		
2015	남한	13.8	43.8	57.6	34.9	7.5	42.5		1,200
	자신	3.8	23.8	27.6	53.0	19.4	72.4		
2016	남한	11.2	41.3	52.5	38.8	8.7	47.5		1,200
	자신	2.8	21.9	24.7	55.8	19.5	75.3		
2017	남한	9.7	43.2	52.8	39.5	7.7	47.2		1,200
	자신	4.3	19.8	24.0	57.1	18.9	76.0		
2018	남한	11.2	46.5	57.7	36.5	5.8	42.3		1,200
	자신	3.9	22.8	26.7	55.8	17.6	73.4		
2019	남한	14.3	47.6	61.9	29.9	8.2	38.1		1,200
	자신	4.6	26.3	30.9	52.4	16.7	69.1		
2020	남한	12.5	46.0	58.5	35.3	6.2	41.5		1,200
	자신	3.4	21.8	25.2	58.3	16.6	74.8		
2021	남한	7.3	46.6	53.9	39.5	6.6	46.1		1,200
	자신	2.0	24.8	26.8	55.0	18.2	73.2		
2022	남한	10.8	47.2	58.0	35.5	6.5	42.0		1,200
	자신	2.2	22.9	25.1	54.9	20.0	74.9		
2023	남한	11.2	42.4	53.6	38.8	7.7	46.4		1,200
	자신	2.9	25.0	27.9	52.7	19.4	72.1		

〈그림 1-1-5〉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 추세(2007~2023)

(단위 %)



한편 〈표 1-1-12〉와 〈표 1-1-13〉은 2023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기대 이익 사이의 교차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표 1-1-12〉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통일이 남한 전체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표 1-1-13〉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이 가져다 줄 개인의 기대 이익에 대한 인식 사이에도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통일이 자신에게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통일이 남한 또는 자신에게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또는 역으로 통일이 남한 또는 자신에게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기대 이익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12〉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익 교차 분석(2023) (남한 전체)

(단위 %, 응답자 수)

이이익 필요성	매우 이익	다소 이익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합계 (N)
매우 필요	37.2 (68)	43.2 (79)	17.5 (32)	2.2 (4)	100.0 (183)
약간 필요	8.5 (29)	57.7 (198)	31.2 (107)	2.6 (9)	100.0 (343)
반반/ 보통이다	7.0 (22)	41.1 (130)	45.9 (145)	6.0 (19)	100.0 (316)
별로 필요 하지 않다	4.5 (13)	28.6 (83)	53.1 (154)	13.8 (40)	100.0 (290)
전혀 필요 하지 않다	2.9 (2)	27.9 (19)	39.7 (27)	29.4 (20)	100.0 (68)
합계(N)	11.2 (134)	42.4 (509)	38.8 (465)	7.7 (92)	100.0 (1,200)

Pearson chi2(12) = 290.9717 Pr = 0.000

〈표 1-1-13〉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익 교차 분석(2023) (개인)

(단위 %, 응답자 수)

이이익 필요성	매우 이익	다소 이익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합계 (N)
매우 필요	8.7 (16)	43.7 (80)	37.2 (68)	10.4 (19)	100.0 (183)
약간 필요	2.6 (9)	31.8 (109)	53.6 (184)	12.0 (41)	100.0 (343)
반반/ 보통이다	1.9 (6)	22.8 (72)	56.7 (179)	18.7 (59)	100.0 (316)
별로 필요 하지 않다	1.4 (4)	11.4 (33)	61.0 (177)	26.2 (76)	100.0 (290)
전혀 필요 하지 않다	0.0 (0)	8.8 (6)	35.3 (24)	55.9 (38)	100.0 (68)
합계(N)	2.9 (35)	25.0 (300)	52.7 (632)	19.4 (233)	100.0 (1,200)

Pearson chi2(12) = 176.2597 Pr = 0.000

##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이 남한 전체에 가져다 줄 이익과 비용은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일외식조사」는 통일이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사회문제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표 1-1-14〉는 2023년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이 표에 따르면 제시한 6가지 사회문제 모두에서 '개선' 보다 '악화'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표 1-1-14〉와 〈그림 1-1-6〉은 국민들이 통일이 이념갈등과 범죄문제, 지역갈등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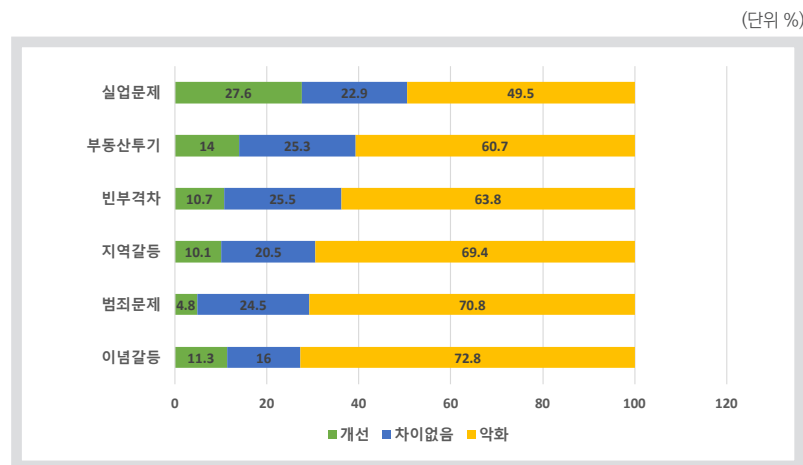
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이념갈등, 범죄문제, 지역갈등 문제에 있어 통일 이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각각 11.3, 4.8%, 10.1%에 불과한 반면 악화에 대한 우려는 각각 72.8%, 70.8%, 69.4%에 달하고 있다.

〈표 1-1-14〉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2023)

구분	(단위 %)					①+②*	④+⑤*	합계 (%)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빈부격차	1.6	9.1	25.5	41.8	22.1	10.7	63.8	100.0
부동산투기	1.8	12.3	25.3	38.0	22.7	14.0	60.7	100.0
실업문제	3.9	23.7	22.9	30.6	18.9	27.6	49.5	100.0
범죄문제	0.8	4.0	24.5	40.8	29.9	4.8	70.8	100.0
지역갈등	1.8	8.3	20.5	41.6	27.8	10.1	69.4	100.0
이념갈등	3.5	7.8	16.0	36.0	36.8	11.3	72.8	100.0

\* 합계는 각 개별 항목에서 올림과 내림, 무응답 등으로 인해 단순합계와 약 ±0.1의 차이가 있음.

〈그림 1-1-6〉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2023)



## 5. 통일정책의 시급성과 통일한국의 체제

### 1) 통일 정책의 시급성

「통일외식조사」는 정부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대북·통일·안보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OO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를 분석해왔다. 또한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대북 사안별 시급성’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두 문항을 ‘대북 사안별 시급성’ 문항 하나로 합쳐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예로 제시하는 구체적 내용 가운데 ‘북한의 개방과 개혁’, ‘군사적 긴장완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한 항목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새롭게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정책적 이슈들을 포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북한 비핵화’,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이 가운데 ‘평화협정 체결’ 항목을 다시 ‘중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변경하였다. 〈표 1-1-15〉와 〈그림 1-1-7〉은 2023년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1-1-15〉 대북 사안별 시급성(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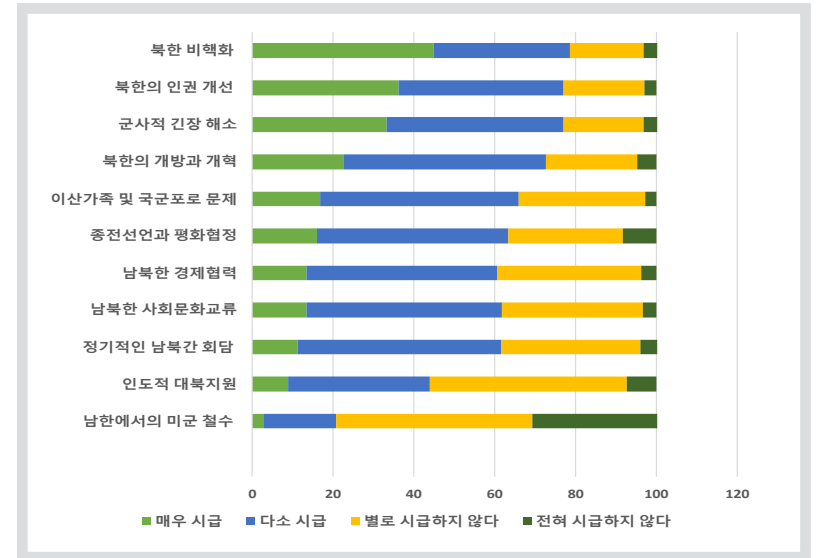
	① 매우 시급	② 다소 시급	③ 별로	④ 전혀	①+②*	③+④*	합계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1.3	50.3	34.3	4.2	61.6	38.4	100.0
군사적 긴장 해소	33.2	43.8	19.8	3.3	76.9	23.1	100.0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2.7	18.0	48.6	30.8	20.7	79.3	100.0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15.9	47.5	28.3	8.3	63.4	36.6	100.0
북한의 개방과 개혁	22.6	50.0	22.5	4.9	72.6	27.4	100.0
북한의 인권 개선	36.2	40.8	20.0	3.0	77.0	23.0	100.0
북한 비핵화	44.8	33.8	18.1	3.4	78.5	21.5	100.0
인도적 대북지원	8.9	34.9	48.8	7.3	43.8	56.2	100.0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16.8	49.1	31.3	2.8	65.9	34.1	100.0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13.3	48.5	34.8	3.4	61.8	38.3	100.0
남북한 경제협력	13.3	47.3	35.6	3.8	60.6	39.4	100.0

\* 합계는 각 개별 항목에서 올림과 내림, 무응답 등으로 인해 단순합계와 약 ±0.1의 차이가 있음.

우선 〈표 1-1-15〉와 〈그림 1-1-7〉에 따르면 국민들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개선,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의 개방과 개혁 등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선택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 비핵화에 이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선택한 비중이 다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7〉 대북 사안별 시급성(2023)

(단위 %)



이외에 통일 정책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올해 조사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지적하자면, 우선 북한 비핵화가 시급하다는 응답 비중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한 대화 국면 속에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시급하다는 응답 비중 또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와 코로나19 등으로 대북 경제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아진 사실은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북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다.

## 2) 통일한국의 체제

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남한의 현체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방안을 희망하는가 하면 일부는 통일이 가능하다면 어떤 체제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외식조사」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OO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1-1-16>은 이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이며 <그림 1-1-8>은 추세를 보여준다. 우선 <표 1-1-16>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는 ‘남한의 현체제 유지’가 49.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남북한 체제의 절충’이 27.0%, ‘남북한 두 체제 유지’가 21.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추세를 보면 ‘남한의 현체제 유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호하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남북한 두 체제 유지’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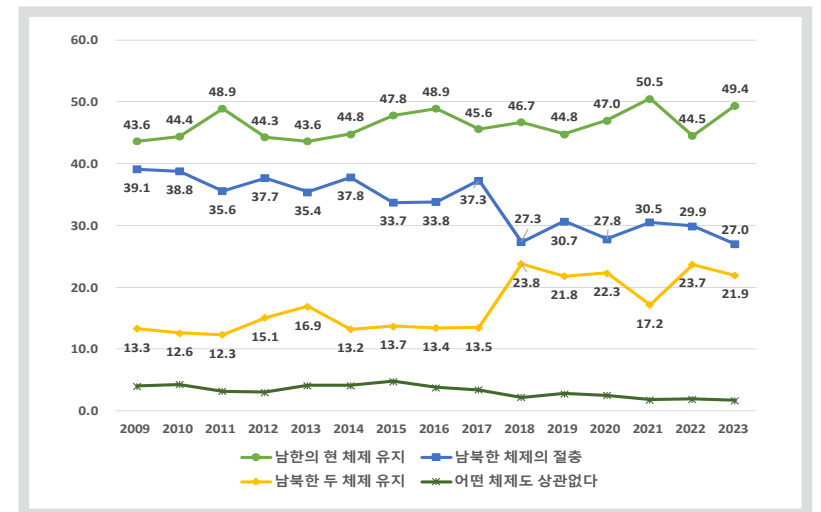
<표 1-1-16>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2009~2023)

(단위 %)

연도	남한의 현체제 유지	남북한 체제의 절충	남북한 두 체제 유지	어떤 체제도 무방	모름/ 무응답	합계 (N)
2009	43.6	39.1	13.3	4.0		1,203
2010	44.4	38.8	12.6	4.3		1,200
2011	48.9	35.6	12.3	3.2	0.1	1,201
2012	44.3	37.7	15.1	3.0		1,200
2013	43.6	35.4	16.9	4.1		1,200
2014	44.8	37.8	13.2	4.1	0.1	1,200
2015	47.8	33.7	13.7	4.8		1,200
2016	48.9	33.8	13.4	3.8		1,200
2017	45.6	37.3	13.5	3.4	0.2	1,200
2018	46.7	27.3	23.8	2.2		1,200
2019	44.8	30.7	21.8	2.8		1,200
2020	47.0	27.8	22.3	2.5	0.3	1,200
2021	50.5	30.5	17.2	1.8	0.1	1,200
2022	44.5	29.9	23.7	1.9		1,200
2023	49.4	27.0	21.9	1.7		1,200

<그림 1-1-8>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2009~2023)

(단위 %)



## 6. 소결

지금까지 본장에서는 「2023 통일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통일인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줄어들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가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 조사에서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3.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9.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8.2%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41.2%에 달하고 있으며, 30대의 경우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34.0%로 40대(42.3%)와 50대(5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3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20대와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난 몇 년간 조사에 일관되게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추세로 변화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남북이 2국가로 분단된 현재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2018년 16.8%에서 계속 상승하여 올해 조사에서는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인 28.2%

까지 상승하였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 또한 2018년 5.5%에서 계속 상승하여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인 9.9%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통일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0%,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6.2%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33.3%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각각 39.3%와 35.0%로 40대와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현재의 분단 체제를 선호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올해 조사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와 관련하여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조사 이래 최저치인 30.6%까지 하락한 반면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 비중은 최고치인 38.9%까지 상승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민족주의적 당위보다 전쟁 위협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더욱 중요한 통일의 이유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3년 조사 결과는 통일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에 몇 가지 일관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2023년 조사 결과는 2007년 조사 이래 다수 국민이 '남한의 현재 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남한의 현재 체제 유지'를 선택한 응답은 지난 10여년 간 큰 변동 없이 대체로 43~50% 사이에서 변동

하고 있다. 반면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택한 응답은 2009년 최고치인 39.1%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 국민이 통일을 하더라도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 조사 결과는 통일 정책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북한 비핵화를 가장 시급한 통일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매우 시급하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2018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 '별로 시급하지 않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한 대화 국면 속에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 남북한 경제협력이 시급하다는 응답 비중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2020년을 기점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아졌다는 점을 올해 조사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2023년 조사 결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 구도가 명확해지는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분단 체제인 현재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민족주의가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민족주의적 당위에 근거한 통일 호소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조사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들이 앞으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2장

## 북한에 대한 인식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 1. 서론

2023년 전반기 한반도는 북한이 연초부터 미국과 남한에 대해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극도의 경색국면이 조성되었다. 2023년 1월 1일 공개한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문에서 북한은 격양된 어조로 남한과 미국을 향해 ‘대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미중갈등의 ‘신냉전’이 한반도에도 악영향을 미쳐 북한 비핵화에 난관을 초래한데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사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북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2022년 4월 북한은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천명한데 이어, 9월에는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였다. 연초에는 전술핵무기를 다량으로 생산하고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천명했다. 2023년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군사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다시 3차 발사 시도를 예고하며 ICBM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 대북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대화과 교류 위주의 기존 대

북정책을 남북관계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극렬히 비난하며 남한과의 대화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 원인도 남한의 대북전단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정도로 남한에 대한 불신과 적의를 드러내고 있고, 8월 19일에는 이러한 코로나 소식을 전하면서 ‘남조선’ 대신 ‘괴뢰지역’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9월 30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 소식을 전하면서도 한국을 ‘괴뢰팀’으로 불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 동북아에 형성된 ‘신냉전’ 구도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중러의 밀착관계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보다 사회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경제와 국경관리 부문에서 경제협력의 시동을 켜고 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 거래와 ICBM 기술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12일 북러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북한의 중러 밀착이 진행되면서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보다 군사력 증강과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한반도 정세의 복합적 현실이 2023년 한국인의 대북 인식 환경을 형성한다.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의 적대적 행보가 한국인의 대북 인식에 다분히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래의 각 절에서 보듯 이러한 판단은 대부분 적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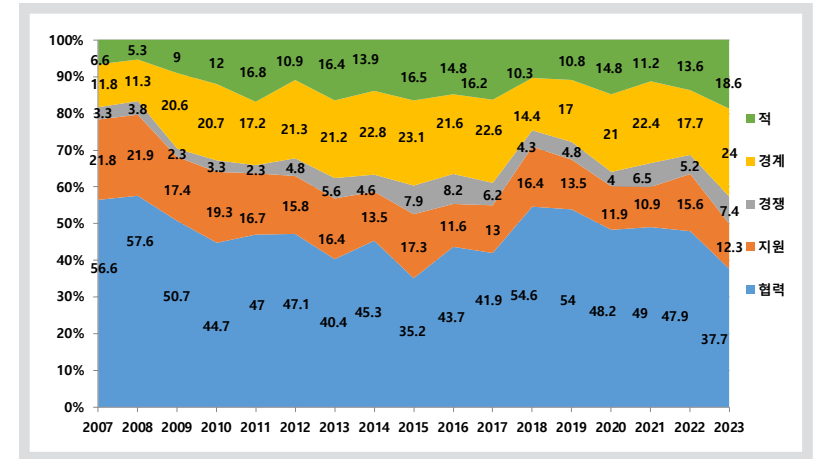
## 2.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먼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지원대상),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의 5개 범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7.7%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이 24.0%, ‘적대대상’ 18.6%, ‘지원대상’ 12.3%, ‘경쟁대상’ 7.4%의 순으로 나왔다.

아래의 <그림 1-2-1>에서 볼 수 있듯이 작년에 비해 적대의식이 13.6%→18.6%로 높아지고, 경계의식이 17.7%→24.0%로 높아진 반면, 협력의식은 47.9%→37.7%로 10.2%p 낮아졌다. 그 결과 적대의식과 경계의식을 합한 대북 부정적 인식이 42.6%로 본 조사가 실시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18년에 대북 협력의식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가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2023년 대북인식은 최고조로 악화되었다. 신냉전 국제질서 속에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반도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1>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2007~2023)

(단위 %)



2023년 남북한 관계 인식은 연령과 지역,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1-2-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대의 대북 부정 인식(경계+적대)은 48.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아 젊은층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45.0%)와 40대(43.9%), 60대(42.7%)가 뒤를 잇고, 50대는 31.1%로 가장 낮았다. 반면 50대는 북한에 대한 협력인식이 46.5%로 가장 높았다. 이른바 ‘596세대’로 불리는 5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에 남한의 민주화를 경험하고 중년기에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목격한 386세대는 장년기에 접어들어서도 북한과 적대·경계보다는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1〉 변수별 북한인식(2023)

(단위 %)

	변수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연령	19~29세	10.2	28.2	12.6	31.1	18.0
	30대	12.0	35.5	7.5	23.5	21.5
	40대	10.5	41.0	4.6	25.5	18.4
	50대	11.9	46.5	8.5	17.7	15.4
	60대 이상	16.6	35.3	5.4	22.4	20.3
지역	수도권	11.1	41.2	8.0	23.3	16.3
	충청권	13.6	31.8	11.7	24.0	18.8
	호남권	19.0	43.7	5.6	17.6	14.1
	영남권	12.1	28.4	6.1	29.4	24.0
	강원	8.9	53.1	43.1	15.6	22.2
	제주	9.4	53.1	3.1	15.6	18.8
정치적 성향	진보	13.3	44.0	7.2	22.5	13.0
	중도	12.5	36.7	9.0	22.7	19.1
	보수	11.6	33.3	4.6	27.0	23.5

p=0.000

지역별로는 위의 〈표 1-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협력대상 인식에서 호남과 수도권이 높고, 경계·적대대상 인식은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높았다. 강원과 제주는 높은 협력인식을 보였으나 동시에 강원에서는 적대인식이 22.2%로 높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안보불안의식이 높아지면서 모든 지역에서 협력인식이 대폭 하락한 반면 경계·적대 의식이 높아졌다. 영남권은 42.5%→28.4%로 14.1%p가 떨어졌고, 수도권은 52.3%→41.2%, 충청권은 42.9%→31.8%로 하락했으며, 호남권도 49.9%→43.7%로 대북 협력인식이 떨어졌다.

대북인식은 또한 현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와도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북 적·경계 의식이 높은 반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대북 협력·지원 의식이 높았다. 대북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상관성과 차이도 뚜렷하였다. 진보적 성향의 사람일수록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보는 반면, 보수일수록 북한을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강하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모든 이념성향에서 협력의식이 낮아지고, 경계·적대 의식은 높아졌다. 협력인식에서 진보(53.2%→44.0%)나 보수(36.0%→33.3%)보다 중도가 50.4%→36.7%로 가장 급격하게 떨어졌다. 진보와 보수가 대북인식에서 고정적 변수라고 본다면 중도집단의 대북 협력인식이 이처럼 급격히 떨어진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대북인식이 지난 1년 동안 부정적으로 변했음을 말해준다.

북한에 대한 민족감정이 어느 정도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월드컵 경기를 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38.7%, 미국응원이 15.5%, 양팀 모두 응원 19.3%, 양팀 모두 응원 안함 21.3% 등으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의견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추세에 있어서는 54.6%→43.6%→36.7%→38.7%로 하락기조에 있고, 양팀 모두를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소폭 상승 추세에 있다.

북한의 국가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질문으로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50.1%가 ‘그렇다’고 답했고, 15.4%는 ‘아니다’라고 답하였으며, 34.5%는 ‘반반/그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국인의 절반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부정 내지 그저 그렇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국가성을 인정하는 의식은 56.4%→50.1%로 줄어든 반면, 국가성을 부정하는 인식은 9.3%→15.4%로 늘어났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의식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 65.3%까지 높아졌다. 이후 소폭 하락 추세로 이어져 2023년 50.1%로 낮아졌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보편적 의식이 자리를 잡아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도발과 거친 발언이 지속되고 또 코로나19로 전면 봉쇄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비판의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국가성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소득, 지역 및 정치적 성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권(59.9%)과 영남권(54.6%)에서는 높은 반면, 수도권(48.4%)과 충청권(37.0%)에서는 낮은 편이다. 충청권에서 54.2%→37.0%로 대폭(17.2%p)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서는 진보(53.9%) > 중도(50.5%) > 보수(45.3%)의 순으로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의 국가성에 더 찬성한 반면,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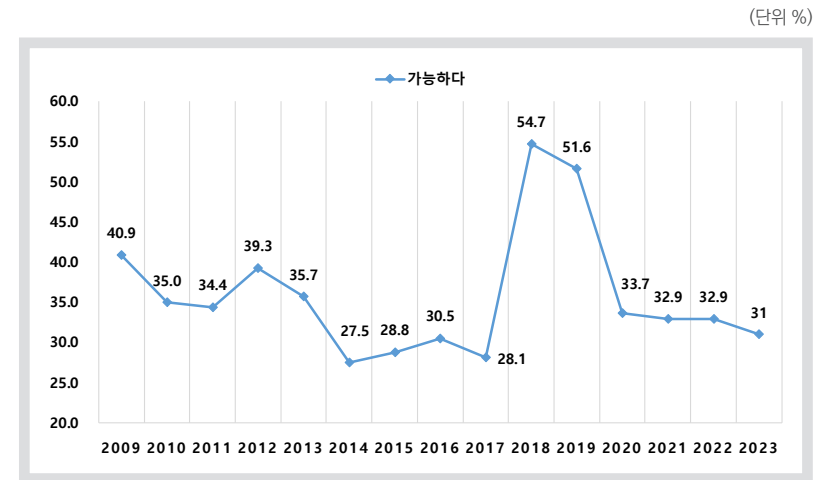
###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달리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

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작년과 똑같은 31.0%를 기록했다. 즉 한국인의 31.0%만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69.0%는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18년 54.7%로 상승한 후 2019년 51.6%를 유지했으나, 2020년에 33.7%로 낮아졌고 이후 4년 동안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1-2-2〉 북한정권과 대화·타협 가능성 여부(2009~2023)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정권신뢰도는 사회계층, 지역, 종교,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지역별 차이

를 보면, 호남(45.8%)이 가장 높고, 제주(37.5%)와 충청(32.5%), 수도권(30.9%)이 중간을 차지한 가운데, 영남(25.6%)과 강원(26.7%)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호남과 충청, 제주에서 하락세가 뚜렷하며, 수도권과 영남, 강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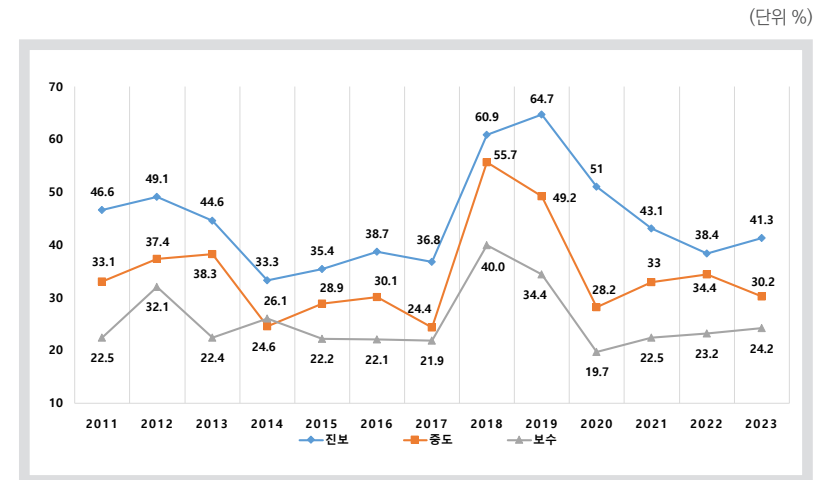
〈표 1-2-2〉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2014~2023)

(단위 %)

연도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도권	23.2	28.1	24.8	24.8	52.4	50.7	28.2	32.1	30.0	30.9
충청권	35.2	28.7	34.9	40.9	68.8	64.1	36.2	32.8	44.4	32.5
호남권	38.7	32.3	32.2	42.3	71.4	61.4	54.3	45.5	53.5	45.8
영남권	26.7	28.2	37.0	21.9	45.4	42.2	35.7	26.4	26.1	25.6
강원	45.7	30.7	43.6	47.4	64.5	62.3	29.0	49.5	25.0	26.7
제주	28.7	35.0	47.5	24.4	64.7	69.6	52.7	58.0	50.4	37.5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적 성향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드러냈다. 조사를 진행한 지난 14년 동안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가 높은 대북신뢰도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이 중도, 그리고 보수는 북한정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인 것이 일관된 특징이었다. 〈그림 1-2-3〉에서 볼 수 있듯이 금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중도가 진보와 보수의 중앙에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가는 것이 관심사인데, 금년에는 보수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을 수 있다. 북한정권 신뢰도와 관련하여 진보와 보수의 인식 격차가 커진 가운데 중도가 보수쪽으로 조금 기울어서 북한인식과 관련하여서는 보수적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3〉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2011~2023)



## 2) 북한정권의 통일 희망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매우 원한다’ 1.7%, ‘다소 원한다’ 20.3%로 22.0%가 ‘원한다’고 응답했고, ‘별로 원하지 않는다’ 48.2%, ‘전혀 원하지 않는다’ 29.9%로 78.1%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인의 다수는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계열 추이를 보면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한다’는 인식이 2018년과 2019년에 40%로 반짝 상승하였고 2020년에 24.6%로 하락한 이후 23.7%→21.5%→22.0%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3)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

북한의 핵무기 집착에 대한 인식을 묻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57.6%, ‘다소 동의한다’ 30.0%로 87.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7.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3.6%) 등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0.8%로 작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87.6%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의 92.5%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2월 이후 북미협상이 중단되고 한반도에서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4.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 1)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위기와 불안은 64.8%로 작년(60.9%)에 비해 소폭(3.9%p) 상승했다. 2년 연속 북한발 안보불안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시위로 정정이 불안했던 2017년에 70.6%로 상승했다가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56.3%로 하락하였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최근 2년 동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계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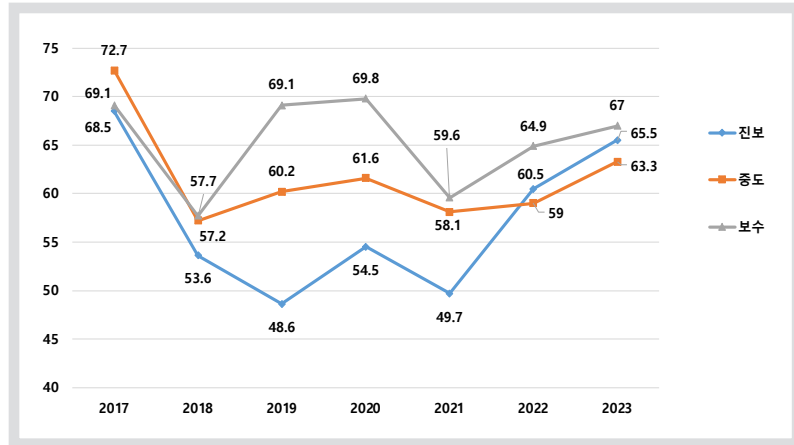
보면 남북관계가 좋았던 2005년에는 43.0%를 기록했고, 천안함 도발로 정정이 불안했던 2011년에는 78.3%로 급등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안보불안은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연령과 소득, 사회계층,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1.4%로 가장 높고 ‘586세대’로 불리는 50대는 61.2%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90.6%)와 강원(75.6%)이 예외적으로 높아 논외로 한다면, 수도권(64.4%)과 영남(64.5%), 호남(63.4%)에서 높고 충청권도 59.1%로 높은 편이다. 또한 흥미롭게도 북한발 안보불안이 현 대통령 직무평가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았고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도발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권교체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보 안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보불안이 높아지면서 연령 및 지역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가장 특이한 부분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잠식되었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 1-2-4>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몇 년 동안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던 이념성향에 따른 안보불안의 차이가 올해에는 매우 좁혀져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북한이 4차, 5차에 걸쳐 연이은 핵실험을 감행하고 연초부터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위기를 고조시켰던 2017년에도 정치성향별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차이가 수렴되었는데 그러한 현상이 2023년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북한발 안보불안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다.

〈그림 1-2-4〉 정치성향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17~2023)

(단위 %)



2)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매우 위협을 느낀다” 31.6%, “다소 위협을 느낀다” 50.9%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82.5%로 높게 나타났다. 작년의 81.2% 및 재작년의 82.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예년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위력을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북한 핵보유 위협을 매우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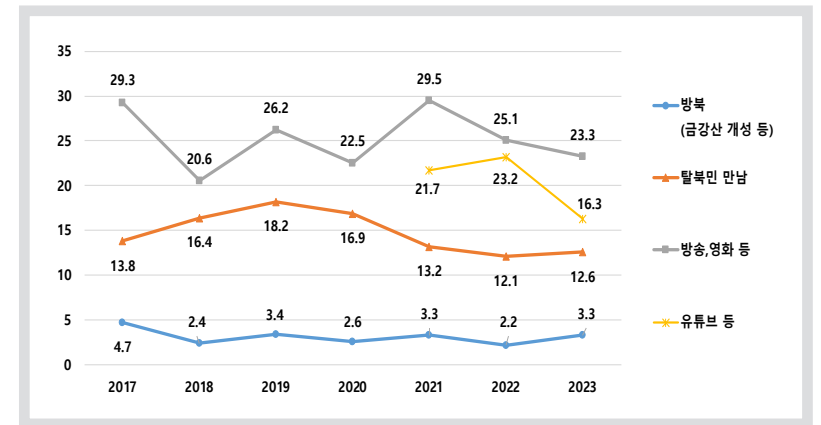
5. 북한 관련 경험, 인지도 및 이질성

1) 북한관련 경험

아래의 〈그림 1-2-5〉에서 볼 수 있듯이 작년과 비교하면 방송과 영화, 소설 등을 통해 북한을 접한 사람이 25.1%→23.3%로 소폭 감소했고 유튜브와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촉은 23.2%→16.3%로 6.9%p 감소했다. 지난 1년 사이에 북한 관련 유튜브 등의 접촉 기회가 감소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현상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북한 관련 온라인 정보에 대한 단속강화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5〉 북한관련 경험 유무, “경험한 적이 있다”(2017~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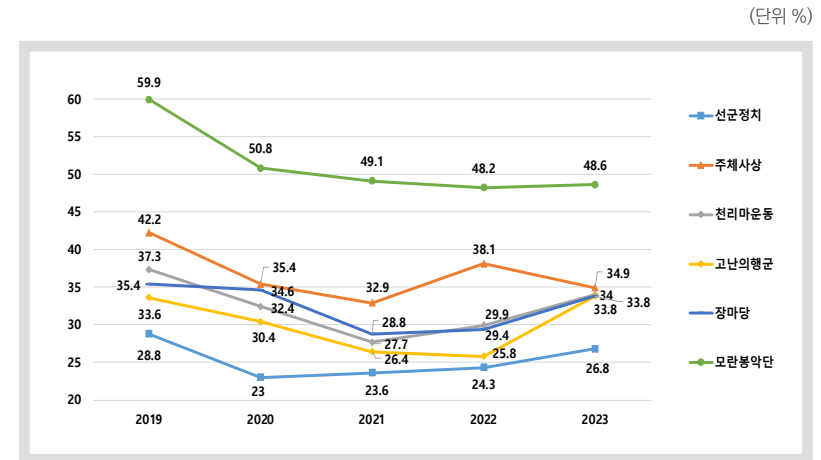
탈북자 접촉 경험은 실제 국내 입국 탈북자 수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내 입국 탈북자수는 2019년 1,047명에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감소했고, 2023년 6월 현재 99명이다.<sup>7)</sup> 탈북자 접촉 경험이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탈북자의 국내 입국자 수가 현격히 감소함으로써 언론 보도는 물론 실제 접촉 기회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북한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등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인지도의 기준은 '잘 안다'와 '조금 안다'를 포함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들어본 적 있다'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모란봉악단에 대한 인지도가 48.6%로 가장 높고, 주체사상(34.9%), 천리마운동(34.0%), 장마당(33.8%), 고난의 행군(33.8%), 선군정치(26.8%)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 인지도는 2018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후 하락하여 2020년 이후 4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6가지 주제에 대해 '매우 잘 안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모란봉악단 10.5%, 주체사상 7.6%, 천리마운동 6.5%, 고난의 행군 6.5%, 장마당 7.9%, 선군정치 3.0%에 불과하여 북한에 관한 지식은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6〉 북한사회 인지도(2019~2023)



## 3) 북한의 인권 상황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 42.8%, ‘다소 심각하다’ 41.1%, ‘보통이다’ 14.8%, ‘별로 심각하지 않다’ 1.3%, ‘전혀 심각하지 않다’ 0.1%로, 국민의 다수인 83.8%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3%에 불과하였다. 지난 2년 동안 각각 80.6%, 81.8%에서 올해 83.8%로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남한의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보인다.

7)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 4) 남북 간 차이

남한주민들은 선거방식(91.6%)과 사회복지(90.3%)에서는 북한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가족중시(52.3%)와 돈을 중시(60.1%)하는 사회가치에 대해서는 남북 간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언어사용(82.5%)와 생활풍습(76.2%)은 중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적으로 남한주민의 대북 이질성 인식은 75.5%로 2011년 91.9%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71.2%→75.5%로 소폭 높아졌는데, 남북 접촉과 교류가 없고 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된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3〉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22~2023)

영역	남한(2022)	남한(2023)	북한(2020)
선거방식	90.1	91.6	97.2
사회복지	90.1	90.3	93.6
언어사용	79.9	82.5	92.7
생활풍습	69.4	76.2	82.5
가족중시	42.8	52.3	69.7
돈중시	55.1	60.1	72.5
평균	71.2	75.5	84.7

북한과 비교하면 북한주민의 대남이질감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표 1-2-3〉에서 보듯이 모든 항목에서 남한주민보다 이질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거방식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이질성을 느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언어와 생활풍습은 물론 가족이나 돈과 같은 탈이념 측면에서도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보다 이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대목이다. 북한주민(탈북민)이 남한사회를 접하면서 언어의 문제와 가족가치, 돈에 대한 관념 등 실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이질감을 더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남북 간 교류와 접촉이 잦아지면 차이와 이질성을 지금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 6. 소결

2023년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안보 불안이 상승하고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불신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경계 의식이 높아지고, 협력의식이 약화됨으로써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60.9%→64.8%로 높아졌고, 87.6%의 국민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불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적대의식과 경계 의식은 13.6%→18.6%, 17.7%→24.0%로 각각 높아졌으며, 협력의식은 47.9%→37.7%로 급감하였다. 그 결과 대북 부정 인식(적대+경계)이 역대 최고 수준인 42.6%로 상승하여 올해 북한 인식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에 있다.

이러한 대북 의식의 악화는 높은 수준의 북한 핵위협과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북한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핵 위협과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은 각각 82.5%, 69.0%로 높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는 인식이 최근 2년 사이에 80.6%→81.8%→83.8%로 상승하였으며, 그 가운데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은 33.3%→36.5%→42.5%로 급상승한 상태이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북한 관련 미디어 접촉이나 인지도 또한 감소세로 이어졌고, 남북 간 이질성 인식은 그만큼 더 높아졌다.

안보불안과 북핵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세대·지역·이념에 따른 인식의 편차는 작년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다. 북핵 위협과 북한 인권상황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 변수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남북한 관계(북한 대상 인식), 북한 정권 신뢰도,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의 국가성 등에 대해서는 연령, 지역, 현 대통령 직무평가, 정치성향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대북 부정 인식(적+경계)이 49.3%로 가장 높은 반면, ‘586세대’로 불리는 50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영남과 호남의 차이는 대체로 일관성을 보여주었으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치성향은 대북인식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대북 협력 대상 인식에서 진보(44.0%) > 중도(36.7%) > 보수(33.3%)의 순으로, 적대 대상에서는 진보(13.0%) < 중도(19.1%) < 보수(23.6%)로, 북한정권과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보(41.3%) > 중도(30.2%) > 보수(24.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롭게도 이러한 대북인식이 현 대통령 직무평가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권교체 효과가 대북 인식의 변화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현재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두 번이나 실패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형성된 대북 부정 인식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발 안보 불안과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대·지역·이념 간 인식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러한 인식 분화의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관광 개방과 교육 및 문화 국제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어, 이러한 변화로 미디어 노출이 진행되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뢰가 상승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 제3장

##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 조용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1. 서론

이 장에서는 2023년 통일의식조사 결과 중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부문 문항의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올해 조사에 포함된 대북정책 인식 문항은 총 여덟 개이며 주제별로는 대북정책 만족도, 북한의 개혁개방과 비핵화에 대한 대북정책의 효용성, 대북정책의 방식, 대북정책의 목표,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의 핵무장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올해는 2022년 3월 선출된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조율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첫 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일의식조사가 매년 7월경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조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온전히 담고 있는 첫 번째 조사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내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지만, 해당 기간 북한의 정치·군사적 행동도 함께 고려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문항의 조사결

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해 조사 이후 이루어진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적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통하여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북한의 경제와 민생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였다<sup>8)</sup>. 또한 2022년 11월에는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통하여 ‘튼튼한 안보’,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 ‘원칙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 준비’ 등을 이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기조로 정리하였다<sup>9)</sup>.

한편 북한은 2018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중거리탄도탄(IRBM), 단거리탄도탄(SRBM)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였다. 또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38 North)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하여 영변 주요 핵 시설에서 강한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으며<sup>10)</sup>, 핵무기 관련 시설의 확장도 계속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11)</sup>. 이와 함께 현 정부 집권 이후 고위급 인사의 간헐적이나 일관된 남한에 대한 적대적 발언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8)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 통일부. (2022.11.21.)

9)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 통일부. (2022.11.21.)

10) “북한 영변 핵시설 강한 활동 포착”, MBC. (2023.04.02.)

11) “북한 영변핵시설 확장 계속...-기하급수적 핵물질 빈말 아닌 듯”, 연합뉴스. (2023.04.29.)



2018년 이후 지속된 북한의 대립적 기조에 더해 남한에서는 2022년 정권교체를 통하여 이전 정권 대비 대북정책의 기조가 강경해지면서 이번 설문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의 기간 남북관계는 전반적으로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심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 속에서 올해 우리 국민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일외식조사의 대북정책 인식 관련 문항은 현재 시점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묻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즉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어떠한 정책의 효용성이 클 것인지, 또 향후 어떠한 정책 방식 및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살펴본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문항별 구체적인 분석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다루어 볼 조사결과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항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정부는 동맹을 통한 안보와 함께 실용적 남북관계를 강조하며 현재까지 이전 정부 대비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립 격화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강경해진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리 국민은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전체 만족도의 등락 여부가 1차 관심사이다. 또한 문항이 시작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북정책 만족도는 보수 정권 집권 시기에는 보수층에서, 진보 정권 집권 시기에는 진보층에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지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추가로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

회의 의견 양극화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인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도 차이의 추세도 확인해본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주요 대북정책의 효용성이 올해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알아본다. 해당 문항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문항은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 사회문화교류’, ‘남북 경제협력’, ‘대북제재’ 정책의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을 묻는다. 두 번째 문항은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 경제협력’, ‘대북 제재’, ‘군사적 억지력 강화’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인도적 대북지원,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유화적 정책들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비핵화 등 향후 변화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정책들에 대한 개인의 기대 효용성 선호 파악에는 유용하다. 이 문항을 통하여 대북제재, 군사적 억지력 강화 등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정책과 대북지원,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유화적 대북정책의 상대 선호 추이에 대해 알아본다.

세 번째로는 개인이 선호하는 대북정책의 방식과 목표를 묻는 문항의 결과를 살펴본다. 대북정책의 방식을 묻는 문항은 ‘한국의 단독 정책 수행’, ‘미국, 일본과의 협력’,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을 통한 안보 강화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제로 일반 대중에게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북정책의 목표를 묻는 문항은 ‘남북통일’, ‘남북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경제공동체 통합’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문항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남북의 완전한 통일인지, 평화를 궁극적 목표로 한 남북 공존인지, 혹은 중간 정도의 통

합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 남북 경제통합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나가사키대학 핵무기 폐기 연구센터(RECNA)는 지난 6월 세계 핵탄두 보유량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이 이미 약 40기 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였다<sup>12)</sup>.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을지 알아본다. 우선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를 묻는 문항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반 비중의 추이를 살펴본다. 나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해 새롭게 추가된 문항인 우리나라의 핵무장 방식에 대해 묻는 문항 결과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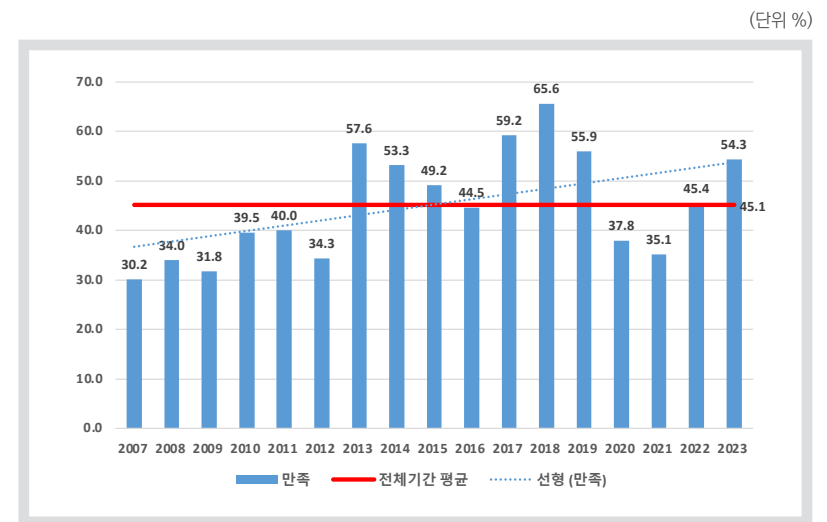
## 2. 대북정책 만족도

우리 국민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대북정책 만족도는 올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OO님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에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합은 54.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8.8%p 상승한 것으로, 2021년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갔으

12) “World’s Nuclear Warheads Data”, RECNA, 2023. (<https://www.recna.nagasaki-u.ac.jp/recna/en-topics/43753>)

며 전체기간 평균인 45.1%보다 9.2%p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만 각각 59.2%, 65.6%, 55.9%의 만족도를 기록하였던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대비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의 추세선을 그려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완만한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 30.2%에 불과하였던 대북정책 만족도는 올해 54.3%로 약 24.1%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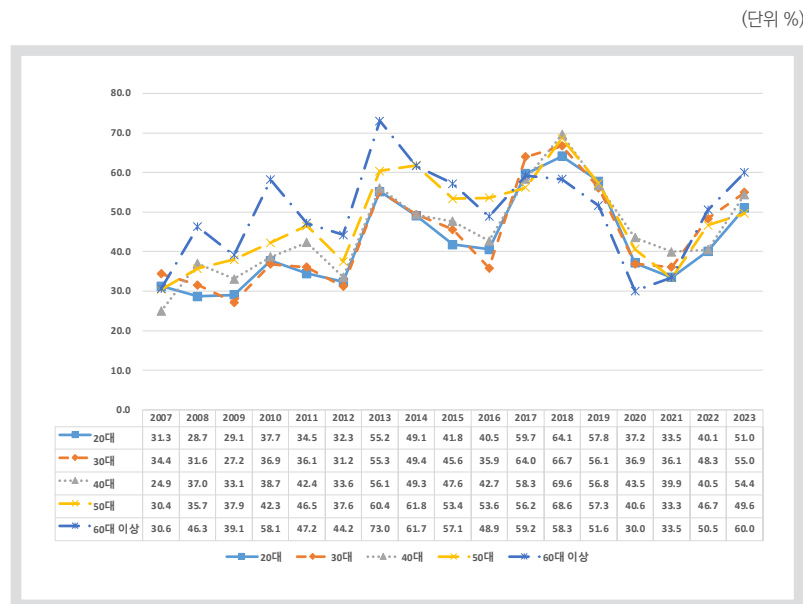
〈그림 1-3-1〉 대북정책 만족도(2007~2023)



다음으로는 대북정책 만족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대, 정치성향, 지역 등의 변인별로 나누어 분석해본다. 우선 연령대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어 시계열 추이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전체적으로 해마다 거듭되는 등락 패턴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난다. 어느 연령대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가장 민

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준편차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각각 11.1, 11.7, 10.8, 10.7, 11.5로 계산되어 30대의 변동 폭이 가장 크고 50대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 순위의 측면에서는 60대 이상 집단의 변동이 눈에 띈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줄곧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반면, 2016년부터 2020년 기간에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가 2022년부터는 다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만 매년 다른 무작위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연령대의 긴 시계열 추이를 해당 집단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1-3-2〉 연령대별 대북정책 만족도(200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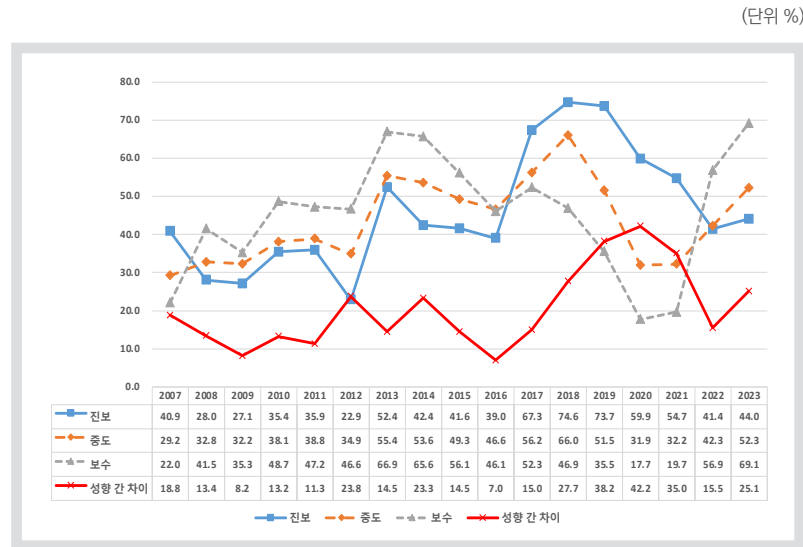
한편 대북정책 만족도의 주관적 정치성향별 추이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관측된다. 결과를 소개하기에 앞서 주관적 정치성향은 설문조사 문항 중 “OO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본인이 판단하는 본인의 정치성향, 즉 주관적 정치성향만을 나타내며 정당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아래 그림은 주관적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도 추이를 보여준다. 우선 올해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모든 정치성향에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대비 상승폭은 보수 12.2%p, 중도 10.0%p, 진보 2.6%p 순으로 보수층에서 만족도가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정치성향별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 정권의 집권시기(2007년~2016년)에는 보수층, 진보 정권의 집권시기(2017년~2022년)에는 진보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도별 정치성향별 절대 만족도의 비교에 더해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사회의 의견 분열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정치성향 간 만족도 차이의 추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성향 간 만족도 차이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0년에는 42.2%p 차이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 시기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그리고 2018년 극적인 대화국면으로의 반전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굵직한 이벤트들이 이어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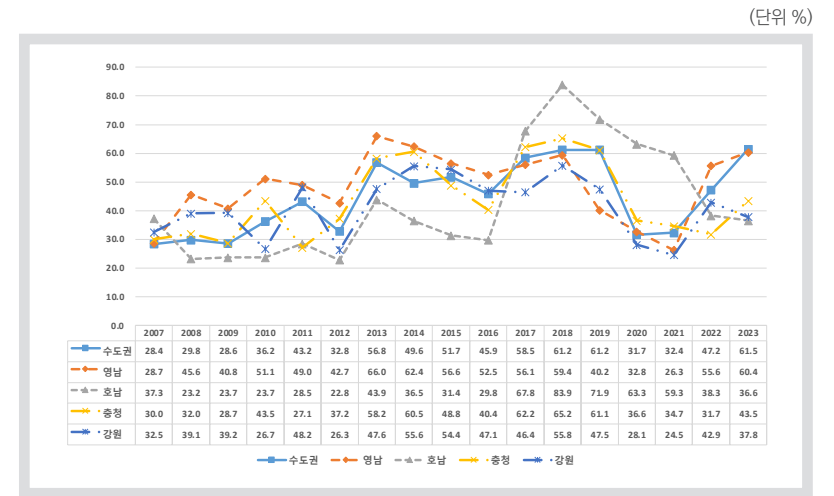
던 시기로 각 정치성향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강화되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에는 모든 정치성향에서 만족도가 상승하였지만 정치성향 간 차이는 다시 반등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3-3〉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도(2007~2023)



마지막으로는 지역별 대북정책 만족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올해 대북정책 만족도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은 상승한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하락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변화폭을 살펴보면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이 각각 14.3%p, 4.8%p, 11.8%p 상승하여 수도권의 만족도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남권과 강원권의 경우 지난해 대비 만족도가 각각 1.7%p, 5.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3-4〉 지역별 대북정책 만족도(2007~2023)



지금까지 다각도로 살펴본 대북정책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대립 구도가 공고화되고 있는 올해 대북정책 만족도는 전 연령대, 정치성향, 지역 집단에서 상승하였다. 둘째, 만족도의 상승 폭은 40대, 보수층, 영남 지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올해 대북정책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정치성향별 만족도의 차이는 지난해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대북정책 효용성

대북정책의 효용성은 개별 대북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비핵화 등 향후 북한의 변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평가로 측정한다.

올해 통일의식조사는 대북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두 가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평가로는 “OO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이 있으며 평가 정책으로는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 사회문화교류’, ‘남북 경제협력’, ‘대북제재’ 등 네 가지의 정책을 선택지로 제시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효용성 평가는 앞선 문항과 같은 방식의 질문이지만 평가 정책으로는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 경제협력’, ‘대북제재’, ‘군사적 억지력 강화’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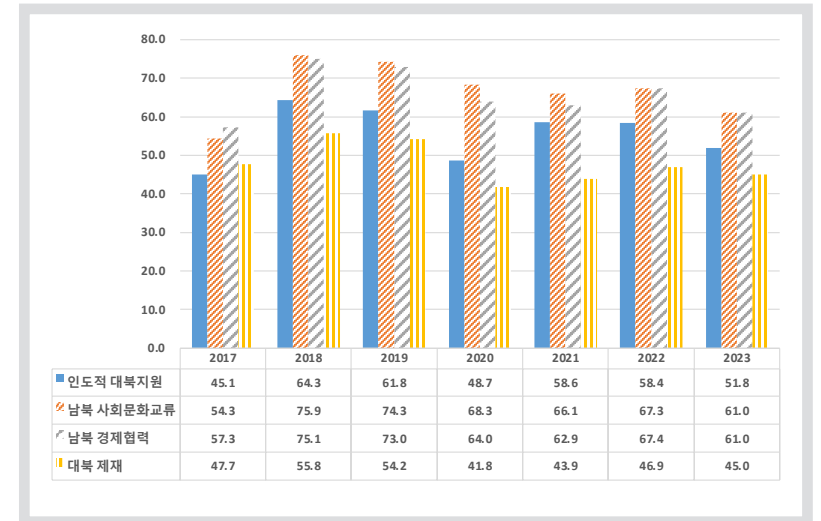
1)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우선 북한의 개혁개방에 각 정책이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경우와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을 살펴보면 올해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이 각각 61.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뒤이어 인도적 대북지원이 51.8%, 대북제재가 45.0%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대비로는 제시된 모든 정책의 효용성 인식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폭은 인도적 대북지원이 6.6%p로 가장 컸고 뒤이어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대북제재가 각각 6.4%p, 6.3%p, 1.9%p 하락하였다. 해당 문항이 조사되기 시작한 2017년 이래 정책별 효용성 인식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효용성이 2018년의 상승 이후 줄곧 점진적인 하락추세에 있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대북제재

의 경우에도 2018년 UN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결의된 이후 제재에 대한 효용성 인식은 2020년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8년에 기록한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3-5〉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북한 개혁개방(201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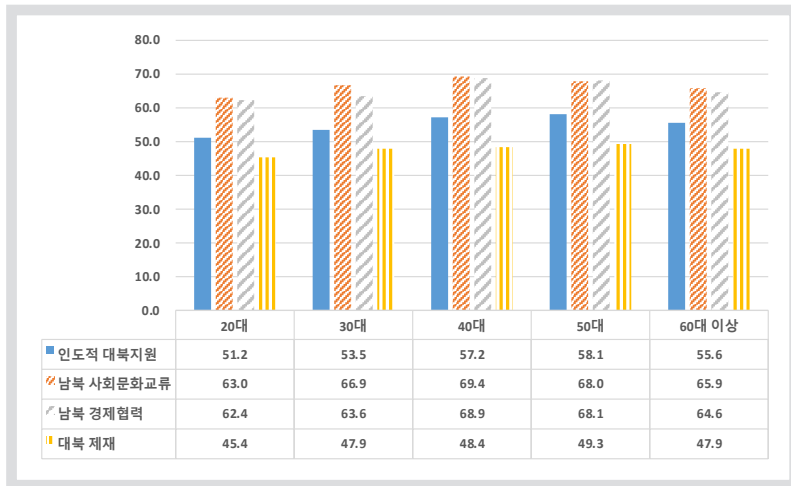
(단위 %)



설문조사 전체기간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각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아래 그림의 비율은 이전과 같이 각 정책에 대하여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과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 즉 각 정책에 대하여 최소한 약간의 효용성이 있다고 평가한 비율을 보여준다. 연령대별 평균 효용성 인식 비율은 20대가 55.5%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30대가 58.0%, 60대 이상이 58.5%, 50대가 60.9%, 40대가 61.0%로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 역 U자형 패턴을 보인다. 이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2,30대의 부정적 통일이식이 대북정책에 대한 효용성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3-6〉 연령대별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북한 개혁개방(2017~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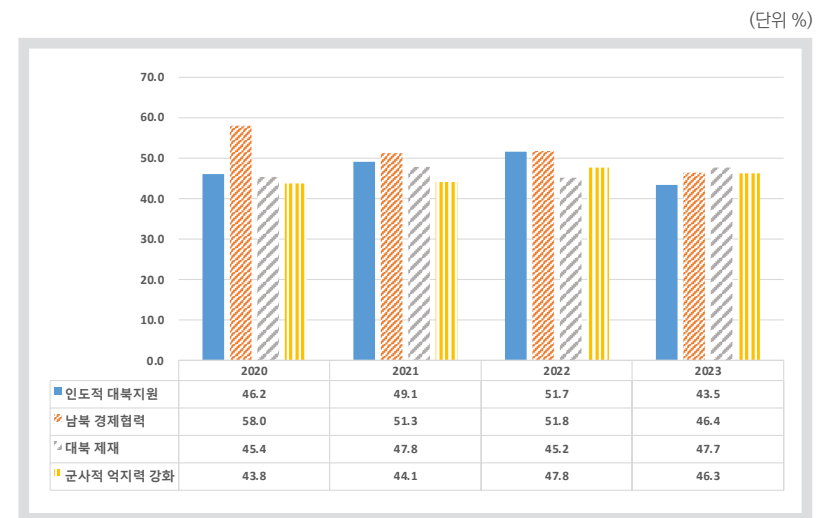


## 2)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다음으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결과를 확인해본다. 아래 그림은 이전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각 정책의 도움 정도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과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효용성 인식 비율의 추이이다. 올해 가장 높은 효용성 인식을 기록한 정책은 47.7%가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대북제재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제협력이 46.4%, 군사적 억지력 강화가 46.3%로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하였고 가장 낮은 효용성 인식을 기록한 정책은 인도적 대북지원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대비로는 2.5%p 상승한 대북제재를 제외한 모든 정책의 효용성 인식이 하락하였다. 하락 폭은 인도적 대북지원이 8.2%p로 가장 컸고, 경제협력과 군사적 억지력 강화는 각각 5.4%p, 1.5%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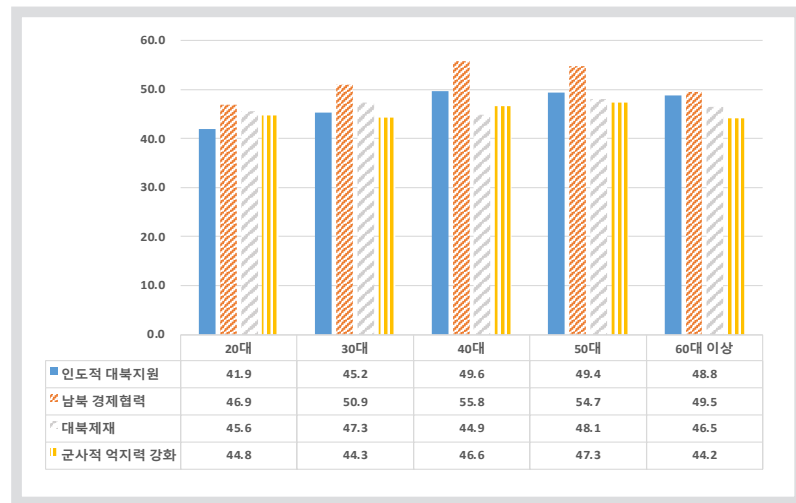
〈그림 1-3-7〉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북한의 비핵화(2020~2023)  
(단위 %)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각 정책의 효용성 인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각 정책에 대하여 북한의 비핵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거나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의 경우가 평균 44.8%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의 경우와 같이 전 연령

대 중 가장 낮은 평균 효용성 인식을 보였다. 또 30대가 평균 46.9%, 60대 이상이 47.3%, 40대가 49.2%, 50대가 49.9%로 50대의 평균 효용성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응답률을 정책별로 보면 우선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효용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다만 20대와 30대의 경우 인도적 대북지원 보다는 대북제재에 대한 효용성을 높게 인식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대북제재 보다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효용성을 높게 인식하여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3-8〉연령대별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북한의 비핵화(2020~2023)  
(단위 %)



대북정책 효용성에 대한 인식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2022년 대비 거의 모든 정책의 효용성 인식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대북제재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효용성이 2022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연령대별 효용성 인식에서는 20대와 30대의 정책 효용성 인식이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 20대와 30대 집단의 경우 40대 이상 집단과는 달리 인도적 대북지원 대비 대북제재에 대한 효용성 인식이 높아 북핵에 대하여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효용성 인식은 전체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생략하기로 한다.

#### 4. 대북정책의 방식 및 목표

##### 1) 대북정책의 방식

현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본도 이에 화답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3년 3월과 5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러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은 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 온 대북정책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적대적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사 문제 등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에도 추진하였던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정책적 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올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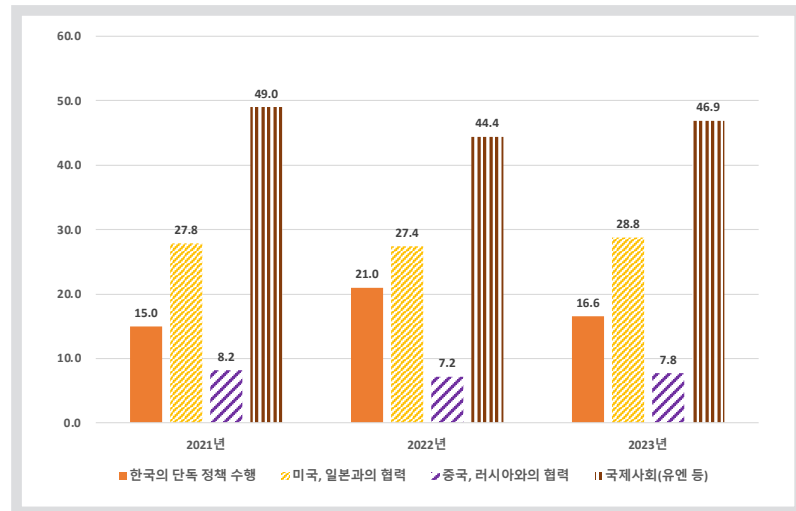
국제협력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은 2021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 대북정책 방식에 대한 문항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문항에 ‘한국의 단독 정책 수행’, ‘미국, 일본과의 협력’,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국제사회(유엔 등 국제기구, 국제 NGO 등)와의 협력’을 제시한다.

올해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효과적 대북정책의 방식으로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46.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이 28.8%, 한국의 단독 정책 수행이 16.6%,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7.8% 등이었다. 지난해 대비로는 한국의 단독 정책 수행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0%에서 16.6%로 4.4%p 하락하여 제시된 선택지 중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미국, 일본과의 협력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4%에서 28.8%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4%에서 46.9%로 상승하였다.

〈그림 1-3-9〉 효과적 대북정책의 방식(2021~2023)

(단위 %)



## 2) 대북정책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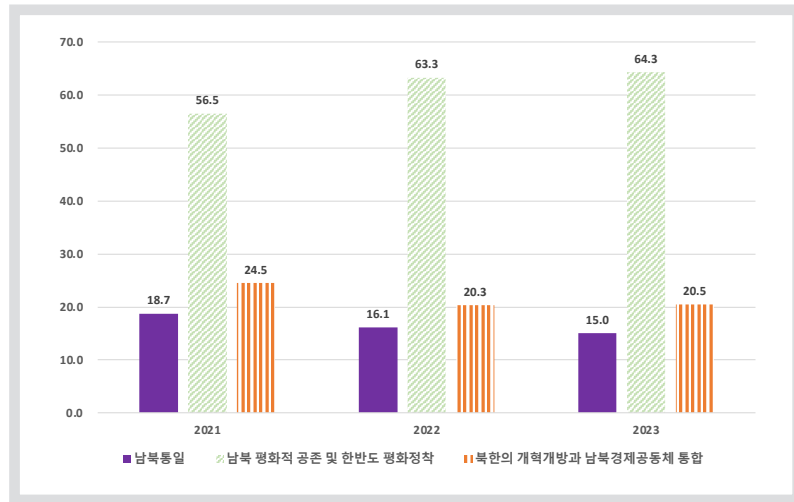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의 장기적 균형상태에 대한 문항의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통일의식조사는 2021년부터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의 목표로 다음 중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개인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하여 묻고 있다. 선택지로는 ‘남북 통일’, ‘남북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경제공동체 통합’을 제시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올해 64.3%라는 압도적 비중의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목표로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은 직전 2022년 대비 1.0%p 상승한 결과로 세 개의 선택지 중 가장 높은 상승을 하였다. 반면 남북통일을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 목표로 삼아야한다는 응답은 15.0%로 지난해 16.1% 대비 1.1%p 하락하여 최근 완연하게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통일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개혁개방에 이은 남북 간 경제공동체로의 통합을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목표로 인식하는 비율은 20.5%로 지난해 20.4% 대비 0.1%p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올해 남북 간의 통일, 혹은 통합의 측면보다는 평화만 유지된다면 현 체제하에서 남북이 공존하는 방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10> 대북정책의 목표(2021~2023)

(단위 %)



## 5.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핵무기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소량이나마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 등 핵무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궁극적 대응책은 동맹인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소량이나마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실제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투발 수단까지 어느 정도 완성시켰다고 가정한다면 유사시 미국이 자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속한 핵우산을 확실하게 제공할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을지 설문조사의 두 개 문항 결과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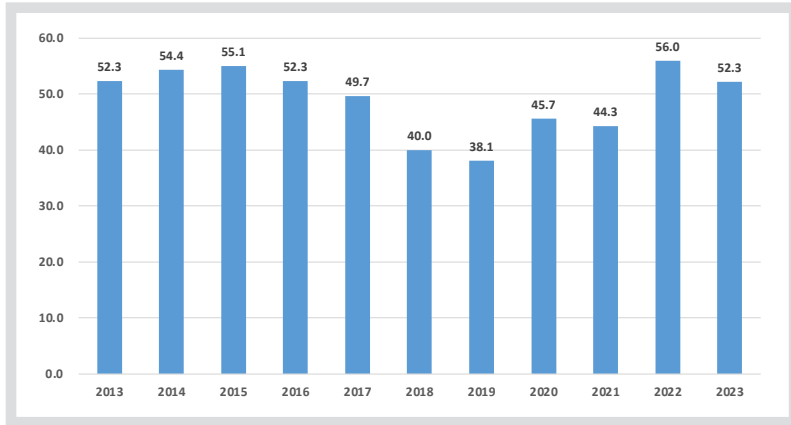
### 1)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 의견

첫 번째 살펴볼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라는 문항이며 선택지로는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보통이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가 제시되었다. 이 문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2013년부터 포함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등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한 응답자 비율의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우선 올해에는 52.3%의 응답자가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56.0% 대비 3.7%p 하락한 수치이다. 찬성 응답률의 시계열적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상승을 거듭하여 2015년에 55.1%의 응답자가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해당 기간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음에도 핵무장 찬성 비율은 하락하여 2019년 38.1%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물론 2018년 초부터 남북 간 급격한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 북한의 5,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상당 수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도발을 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하락하였다는 점은 북한의 핵실험 및 군사 위협이 핵무기 보유 찬성 의견에 절대적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1-3-11〉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 추이(2013~2023)

(단위 %)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의 변인을 선택하여 분석해본다. 먼저 조사 전체기간 주관적 정치성향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은 보수 55.8%, 진보 48.8%, 중도 46.3%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비율은 진보 23.1%, 중도 19.2%, 보수 17.6% 순이었다. 이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찬성과 반대 비율의 정치성향별 순위가 대칭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즉, 반대의견은 진보, 중도, 보수로 나타나지만 찬성의견의 경우는 보수, 진보, 중도이라는 점이다. 이는 핵무기 보유 찬성 의견은 진보와 보수의 정치성향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 보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성향에 대한 주관이 뚜렷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그림 1-3-12〉 정치성향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2013~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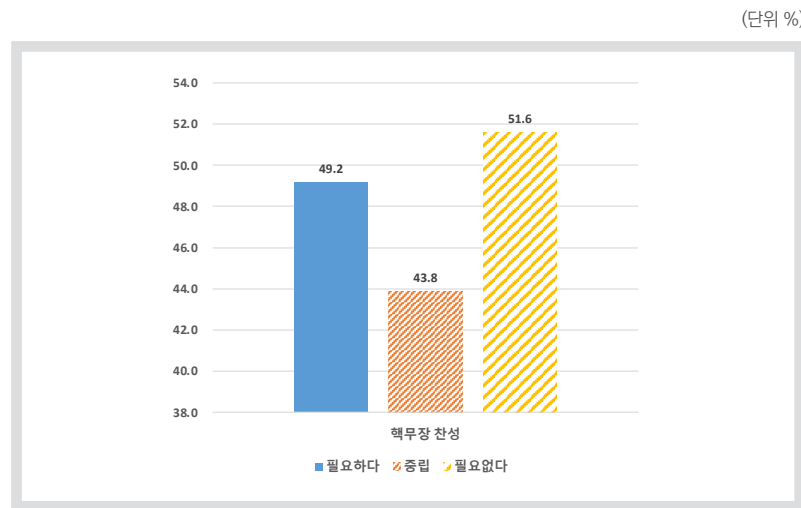


추가로 핵무기 보유 의견이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시급성 등 통일의 의식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통일의 필요성은 “OO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또 통일의 시급성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OO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라는 문항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등의 선택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먼저 통일의 필요성 응답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을 살

펴보면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등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51.6%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여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통일이 약간 필요하다’ 등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49.2%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여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반반/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로 이 중 43.8%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3-13〉 통일의 필요성 응답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2013~2023)



통일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별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통일의 시급성에 대해 ‘현재대로가 좋다’, 즉 통일에 사실상 반대하는 집단의 핵무기 찬성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다. 다음

으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 즉 통일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50.1%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여 두 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등 통일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집단 중에서는 각각 48.2%, 48.7%만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3-14〉 통일에 대한 견해 응답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2013~2023)



## 2) 핵무장 방식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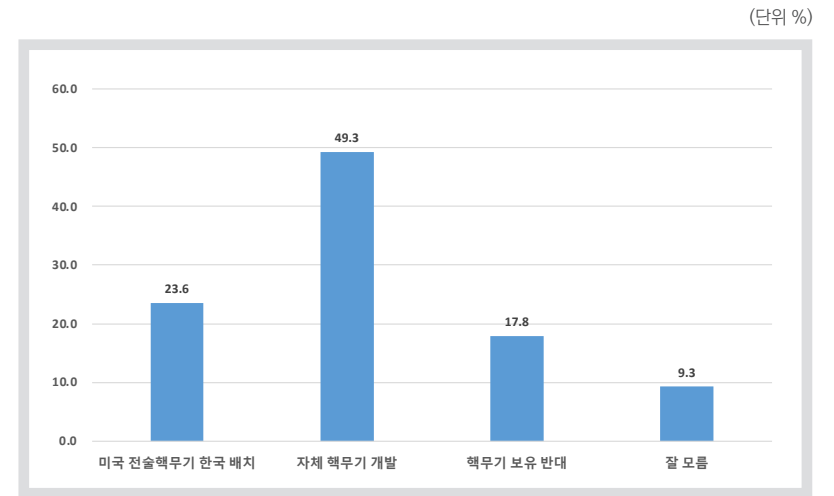
북한이 이미 소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인으로 공식 발효된 한미동

맹은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이에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기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 문항에 더해 구체적인 핵무장 방식에 대하여 묻는 문항을 신규 포함하였다. 해당 문항은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선택지로는 ‘미국 전술 핵무기 한국 배치’, ‘자체 핵무기 개발’, ‘핵무기 보유 반대’, ‘잘 모름’ 등을 제시한다. 이 문항은 ‘핵무기 보유 반대’ 선택지를 포함하여 핵무장 찬반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는 동시에 핵무장에 찬성하는 경우 ‘미국 전술 핵무기 배치’와 ‘자체 핵무기 개발’로 핵무장 방식을 세분화하여 묻고 있어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라는 약속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해볼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선택지는 ‘자체 핵무기 개발’이 49.3%를 기록하여 절반에 근접하는 응답자들이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 전술 핵무기 배치’가 23.6%, ‘핵무기 보유 반대’가 17.8%, ‘잘 모름’이 9.3% 순이었다.

우선 이전 문항인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반 의견과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핵무장에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압도적 비중인 76.4%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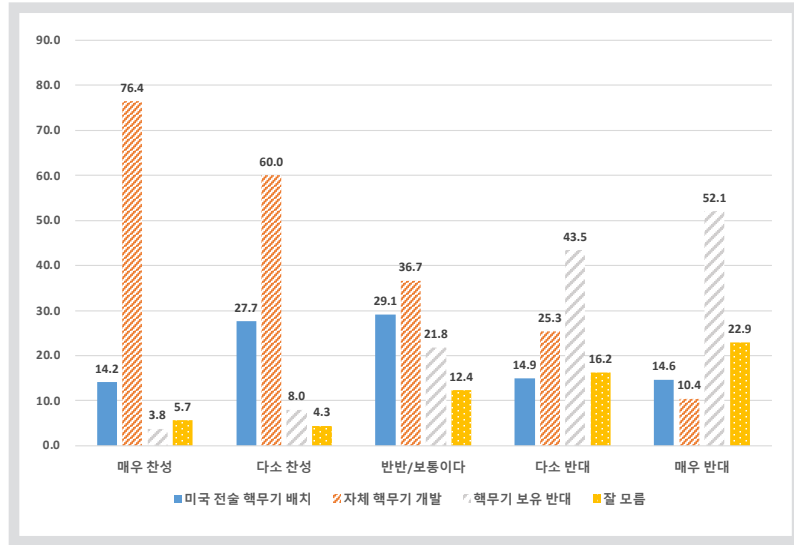
〈그림 1-3-15〉 핵무장 방식에 대한 의견(2023)



핵무기 보유에 ‘다소 찬성’ 한다는 응답의 경우에도 ‘자체 핵무기 개발’ 응답이 60.0%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집단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가장 선호하는 핵무장 방식으로 선택하였다. 다만 핵무기 보유에 ‘다소 찬성’하는 응답자의 경우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27.7%를 기록하여 ‘매우 찬성’ 응답자의 14.2% 대비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한편 미국의 전술 핵무기 배치에 대한 선호의 경우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반반/보통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층에서 29.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1-3-16〉 핵무장 찬반 의견별 핵무장 방식에 대한 의견(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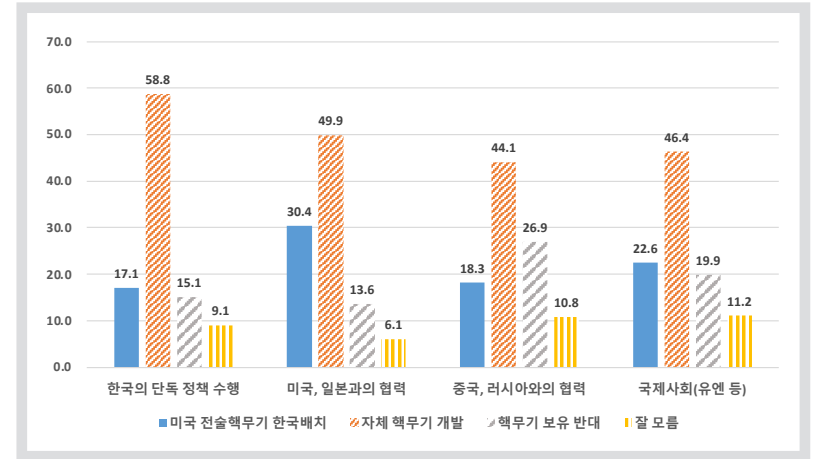
(단위 %)



다음으로는 앞서 다루었던 대북정책 방식에 대한 의견별 핵무장 방식 의견을 살펴본다. 아래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선호 응답이 모든 대북정책 방식 집단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단독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집단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응답률이 58.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안보동맹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선택한 집단에서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이 여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림 1-3-17〉 선호하는 대북정책 방식별 핵무장 방식에 대한 의견(2023)

(단위 %)



지금까지 소개한 한국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핵무장에 대하여 찬성하는 응답은 지난해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절반을 넘기고 있다. 둘째, 핵무장에 찬성하는 집단에서 가장 선호하는 핵무장 방식은 미국의 전술핵 배치보다는 자체 핵무기 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일본 등 안보동맹을 적합한 대북정책 방식으로 선호하는 층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6. 소결

이 장에서는 2023년 통일의식조사 결과 중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관련 주요 문항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3년 7월 시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본 궤도에 올라선 이후 실시된 첫 조사로 이전 정부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온전히 반영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북정책 인식에 대한 올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올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 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전체기간 평균 만족도도 상회하고 있으며 주관적 정치성향별, 연령대별, 지역별 전 집단에서 모두 상승을 기록하였다.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에 그동안 큰 영향을 미쳐왔던 개인의 주관적 정치성향별로도 모든 집단에서 만족도가 상승하였다는 점은 2021년의 최저치가 상당히 낮았던 것에 대한 기저 효과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치성향별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간 만족도의 차이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 사회문화교류, 남북 경제협력, 대북제재, 군사적 억지력 강화 등 주요 대북정책에 대한 효용성 인식은 모두 지난해 대비 하락하여 북한 문제해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무력감을 반영하였다. 다만 대북제재에 대한 효용성 인식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주요 대북정책에 대한 20대와 30대 등 젊은 연령층의 효용성인식

이 여타 연령대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의 경우 여타 연령층 대비 대북제재 등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효용성이 인도적 대북지원 등 유화적 대북정책에 대한 효용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올바른 대북정책의 목표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목표에 대한 응답비율은 ‘남북통일’,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 통합’ 등 여타 선택지 대비 압도적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작년 대비로도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 대북정책의 방식으로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률 역시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대북정책의 목표가 ‘남북통일’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대비 하락하여 2문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2021년 이후 줄곧 하락추세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의견 비율은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하였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유지되었던 낮은 찬성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핵무기 보유 찬성 여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의 도발 영향보다는 정치성향 및 통일에 대한 개인의 뚜렷한 주관 보유 여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진보, 혹은 보수적 정치성향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가 중도라고 응답한 집단 대비 높은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을 보였다. 통일에 대한 인식별로 살펴봐도 통일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없다’ 등 주관이 뚜렷한 집단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혹은 ‘현재대로가 좋다’ 등 통일의 시급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가진 집단에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응

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 간, 통일 찬반 집단 간 서로 다른 논리체계를 통하여 핵무기 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예컨대 통일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핵무기 보유를 통하여 북한과 동등한 전략적 선택지를 갖고 있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통일이 필요없고, 현재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북한이 소량이나마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여야만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추후 보다 엄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구체적 방식으로는 자체 핵무기 개발이 가장 선호되었다.

종합하면, 올해 우리 국민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다소 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일의 관점에서는 부정적 변화도 포착되었다. 대북정책 만족도에서는 정치성향 간 인식차이가 더욱 벌어졌고,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과 같은 유화적 성격의 정책에 대한 효용성 인식은 하락한 반면, 대북제재 등 강경한 정책에 대한 효용성은 소폭이나마 상승하였다. 또한 대북정책 목표에 있어서도 남북통일보다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 제4장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 조현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1. 서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약 3만 4,000여 명이다. 2007년과 2011년 사이에는 매년 2,000~3,000명 수준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1,300명대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그 수가 229명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63명, 2022년에는 67명이 입국했으며, 올해 2023년 상반기(6월까지)에는 9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였다.<sup>13)</sup>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한국인이 느끼는 친근감이나 거리감은 그에 발맞춰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통일외식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한국인들이 느끼는 친근감은 조사를 시행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3)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 (2023년 9월 20일 접속).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탈북민에 대해 한국인들이 갖는 인식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은 올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크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도, 탈북민 지원정책 추가지원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올해 통일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지원정책 확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승하였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친근감, 수용도, 지원정책 증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문화사회적 요인,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치적 이념 성향 등 다양한 요소들이 탐구되어왔다. 본 장은 2023년 통일외식조사의 다른 영역(통일외식, 대북 인식 등)들에서 나타났던 주요 변화들과 함께 올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2023년 통일외식조사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들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증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감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증대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또한, 세대, 정치 성향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에 따라서도 특정한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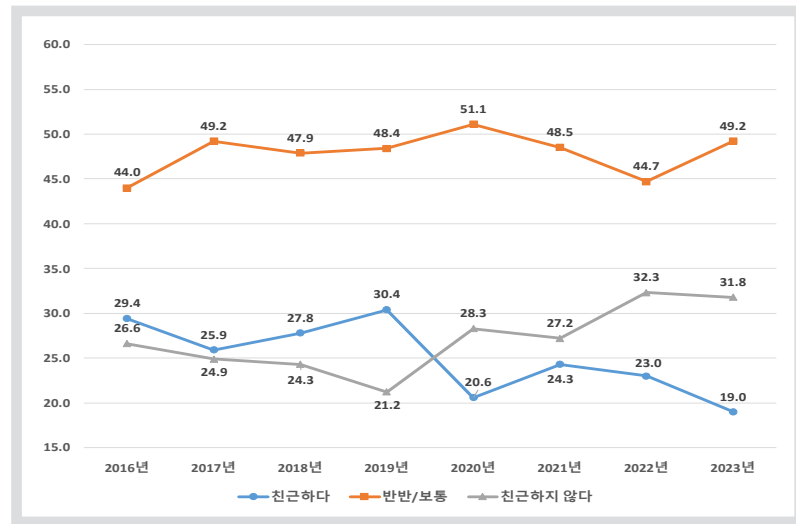
##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친근감, 수용성, 지원정책 지지도

###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통일외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조사해오고 있다. 2007년과 2015년 사이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와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두 가지 선택지로 조사가 이뤄졌으나, 2016년부터는 ‘반반/보통이다’라는 선택지가 추가되었다.

〈그림 1-4-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2016~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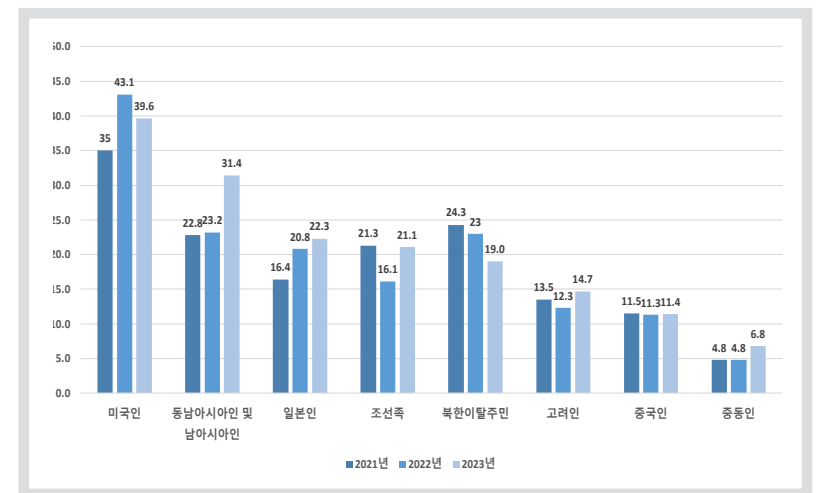
2016년 이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는 가장 낮은 수준인 19%로 하락하였다. 이는 지난해

대비 4%p 감소한 수치이다. ‘친근하지 않다’는 의견은 31.8%로 지난해 (32.3%)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반반/보통이다’는 의견은 49.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이주민과의 친근감과 비교해 보면, 미국인(39.6%) > 동남아시아인 및 남아시아인(31.4%) > 일본인(22.3%) > 조선족(21.1%) > 북한이탈주민(19%) > 고려인(14.7%) > 중국인(11.4%) > 중동인(6.8%) 순서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동남아시아인 및 남아시아인에 대한 친근감이 모두 23%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한 반면 동남아시아인 및 남아시아인에 대한 친근감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8.2%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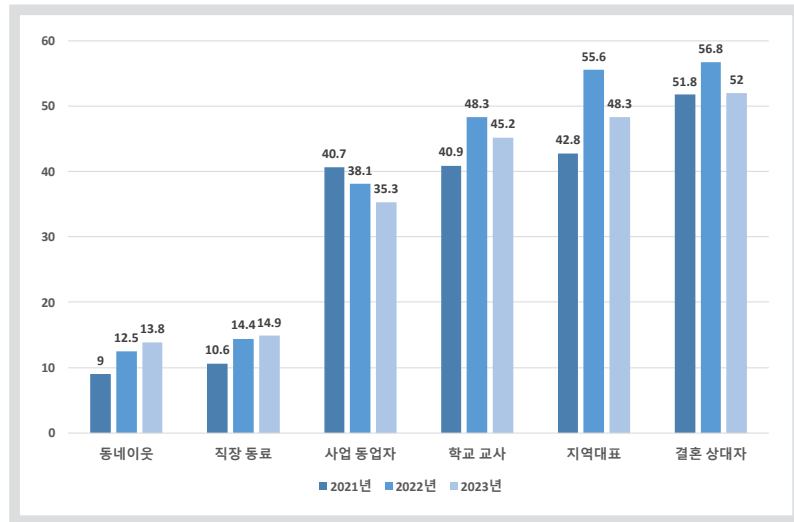
〈그림 1-4-2〉 한국거주이주민에 대한 친근감(2021~2023)

(단위 %)



〈그림 1-4-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에 따른 거리감 정도(2021~2023)

(단위 %)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보면, 관계 맺기를 가장 꺼려하는 유형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결혼 상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대자(52%) > 지역대표(48.3%) > 학교 교사(45.2%) > 사업 동업자(35.3%) > 직장 동료(14.9%) > 동네 이웃(13.8%) 순서로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처럼 가장 개인적 친밀감을 수반하는 관계에 큰 거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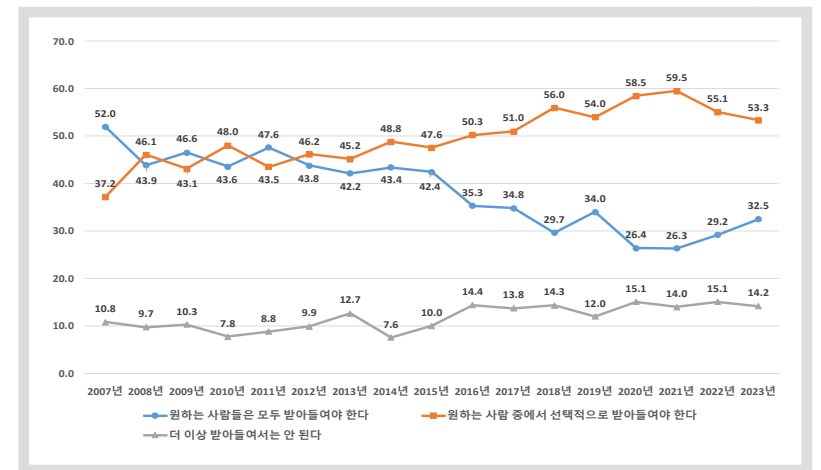
## 2) 북한이탈주민 수용도

북한이탈주민 중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최근 2년 동안 상승하여 올해 32.5%를 기록 (2021년 26.3%, 2022년

29.2%) 하였다.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2021년 (59.5%) 이후 감소추세로 올해 53.3%를 기록했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올해 14.2%로 202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2020년 15.1%, 2021년 14.0%, 2022년 15.1%) 하였다.

〈그림 1-4-4〉 북한이탈주민 수용도(2007~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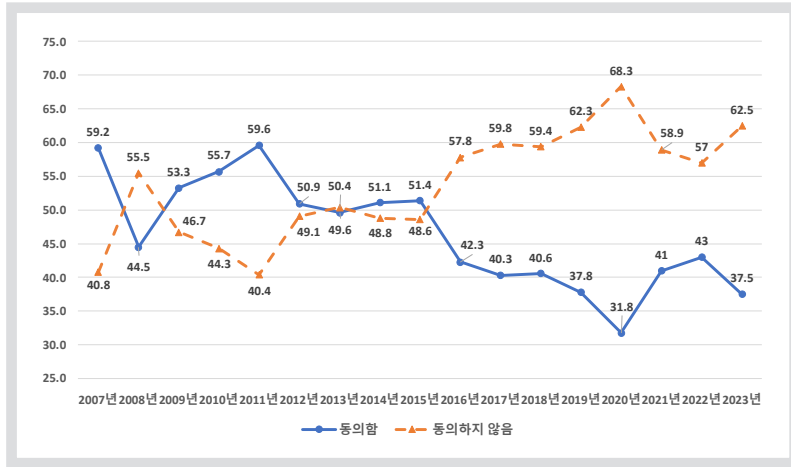


## 3) 북한이탈주민 지원 증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5.5%p 상승하여 올해는 62.5%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으로 68.3%였다). 반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전년 (43%)에 비해 5.5%p 감소하여 37.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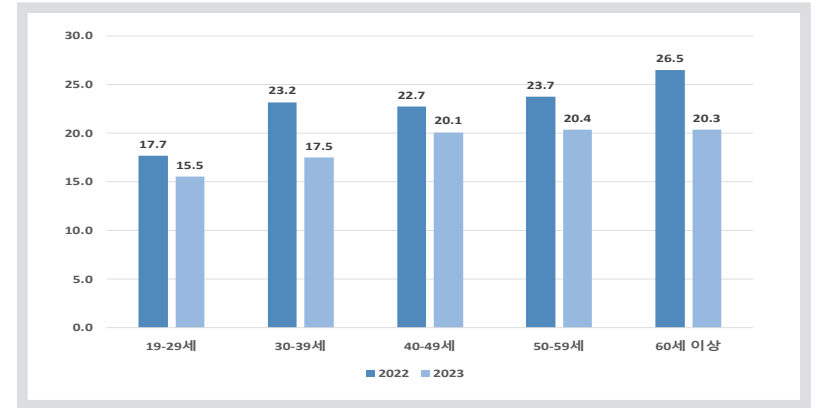
〈그림 1-4-5〉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추가지원 여부(2007~2023)

(단위 %)



〈그림 1-4-6〉 세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2022~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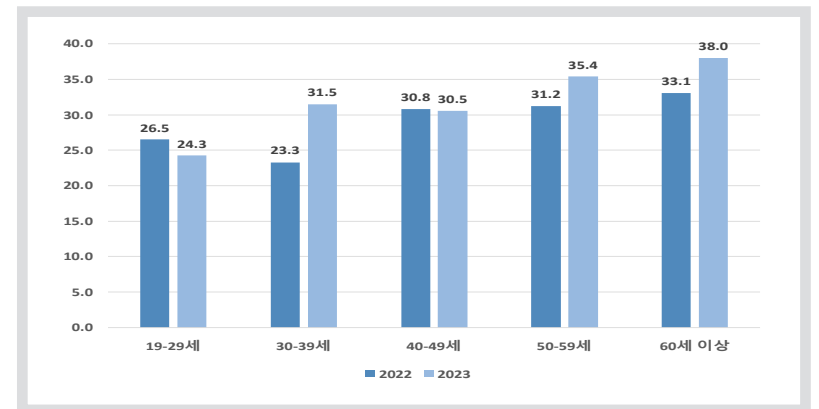
(단위 %)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에서도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20대에서 가장 낮았다. 19-29세 (24.3%), 30-39세 (31.5%), 40-49세 (30.5%), 50-59세 (35.4%), 60세 이상 (38.0%).

〈그림 1-4-7〉 세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2022~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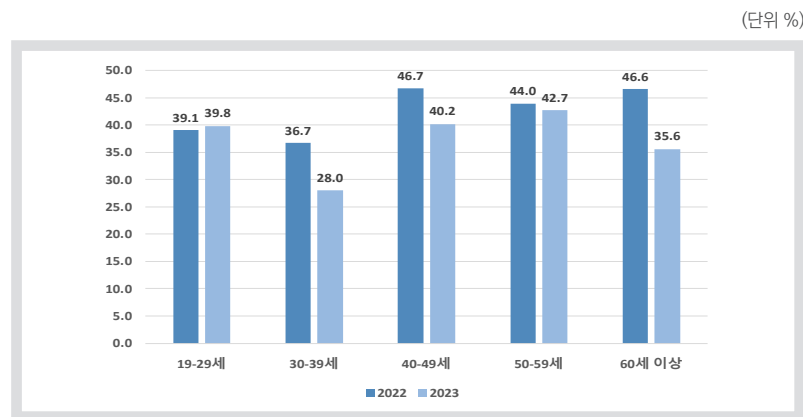


### 3. 세대 및 정치적 성향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세대와 정치 성향별로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세대부터 살펴보자면,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도가 높고 추가지원 여부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올해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는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9-29세 (15.5%), 30-39세 (17.5%), 40-49세 (20.1%), 50-59세 (20.4%), 60세 이상 (20.3%).

북한이탈주민 지원증대 여부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의 경우 지원증대에 동의하는 비율이 20대와 (39.1%)와 30대 (36.7%)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반면 40-60대는 45% 내외의 찬성률을 보였다. 2023년 결과를 보면 대체로 젊을수록 추가지원 여부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20대 39.8%, 30대 28%, 40대 40.2%, 50대 42.7%), 60세 이상에서 크게 감소하여 35.6%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계속해서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1-4-8〉 세대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추가지원 여부(2022~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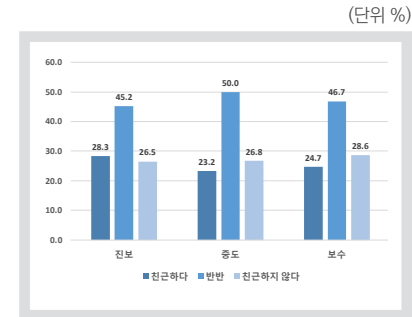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특정한 경향성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투영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춰보았을 때,<sup>14)</sup> 북한에 보다 유화적인

14) 윤인진, 송영호, 「북한이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 『재외한인연구』 제30권 (2013), 7-40;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외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22권 1호 (2014), 167-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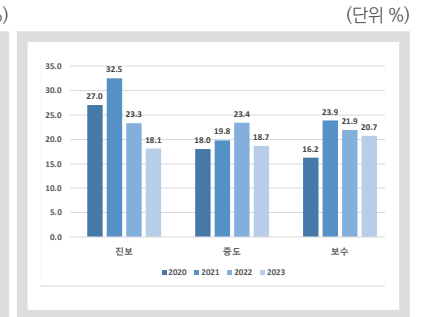
태도를 보이는 진보 성향의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2007년부터 (친근감에 대한 문항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통합된 자료를 보면, 진보 성향의 응답자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도, 추가지원 증대 여부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9〉 정치 성향별 친근감 (201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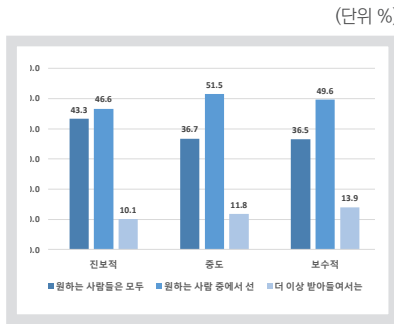


〈그림 1-4-10〉 정치 성향별 '친근하다'고 느끼는 정도 (202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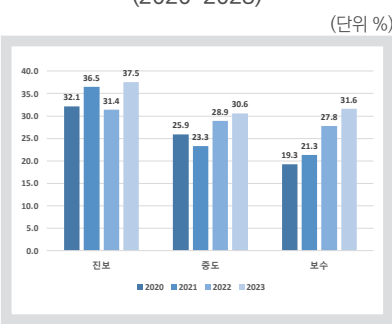


이렇게 진보적 성향의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향은 최근 (202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친근감에 있어서는 올해의 경우, 보수 성향의 응답자 (20.7%)가 진보 성향의 사람 (18.1%)보다 다소 높은 친근감을 보였다. 올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혹은 어떠한 구체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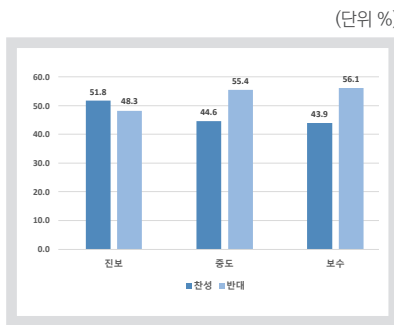
〈그림 1-4-11〉 정치 성향별 수용도 (200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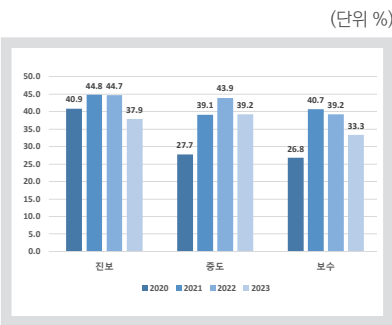
〈그림 1-4-12〉 정치 성향별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 (2020~2023)



〈그림 1-4-13〉 정치 성향별 지원정책 추가지원 여부(2007~2023)



〈그림 1-4-14〉 정치 성향별 추가지원 여부에 동의하는 비율(2020~2023)



이처럼 올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탈북민 추가 지원 여부에 찬성하는 비율이 하락하였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정치 성향과 세대가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진보적 성향의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도가 높고, 추가지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하락하고, 추가지원 확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하였지만, 수용도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상승하였다. 올해의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는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한 연구는 북한에 대한 인식, 문화사회적 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치성향 등으로 요인을 분류하였다.<sup>15)</sup>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와 2023년 통일의식조사에서 일어난 주요한 변화들을 통해 올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크게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북한에 대한 인식

올해 통일의식조사에서 주요하게 일어났던 변화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승한 점이다. 2023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

15) 정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제30권 1호 (2019), 155-182.

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15.6%에서 12.5%로 전년도에 비해 3.1%p 감소했으며,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47.5%에서 37.7%로 9.8%p 감소하였다. 북한을 경계 혹은 위협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각각 약 5%p 정도 증가하였다 (경계: 18.3% → 23.7%, 적: 13.3% → 18.7%).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보면,<sup>16)</sup>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했을 수 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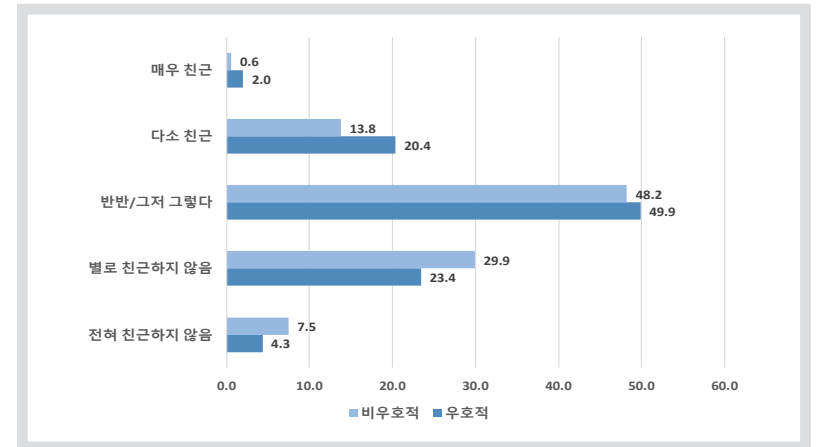
실제로, 2023년 통일외식조사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교차분석해보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비우호적일수록 (경계, 위협, 선의의 경쟁대상으로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을 우호적으로 (지원 혹은 협력대상으로 인식) 인식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6) 윤인진, 송영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외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17) 정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결정요인」

<그림 1-4-15> 북한이탈주민 친근감과 대북인식 교차분석(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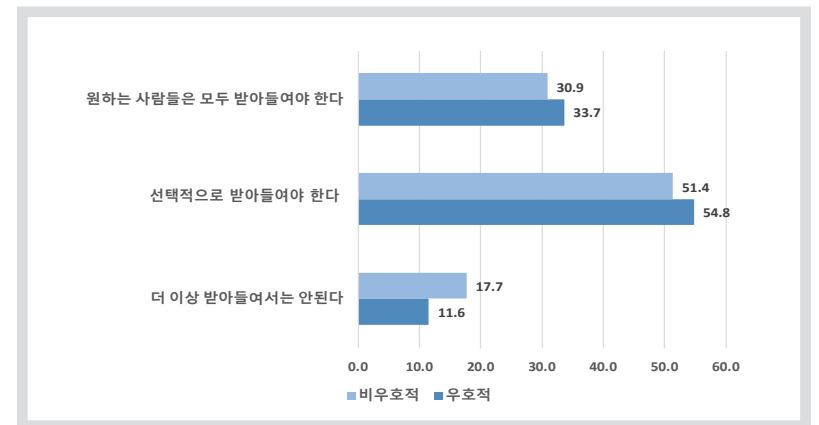
(단위 %)



Pearson chi2(4) = 21.5098 Pr = 0.000

<그림 1-4-16>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대북인식 교차분석(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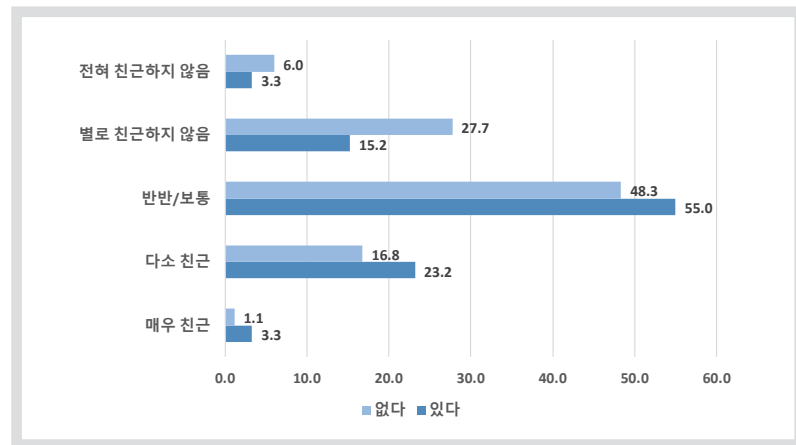
Pearson chi2(2) = 9.1567 Pr = 0.010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을 비우호적으로 인식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감소하는 반면, 북한을 우호적으로 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긍정적인 것을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는 ‘북한에 대한 경험 정도’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을수록,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sup>18)</sup> 2023년 통일외식조사를 활용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림 1-4-17〉 북한이탈주민 친근감과 만남 유무 교차분석(2023)

(단위 %)



Pearson chi2(4) = 18.2190 Pr = 0.001

18) 권수현, 송영훈. 「피를 나눈 형제, 이웃보다 못한 친척?」 『OUGHTOPIA』 30권 2호 (2015), 123-160.

## 2) 통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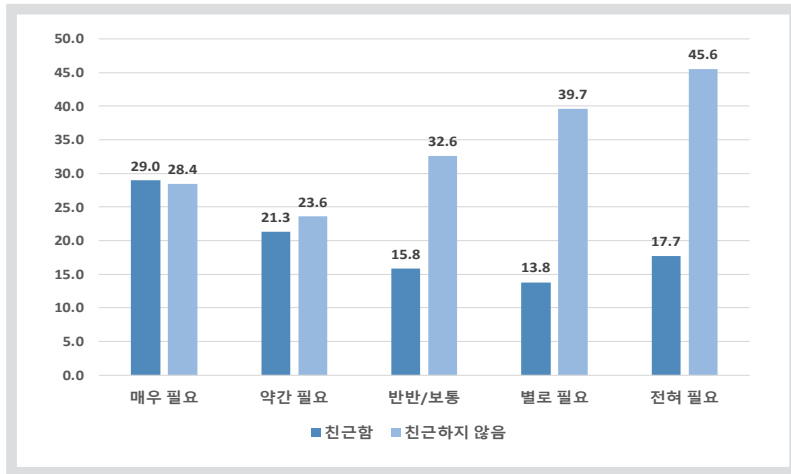
2023년 통일외식조사에서 있었던 또 다른 주요한 변화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아졌다는 점이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9.8%로 지난해 26.1% 대비 3%p 정도 상승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은 43.8%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남북한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의견이 28.2%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전년 25.8% 대비 2.3% 상승). 기존 연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sup>19)</sup>

2023년 통일외식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9) 권수현, 송영훈. 「피를 나눈 형제, 이웃보다 못한 친척?」

〈그림 1-4-18〉 북한이탈주민 친근감과 통일의 필요성 교차분석(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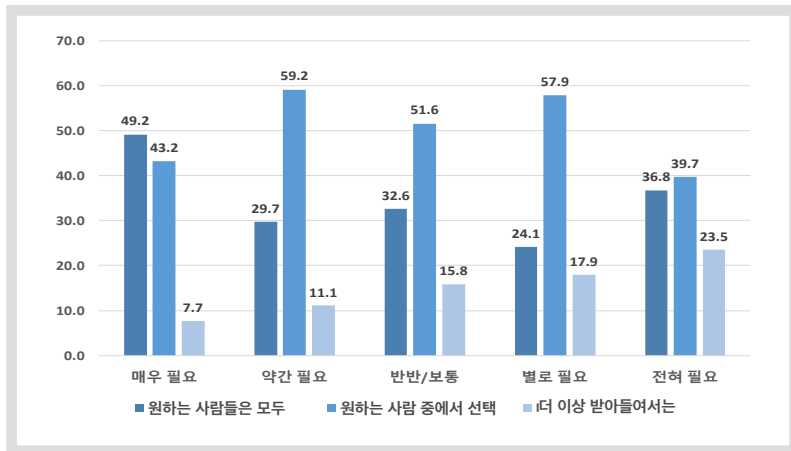
(단위 %)



Pearson chi2(8) =40.9598 Pr = 0.000

〈그림 1-4-19〉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통일의 필요성 교차분석(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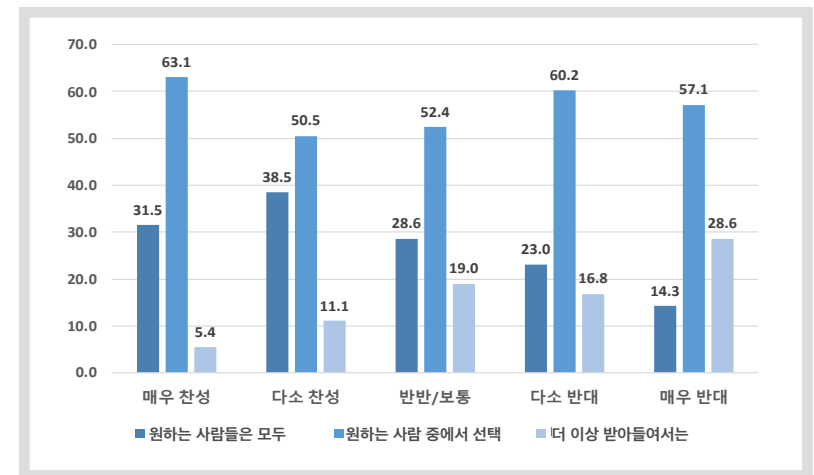


Pearson chi2(8) =48.0518 Pr = 0.000

문화사회적인 요소로 다문화 의식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20)</sup>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다문화 포용성에 대한 의견에 동의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올해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20〉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다문화 포용성 교차분석(2023)

(단위 %)



Pearson chi2(8) =35.6936 Pr = 0.000

### 3)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올해 통일외식조사에서 주목할만한 또 다른 변화는 북한 인권 문제에

20) 윤인진, 송영호, 「북한이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 정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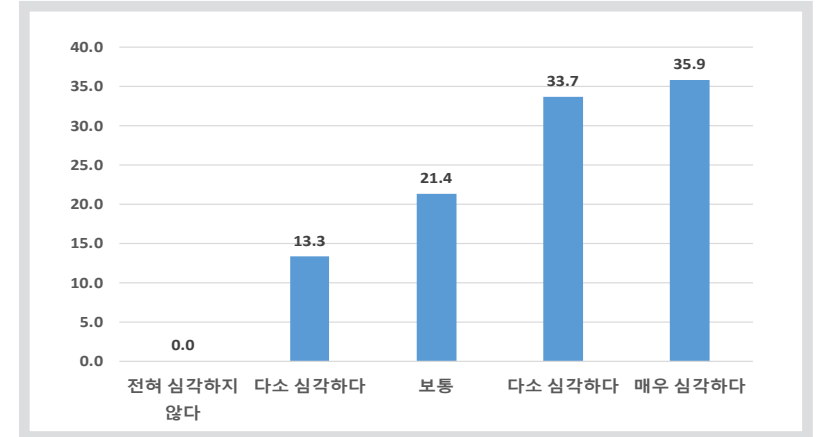
대한 인식과 태도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이 약 3%p 증가하여 37%였고, 올해도 6%p 정도 증가하여 42.8%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심각하다고 보는 의견은 83.8%로 지난해 (81.9%)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인식의 증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이 2022년부터 강조되고, 이에 따라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인권 문제를 더욱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 의견은 올해 77%로 지난해 75.8% 대비 다소 상승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sup>21)</sup> 2023년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북한의 인권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1) 정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결정요인」

〈그림 1-4-21〉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북한 인권 상황 심각성 교차분석(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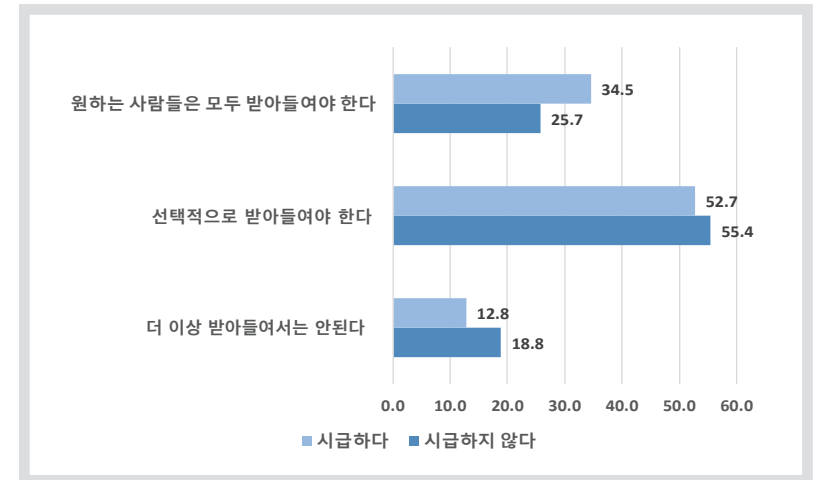
(단위 %)



Pearso chi2(8) = 28.9801 Pr = 0.000

〈그림 1-4-22〉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와 북한 인권 개선 시급성 교차분석(2023)

(단위 %)



Pearson chi2(2) = 10.8870 Pr = 0.004

이처럼 올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대북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등에서의 주요 변화들과 함께 이해해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수용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소결

2023년 통일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확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승하였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수용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다고 보는 인식이 증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차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는 증가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친근감이나 거리감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외의 요소들도 함께 살펴보아야겠지만, 본 장은 2023년 통일외식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다른 주요한 변화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상승,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상승,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

하다고 바라보는 인식이 증가한 것과 관련지어 올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해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 정치 성향별로 매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느끼는 실질적인 거리감과 친근감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이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아가는 데 중요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제5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

### 1. 서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이 도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동맹이 강화되는 한편, 소련, 중국, 북한간의 관계가 다시 밀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초에 발표한 외교 정책 방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언급하며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중국과는 충돌보다는 경쟁을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2023년에는 미국과 함께 한·미·일 확장억제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sup>22)</sup>

2023년 4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협의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창설했다.

22) 민정훈, 2023, “2023 미 신년 국정연설 주요 내용 및 합의” IFANSFOCUS, 2023. 2. 13.

이어서 5월에 일본에서 개최된 G7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선명한 외교 방향을 제시했다.<sup>23)</sup>

일본 역시 동북아 외교에 있어 점차 한·일간 전략적 이익이 수렴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강제 징용 및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sup>24)</sup>

다른 한편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도 더 가까워 졌다. 중국은 올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착륙을 모색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기조하에 주변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지역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sup>25)</sup> 8월에는 BRICS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5개국 외 여러 나라들에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유주의 국가들과 갈등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라는 이해관계로 중국, 인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sup>26)</sup> 북한은 주변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중, 북러 관계를 개선하려 하면서<sup>27)</sup> 9월에 러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신형 핵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SLBM 개발 등 핵개발에 더 노력을 기울였다.

23) 강선주, 2023, “2023 일본 G7 정상회의와 G7의 블록화”, IFANSFOCUS, 2023. 5. 25.

24) 윤석정, 2023, “2023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 IFANSFOCUS, 2023. 1. 12.

25) 김한권, 표나리, 최진백, 2023, “2023년 중국 정세 전망”, IFANSFOCUS, 2023. 1. 30.

26) 이태림, 2023, “2023 러시아 정세 전망”, IFANSFOCUS, 2023. 2. 1.

27) 이상숙, 2023, “제 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와 2023년 북한 대외정책 전망”, IFANSFOCUS, 2023. 1. 19.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은 가깝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직접적인 갈등으로 인해 고조된 것이지만, 길게 보면 탈냉전 이후 30여년간 비교적 안정적, 평화적으로 유지된 강대국들의 관계가 점차 경제적 이해관계와 체제 정당성의 차이가 연동되어 경쟁하고 갈라지는 장기적, 구조적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과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는 한국의 주변국 외교는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심화될수록 한 쪽과 관계가 강화되면 다른 진영과 관계가 악화되는 제로섬적 환경에 처해있다. 따라서 최근에 심화된 지정학적 경쟁은 한국이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온 냉전적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는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여기에서는 통일외식조사의 주변국 인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주변국가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여론 변화와 최근 여론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친밀감과 위협감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우선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과 위협인식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한국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에 대한 친밀감과 위협인식은 상당히 뚜렷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1)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먼저 주변국 친밀감의 경우 2007년 이후 2023년까지 17년간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7년에는 53.3%가 미국을 가깝게 느꼈는데, 2023년 현재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81.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84.4%)와 30대(82.5%)가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었으며,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진보에 비해 보수적 이념 성향일수록 미국을 더 가깝게 느낀다고 답변했다.

한국인들이 두 번째로 가깝게 느끼는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2007년 당시 24% 수준을 보였고,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친밀감이 20.6%로 상승했고,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던 2018~19년에 각각 19.1%, 19.3% 수준으로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에는 젊은 세대와 학력, 소득수준이 높은 진보층에서 호감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다.<sup>28)</sup>

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지속되면서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2023년에는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역대 최저치인 7.0%로 하락하였다.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특히 50대의 친밀감이 높은 편(8.5%)이며, 1차산업 종사자(14.3%)와 진보성향일수록(9.9%) 친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8) 통일평화연구원, 『2022 통일외식조사』, 『2019 통일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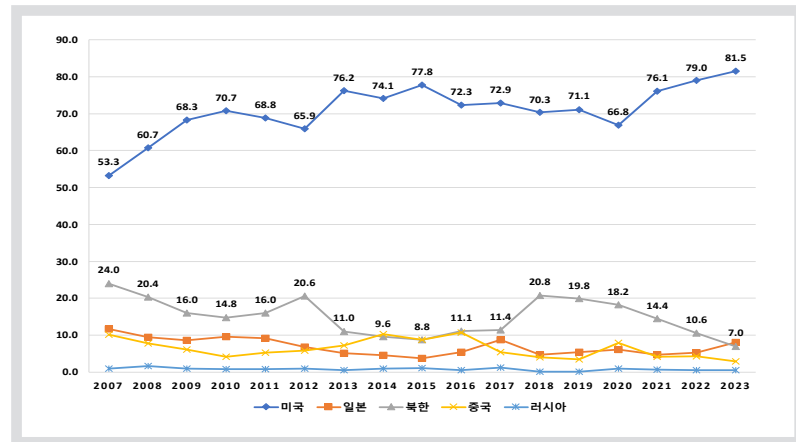
다음으로 일본에 대한 친밀감은 2021년에 4.8%로 하락했다가 점차 상승하여 2022년에 5.3%, 2023년에는 8.1%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처음으로 일본에 대한 친밀감이 북한에 대한 친밀감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치며 여론에도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20대 11.2%), 1차산업 종사자(14.3%)가 일본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작년의 4.3%에서 더 하락하여 2023년에는 2.8%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2016년의 10.7%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대한 친밀감은 0.6%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2007년 조사 이래 러시아는 주변국 중 가장 친밀감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5-1〉 주변국 친밀감 정도(2007~2023)

(단위 %)



## 2)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주변국 위협감의 경우는 최근 2년간 중국이 가장 높았으나(2021년 44.6%, 2022년 43.8%), 올해는 다시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45.8%)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09~2017년까지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여겨지다가(52.9%~63.7%) 남북관계가 개선된 2018년 이후 크게 하락해서 최근 5년간은 28~35%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남북관계 긴장의 고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이념 성향이 보수일수록(50.2%) 진보(39.6%)에 비해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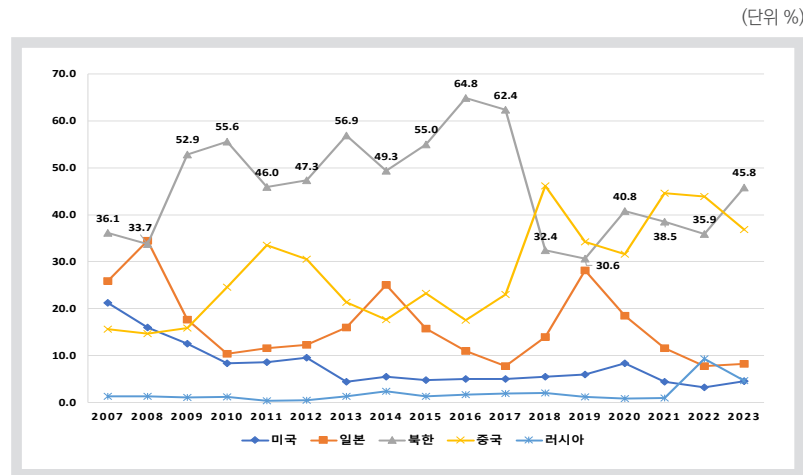
북한 다음으로 위협적인 국가는 중국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에 대한 위협감은 2016년 가장 낮은 수준(17.5%)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과 2021년, 2022년에는 중국이 주변국 중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되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위협감은 작년의 43.8%에서 2023년에는 36.8%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일본에 대한 위협도는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던 2019년에는 28.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7.7%, 2023년에는 8.3%로 조사되었다.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대체로 정치적 성향이 진보일수록(11.9%) 보수(5.6%) 성향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대한 위협정도는 2022년 9.3%에서 2023년 4.6%로 다소 하락했다. 2022년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소 증가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5-2〉 주변국 위협감 정도(2007~2023)



정리하면 한국인들의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은 미국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다.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점차 증가하여 역대 최고수준이 되었고, 다음으로 높은 것은 북한이나 올해는 북한보다 일본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졌다. 위협인식의 경우는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주변국들에 대한 상대적 위협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일본 위협인식이 상승했을 때(34.5%), 2011년 중국 위협인식이 상승했을 때(33.6%), 2014년 일본 위협인식이 상승했을 때(24.6%), 2018년 중국 위협인식이 급증했을 때(46.4%), 그리고 2019년 일본 위협인식이 상승했을 때(28.3%)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하락했다.

하지만, 중국 위협인식이 다소 낮아지거나 최근에는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이 낮아지면서 다시 북한 위협인식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중국 위협인식과 일본 위협인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제로섬적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상승,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주변국 위협인식의 특징은 한·미·일, 북·중·러 간 냉전적 지정학이 심화되어 주변국 모두와 동시에 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운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 3. 주변국 이미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통일외식조사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단순한 호감도, 위협감이 아니라, 양자간 관계가 적대적인지 협력적인지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협력, 경쟁, 경계, 적대 대상)된 국가 ‘이미지’를 통해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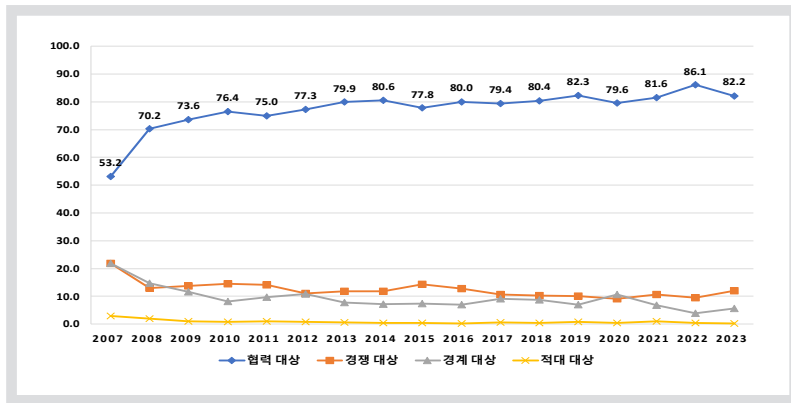
개별 국가에 대한 협력, 경쟁, 경계 인식의 추세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대부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협력인식은 2008년 70.2% 수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2022년에는 86.1%가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본다고 답변하였고, 2023년에는 다소 하락한 82.2%가 미국을 협력 대상국으로 인식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정당 회담과 한미 동맹 강화 노력 등을 통해 협력인식이 강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9) 박명규, 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통일과 평화』, 제3집 1호 (2011), pp. 129-173.

미국에 대한 협력대상 인식은 정치적 이념성향이 보수일수록(89.1%) 진보(79.5%)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5-3〉 미국의 국가 이미지(200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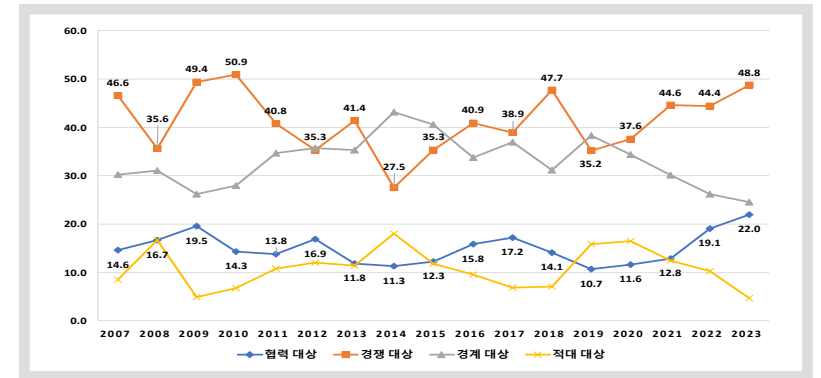
(단위 %)



한국 국민들은 일본을 주로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2023년에는 일본을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는 답변이 48.8%가 되었다. 한편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도 2019년의 10.7%로부터 점차 상승하여 올해는 22%가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했다. 반면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은 2019년의 38.3%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올해는 24.6%가 경계 대상으로 보았고, 적대 대상 인식도 2020년의 16.5%로부터 점차 하락하여 올해는 4.7%만이 적대 대상으로 인식했다.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5년째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1-5-4〉 일본의 국가 이미지(200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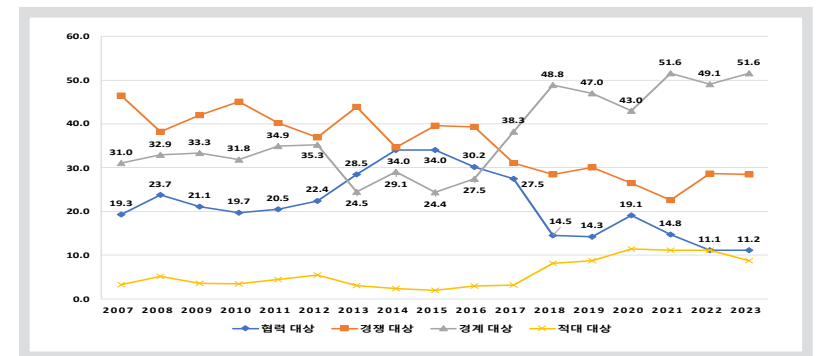
(단위 %)



중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협력이나 경쟁 대상 인식은 줄어들고 경계 대상이나 적대 대상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7년 이래 6년째 경계 대상 인식이 높아져 있으며 2023년에는 51.6%가 중국을 경계 대상으로 보았다. 반면 중국에 대한 협력 인식은 2015년의 34%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올해에는 11.2%만이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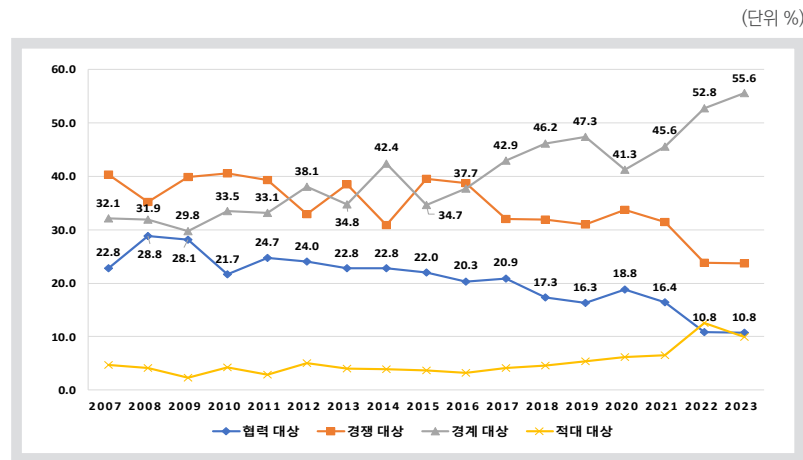
〈그림 1-5-5〉 중국의 국가 이미지(2007~2023)

(단위 %)



러시아에 대한 인식도 중국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러시아는 주로 경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52.8%가 러시아를 경제 대상으로 보았고 2023년에는 55.58%가 경제 대상으로 인식했다. 경쟁 대상 인식은 작년의 23.8%과 유사한 23.75% 수준이 유지되었고, 협력 대상 인식은 다소 감소하여 10.8%가 협력 대상으로 보았고 적대 대상 인식은 9.9%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2.5%로 높아졌던 것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그림 1-5-6〉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2007~2023)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협력인식이 가장 높고, 일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인식이 줄고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감소하고 경계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외식조사에서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주변국의 태도를 추정해보는 설문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변국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예상해 봄으로써 주변국의 군사안보적 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한반도 전쟁시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답변이 71.3%로 2010년 이후 70%대의 답변이 유지되고 있다. 한반도 전쟁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은 23.3%로 주변국중 가장 낮은 편이며 이는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한반도 전쟁시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편(67%)이지만 2018년에는 이런 응답이 80.4% 였던 것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반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2018년에는 7.6%로 매우 낮았지만 2023년에는 17.2%가 되어 5년 연속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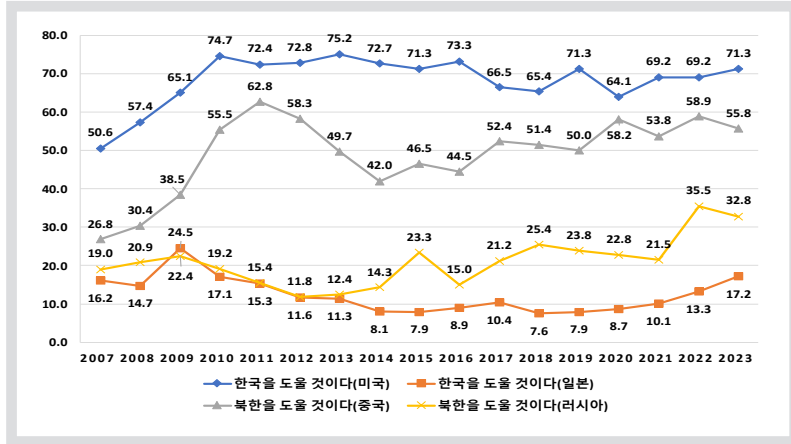
중국의 경우 한반도 전쟁시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2014년에는 42%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3년에는 55.75%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이 한반도 전쟁시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은 올해 37.3% 수준을 보였다.

러시아는 한반도 전쟁시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편(54.5%)이지만,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2012년 11.8% 수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올해 약 32.8%가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그림 1-5-7〉 한반도 전쟁시 주변국의 남북한 지원 여부(2007~2023)

(단위 %)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일본도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역시 한반도 주변 지정학이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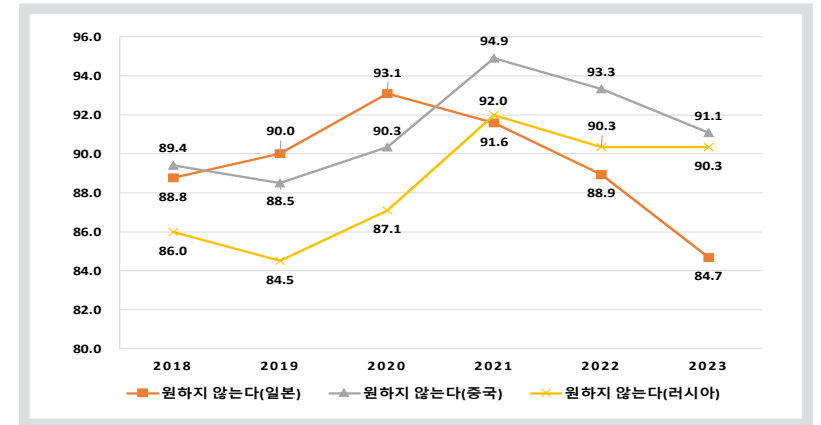
#### 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역할

그렇다면 주변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주변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은 ‘매우 원한다’와 ‘원하는 편이다’를 합쳐서 2023년 34.3%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여론은 2008년에 27.2%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5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27%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2021년에 40.3%로 다시 회복했으나 2022년의 39.4%로부터 올해는 약 5.1% 감소한 것이다.<sup>30)</sup>

〈그림 1-5-8〉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2018~2023)

(단위 %)



30) 미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에 대한 답변의 추세는 미국인들의 자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자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13년 30%대에서 2019년 약 70%대로 상승했고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25%수준으로 하락했다가 2021년에 다시 50%대를 회복했으나 다시 약간 하락하여 2023년 현재 35% 수준을 보인다. IPSOS (2023) What Worries the World, p.29. 자국 경제 전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대외관계에서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관련있을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대체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편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2020년에는 93.1%가 원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했지만 2023년에는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4.7%로 조사되어 최근 4년간 약 8.4%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 통일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91.1%로 매우 높은 편인데, 이런 부정적 의견이 2015년에는 78.3%로부터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94.9%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올해는 약 3.8% 감소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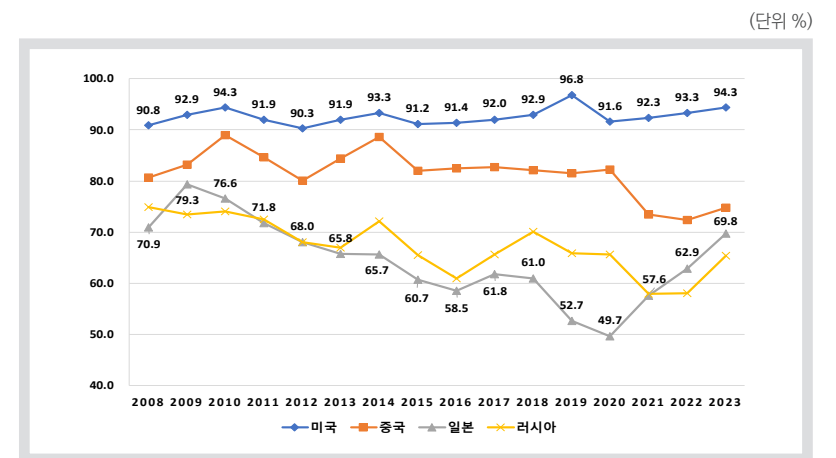
러시아의 경우도 부정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92%였으나 2023년에는 약간 감소한 90.3%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부정 답변이 약간 감소하였지만, 한반도의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2020년의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할 것이라는 인식이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희망에 대한 부정 여론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먼저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2023년에는 94.3%가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4.8%로 주변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점차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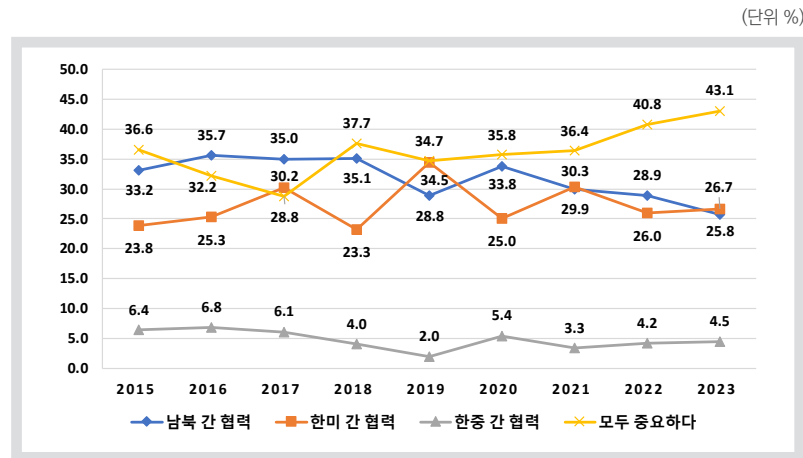
지며 2020년에는 49.7%로 주변국 중 가장 낮았으나 최근 3년간 상승해 올해는 69.8%가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주변국 중 세 번째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65.4%로 이 역시 2021년 57.6%로 최저치를 보였다가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친밀감이나 위협감으로 본 지정학적 경쟁 구도에 대한 인식은 통일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고 있지만, 그럴수록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9〉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2008~2023)



전반적으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한 가운데, 남북 협력, 한미 협력, 한중 협력 중 어느것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6%, 남북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5.8%로 나타났고, 한중 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4.5%로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1-5-10〉 남북, 한미, 한중 협력의 중요성(2015~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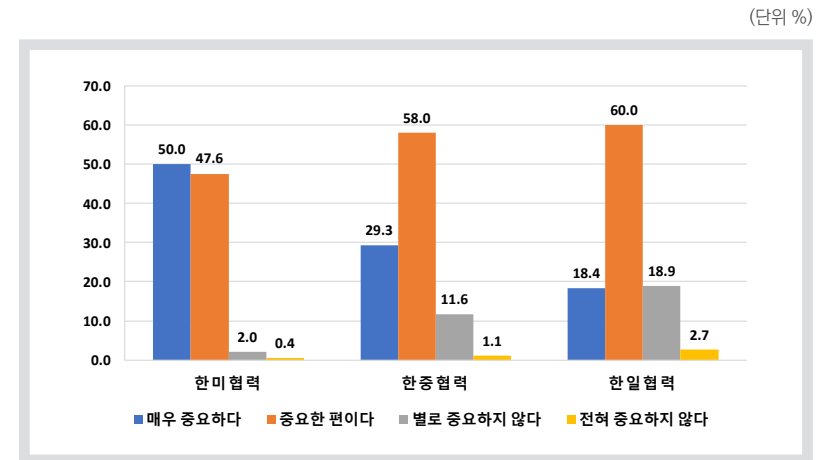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보수적 이념성향일수록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진보 성향일수록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5. 지정학적 상황과 국제 협력 인식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면서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인식이 커졌다. 이로 인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협력이 더 중요해졌고, 올해 조사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 중국, 일본과의 국제 협력 필요성을 신규 문항으로 추가했다. 조사 결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매우 중요’와 ‘중요한 편’이라는 응답을 합해 97.58%로 나타나 한미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다음으로는 한중 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87.3%로 나타났으며,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78.4%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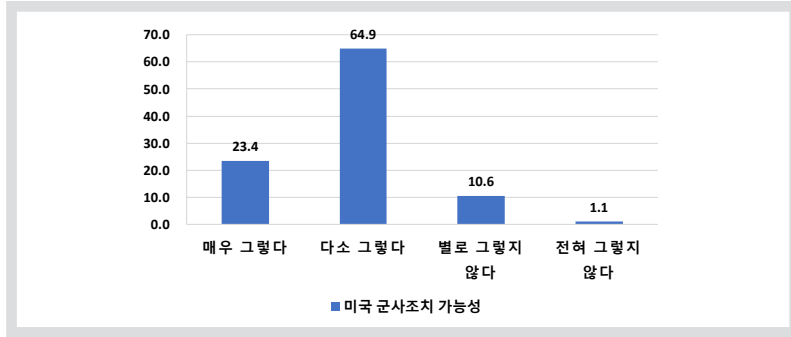
〈그림 1-5-1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한중, 한일 협력 필요성(2023)



이와 함께 북한 핵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핵 공격시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 항목을 추가했다. 북한의 핵 공격시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동맹 신뢰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다소 그렇다’를 합쳐 88.3%가 미국이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살펴본 미국과의 협력인식과 협조 필요성 인식에 이어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12〉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의 군사 조치 가능성(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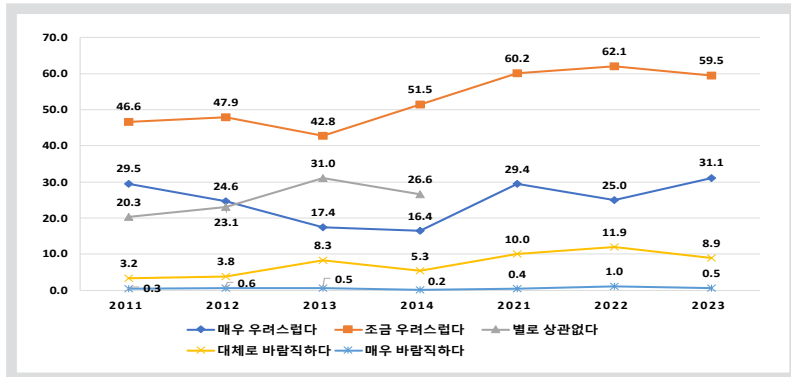
(단위 %)



최근 지정학적 긴장의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경쟁이 있는데, 이에 따라 최근 북중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작년에는 ‘매우 우려’와 ‘조금 우려’를 합해 87.1%가 우려스럽다는 응답을 보였는데 올해는 90.6%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보여 우려하는 의견이 커졌다.

〈그림 1-5-13〉 북중협력에 대한 우려(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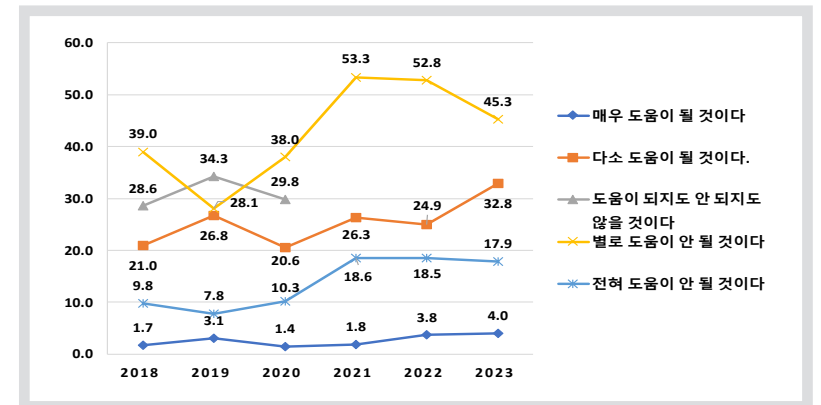
(단위 %)



또한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추세였다.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응답과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응답을 합쳐 2022년에는 71.3%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응답이 63.2%로 약간 감소하고 ‘매우 도움이 될 것’,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을 합쳐 2022년의 28.7%에서 36.8%로 약간 상승했다.

〈그림 1-5-14〉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2018~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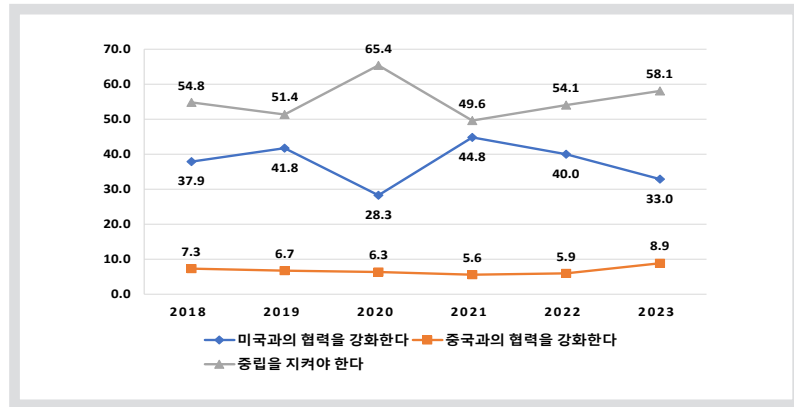
(단위 %)



한편 미중 경쟁이 심화될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33%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 8.9%보다 훨씬 높은 편이지만,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답변이 5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중 갈등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은 보수 이념 성향일수록,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의견은 진보일수록 높은 편이었다.

〈그림 1-5-15〉 미중 갈등시 미국, 중국과의 협력 강화(2018~2023)

(단위 %)



지정학적 갈등 구도가 심화될수록 한편으로는 북한 핵공격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다른 한편으론 북한 비핵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즉,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한편으론 미국과 일본의 분명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와의 지나친 갈등이나 반대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통계적 분석

그렇다면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통일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발생에 따른 교류의 단절과,

북한의 지속된 핵개발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위협인식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미·일 간의 동맹 및 협력인식이 증가하고, 북·중·러에 대한 위협, 경계 인식이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주변국 인식은 통일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기존의 통일인식에 대한 분석은 주로 이념, 세대, 지역 등 한국 사회의 갈등구도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의 통일여론에 주변국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종속 변인은 ‘통일 필요성’ 항목으로 측정된 통일인식으로 하고, 설명 변인은 주변국 인식 중 북한에 대한 인식(북한에 대한 친밀감, 북한의 대화 타협 가능성, 북핵 위협 인식,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친밀감과 위협인식, 그리고 각국에 대한 협력, 경쟁, 경계, 적대 대상 이미지를 포함하였다.

기존에 통일 필요성 인식과 통계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제상황 만족도, 연령대, 소득수준, 교육수준, 그리고 이념 성향지지 정당, 국가 자긍심, 대통령 직무 평가 등 정치적 인식도 모두 통제변인으로 포함했다.

해당 변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조사 결과로 분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의 통일외식조사 결과를 자료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 〈표 1-5-1〉과 같다.

〈표 1-5-1〉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변국 인식 변인에 대한 순위 로지스틱 분석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념	0.013	0.303***	0.134*	0.144*	0.144**	0.043	0.001	0.091	0.191**	0.262***	0.108	0.111	0.040
	0.071	0.074	0.070	0.075	0.072	0.073	0.070	0.082	0.080	0.076	0.075	0.078	0.080
정당	-0.517***	-	-0.443**	-	-	-1.490**	0.738**	-	-	-	-	0.433**	0.721**
	민주당		민주당			정의당	정의당					무당파	국민의당
	0.200		0.190			0.546	0.369					0.153	0.351
대통령	-0.009	0.119	-0.048	-0.103	-0.153*	0.108	0.066	0.511***	0.592***	0.218**	0.210**	-0.005	0.031
	0.083	0.085	0.096	0.087	0.084	0.085	0.110	0.100	0.092	0.091	0.098	0.089	0.090
연령대	-0.378***	-0.342***	-0.349***	-0.490***	-0.510***	-0.459***	-0.353***	-0.309***	-0.365***	-0.394***	-0.304***	-0.319***	-0.306***
	0.057	0.054	0.054	0.057	0.055	0.051	0.053	0.051	0.052	0.048	0.050	0.05	0.051
소득	-0.032	0.008	0.048	0.115*	0.251***	0.164**	0.113*	0.101	0.225***	-0.037	0.057	0.355***	0.154**
	0.056	0.057	0.057	0.062	0.060	0.058	0.059	0.069	-0.065	0.065	0.065	0.067	0.071
교육 수준	-0.183	0.216**	-0.435***	-0.517***	-0.354***	-0.393***	-0.308**	-0.362**	-0.262**	-0.132	-0.129	-0.138	-0.089
	0.106	0.105	0.108	0.114	0.109	0.107	0.109	0.116	0.109	0.108	0.114	0.112	0.090
경제 만족	0.211**	-0.065	0.069	0.025	0.056	-0.053	0.131	0.209**	-0.063	0.032	0.272**	0.133	0.008
	0.085	0.087	0.084	0.090	0.084	0.092	0.090	0.085	0.084	0.008	0.091	0.086	0.090
국가 자긍심	0.377***	0.216**	0.346***	0.352***	0.390***	0.140	0.355***	0.407***	0.230**	2020 이후는 국가자긍심 변수 미포함			
	0.084	0.087	0.086	0.089	0.083	0.086	0.087	0.090	0.090				
북한 대화협력	0.614***	0.692***	0.625***	0.591***	0.486***	0.442***	0.56***	0.735***	0.911***	0.939***	0.826***	0.812***	0.742***
	0.082	0.082	0.078	0.085	0.084	0.080	0.080	0.096	0.093	0.095	0.093	0.089	0.086
북핵 위협	-0.023	-0.062	0.038	0.116	0.074	0.21**	0.029	0.166**	-0.141*	-0.103	-0.002	-0.194**	0.139*
	0.074	0.075	0.074	0.084	0.087	0.080	0.077	0.084	0.080	0.077	0.087	0.083	0.080
북한 비핵화	0.087	0.132	0.092	0.055	0.049	0.225***	0.187**	-0.201**	0.022	0.024	-0.033	0.050	0.208**
	0.067	0.069	0.067	0.078	0.079	0.070	0.076	0.082	0.074	0.076	0.079	0.082	0.075
일본 호감	0.195	0.369*	0.200	0.539**	0.250	0.377	0.422**	0.418	-0.013	0.219	0.210	0.372	-0.035
	0.198	0.022	0.249	0.380**	0.290	0.240	0.191	0.260	0.252	0.230	0.271	0.258	0.198
북한 호감	-0.379**	-0.332**	-0.107	-0.380**	-0.258	-0.539**	-0.517***	-0.283*	-0.262*	-0.297**	-0.727***	-0.325*	-0.244
	0.167	-0.149	0.185	0.193	0.195	0.189	0.179	0.146	0.147	0.151	0.163	0.184	0.229
중국 호감	0.167	-0.392	-0.181	0.061	0.078	0.405**	-0.038	-0.131	-0.480*	-0.260	0.295	0.199	-0.292
	0.248	0.242	0.223	0.183	0.192	0.183	0.256	0.290	0.291	0.218	0.288	0.275	0.342
일본 위협	0.516**	-0.234	-0.404	-0.366	-0.197	0.089	-0.494	-0.405	-0.260	-0.321	-0.298	-0.604	0.437
	0.261	0.239	0.301	0.283	0.287	0.208	0.302	0.282	0.229	0.323	0.375	0.389	
북한 위협	0.533**	-0.081	-0.320	-0.194	0.012	0.306	-0.234	0.054	-0.082	0.022	0.153	-0.183	0.416
	0.231	0.202	0.284	0.278	0.269	0.275	-0.241	0.263	0.259	0.211	0.303	0.327	0.345
중국 위협	0.375	-0.323	-0.502*	-0.257	0.064	0.343	-0.057	-0.428*	-0.182	-0.225	-0.366	-0.285	0.230
	0.229	0.209	0.296	0.294	0.276	0.293	0.257	0.256	0.254	0.218	0.299	0.328	0.347
일본경쟁 (적대)	0.012	0.490**	-0.018	0.251	-0.247	0.307*	0.175	0.035	0.768**적대	-0.247	0.116	-0.047	-0.442**
	0.213	0.205	0.208	0.213	0.186	0.186	0.191	0.192	0.264	0.198	0.198	0.166	-0.154
중국경계 (경쟁)	0.023	0.015	0.362**	0.335**경쟁	0.193	-0.282*	0.344**	-0.228	0.450*	0.308*	0.136	-0.170	0.410**
	0.201	0.204	0.178	0.151	0.133	0.171	0.171	0.191	0.194	0.172	0.185	0.197	0.193
cut1	0.775	1.017	-0.188	-0.355	-0.455	-0.424	0.361	0.985	2.226	0.613	0.597	0.222	0.828
cut2	2.011	2.524	1.397	1.065	1.107	1.269	2.278	2.940	4.156	2.369	2.535	2.115	2.463
cut3	3.319	3.644	2.493	2.268	2.382	2.418	3.559	4.413	5.734	3.575	3.832	3.497	3.709
n	1,130	1,165	1,159	1,150	1,185	1,184	1,169	1,160	1,179	1,179	1,132	1,126	1,106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연령대가 높을 수록, 국가 자긍심이 높을 수록,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높고, 북한과 대화협력이 가능하다고 볼 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볼 가능성이 컸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북한에 친밀감을 느끼고,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긍정적인 통일인식과 상당히 지속적인 통계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2013~2019년 사이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2011~2019년까지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수록 통일 필요성을 높게 보았다. 이 변인들에 비하면 이념성향이나 지지 정당, 경제 만족도 변수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인식,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이 낮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컸다. 사회경제적 변인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큰 경우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 인식의 경우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간혹 통일인식과 긍정적,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컨대 일본에 대한 호감인식(2012, 2014, 2017)은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정 시기(2012, 2016, 2019)에 일본에 대한 경쟁인식이나 적대인식이 통일 필요성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일본에 대한 경쟁 인식이 통일 필요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국에 대한 호감인식은 2016년에는 통일 필요성에 부정적 영향을, 2019년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중국에 대한 경계 인식(2013, 2014, 2017, 2019, 2020, 2023)은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2013, 2018)은 통일 필요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를 앞서 살펴본 주변국 인식의 최근 수년간의 변화 추세와 연결해 해석하면, 중국의 부상은 중국에 대한 위협, 경계 인식을 키우며 통일의 필요성 인식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본과의 관계도 통일 필요성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면서 경쟁국 인식이 남북의 통일 필요성에 긍정적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주변국의 국력, 한국과의 경쟁관계 등 지정학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인식의 반영으로서 통일을 위한 한국의 역량과, 통일을 통한 국력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력에 대한 인식과 주변국의 국력에 대한 인식이 그 국가에 대한 협력, 경계인식으로 나타나며 통일 가능성과 필요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 7. 소결

이상 2023년의 주변국 인식 결과와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대한 호감도, 협력 인식, 동맹 신뢰도는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81.5%로 주변국 중에 가장 높으며 작년(80.6%)보다 상승해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도 82.2%로 작년 대비(86.1%) 하락하였

으나 주변국 중 가장 높은 협력 인식을 유지했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97.6%에 달했다.

또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답변이 71.3%이어서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며 주변국 중에 미국에 대한 호감, 신뢰, 협력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북한 핵 공격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질문했는데 88.3%가 긍정 응답을 하여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며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작년(5.1%) 대비 약 3% 증가한 8% 수준이 되었으며,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전년(16.6%) 대비 크게 감소한 8.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도 22%로 상승했으며,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4.7%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셋째,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 추세이다.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45.8%로 주변국 중 가장 높은 상태를 보였고,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36.8%로 증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도 4.6%로 증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대상 인식이 작년(36.6%) 대비 크게 상승한 51.6%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경계대상 인식이 55.6%를 나타냈다.

넷째, 한·미·일과 북·중·러로 구분되는 진영 인식이 증가하며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도 악화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협력 필요성은 증가하고 부정 여론은 다소 감소했다. 2023년 미국은 한국의 통

일을 희망한다는 답변이 34.3%인 반면,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91.1%에 달했으며, 러시아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90.3%로 주변국 중에 가장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0년의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할 것이라는 인식은 다소 낮아진 추세이지만, 최근 몇 년간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 희망에 대한 부정 여론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주변국 인식이 악화되는 추세에서 역설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94.3%)과 일본(69.7%)뿐 아니라 중국(74.8%), 러시아(65.4%)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미·중 경쟁과 갈등 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3%로 가장 높지만,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작년(54.1%) 대비 58.8%로 상승하고 있다.

즉, 지정학적 갈등 구도가 심화 될수록 한편으로는 북한 핵공격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 비핵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정학적 변화와 주변국 인식은 통일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일의식과 주변국인식, 정치, 경제, 사회적 변인들을 통계분석한 결과, 통일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과 통일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연령대, 국가 자긍심, 북한대화협력 가능, 북한 호감도는 통일인식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국가 자긍심이 높을수록, 북한과 대화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수록 통일 필요성 인식이 높았다.

반면 북핵을 위협적으로 인식할수록, 중국의 부상 등 주변국 지정학적 여건을 우려하고 경계할수록 통일 필요성과는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사회 내부에서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여론에는 세대와 여건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편<sup>31)</sup>,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부정적인 지정학적 위협과 경쟁이 심화되자 통일 필요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대체로 통일 필요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에서 일본과의 경쟁 구도가 통일 필요성 의식을 높이는 모습이 올해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올해 조사는 한반도 주변국 관계가 진영화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나 긴장이 강화되면서 협력의식도 증가하였고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반대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한편으론 최근과 같이 미국과 일본의 분명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와의 지나친 갈등이나 반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1] 미국에서도 최근 북핵위협인식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2년 11월 2-4일 사이에 실시된 YouGov Survey "Nuclear Threat"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새로운 냉전이 도래할 가능성을 55%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48%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대응책으로는 군사행동을 취해야한다(30%), 전쟁을 피해야 한다(46%), 직접대화해야한다(66%)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렇게 중국과의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기성 세대와 비교해 지정학에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덜하고, 국제질서에서의 국가간 경쟁보다는 필요한 분야의 국제협력과 경제적 실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적인 경향을 보여, 한국 사회의 상황과도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Dina Smeltz, Emily Sullivan, "Young Americans Question US global engagement", March 2023. Chicago Council





---

## 제2부 심층분석

---

제6장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분석

제7장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

## 제6장

##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분석

|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서론

본 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시점에 한국인들의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정책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대북억제력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여왔다. 한미동맹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재남침에 대한 경계와 억지를 위해 1954년 11월 17일부로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54년 11월 18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이 체결되면서 제도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군 요구 등으로 위기를 겪으면서도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왔다. 한미동맹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부침이 있었고, 한미 간의 갈등요인으로 인한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현재 한미동맹의 강화는 양국 모두 바라고 기대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속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미국의 주한미군 방

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한미연합사령부와 한미협의체를 창설하여 한미 간에 상시 소통체계를 확립하는 등 제한적이거나 보완적 동반자 동맹으로 발전하였다. 때로는 다양한 원인으로 한미 간에 일정한 갈등 양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한국이 중견국으로 국력이 신장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한미전략 동맹”, “박근혜 정부의 21세기형 포괄적 전략 동맹” 등으로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이 비대칭안보지원 성격에서 세계적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공동 행위자로서의 성격이 더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적시한 최초의 합의문인 「워싱턴 선언」은 양국 최고 리더십의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본 글은 한미동맹이 형성되고 지금까지의 여러 사건과 역사를 지켜봐 온 한국인들이 한미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떤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므로써, 한미관계에 대한 정확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진단하고,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한미관계인식과 그 형성요인

### 1)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기본 인식

한국인들은 미국을 협력관계의 국가로 인식한다. 2007년 이후 지속된 통일외식조사 결과, 평균 77.4%가 미국을 협력관계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 경향은 더욱 강해졌다. 2021년 81.58%, 2022년 86.08%, 2023년 82.17%가 협력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역대 최고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 친밀감에서도 역대 평균 70.9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인식이 역대 평균 68.37%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022년 모두 69%이고, 2023년 조사에는 71.3%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 대다수가 한미동맹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통일문제와 연관되어서는 좀 더 복잡한 인식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하느냐는 물음에 전혀 원하지 않음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역대 평균 61.31%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2021년 59.66%, 2022년 60.59%, 2023년 65.75%로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한반도 통일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역대 평균 필요하다가 45.09%, 매우 필요하다가 47.48%로 미국의 협조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의 협조가 있어야 한반도 통일을 기대할 수 있다

는 현실인식이 반영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에서 한국인들의 한국의 안보에 대한 인식과 미국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연관성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에 대한 대응과 통일에 대한 기본 인식이다. 따라서 대미인식의 대북인식과 통일인식과의 연관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 2) 한미관계 인식 형성요인 분석

앞서 살펴본 한미관계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한미관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로는 미국에 대한 감정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미국친밀감 변수를 설정하였고, 다음으로 미국의 한반도와 한국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대리변수로 미국의 한반도 통일희망변수를 설정하였다. 마지막 변수로는 미국의 역량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변수로 미국의 통일협조필요성 변수를 대리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관련 변수로는 통일필요성, 통일시기인식, 북한대화가능성 인식, 북한 무력도발가능성 인식, 북핵위협인식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안보인식변수로 한국핵무장인식을 포함하였고, 중국에 대한 인식변수로 북한중국 협력인식변수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변수를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진보성향 여부, 성별, 세대, 교육, 소득, 주관적 계층인식을 포함하였다. 미국친밀감에 대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미국통일희망변수와 미국통일협조필요성에 대한 분석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6-1〉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영향분석

	미국친밀감	미국통일희망	미국통일협조필요성
통일필요성인식 (5 매우필요)	-0.105 (0.0548)	0.105* (0.0420)	0.152*** (0.0445)
통일시기 (1-5년 이내 ~6-불가능)	0.00757 (0.0426)	-0.0147 (0.0337)	-0.0746* (0.0357)
<b>북한대화가능성 (4- 매우가능)</b>	<b>-0.290*** (0.0780)</b>	<b>0.186** (0.0616)</b>	<b>-0.237*** (0.0647)</b>
북한무력도발가능성 (4- 많이 있다)	-0.134 (0.0706)	0.200*** (0.0555)	-0.0783 (0.0575)
북핵위협인식 (4- 매우위협)	0.0951 (0.0788)	0.0797 (0.0620)	0.148* (0.0650)
<b>한국핵무장인식 (5-매우찬성)</b>	<b>0.159*** (0.0462)</b>	<b>-0.0752* (0.0366)</b>	<b>0.292*** (0.0390)</b>
북한중국협력인식 (4-매우우려)	0.0531 (0.0853)	0.135* (0.0681)	0.370*** (0.0711)
중국부상인식 (4- 매우도움)	-0.121 (0.0722)	0.267*** (0.0589)	-0.0757 (0.0604)
진보 (진보-1)	-0.209 (0.110)	-0.125 (0.0877)	-0.224* (0.0923)
성별 (남-1)	<b>0.0910 (0.101)</b>	<b>-0.0324 (0.0779)</b>	<b>0.0772 (0.0827)</b>
세대	<b>0.00470 (0.0430)</b>	<b>-0.0531 (0.0330)</b>	<b>-0.0624 (0.0351)</b>
교육	-0.0706 (0.0874)	-0.142* (0.0674)	-0.238*** (0.0723)
소득	<b>0.00201 (0.0612)</b>	<b>-0.0277 (0.0477)</b>	<b>0.0686 (0.0509)</b>
주관적계층인식	<b>0.0732 (0.0668)</b>	<b>0.0342 (0.0516)</b>	<b>0.231*** (0.0552)</b>
_cons	1.869** (0.663)		
/			
cut1		-0.415 (0.530)	-2.373*** (0.567)
cut2		1.943*** (0.531)	-0.911 (0.552)
cut3		4.174*** (0.538)	1.733** (0.551)
N	2384	2387	2387

분석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하고, 한반도 통일에 있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미국의 태도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함께 미국의 역량이 함께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통일시기를 멀게 보거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미국의 통일협조 필요성을 낮게 본다. 통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협조 필요의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본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일수록 미국친밀감과 미국의 통일협조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통일희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는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가진 이들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기대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미국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안보적 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미국친밀감과 미국의 통일협조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정책과 태도에 대처되는 이슈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인식 변수의 경우는 북한과 중국의 협력에 대한 우려가 큰 사람일수록, 미국의 통일희망과 미국의 통일협조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 3. 한미관계인식의 영향 분석

다음으로 한미관계인식이 다른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미관계에 민감한 한국인이라면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요인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우선, 주요 영향 요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한미관계인식의 변화에 따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대북정책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한미관계와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주변국 인식이다. 국제정치적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과의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주변국 중 일본은 미국진영의 중요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고,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일 공조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한미관계인식이 주변국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일본인식과 대중국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 1) 한미관계 인식의 영향

〈표 2-6-2〉 한미관계 인식의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대북정책만족도	대일본인식	대중국인식
미국친밀감 (1- 친밀)	-0.142 (0.0947)	0.0752 (0.0939)	0.480*** (0.0949)
미국통일희망 (4- 매우원함)	0.236*** (0.0514)	-0.0972 (0.0496)	0.0126 (0.0500)
미국통일협조필요성 (4- 매우필요)	-0.239*** (0.0596)	-0.194*** (0.0583)	-0.0540 (0.0598)
통일필요성인식 (5 매우필요)	0.249*** (0.0422)	0.136*** (0.0400)	-0.0699 (0.0410)
통일시기 (1-5년 이내 ~6-불가능)	0.0112 (0.0336)	0.0767* (0.0330)	0.0246 (0.0332)
북한무력도발가능성 (4- 많이 있다)	-0.192*** (0.0559)	-0.0250 (0.0538)	0.203*** (0.0549)
북핵위협인식 (4- 매우위협)	0.111 (0.0623)	-0.119* (0.0603)	-0.131* (0.0613)
진보 (진보-1)	<b>0.388***</b> <b>(0.0895)</b>	<b>0.259**</b> <b>(0.0861)</b>	<b>-0.339***</b> <b>(0.0877)</b>
성별 (남-1)	0.0761 (0.0791)	-0.0818 (0.0764)	-0.0285 (0.0780)
세대	-0.0508 (0.0340)	-0.0293 (0.0326)	-0.0690* (0.0332)
교육수준	-0.121 (0.0698)	-0.243*** (0.0669)	-0.0620 (0.0676)
소득	<b>-0.0671</b> <b>(0.0488)</b>	<b>0.0996*</b> <b>(0.0467)</b>	<b>-0.0773</b> <b>(0.0481)</b>
주관적계층인식	<b>0.146**</b> <b>(0.0525)</b>	<b>-0.0104</b> <b>(0.0506)</b>	<b>0.0962</b> <b>(0.0520)</b>
/			
cut1	-2.001*** (0.495)	-2.754*** (0.485)	-2.207*** (0.492)
cut2	0.512 (0.493)	-0.637 (0.482)	-0.727 (0.490)
cut3	3.797*** (0.508)	1.023* (0.483)	1.882*** (0.492)
N	2384	2385	2385

분석결과, 미국친밀감이 높을수록 대중국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대중국인식과 대척되는 인식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두 번째, 미국이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대북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과의 협조와 협의가 없으면 독자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일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통일에 대한 태도도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안보정책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결과로 통일에 대한 미국의 협조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낄수록 대북정책만족도가 낮아지는 분석결과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대북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과의 협조가 대북정책과 통일 정책에 있어 필수적이라면, 한국정부의 역할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를 좋게 인식할 수 없다고 여길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역할과 일본의 역할에 대하여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있다.

미국의 통일협조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대일본인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를 깊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미국의 역할과 함께 일본도 함께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역할과 역량에 기댈 수 밖에 없다면, 한국인들은 일본의 역할

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를 반영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한국인들의 한미관계 인식은 한국정부의 안보정책과 주변국 인식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한국인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적 인식과 한반도 주변의 정세적 변화와 연동하여 미국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2) 대북정책의 목적과 한미관계인식

앞서 한미관계인식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와 일정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식이 충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북정책의 목적도 여러 정치사회적 인식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관계인식과 대북정책의 목적 또한 일정한 영향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대북정책의 목적 변수로 평화통일, 평화공존, 개혁개방을 각각 더미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한미관계 인식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포함할 수 있다. 기대하는 미국의 역할에 맞추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목적을 다르게 가져가야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6-3〉 한미관계 인식의 대북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평화통일	평화공존	개혁개방
미국친밀감 (1-진밀)	-2.245 (1.764)	0.0879 (0.102)	-0.0287 (0.121)
미국통일희망 (4-매우원함)	0.0609 (1.026)	-0.260*** (0.0549)	0.156* (0.0642)
미국통일협조필요성 (4-매우필요)	-	0.182** (0.0635)	-0.0105 (0.0745)
통일필요성인식 (5 매우필요)	-0.314 (0.966)	-0.0756 (0.0446)	-0.0995 (0.0518)
통일시기 (1-5년 이내 ~6-불가능)	-0.695 (0.716)	0.00253 (0.0360)	0.0807 (0.0430)
북한무력도발가능성 (4-많이 있다)	0.410 (1.028)	-0.0560 (0.0593)	-0.0263 (0.0690)
북핵위협인식 (4-매우위협)	1.420 (1.424)	0.133* (0.0661)	-0.0593 (0.0767)
진보 (진보-1)	-	<b>-0.0457</b> <b>(0.0956)</b>	<b>0.106</b> <b>(0.111)</b>
성별 (남-1)	-0.367 (1.735)	-0.0873 (0.0854)	0.213* (0.100)
세대	0.504 (0.758)	-0.0004 (0.0363)	0.0426 (0.0423)
교육수준	2.602 (1.808)	-0.0167 (0.0740)	0.111 (0.0886)
소득	-	-0.0469 (0.0521)	0.135* (0.0631)
주관적계층인식	-1.466 (1.283)	0.129* (0.0564)	-0.0792 (0.0659)
_cons	-12.93 (8.635)	0.198 (0.522)	-2.199*** (0.619)
N	471	2380	2380

분석결과, 미국이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할수록 평화공존에는 부정적이고, 북한의 개혁개방에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미국의 힘의 영향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

된다. 한편, 통일을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가 더 명확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협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힘의 작용에 대한 일정 경계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석해볼 수 있다. 이 결과에 비추어 한미관계 인식에 따라 대북정책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4. 윤석열 정부 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로 한국의 행정부가 변경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중국정책 등 주요 안보정책이 변화되었다. 이전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직접 접촉과 북한과 미국의 직접협상을 중재하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시도하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직접 협상 없이 대북억지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맹 중시와 한미일 공조 정책을 추구하면서 상반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관련 인식들의 변화가 최근 몇 년간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집권과 정책변경과 시행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연도별 미국친밀감과 대북정책만족도에 대한 연도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2-6-4〉 연도별 한미관계 인식 영향요인분석

종속변수: 미국친밀감	2021	2022	2023
통일필요성인식 (5 매우필요)	-0.201** (0.0774)	-0.0229 (0.0789)	-0.137 (0.0794)
통일시기 (1-5년이내 ~6-불가능)	0.00328 (0.0608)	0.0107 (0.0623)	-0.0649 (0.0681)
<b>북한대화가능성 (4-매우가능)</b>	<b>-0.294** (0.113)</b>	<b>-0.322** (0.110)</b>	<b>-0.147 (0.120)</b>
북한무력도발가능성 (4-많이 있다)	0.0724 (0.101)	-0.341*** (0.102)	-0.0957 (0.101)
북핵위협인식 (4-매우위협)	0.0278 (0.112)	0.206 (0.114)	0.0332 (0.110)
<b>한국핵무장인식 (5-매우찬성)</b>	<b>0.182** (0.0657)</b>	<b>0.111 (0.0678)</b>	<b>0.125 (0.0732)</b>
북한중국협력인식 (4-매우우려)	0.307* (0.122)	-0.175 (0.124)	0.206 (0.131)
중국부상인식 (4-매우도움)	0.0667 (0.109)	-0.303** (0.0997)	-0.118 (0.105)
성별 (남-1)	0.0801 (0.141)	0.0988 (0.147)	0.0253 (0.153)
세대	0.00511 (0.0599)	0.0618 (0.0618)	0.0381 (0.0634)
교육	-0.225 (0.124)	0.0625 (0.125)	-0.201 (0.137)
소득	0.0403 (0.0825)	-0.0243 (0.0932)	0.170 (0.0947)
주관적계층인식	0.0679 (0.0952)	0.0317 (0.0959)	0.0215 (0.104)
_cons	0.898 (0.972)	2.915** (0.956)	1.820 (1.091)
N	1193	1193	1200

미국친밀감에 대한 영향을 보면, 2021년에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미국에 대한 친밀감에 역의 관계를 보인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북한과의 대화가능성 인식이 미국친밀감과 역의 관계를 가진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전인 2021년에는 이전의 북미협상 결렬 이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경색을 지켜본 이후의 조사결과로서 분석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통일인식과 대북인식 등이 2022년 이후 미국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반도 통일과 대북 인식이 긍정적일 수 없는 안보환경과 정권의 교체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 인식의 경우는 2021년에만 미국친밀감 인식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인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관련 인식이 미국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인식이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일정한 변화가 생겼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미일 공조가 좀 더 강조되는 정부 기초하에서, 북핵에 대한 경계 인식이 강화되는 속에서 증가해온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인식이 감소할 수 있다.



〈표 2-6-5〉 연도별 한미관계 영향 인식 분석

종속변수: 대북정책만족도	2021	2022	2023
미국친밀감 (1- 친밀)	-0.386** (0.135)	0.133 (0.138)	0.476** (0.145)
미국통일희망 (4- 매우원함)	0.234** (0.0774)	0.221** (0.0707)	0.475*** (0.0776)
미국통일협조필요성 (4- 매우필요)	-0.345*** (0.0853)	-0.156 (0.08745)	0.113 (0.0932)
통일필요성인식 (5 매우필요)	0.425*** (0.0613)	0.0454 (0.0593)	-0.198*** (0.0593)
통일시기 (1-5년이내 ~6-불가능)	-0.148** (0.0496)	0.0987* (0.0472)	-0.152** (0.0507)
북한무력도발가능성 (4-많이 있다)	-0.398*** (0.0832)	-0.104 (0.0789)	0.0137 (0.0754)
북핵위협인식 (4- 매우위협)	-0.0660 (0.0914)	0.216* (0.0879)	0.195* (0.0821)
성별 (남-1)	0.0141 (0.113)	0.112 (0.112)	0.0199 (0.114)
세대	-0.215*** (0.0484)	0.0667 (0.0480)	0.0358 (0.0481)
교육수준	-0.301** (0.100)	0.102 (0.0989)	-0.0861 (0.104)
종속변수: 대북정책만족도	2021	2022	2023
소득	<b>0.00498</b> <b>(0.0673)</b>	<b>-0.189**</b> <b>(0.0726)</b>	<b>-0.0336</b> <b>(0.0753)</b>
주관적계층인식	<b>0.0454</b> <b>(0.0756)</b>	<b>0.221**</b> <b>(0.0758)</b>	<b>0.0991</b> <b>(0.0786)</b>
/			
cut1	-4.946*** (0.747)	-0.680 (0.693)	-1.317 (0.751)
cut2	-2.271** (0.734)	1.898** (0.692)	1.003 (0.749)
cut3	1.004 (0.749)	5.284*** (0.717)	4.552*** (0.766)
N	1194	1192	1200

다음으로 대북정책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미국친밀감은 2021년에는 대북정책만족도와 역의 관계이지만, 2023년에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므로 미국친밀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이며, 2023년의 대북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므로 미국친밀감의 높을수록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통일필요성 인식도 대북정책만족에 대한 영향에 2021년에는 역의 관계를 2023년에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 미국의 통일희망인식은 3개년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통일문제에 대한 긍정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 미국에 대한 인식이 대북정책 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5. 소결

본 글은 한국인들이 한미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떤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한미관계에 대한 정확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진단하고,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들의 한미관계인식은 대북인식과 통일인식과 일정한 영향을 가지며 한국인들의 한미관계에 대한 생각이 한반도의 안보적 이슈와 관련성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미관계인식에 대한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도 유의미한 관련

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 연도별 분석을 통하여 윤석열 정부 집권 전후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윤석열 정부 수립이후 한미관계인식과 대북정책만족도가 영향관계를 가짐으로써, 한미일 공조 중심의 정부정책기조의 효과가 있다는 일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인식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않는 것 같다. 학술적으로 동맹논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글에서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일부 살펴본 결과, 한국인들의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인식들과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한미동맹이 그동안 항상 긍정적인 방향에서 발전해오지 않았고, 한동안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하는 두려움을 겪으며 살기도 하였다. 현재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 정부간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지만, 향후 어떤 문제이든지 정책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언제든지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영향요인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인들의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변화요인들을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본 통일외식조사에서는 ‘동맹’이라는 직접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와 함께 고려하여 좀 더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제7장

##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

| 김성희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

## 1. 서론

남북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없이 경색국면이 수 년째 지속되고 있다. 「통일외식조사」 조사 시작 이래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통일이 약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정도로 한국인의 통일외식이 전체적으로 하락추세를 그리며 감소하고 있다.<sup>32)</sup> 20대와 30대 또한 예년처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20대 28.2%, 30대 34%)보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20대 41.3%, 30대 35.0%)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2018년에는 20대와 30대도 통일의 필요성에 각각 전체 응답자의 54.2%와 52.9%가 공감했을 정도로 통일외식이 높았다.<sup>33)</sup> 불과 5년만에 20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2022년부터

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여 국제정세 불안정 및 경기침체로 인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분산된 영향도 있을 것이다. 정확한 이유를 식별하기 어려우나 통일외식은 약화되고 있으며, 청년 세대의 경우 특히 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본 장에서는 앞 장의 기초분석의 연령대 분석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코호트 분석을 하고자 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통일외식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통일의 이유에 대한 세대 간 응답 비중 차이를 살펴본다. 또한, 근래 통일외식이 가장 높았던 2018년과 가장 낮은 2023년의 통일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MZ세대의 통일외식의 결정요인을 비교하고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세대분류는 통용되는 미국식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코호트를 조정한 중앙일보(2019)의 정의를 사용한다.<sup>34)</sup> 이 정의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1955~1964년생,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965~1974년생, X세대는 1975~1984년생, 밀레니얼 세대는 1985~1996년생, Z세대는 1997년~2010년대 초반생이다(〈표 2-7-1〉). 2023년 현재 조사 표본에 해당되려면 19세 이상, 즉, 2007년이나 그 이전에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Z세대의 경우 표본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MZ세대로 묶어서 총 4개(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X세대, MZ세대)의 세대구분을 사용한다.

32) 김범수 외(2023). 「통일외식조사 2023」. 1장 통일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33) 정동준 외(2018). 「통일외식조사 201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34) 「내년 베이비부머·X세대·밀레니얼 모두 바뀐다」 『중앙일보』(온라인). 2019년 11월 25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40601#home>>

〈표 2-7-1〉 출생연도에 따른 세대 분류

중앙일보(2019) 세대 분류	출생연도
1차 베이비부머 세대	1955~1964
2차 베이비부머 세대	1965~1974
X세대	1975~1984
밀레니얼 세대*	1985~1996
Z세대*	1997~201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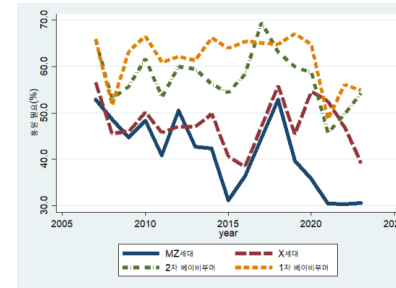
\*주: 통일외식조사에서 Z세대의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MZ세대를 묶어서 분석함.

## 2. 세대별 통일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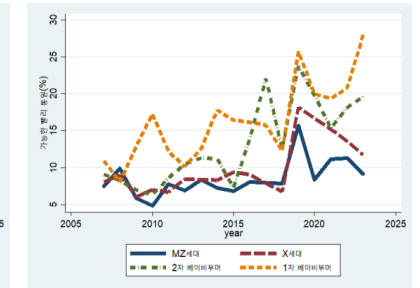
먼저 통일외식을 2007~2023년에 시행된 「통일외식조사」를 활용하여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에 대한 견해’ 측면에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sup>35)</sup> ‘통일의 필요성’은 통일외식조사에서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여 전체 응답자 중 ‘매우 필요하다’ 또는 ‘약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2-7-1〉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세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MZ세대와 X세대의 경우, 2020년 이후 꾸준히 통일의 필요성을 표출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1·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2020년대 초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2018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감소한 세대는 MZ세대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MZ세대의 경우, 2021년 이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거의 없고, X세대의 경우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관찰된다.

35) 다만 조사시행 초기 기간의 경우, MZ세대의 표본 수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근 조사연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2-7-1〉 2007~2023년 통일의 필요성



〈그림 2-7-2〉 2007~2023년 통일의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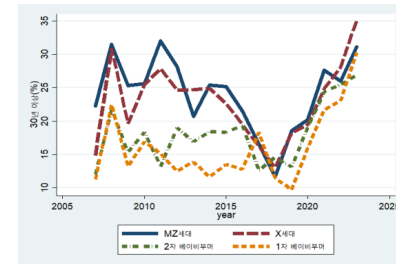
〈그림 2-7-2〉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라는 문항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혹은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세대별로 나타낸다. 통일의 시급성도 통일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2021년 이후 MZ·X세대의 하락, 1·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승이 관찰된다. 특히,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 통일의 시급성을 표출한 응답자의 비중이 7% 포인트 정도 상승하여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MZ세대의 10% 미만이 통일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는 반면, 1차 베이비부머 세대 응답자의 1/3에 가까이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통일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여 세대에 따라 통일에 대한 시각이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7-3〉은 위와 동일한 문항에서 ‘현재대로가 좋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세대별로 나타낸다. 현 상태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2020년 이후 모든 세대에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특히 MZ세대는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 더 상승하여 36%가 넘는 정도로 현 상태를 선호하는 비중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가 시급하게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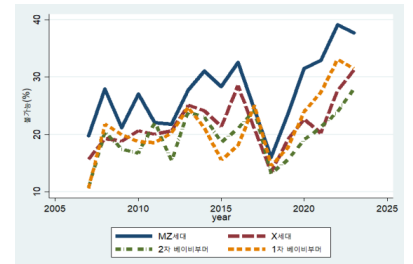
일을 해야한다는 의견보다 현 상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그림 2-7-4>는 같은 문항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세대로 나타낸 것이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MZ세대를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수평선에 가까운 추세로 보인다. MZ세대의 경우, 장기적으로 상승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관심의 비중이 작년보다 상승하여 내년에도 비중이 상승한다면 MZ세대의 약 1/5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응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다른 세대의 경우,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0% 미만이다.

30% 안팎의 응답자들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세대 간 차이가 다른 통일의식 문항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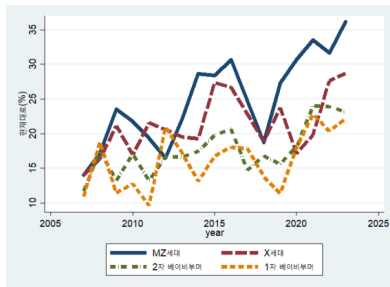
<그림 2-7-5> 2007~2023년 30년 이내 통일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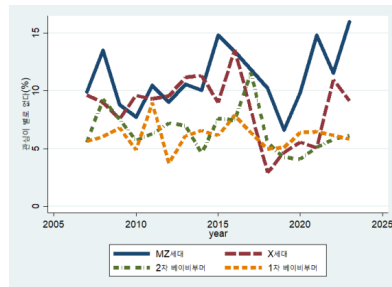
<그림 2-7-6> 2007~2023년 통일의 불가능성



<그림 2-7-3> 2007~2023년 현상태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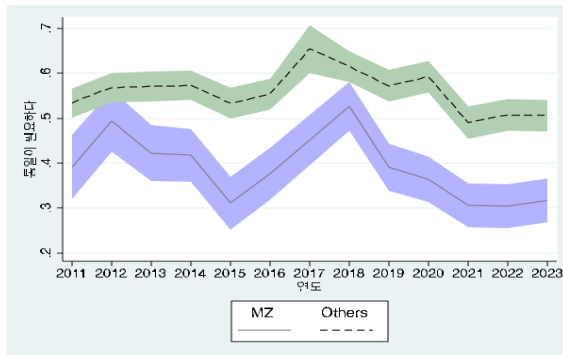
<그림 2-7-4> 2007~2023년 통일에 대한 무관심



통일 가능시기에 대한 문항의 경우,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30년 이내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30년 이내 가능하다는 응답의 경우, 세대로 차이가 거의 없다(<그림 2-7-5>).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세대 간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그림 2-7-6>). MZ세대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자 비중이 작년보다 소폭 하락하였지만 비중이 40%에 가까울 정도로 통일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세대의 경우,

종합하면, 세대를 막론하고 꾸준히 통일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은 감소하며 현상태 선호는 증가하고 있으나, 세대 간의 차이 또한 2020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동의하지 않으며, 현 상태를 선호하거나 통일에 대한 무관심에 동의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MZ세대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급격히 증가한 추세가 관찰된다. 통일의식의 대표적 변수인 통일에 대한 필요성의 경우, MZ세대와 그 외의 세대의 예측확률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7>은 2011년~2023년 MZ세대와 비MZ세대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예측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낮고, 통일의식이 가장 높았던 2018년에도 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확률이 차이가 났던 것이 관찰된다. 또한 최근들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7-7〉 2011~2023년 통일의 필요성 예측확률



주: MZ세대는 실선, 비MZ세대는 점선으로 나타냄. 음영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소득, 직업, 거주지역, 종교, 정치성향, 한국 경제에 대한 견해가 통제변수로 포함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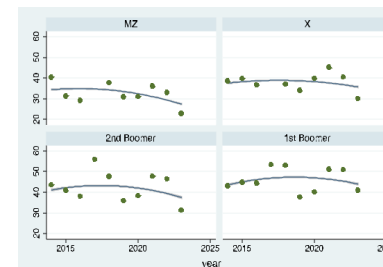
### 3. 세대별 통일의 이유 응답 현황

통일외식조사에서는 통일을 해야한다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선택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항에 대한 보기는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가 있다. 가장 응답자 비중이 많은 앞의 세 보기를 중심으로 통일의 이유에 대한 응답자 비중이 세대별로 변화가 있는지 최근 10년의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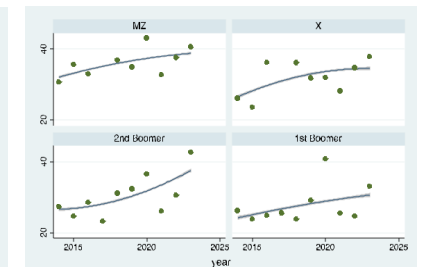
〈그림 2-7-8〉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을 세대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해당 보기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하는 보기였으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대가 공통적으로 작년 조사에

비해 응답 비중이 감소하였다. MZ세대의 경우, 해당 보기는 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통일해야 한다는 보기보다 응답 비중이 적은 경향을 꾸준히 보였다. 올해 그 경향이 더 강화되어, 약 20%의 응답자만이 민족주의적 이유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X세대 및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작년에는 40%가 넘는 응답자들이 해당 보기를 선택하였으나, 올해에 10% 포인트 이상 감소분을 기록하여 전 세대에 걸쳐 민족주의적 이유가 약화된 경향이 관찰된다. 한편, 해당 보기에 대한 감소분이 대부분 '전쟁 위협 제거' 문항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9〉에서 나타나듯, 모든 세대에서 작년보다 올해 남북 간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한다는 응답 비중이 상승하였다. 특히, MZ세대와 X세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40% 내외의 응답자 비중을 기록하여 전쟁 위협을 제거한다는 실리적인 이유가 전체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에도 30% 이상이 해당 보기를 선택하여, 민족적 이유보다 실리적 이유로 인한 통일이 앞으로는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7-8〉 '같은 민족이니까' 응답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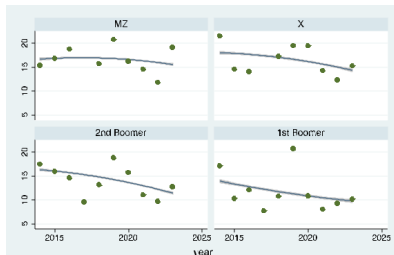
〈그림 2-7-9〉 '전쟁위험 제거' 응답비중



또 다른 실리적인 이유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 또한 전 세대에서 상승하였다(〈그림 2-7-10〉). 특히 MZ세대의 경우, 약 20%의 응답자들이 해당 보기를 선택하여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한다는 보기에 대한 응답 비중과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약 60%가 통일의 이유를 실리적인 이유로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 국가 또는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먼저, 통일이 국가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게서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그림 2-7-11〉). 다만 작년보다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는 항목은 아님을 볼 수 있다.

〈그림 2-7-10〉 '선진화 되기 위해' 응답비중



〈그림 2-7-11〉 '통일이 국가에게 이익' 응답비중



반면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는 응답자의 비중은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중에 비해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7-12〉는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세대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MZ세대와 X세대의 약 25%가 해당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1·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30% 이상이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2-7-12〉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 응답비중



다만, 통일에 대한 이익은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MZ세대의 경우 선진국이 되기 위해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 8% 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그림 2-7-10〉). 이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중 해당 보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에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MZ세대의 12%만이 해당 보기를 선택하였다면, 2023년에는 21%가 해당 보기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통일을 해야 한다면'에 대한 이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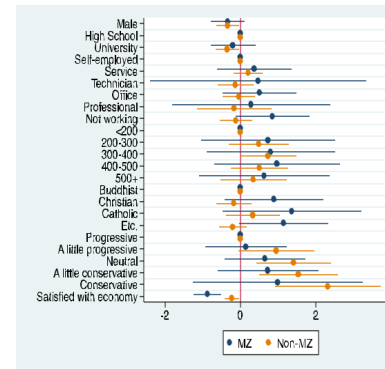
#### 4. MZ세대의 통일의식 결정요인

2장에서 세대별 통일의식의 시간적 추세를 살펴보았으나 통일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4장에서는 통일의식을 대리하는 대표적인 변수인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시급성’, ‘현 상태 선호’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통일의식이 가장 높았던 2018년과 근래 가장 낮은 2023년의 결정요인을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는지 확인해 본다. 통제 변수로는 성별, 결혼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월 소득, 직업, 종교, 정치성향, 한국 경제에 대한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한국 경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통일의식이 국가 경제에 대한 관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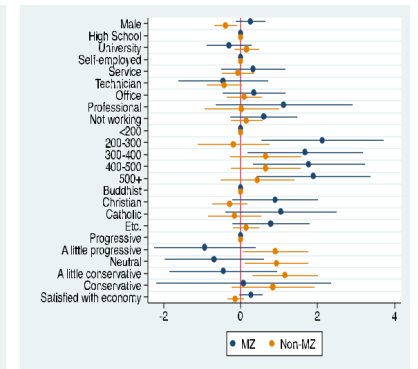
〈그림 2-7-13〉은 2018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통일의 필요성’이 종속변수일 때 결정요인의 계수 값을 나타낸다.<sup>36)</sup> 기준선(수직선)을 기준으로 우측에 점이 위치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좌측에 위치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임을 의미한다. MZ세대를 푸른색, 비MZ세대를 노란색으로 표시하여 세대 간 차이 또한 관찰할 수 있게 나타내었다.

36) 결혼상태 및 거주지역의 경우, 지면 상의 이유로 결과를 생략하였다.

〈그림 2-7-13〉 통일 필요성 결정요인: 2018년



〈그림 2-7-14〉 통일 필요성 결정요인: 2023년



주: 계수값이 우측에 위치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임. 수평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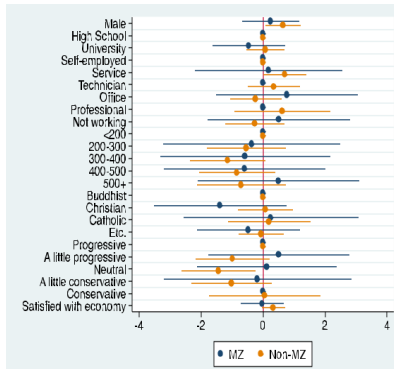
2018년 조사 자료의 경우, 거의 모든 통제변수가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한국 경제에 대해 만족할수록 MZ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MZ세대의 경우 정치성향이 결정요인으로 관찰된다.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8년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요인은 정치성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7-14〉는 2023년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비MZ세대의 경우, 정치성향과의 연관성이 약화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른 뚜렷한 결정요인이 관찰되지 않는다. 반면, MZ세대의 경우, 소득이 결정요인으로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에 비해 2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정치성향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중도성향에 가까운 응답자들과 극단에 가까운 응답자들 간의 차이가 관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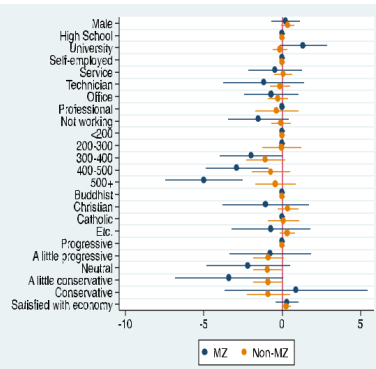


〈그림 2-7-15〉와 〈그림 2-7-16〉은 통일의 시급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점이 우측에 위치할수록 통일의 시급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결정요인이다. 2018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MZ세대의 결정요인으로 관찰되는 것은 없다. 반면, 비MZ세대의 경우, 중도와 극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자료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MZ세대의 결정요인에 변화가 보인다.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의 시급성에 부정적이며, 중도적 정치성향을 갖는 경우, 극단적 정치성향을 갖는 응답자들에 비해 통일의 시급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비MZ세대의 경우 뚜렷한 결정요인을 찾기 어렵다.

〈그림 2-7-15〉 통일 시급성 결정요인: 2018년



〈그림 2-7-16〉 통일 시급성 결정요인: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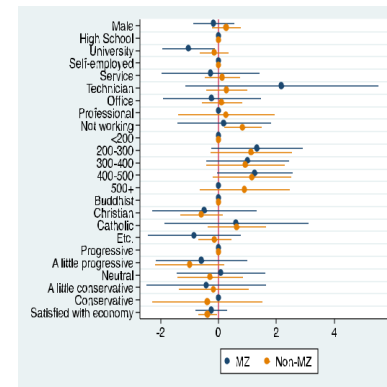


주: 계수값이 우측에 위치할수록 통일의 시급성에 대해 긍정적임. 수평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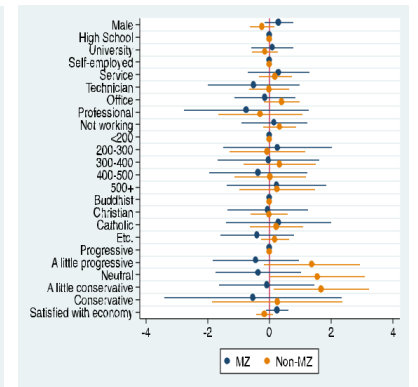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현 상태 선호에 대한 결정요인을 〈그림 2-7-17〉과 〈그림 2-7-18〉에 나타냈다. 2018년 현 상태 선호의 경우, MZ세대와 비MZ세대 모두 뚜렷한 결정요인을 찾기 어렵다. 2023년의 경우, MZ세대의 결정요인을 찾기 어려우나 비MZ세대의 결정요인은 정치성향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MZ세대의 경우, 현 상태 선호에 있어서 세대 내 동질성을 보인다. 즉, MZ세대에 속한다면 뚜렷한 결정요인 없이 현 상태를 선호하는 응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비MZ세대의 경우, 정치성향에 따라 세대 내 현 상태 선호에 대한 이질성이 관찰된다.

〈그림 2-7-17〉 현 상태 선호 결정요인: 2018년



〈그림 2-7-18〉 현 상태 선호 결정요인: 2023년



주: 계수값이 우측에 위치할수록 현 상태 선호에 대해 긍정적임. 수평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통일의 필요성 및 시급성의 경우, 2018년에는 MZ세대 내에서 뚜렷한 결정요인 없이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을 띄었으나, 2023년에는 소득과 정치성향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세대 내 이질성이 관찰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경향이 향후 조사에서 또 관찰된다면, 앞으로 청년 세대의 통일에 대한 견해는 소득과 정치성향에 따라 이질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5. 소결

청년 세대의 통일의식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최근 몇 년간 관찰되고 있다. 물론 다른 세대에게서도 통일의식의 감소 추세가 관찰되고 있으나, MZ세대라 불리는 현 청년 세대의 경우 시작점부터 윗세대에 비해 통일의식이 약한 세대였으며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진전이 없는 한 통일의식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청년 세대는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성향과 더불어 통일의 이유를 꼽는다면 민족적인 이유보다 실리적인 이유를 꼽는 실리적 성향을 지닌 세대이다. 하지만, 이는 실리적인 이유라면 통일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아닌, 통일을 지지하지 않지만 통일을 해야 한다면 실리적인 이유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MZ세대 응답자의 절반이 통일이 국가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은 국가적인 이익을 이유로 통일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며, 전쟁 위협 제거나 선진국이 되기 위한 방편이 통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3년 자료로 통일의식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통일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서 소득과 정치성향이 MZ세대 통일의식의 결정요인으로 관찰되어 2018년 자료와 대조를 보였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통일로 인해 발생할 비용과 편익에 따라 청년 세대의 통일의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시사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소득과 정치성향에 따라 통일에 대한 견해가 달라

질 수 있는 세대 내 이질성 현상이 지속 및 심화된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갈등에 더해 세대 내 갈등 심화에 대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정체성은 2023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본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조사에서 국민정체성을 결정요인으로 포함 가능할 경우, 약화되는 민족주의적 정당성의 역할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의식의 약화와 더불어 청년 세대에게서 꾸준히 관찰되는 현 상태 선호 비중 상승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현재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통일의식을 고취한다는 목적은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MZ세대의 후속세대가 통일의식이 더 약하다고 가정한다면, 장기적인 통일정책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물론, 통일의식이 다시 제고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2018년에 관찰되었던 것처럼 남북관계의 개선은 통일의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또한 통일 실현에 대한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통일의식의 장기적 추세에 변화를 줄 계기가 발생하여 통일의식이 상승전환하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력이 생길 경우, 어떠한 구체적 목표로 통일에 접근해야 할지도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할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결 장



## 결장

2023년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국제적 신냉전 대립 속에 주변 정세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 및 북한 위협인식이 상승하고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해졌으며, 그 결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혹은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3.8%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혹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분리주의 여론이 29.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로 상승하였으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역시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다.

이러한 통일의식의 변화를 단순히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통일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통적 의미에서 통일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세대가 달라지면서 남북간 경제협력이나 자유왕래, 문화교류 등을 통일로 간주하는 경향에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올해 조사에서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을 통일로 인식하는 비중은 59.8%로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남북간 경제협력’(12.3%), ‘인적·물적 자유왕래’(22.5%), ‘문화교류’(5.4%)를 통일로 인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대북정책의 목적으로

통일 선호는 14.6%에 불과한 반면, 평화공존 및 평화정착이 65.1%로 압도적으로 높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 통합이 20.1% 등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통일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60.9%→64.8%으로 상승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적대·경계 의식이 42.6%로 조사 이래 최고치로 높아졌으며, 협력 의식은 47.9%→37.7%로 약화되었다. 북핵위협과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심각성은 최근 2년 사이에 33.3%→36.5%→42.5%로 급상승하였다. 세대·지역·이념에 따른 의식의 편차는 작년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연령, 지역, 정치성향 등에 따른 대북인식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대북 부정 인식(적+경계)이 49.3%로 가장 높은 반면, ‘586세대’로 불리는 50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4.3%로 지난해 45.5% 대비 8.8%p 상승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적/경계의식이 최고로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60대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60.0%로 가장 높고 30대(55.0%), 40대(54.4%), 20대(50.7%), 50대(49.6%) 순으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지역별로는 영남(61.7%)과 수도권(60.0%)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충청(48.2%)과 강원(47.5%), 호남(42.7%)에서는 낮았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52.3%가 찬성하여 작년 대비 3.7% 하락했으나 역대 최고치(56.0%)였던 작년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핵무장 방식으로는 ‘자체 핵무기 개발’(49.3%)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23.6%)가 그 뒤를 이었다.

주변국 인식으로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2007년 53%에서 지속 상승하여 2023년에 81.5%를 기록했다. 위협적인 주변국 가운데는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컸지만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가장 커졌고, 올해는 다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여 45.8%가 북한을 위협적인 나라로 선택했다. 중국을 위협적인 나라로 꼽은 사람은 36.8%이며 일본(8.3%), 러시아(4.6%), 미국(4.5%)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핵 공격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88.3%가 그렇다고 답하여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 공약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50%가 한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했고, 한중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9.3%,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18.4%로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작년 대비 4%p 감소한 19%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5.5%p 상승하여 62.5%를 기록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중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의견은 최근 2년 동안 상승하여 올해 32.5%를 기록했다. 북한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도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화 분석으로 한미관계와 청년세대의 통일의식을 집중 조명하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살펴본 한미관계 인식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을 주변국 중 가장 친밀한 나라로 인식하고 특히 전쟁 발생 시 한국을 도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과는 달리 일반인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 미국의 역할은 기대하지만 한국정부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세대 간 차이를 집중 조명한 심화 분석에서는 MZ세대의 부정적 통일의식이 최근 몇 년 동안 심화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다른 세대보다 통일에 대한 선호 자체가 낮다고 판단된다. 통일의 이익을 보는 관점은 개인보다 국가차원에서의 이익을 높게 평가하며, 통일을 해야 한다면 “같은 민족이니까”(22.8%)보다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해”(40.6%) 통일을 지지하는 실리적 태도를 갖고 있다. 통일의식 전반에서 세대, 지역, 이념에 따른 차이가 대체로 유의미하게 발견되었으나, 국내외 안보 불안 상승과 북한 핵위협 고조 상황에서 작년에 비해 완화하여 부분적 수렴 현상도 진행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2024년 전망도 그다지 밝지는 않다.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대립과 긴장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중동에서의 전문이 이란과 여타 국가로 확산되면 흑역라도 중국이 이러한 혼란을 틈타 대만과의 통일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 경우 북한의 행보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 남한에 대해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두번이나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결국 감행(23.11.21)함으로써 올해 형성된 대북 부정인식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그러한 판단을 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대화가 쉽지 않고 당분간 중국 및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제연대를 추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 같다. 신냉전 국제정세와 북한발 안보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세대·지역·이념 간 의식분화는 당분간 둔화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관광 개방과 교육 및 문화 국제교류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기대되고, 최근 진행중인 미중간 대화의 기류가 가시화되면 통일의식의 긍정적 변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이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북핵해법과 대한반도 정책을 달리 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 과정이 2024년 한반도의 미래는 물론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 평화의 계기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부록





##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의식변화를 연도별로 추적·비교하여 평화로운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미지</li> <li>남북한 통일의 필요성</li> <li>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li> <li>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li> <li>대북 사안별 시급성</li> <li>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li> <li>통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li> <li>통일이 이익이 되는 정도(남한/자기 자신)</li> <li>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li> <li>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li> </ul>
북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li> <li>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li> <li>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li> <li>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li> <li>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li> <li>북한 사회 인지도</li> <li>북한 관련 경험 유무</li> <li>만나본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정도</li> <li>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인식</li> <li>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li> <li>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li> <li>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견해</li> <li>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견해</li> </ul>

구분	내용
대북 지원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북정책 도움 정도(북한 개혁개방/북한 비핵화)</li> <li>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li> <li>현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도</li> <li>대북 정책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li> <li>남북한 간 체결 합의 사항 계승 찬반 의견</li> <li>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li> <li>한국 핵무장 관련 가장 적절한 방식</li> </ul>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li> <li>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li> <li>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견해</li> <li>한국 거주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li> <li>다문화 관련 인식</li> </ul>
주변국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li> <li>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li> <li>북·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li> <li>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인식</li> <li>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li> <li>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li> <li>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li> <li>'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중 중요한 것</li> <li>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강화 필요 정도</li> <li>북한 핵 공격 개시 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li> <li>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li> <li>중국과 북한 사이 협력 강화에 대한 생각</li> <li>미·중 갈등 심화 시 한국의 입장</li> </ul>
현재의 정치/경제/사회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li> <li>응답자 본인의 경제 상황 만족도</li> <li>남한 사회의 민주성 평가</li> <li>정치적 주장에 대한 생각</li> <li>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li> <li>정치적 성향</li> <li>지지정당</li> <li>현직 대통령 직무 평가</li> <li>국가의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평가</li> <li>사회기관 신뢰도</li> </ul>
응답자 특성 (Demographic Vari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li> <li>지역크기</li> <li>성</li> <li>연령</li> <li>직업</li> <li>결혼상태</li> <li>교육수준</li> <li>종교</li> <li>가구소득수준</li> <li>가구소득계층</li> <li>사회계층</li> <li>생활수준 개선도</li> <li>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역</li> </ul>

### 3. 조사의 기본설계

#### 1) 표본 설계 (Sample Design)

구분	내용
1) 모 집 단	전국 17개 시도(세종은 충남에 포함)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2) 표 본 크 기	1,200명(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4) 표본 오차(주)	± 2.8% (95% 신뢰수준)

〈 표본 할당 〉

지역	성별	연령별					소계	합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74세		
서울특별시	남자	17	18	17	18	20	90	186
	여자	20	18	17	18	23	96	
부산광역시	남자	6	6	7	8	10	37	76
	여자	6	6	7	8	12	39	
대구광역시	남자	5	5	6	7	7	30	60
	여자	5	4	6	7	8	30	
인천광역시	남자	6	7	8	8	8	37	72
	여자	6	6	7	8	8	35	
광주광역시	남자	4	4	5	5	5	23	45
	여자	4	3	5	5	5	22	
대전광역시	남자	5	4	4	5	5	23	45
	여자	5	3	4	5	5	22	
울산광역시	남자	3	4	4	4	5	20	39
	여자	2	3	4	5	5	19	
경기도	남자	23	25	28	28	27	131	256
	여자	20	22	27	28	28	125	
강원도	남자	4	3	4	5	7	23	45
	여자	3	3	4	5	7	22	
충청북도	남자	5	4	5	5	6	25	47
	여자	4	3	4	5	6	22	
충청남도	남자	6	6	7	7	7	33	62
	여자	5	5	6	6	7	29	
전라북도	남자	5	3	5	5	7	25	49
	여자	4	3	5	5	7	24	
전라남도	남자	4	3	5	6	7	25	48
	여자	3	3	4	5	8	23	
경상북도	남자	6	5	6	7	9	33	63
	여자	4	4	6	7	9	30	
경상남도	남자	6	6	8	9	10	39	75
	여자	5	5	8	8	10	36	
제주도	남자	3	3	3	4	3	16	32
	여자	2	3	3	4	4	16	
합계		206	200	239	260	295	1,200	1,200

〈주1〉 층화변수는 시/도별(16개 수준, 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 성별(2개 수준), 연령별(5개 수준)로 선정

〈주2〉 표본할당은 시/도별 응답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개 표본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법 적용

#### 2) 실사 설계 (Fieldwork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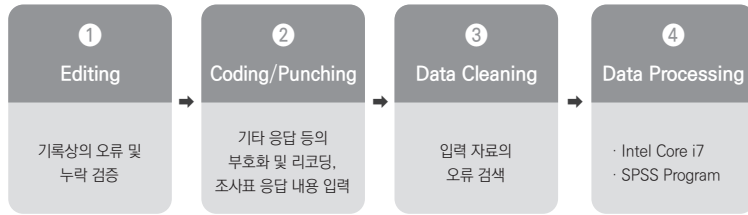
-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 조사
- 조사기간 : 2023년 7월 4일 ~ 2023년 7월 27일 (24일간)



### 4. 자료 처리

#### 1) 자료 처리 (Data Processing)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하였음.



### 5.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 전 체 ■		(1200)	100.0
성별	남자	(610)	50.8
	여자	(590)	49.2
연령별	19~29세	(206)	17.2
	30대	(200)	16.7
	40대	(239)	19.9
	50대	(260)	21.7
	60대 이상	(295)	24.6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6.8
	고졸	(505)	42.1
	대재 이상	(613)	51.1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3
	자영업	(304)	25.3
	블루칼라	(313)	26.1
	화이트칼라	(301)	25.1
	전업주부	(170)	14.2
	학생/군인/무직/기타	(84)	7.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4.8
	200~299만원	(124)	10.3
	300~399만원	(219)	18.3
	400만원 이상	(800)	66.7
지역별	수도권	(514)	42.8
	충청권	(154)	12.8
	호남권	(142)	11.8
	영남권	(313)	26.1
	강원	(45)	3.8
	제주	(32)	2.7
지역 크기	대도시	(523)	43.6
	중소도시	(531)	44.3
	읍/면	(146)	12.2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24.4
	중도	(622)	51.8
	보수적	(285)	23.8
종교	불교	(219)	18.3
	기독교	(187)	15.6
	천주교	(51)	4.3
	기타	(8)	0.7
	종교 없음	(708)	59.0
	모름/무응답	(27)	2.3

주1) 부록에 제시된 통계는 원자료(표준화 가중치 미적용)를 기준으로 구성됨.

주2) 가중 표본(자료처리 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보정)으로 구성된 응답자 특성 및 조사 결과 집계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초보고서 참고 (<https://pus.snu.ac.kr/data-archive>)

### 6. 조사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강원 및 제주 지역 표본 수가 모집단 현황보다 과표집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과를 이용해야 함.
- 조사 완료 사례 수가 30표본 미만의 과소한 응답 집단은 통계청에서 허용하는 상대표준오차 범위(CV ≤ 25%)를 벗어나게 되므로 집단 특성별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유사 조사 또는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문항 내용에 차이가 있고, 조사 기간 및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를 할 때는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함.

### 【 별첨.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 】

#### 1. 표본 오차(Sampling Error) 공식

- 표본추출 사례로서 모집단을 추정할 때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표본오차 (Sampling Error) 공식은 아래와 같다.

$$SE = \pm 1.96 \sqrt{\frac{P(100 - P)}{n}}$$

P : The Observed Percentage  
n : The Sample Size

#### 2. 표본의 크기별 표본오차 예시

- 표본오차의 해석 : 동일한 과정의 조사를 100번 했을 경우의 결과값 중 95번은 표본오차 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95% 신뢰수준)

Observed Percentage	Sample Size				
	500	1,000	1,200	2,000	3,000
	± %	± %	± %	± %	± %
50	4.4	3.1	<b>2.8</b>	2.2	1.8
40 or 60	4.2	3.0	2.8	2.1	1.8
30 or 70	4.0	2.7	2.6	2.0	1.6
20 or 80	3.5	2.5	2.3	1.8	1.4
10 or 90	2.6	1.9	1.7	1.3	1.1

\* 본 조사의 경우 표본크기가 1,200이므로 최대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 정도임.



---

---

## 조사 결과 집계표

응답자 특성

■ 전 체 ■		사례수	%
성별	남자	(610)	50.8
	여자	(590)	49.2
연령별	19~29세	(206)	17.2
	30대	(200)	16.7
	40대	(239)	19.9
	50대	(260)	21.7
	60대 이상	(295)	24.6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82)	6.8
	고졸	(505)	42.1
	대재 이상	(613)	51.1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3
	자영업	(304)	25.3
	블루칼라	(313)	26.1
	화이트칼라	(301)	25.1
	전업주부	(170)	14.2
	학생/군인/무직/기타	(84)	7.0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4.8
	200~299만원	(124)	10.3
	300~399만원	(219)	18.3
	400만원 이상	(800)	66.7
지역별	수도권	(514)	42.8
	충청권	(154)	12.8
	호남권	(142)	11.8
	영남권	(313)	26.1
	강원	(45)	3.8
	제주	(32)	2.7
지역크기	대도시	(523)	43.6
	중소도시	(531)	44.3
	읍/면	(146)	12.2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24.4
	중도	(622)	51.8
	보수적	(285)	23.8
종교	불교	(219)	18.3
	기독교	(187)	15.6
	천주교	(51)	4.3
	기타	(8)	0.7
	종교 없음	(708)	59.0
	모름/무응답	(27)	2.3

표 1.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미지

문) OO님은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 전 체 ■	사례수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계	
		%	%	%	%		
■ 전 체 ■	(1200)	60.3	12.7	21.3	5.8	100.0	
성별	남자	(610)	59.8	12.6	20.8	6.7	100.0
	여자	(590)	60.8	12.7	21.7	4.7	100.0
연령별	19~29세	(206)	59.2	10.7	20.9	9.2	100.0
	30대	(200)	55.5	14.5	24.0	6.0	100.0
	40대	(239)	58.6	12.6	23.4	5.4	100.0
	50대	(260)	60.4	14.6	21.2	3.8	100.0
	60대 이상	(295)	65.8	11.2	18.0	5.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69.5	13.4	11.0	6.1	100.0
	고졸	(505)	57.8	13.1	25.1	4.0	100.0
	대재 이상	(613)	61.2	12.2	19.4	7.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7.1	14.3	21.4	7.1	100.0
	자영업	(304)	60.5	12.5	21.4	5.6	100.0
	블루칼라	(313)	55.6	13.7	25.9	4.8	100.0
	화이트칼라	(301)	62.8	11.3	18.3	7.6	100.0
	전업주부	(170)	62.9	15.3	17.6	4.1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64.3	8.3	21.4	6.0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68.4	8.8	19.3	3.5	100.0
	200~299만원	(124)	65.3	7.3	18.5	8.9	100.0
	300~399만원	(219)	56.6	15.5	23.7	4.1	100.0
	400만원 이상	(800)	60.0	13.0	21.1	5.9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56.8	12.5	27.8	2.9	100.0
	충청권	(154)	64.9	9.7	14.3	11.0	100.0
	호남권	(142)	57.0	15.5	18.3	9.2	100.0
	영남권	(313)	65.5	12.1	16.3	6.1	100.0
	강원	(45)	62.2	11.1	20.0	6.7	100.0
	제주	(32)	56.3	25.0	12.5	6.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59.7	17.4	19.1	3.8	100.0
	중소도시	(531)	60.1	8.3	24.7	7.0	100.0
	읍/면	(146)	63.7	11.6	16.4	8.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60.4	13.3	20.1	6.1	100.0
	중도	(622)	57.2	14.3	22.3	6.1	100.0
	보수적	(285)	67.0	8.4	20.0	4.6	100.0
종교	불교	(219)	59.4	15.5	20.5	4.6	100.0
	기독교	(187)	64.7	9.6	20.3	5.3	100.0
	천주교	(51)	62.7	9.8	25.5	2.0	100.0
	기타	(8)	75.0	0.0	12.5	12.5	100.0
	종교 없음	(708)	59.3	12.7	21.6	6.4	100.0
	모름/무응답	(27)	55.6	18.5	18.5	7.4	100.0



표 4.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OO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계	
		%	%	%	%	%	%	%	
■ 전 체 ■ (1200)									
성별	남자	(610)	1.3	6.2	14.8	14.7	30.2	33.3	100.0
	여자	(590)	0.7	6.6	13.2	14.1	31.2	34.2	100.0
연령별	19~29세	(206)	0.0	4.4	12.6	11.7	32.0	39.3	100.0
	30대	(200)	1.0	4.5	12.5	16.5	30.5	35.0	100.0
	40대	(239)	0.4	6.7	13.0	15.5	33.5	31.0	100.0
	50대	(260)	1.2	6.9	16.5	17.7	28.1	29.6	100.0
	60대 이상	(295)	2.0	7.5	17.6	12.2	27.8	32.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2.4	7.3	13.4	11.0	26.8	39.0	100.0
	고졸	(505)	1.4	7.7	15.8	13.3	30.9	30.9	100.0
	대재 이상	(613)	0.5	4.7	14.0	16.3	30.0	34.4	100.0
	농/수/축산업	(28)	10.7	10.7	14.3	21.4	21.4	21.4	100.0
직업별	자영업	(304)	1.0	6.3	17.8	13.2	28.9	32.9	100.0
	블루칼라	(313)	1.0	7.0	14.4	12.8	30.4	34.5	100.0
	화이트칼라	(301)	0.7	4.7	11.3	19.3	29.2	34.9	100.0
	전업주부	(170)	0.6	7.6	14.1	14.1	34.1	29.4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0.0	3.6	19.0	9.5	32.1	35.7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5.3	3.5	21.1	17.5	22.8	29.8	100.0
	200~299만원	(124)	1.6	11.3	10.5	8.1	32.3	36.3	100.0
	300~399만원	(219)	1.4	8.7	16.0	14.2	24.7	35.2	100.0
	400만원 이상	(800)	0.5	4.9	14.6	15.6	31.9	32.5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2	7.0	17.5	17.3	27.6	29.4	100.0
	충청권	(154)	1.3	5.8	17.5	13.0	26.6	35.7	100.0
	호남권	(142)	0.7	6.3	7.7	19.7	26.8	38.7	100.0
	영남권	(313)	1.0	3.5	11.2	9.3	38.3	36.7	100.0
	강원	(45)	0.0	11.1	8.9	13.3	42.2	24.4	100.0
	제주	(32)	0.0	12.5	31.3	12.5	6.3	37.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1.1	6.5	16.3	14.9	28.9	32.3	100.0
	중소도시	(531)	0.8	4.7	14.1	14.9	31.8	33.7	100.0
	읍/면	(146)	1.4	10.3	11.6	13.0	28.8	34.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0.7	7.2	14.3	19.5	28.0	30.4	100.0
	중도	(622)	0.8	5.9	13.8	12.5	32.8	34.1	100.0
	보수적	(285)	1.8	5.6	17.2	14.4	26.7	34.4	100.0
종교	불교	(219)	1.4	6.4	15.1	11.4	32.9	32.9	100.0
	기독교	(187)	1.6	5.9	14.4	19.8	30.5	27.8	100.0
	천주교	(51)	0.0	7.8	19.6	9.8	25.5	37.3	100.0
	기타	(8)	0.0	12.5	25.0	25.0	37.5	0.0	100.0
	종교 없음	(708)	0.6	5.6	14.5	14.8	29.8	34.6	100.0
	모름/무응답	(27)	7.4	14.8	7.4	7.4	22.2	40.7	100.0

표 5-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㉞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①+②	③+④	계	
		%	%	%	%	%	%	%	
■ 전 체 ■ (1200)									
성별	남자	(610)	11.3	50.3	34.3	4.2	61.6	38.4	100.0
	여자	(590)	9.5	52.9	34.2	3.4	62.4	37.6	100.0
연령별	19~29세	(206)	5.3	46.6	41.7	6.3	51.9	48.1	100.0
	30대	(200)	8.0	50.5	33.5	8.0	58.5	41.5	100.0
	40대	(239)	8.4	52.7	36.4	2.5	61.1	38.9	100.0
	50대	(260)	16.5	50.8	31.2	1.5	67.3	32.7	100.0
	60대 이상	(295)	15.6	50.2	30.5	3.7	65.8	34.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2.2	51.2	34.1	2.4	63.4	36.6	100.0
	고졸	(505)	11.5	51.7	33.3	3.6	63.2	36.8	100.0
	대재 이상	(613)	11.1	48.9	35.1	4.9	60.0	4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1.4	60.7	14.3	3.6	82.1	17.9	100.0
	자영업	(304)	13.2	52.6	28.3	5.9	65.8	34.2	100.0
	블루칼라	(313)	10.2	49.8	36.7	3.2	60.1	39.9	100.0
	화이트칼라	(301)	9.3	48.8	37.5	4.3	58.1	41.9	100.0
	전업주부	(170)	11.8	48.2	37.6	2.4	60.0	40.0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11.9	48.8	34.5	4.8	60.7	39.3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7.5	49.1	31.6	1.8	66.7	33.3	100.0
	200~299만원	(124)	18.5	40.3	36.3	4.8	58.9	41.1	100.0
	300~399만원	(219)	11.0	50.2	34.7	4.1	61.2	38.8	100.0
	400만원 이상	(800)	9.9	51.9	34.0	4.3	61.8	38.3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8.4	54.7	32.5	4.5	63.0	37.0	100.0
	충청권	(154)	12.3	47.4	33.8	6.5	59.7	40.3	100.0
	호남권	(142)	23.9	48.6	24.6	2.8	72.5	27.5	100.0
	영남권	(313)	5.1	46.3	45.7	2.9	51.4	48.6	100.0
	강원	(45)	37.8	44.4	17.8	0.0	82.2	17.8	100.0
	제주	(32)	21.9	46.9	18.8	12.5	68.8	31.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9.8	46.3	39.4	4.6	56.0	44.0	100.0
	중소도시	(531)	12.2	54.0	29.8	4.0	66.3	33.7	100.0
	읍/면	(146)	13.7	50.7	32.2	3.4	64.4	35.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12.3	55.3	29.7	2.7	67.6	32.4	100.0
	중도	(622)	11.4	48.1	35.7	4.8	59.5	40.5	100.0
	보수적	(285)	10.2	49.8	35.8	4.2	60.0	40.0	100.0
종교	불교	(219)	12.3	54.3	31.1	2.3	66.7	33.3	100.0
	기독교	(187)	11.8	55.6	31.0	1.6	67.4	32.6	100.0
	천주교	(51)	9.8	52.9	31.4	5.9	62.7	37.3	100.0
	기타	(8)	25.0	50.0	25.0	0.0	75.0	25.0	100.0
	종교 없음	(708)	10.9	48.4	36.0	4.7	59.3	40.7	100.0
	모름/무응답	(27)	11.1	22.2	44.4	22.2	33.3	66.7	100.0



표 5-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군사적 긴장 해소

문)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않다	전혀 시급하지않다				
		사례수	%	%	%	%	%	%	
■ 전 체 ■		(1200)	33.2	43.8	19.8	3.3	76.9	23.1	100.0
성별	남자	(610)	34.6	41.5	20.7	3.3	76.1	23.9	100.0
	여자	(590)	31.7	46.1	18.8	3.4	77.8	22.2	100.0
연령별	19-29세	(206)	29.1	42.2	23.3	5.3	71.4	28.6	100.0
	30대	(200)	36.0	40.5	20.0	3.5	76.5	23.5	100.0
	40대	(239)	31.4	47.3	17.6	3.8	78.7	21.3	100.0
	50대	(260)	33.5	44.2	20.4	1.9	77.7	22.3	100.0
	60대 이상	(295)	35.3	43.7	18.3	2.7	79.0	21.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35.4	37.8	24.4	2.4	73.2	26.8	100.0
	고졸	(505)	27.7	50.3	18.4	3.6	78.0	22.0	100.0
	대재 이상	(613)	37.4	39.2	20.2	3.3	76.5	23.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2.1	53.6	14.3	0.0	85.7	14.3	100.0
	자영업	(304)	31.6	44.1	19.7	4.6	75.7	24.3	100.0
	블루칼라	(313)	29.7	46.3	21.4	2.6	76.0	24.0	100.0
	화이트칼라	(301)	36.5	39.5	19.6	4.3	76.1	23.9	100.0
	전업주부	(170)	33.5	45.9	18.8	1.8	79.4	20.6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42.1	40.4	15.8	1.8	82.5	17.5	100.0
	200-299만원	(124)	37.9	36.3	21.8	4.0	74.2	25.8	100.0
	300-399만원	(219)	27.4	52.5	17.4	2.7	79.9	20.1	100.0
	400만원 이상	(800)	33.4	42.8	20.4	3.5	76.1	23.9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31.7	46.3	18.1	3.9	78.0	22.0	100.0
	충청권	(154)	29.2	37.7	26.6	6.5	66.9	33.1	100.0
	호남권	(142)	31.7	47.9	19.7	0.7	79.6	20.4	100.0
	영남권	(313)	34.2	42.2	21.7	1.9	76.4	23.6	100.0
	강원	(45)	42.2	46.7	6.7	4.4	88.9	11.1	100.0
	제주	(32)	59.4	25.0	12.5	3.1	84.4	15.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30.0	44.6	21.8	3.6	74.6	25.4	100.0
	중소도시	(531)	36.0	43.1	17.9	3.0	79.1	20.9	100.0
	읍/면	(146)	34.2	43.2	19.2	3.4	77.4	2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35.5	45.4	17.4	1.7	80.9	19.1	100.0
	중도	(622)	31.8	42.0	21.7	4.5	73.8	26.2	100.0
	보수적	(285)	33.7	46.0	17.9	2.5	79.6	20.4	100.0
종교	불교	(219)	34.2	40.6	23.3	1.8	74.9	25.1	100.0
	기독교	(187)	36.4	42.8	19.3	1.6	79.1	20.9	100.0
	천주교	(51)	35.3	47.1	17.6	0.0	82.4	17.6	100.0
	기타	(8)	37.5	37.5	12.5	12.5	75.0	25.0	100.0
	종교 없음	(708)	32.2	45.2	18.6	4.0	77.4	22.6	100.0
	모름/무응답	(27)	22.2	33.3	29.6	14.8	55.6	44.4	100.0

표 5-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않다	전혀 시급하지않다				
		사례수	%	%	%	%	%	%	
■ 전 체 ■		(1200)	2.7	18.0	48.6	30.8	20.7	79.3	100.0
성별	남자	(610)	2.3	17.4	48.2	32.1	19.7	80.3	100.0
	여자	(590)	3.1	18.6	49.0	29.3	21.7	78.3	100.0
연령별	19-29세	(206)	1.9	14.6	53.9	29.6	16.5	83.5	100.0
	30대	(200)	2.5	16.5	49.5	31.5	19.0	81.0	100.0
	40대	(239)	3.8	15.9	49.8	30.5	19.7	80.3	100.0
	50대	(260)	1.5	21.9	48.8	27.7	23.5	76.5	100.0
	60대 이상	(295)	3.4	19.7	43.1	33.9	23.1	76.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6.1	20.7	40.2	32.9	26.8	73.2	100.0
	고졸	(505)	2.8	20.0	46.9	30.3	22.8	77.2	100.0
	대재 이상	(613)	2.1	16.0	51.1	30.8	18.1	81.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28.6	39.3	28.6	32.1	67.9	100.0
	자영업	(304)	2.6	15.5	44.4	37.5	18.1	81.9	100.0
	블루칼라	(313)	2.2	24.0	48.9	24.9	26.2	73.8	100.0
	화이트칼라	(301)	2.7	12.6	52.5	32.2	15.3	84.7	100.0
	전업주부	(170)	3.5	19.4	50.6	26.5	22.9	77.1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8.8	21.1	33.3	36.8	29.8	70.2	100.0
	200-299만원	(124)	1.6	18.5	46.8	33.1	20.2	79.8	100.0
	300-399만원	(219)	2.7	24.7	45.2	27.4	27.4	72.6	100.0
	400만원 이상	(800)	2.4	15.9	50.9	30.9	18.3	81.8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2.3	11.3	54.3	32.1	13.6	86.4	100.0
	충청권	(154)	3.2	27.9	43.5	25.3	31.2	68.8	100.0
	호남권	(142)	2.1	26.1	47.9	23.9	28.2	71.8	100.0
	영남권	(313)	2.6	18.5	45.0	33.9	21.1	78.9	100.0
	강원	(45)	8.9	26.7	35.6	28.9	35.6	64.4	100.0
	제주	(32)	0.0	25.0	37.5	37.5	25.0	75.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3.3	14.7	46.8	35.2	18.0	82.0	100.0
	중소도시	(531)	1.9	19.6	52.7	25.8	21.5	78.5	100.0
	읍/면	(146)	3.4	24.0	39.7	32.9	27.4	7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2.4	18.4	56.3	22.9	20.8	79.2	100.0
	중도	(622)	2.1	19.1	46.6	32.2	21.2	78.8	100.0
	보수적	(285)	4.2	15.1	44.9	35.8	19.3	80.7	100.0
종교	불교	(219)	3.7	18.7	46.6	31.1	22.4	77.6	100.0
	기독교	(187)	4.3	21.9	47.1	26.7	26.2	73.8	100.0
	천주교	(51)	3.9	11.8	62.7	21.6	15.7	84.3	100.0
	기타	(8)	0.0	25.0	12.5	62.5	25.0	75.0	100.0
	종교 없음	(708)	1.8	16.9	49.9	31.4	18.8	81.2	100.0
	모름/무응답	(27)	3.7	22.2	25.9	48.1	25.9	74.1	100.0

표 5-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문)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전 체 ■		(1200)	15.9	47.5	28.3	8.3	63.4	36.6	100.0
성별	남자	(610)	15.4	45.7	29.5	9.3	61.1	38.9	100.0
	여자	(590)	16.4	49.3	27.1	7.1	65.8	34.2	100.0
연령별	19~29세	(206)	15.0	42.2	32.0	10.7	57.3	42.7	100.0
	30대	(200)	14.5	49.5	26.5	9.5	64.0	36.0	100.0
	40대	(239)	14.6	49.8	28.5	7.1	64.4	35.6	100.0
	50대	(260)	18.8	48.1	26.2	6.9	66.9	33.1	100.0
	60대 이상	(295)	15.9	47.5	28.8	7.8	63.4	36.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9.5	42.7	29.3	8.5	62.2	37.8	100.0
	고졸	(505)	15.2	49.9	26.3	8.5	65.1	34.9	100.0
	대재 이상	(613)	16.0	46.2	29.9	8.0	62.2	37.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75.0	14.3	0.0	85.7	14.3	100.0
	자영업	(304)	16.1	46.4	28.0	9.5	62.5	37.5	100.0
	블루칼라	(313)	15.7	49.5	27.5	7.3	65.2	34.8	100.0
	화이트칼라	(301)	15.9	44.9	30.9	8.3	60.8	39.2	100.0
	전업주부	(170)	15.9	51.2	27.1	5.9	67.1	32.9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35.1	31.6	22.8	10.5	66.7	33.3	100.0
	200~299만원	(124)	16.9	49.2	22.6	11.3	66.1	33.9	100.0
	300~399만원	(219)	11.9	49.3	30.6	8.2	61.2	38.8	100.0
	400만원 이상	(800)	15.5	47.9	29.0	7.6	63.4	36.6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2.3	49.8	30.7	7.2	62.1	37.9	100.0
	충청권	(154)	13.0	53.2	27.9	5.8	66.2	33.8	100.0
	호남권	(142)	26.1	52.1	17.6	4.2	78.2	21.8	100.0
	영남권	(313)	14.4	39.0	33.5	13.1	53.4	46.6	100.0
	강원	(45)	26.7	55.6	13.3	4.4	82.2	17.8	100.0
지역 크기	제주	(32)	43.8	34.4	9.4	12.5	78.1	21.9	100.0
	대도시	(523)	14.7	40.3	37.1	7.8	55.1	44.9	100.0
	중소도시	(531)	17.7	53.3	22.2	6.8	71.0	29.0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13.7	52.1	19.2	15.1	65.8	34.2	100.0
	진보적	(293)	17.4	53.6	24.9	4.1	71.0	29.0	100.0
	중도	(622)	17.5	46.8	26.5	9.2	64.3	35.7	100.0
	보수적	(285)	10.9	42.8	35.8	10.5	53.7	46.3	100.0
종교	불교	(219)	16.0	47.0	27.9	9.1	63.0	37.0	100.0
	기독교	(187)	16.6	53.5	25.1	4.8	70.1	29.9	100.0
	천주교	(51)	21.6	37.3	39.2	2.0	58.8	41.2	100.0
	기타	(8)	12.5	62.5	12.5	12.5	75.0	25.0	100.0
	종교 없음	(708)	15.5	47.2	28.4	8.9	62.7	37.3	100.0
모름/무응답	(27)	11.1	33.3	37.0	18.5	44.4	55.6	100.0	

표 5-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전 체 ■		(1200)	22.6	50.0	22.5	4.9	72.6	27.4	100.0
성별	남자	(610)	26.4	47.0	21.5	5.1	73.4	26.6	100.0
	여자	(590)	18.6	53.1	23.6	4.7	71.7	28.3	100.0
연령별	19~29세	(206)	20.4	44.2	29.6	5.8	64.6	35.4	100.0
	30대	(200)	19.5	51.5	23.5	5.5	71.0	29.0	100.0
	40대	(239)	25.9	47.3	21.8	5.0	73.2	26.8	100.0
	50대	(260)	22.7	55.0	18.1	4.2	77.7	22.3	100.0
	60대 이상	(295)	23.4	50.8	21.4	4.4	74.2	25.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9.5	45.1	29.3	6.1	64.6	35.4	100.0
	고졸	(505)	22.8	50.7	21.6	5.0	73.5	26.5	100.0
	대재 이상	(613)	22.8	50.1	22.3	4.7	72.9	27.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7.9	53.6	25.0	3.6	71.4	28.6	100.0
	자영업	(304)	25.3	51.0	18.8	4.9	76.3	23.7	100.0
	블루칼라	(313)	21.4	51.1	23.0	4.5	72.5	27.5	100.0
	화이트칼라	(301)	23.9	47.8	21.9	6.3	71.8	28.2	100.0
	전업주부	(170)	17.1	52.9	26.5	3.5	70.0	30.0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36.8	36.8	22.8	3.5	73.7	26.3	100.0
	200~299만원	(124)	29.0	42.7	20.2	8.1	71.8	28.2	100.0
	300~399만원	(219)	18.7	48.9	27.9	4.6	67.6	32.4	100.0
	400만원 이상	(800)	21.6	52.4	21.4	4.6	74.0	26.0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21.4	53.5	21.4	3.7	74.9	25.1	100.0
	충청권	(154)	14.3	52.6	21.4	11.7	66.9	33.1	100.0
	호남권	(142)	27.5	46.5	23.2	2.8	73.9	26.1	100.0
	영남권	(313)	22.4	45.7	26.8	5.1	68.1	31.9	100.0
	강원	(45)	40.0	53.3	6.7	0.0	93.3	6.7	100.0
지역 크기	제주	(32)	37.5	34.4	21.9	6.3	71.9	28.1	100.0
	대도시	(523)	22.2	49.5	23.3	5.0	71.7	28.3	100.0
	중소도시	(531)	24.5	49.5	21.3	4.7	74.0	26.0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17.1	53.4	24.0	5.5	70.5	29.5	100.0
	진보적	(293)	25.9	51.5	20.1	2.4	77.5	22.5	100.0
	중도	(622)	20.7	48.6	24.6	6.1	69.3	30.7	100.0
	보수적	(285)	23.2	51.6	20.4	4.9	74.7	25.3	100.0
종교	불교	(219)	22.8	49.8	21.5	5.9	72.6	27.4	100.0
	기독교	(187)	26.7	48.1	21.9	3.2	74.9	25.1	100.0
	천주교	(51)	31.4	47.1	19.6	2.0	78.4	21.6	100.0
	기타	(8)	37.5	50.0	12.5	0.0	87.5	12.5	100.0
	종교 없음	(708)	20.6	51.3	22.9	5.2	71.9	28.1	100.0
모름/무응답	(27)	22.2	37.0	33.3	7.4	59.3	40.7	100.0	

표 5-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북한의 인권 개선

문)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시급 하다	② 다소 시급 하다	③ 별로 시급 하지않다	④ 전혀 시급 하지않다	①+②	③+④	계
		사례수	%	%	%	%	%	%	%
■ 전 체 ■		(1200)	36.2	40.8	20.0	3.0	77.0	23.0	100.0
성별	남자	(610)	36.2	40.7	19.2	3.9	76.9	23.1	100.0
	여자	(590)	36.1	41.0	20.8	2.0	77.1	22.9	100.0
연령별	19~29세	(206)	35.4	34.5	25.2	4.9	69.9	30.1	100.0
	30대	(200)	37.5	40.5	17.0	5.0	78.0	22.0	100.0
	40대	(239)	36.0	39.7	21.3	2.9	75.7	24.3	100.0
	50대	(260)	38.1	40.4	20.4	1.2	78.5	21.5	100.0
	60대 이상	(295)	34.2	46.8	16.9	2.0	81.0	19.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24.4	54.9	18.3	2.4	79.3	20.7
	고졸	(505)	34.7	42.6	20.4	2.4	77.2	22.8	100.0
	대재 이상	(613)	39.0	37.5	19.9	3.6	76.5	23.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5.7	57.1	3.6	3.6	92.9	7.1	100.0
	자영업	(304)	36.2	42.1	18.1	3.6	78.3	21.7	100.0
	블루칼라	(313)	32.6	39.0	25.6	2.9	71.6	28.4	100.0
	화이트칼라	(301)	40.5	38.9	17.3	3.3	79.4	20.6	100.0
	전업주부	(170)	30.0	48.2	20.6	1.2	78.2	21.8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46.4	29.8	20.2	3.6	76.2	23.8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38.6	40.4	19.3	1.8	78.9	21.1	100.0
	200~299만원	(124)	41.1	37.9	16.9	4.0	79.0	21.0	100.0
	300~399만원	(219)	30.6	42.5	23.7	3.2	73.1	26.9	100.0
	400만원 이상	(800)	36.8	40.9	19.5	2.9	77.6	22.4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35.6	43.2	19.6	1.6	78.8	21.2	100.0
	충청권	(154)	26.0	41.6	24.0	8.4	67.5	32.5	100.0
	호남권	(142)	36.6	43.0	18.3	2.1	79.6	20.4	100.0
	영남권	(313)	37.1	37.4	22.4	3.2	74.4	25.6	100.0
	강원	(45)	51.1	44.4	4.4	0.0	95.6	4.4	100.0
	제주	(32)	62.5	18.8	12.5	6.3	81.3	18.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34.4	44.0	18.0	3.6	78.4	21.6	100.0
	중소도시	(531)	37.5	38.0	21.8	2.6	75.5	24.5	100.0
	읍/면	(146)	37.7	39.7	20.5	2.1	77.4	2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42.7	42.0	14.3	1.0	84.6	15.4	100.0
	중도	(622)	31.4	41.3	23.5	3.9	72.7	27.3	100.0
	보수적	(285)	40.0	38.6	18.2	3.2	78.6	21.4	100.0
종교	불교	(219)	34.2	40.6	23.7	1.4	74.9	25.1	100.0
	기독교	(187)	50.3	35.3	12.8	1.6	85.6	14.4	100.0
	천주교	(51)	45.1	37.3	17.6	0.0	82.4	17.6	100.0
	기타	(8)	62.5	25.0	12.5	0.0	87.5	12.5	100.0
	종교 없음	(708)	32.6	42.7	21.0	3.7	75.3	24.7	100.0
	모름/무응답	(27)	22.2	44.4	18.5	14.8	66.7	33.3	100.0

표 5-7.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㉕ 북한 비핵화

문)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시급 하다	② 다소 시급 하다	③ 별로 시급 하지않다	④ 전혀 시급 하지않다	①+②	③+④	계
		사례수	%	%	%	%	%	%	%
■ 전 체 ■		(1200)	44.8	33.8	18.1	3.4	78.5	21.5	100.0
성별	남자	(610)	44.6	33.3	19.2	3.0	77.9	22.1	100.0
	여자	(590)	44.9	34.2	16.9	3.9	79.2	20.8	100.0
연령별	19~29세	(206)	43.7	36.9	16.5	2.9	80.6	19.4	100.0
	30대	(200)	44.5	34.5	17.5	3.5	79.0	21.0	100.0
	40대	(239)	44.4	33.5	16.3	5.9	77.8	22.2	100.0
	50대	(260)	42.3	32.3	22.3	3.1	74.6	25.4	100.0
	60대 이상	(295)	48.1	32.5	17.3	2.0	80.7	19.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39.0	36.6	24.4	0.0	75.6	24.4
	고졸	(505)	42.6	34.3	18.8	4.4	76.8	23.2	100.0
	대재 이상	(613)	47.3	33.0	16.6	3.1	80.3	19.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5.7	46.4	17.9	0.0	82.1	17.9	100.0
	자영업	(304)	44.7	32.2	18.8	4.3	77.0	23.0	100.0
	블루칼라	(313)	43.1	33.5	20.1	3.2	76.7	23.3	100.0
	화이트칼라	(301)	44.9	35.5	16.9	2.7	80.4	19.6	100.0
	전업주부	(170)	45.9	31.2	18.8	4.1	77.1	22.9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51.2	34.5	10.7	3.6	85.7	14.3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52.6	24.6	21.1	1.8	77.2	22.8	100.0
	200~299만원	(124)	52.4	31.5	12.1	4.0	83.9	16.1	100.0
	300~399만원	(219)	42.5	33.3	21.5	2.7	75.8	24.2	100.0
	400만원 이상	(800)	43.6	34.9	17.9	3.6	78.5	21.5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44.7	34.0	17.9	3.3	78.8	21.2	100.0
	충청권	(154)	33.1	35.7	24.0	7.1	68.8	31.2	100.0
	호남권	(142)	43.7	33.1	21.1	2.1	76.8	23.2	100.0
	영남권	(313)	45.7	35.1	16.9	2.2	80.8	19.2	100.0
	강원	(45)	68.9	24.4	4.4	2.2	93.3	6.7	100.0
	제주	(32)	62.5	21.9	9.4	6.3	84.4	15.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43.2	34.4	18.0	4.4	77.6	22.4	100.0
	중소도시	(531)	47.5	32.0	18.1	2.4	79.5	20.5	100.0
	읍/면	(146)	40.4	37.7	18.5	3.4	78.1	21.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41.3	39.2	17.1	2.4	80.5	19.5	100.0
	중도	(622)	45.8	31.2	19.3	3.7	77.0	23.0	100.0
	보수적	(285)	46.0	33.7	16.5	3.9	79.6	20.4	100.0
종교	불교	(219)	44.3	31.5	21.5	2.7	75.8	24.2	100.0
	기독교	(187)	50.3	31.6	16.0	2.1	81.8	18.2	100.0
	천주교	(51)	47.1	39.2	11.8	2.0	86.3	13.7	100.0
	기타	(8)	37.5	37.5	12.5	12.5	75.0	25.0	100.0
	종교 없음	(708)	43.8	35.0	17.8	3.4	78.8	21.2	100.0
	모름/무응답	(27)	33.3	22.2	25.9	18.5	55.6	44.4	100.0



**표 5-10.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문)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①+②	③+④	계	
		사례수	%	%	%	%	%	%	
<b>■ 전 체 ■</b>		(1200)	13.3	48.5	34.8	3.4	61.8	38.3	100.0
성별	남자	(610)	16.1	44.9	35.6	3.4	61.0	39.0	100.0
	여자	(590)	10.3	52.2	34.1	3.4	62.5	37.5	100.0
연령별	19~29세	(206)	9.2	43.2	41.3	6.3	52.4	47.6	100.0
	30대	(200)	11.0	49.5	38.5	1.0	60.5	39.5	100.0
	40대	(239)	15.5	46.0	33.1	5.4	61.5	38.5	100.0
	50대	(260)	15.8	47.3	34.6	2.3	63.1	36.9	100.0
	60대 이상	(295)	13.6	54.6	29.5	2.4	68.1	31.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3.4	52.4	32.9	1.2	65.9	34.1	100.0
	고졸	(505)	11.3	53.9	30.7	4.2	65.1	34.9	100.0
	대재 이상	(613)	14.8	43.6	38.5	3.1	58.4	41.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85.7	3.6	0.0	96.4	3.6	100.0
	자영업	(304)	15.1	49.0	33.2	2.6	64.1	35.9	100.0
	블루칼라	(313)	11.2	47.6	36.7	4.5	58.8	41.2	100.0
	화이트칼라	(301)	14.6	45.5	36.5	3.3	60.1	39.9	100.0
	전업주부	(170)	10.0	50.6	36.5	2.9	60.6	39.4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7.5	54.4	19.3	8.8	71.9	28.1	100.0
	200~299만원	(124)	17.7	48.4	29.8	4.0	66.1	33.9	100.0
	300~399만원	(219)	11.4	49.3	37.0	2.3	60.7	39.3	100.0
	400만원 이상	(800)	12.8	47.9	36.1	3.3	60.6	39.4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0.3	51.8	35.0	2.9	62.1	37.9	100.0
	충청권	(154)	13.6	54.5	27.3	4.5	68.2	31.8	100.0
	호남권	(142)	20.4	48.6	27.5	3.5	69.0	31.0	100.0
	영남권	(313)	9.6	40.9	46.3	3.2	50.5	49.5	100.0
	강원	(45)	26.7	53.3	13.3	6.7	80.0	20.0	100.0
	제주	(32)	43.8	34.4	18.8	3.1	78.1	21.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11.7	49.1	36.1	3.1	60.8	39.2	100.0
	중소도시	(531)	15.8	45.6	35.2	3.4	61.4	38.6	100.0
	읍/면	(146)	9.6	56.8	28.8	4.8	66.4	33.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17.1	48.1	32.8	2.0	65.2	34.8	100.0
	중도	(622)	12.1	48.9	34.9	4.2	60.9	39.1	100.0
	보수적	(285)	11.9	48.1	36.8	3.2	60.0	40.0	100.0
종교	불교	(219)	13.7	50.7	32.0	3.7	64.4	35.6	100.0
	기독교	(187)	18.2	54.0	25.1	2.7	72.2	27.8	100.0
	천주교	(51)	15.7	41.2	41.2	2.0	56.9	43.1	100.0
	기타	(8)	0.0	50.0	37.5	12.5	50.0	50.0	100.0
	종교 없음	(708)	12.0	47.6	37.0	3.4	59.6	40.4	100.0
	모름/무응답	(27)	7.4	29.6	55.6	7.4	37.0	63.0	100.0

**표 5-1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북한 경제 협력**

문)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①+②	③+④	계	
		사례수	%	%	%	%	%	%	
<b>■ 전 체 ■</b>		(1200)	13.3	47.3	35.6	3.8	60.6	39.4	100.0
성별	남자	(610)	14.9	45.2	35.1	4.8	60.2	39.8	100.0
	여자	(590)	11.5	49.5	36.1	2.9	61.0	39.0	100.0
연령별	19~29세	(206)	11.2	41.7	40.3	6.8	52.9	47.1	100.0
	30대	(200)	11.5	39.5	46.0	3.0	51.0	49.0	100.0
	40대	(239)	13.4	45.2	36.8	4.6	58.6	41.4	100.0
	50대	(260)	14.6	52.3	30.8	2.3	66.9	33.1	100.0
	60대 이상	(295)	14.6	53.9	28.5	3.1	68.5	31.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3.4	50.0	34.1	2.4	63.4	36.6	100.0
	고졸	(505)	12.9	53.3	30.5	3.4	66.1	33.9	100.0
	대재 이상	(613)	13.5	42.1	40.0	4.4	55.6	44.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78.6	10.7	0.0	89.3	10.7	100.0
	자영업	(304)	15.5	49.3	31.3	3.9	64.8	35.2	100.0
	블루칼라	(313)	9.6	53.4	32.6	4.5	62.9	37.1	100.0
	화이트칼라	(301)	15.6	36.9	43.2	4.3	52.5	47.5	100.0
	전업주부	(170)	11.2	46.5	40.6	1.8	57.6	42.4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5.8	47.4	29.8	7.0	63.2	36.8	100.0
	200~299만원	(124)	13.7	50.8	31.5	4.0	64.5	35.5	100.0
	300~399만원	(219)	13.7	47.9	36.1	2.3	61.6	38.4	100.0
	400만원 이상	(800)	12.9	46.6	36.5	4.0	59.5	40.5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1.7	51.4	35.4	1.6	63.0	37.0	100.0
	충청권	(154)	13.6	49.4	31.2	5.8	63.0	37.0	100.0
	호남권	(142)	21.8	51.4	21.8	4.9	73.2	26.8	100.0
	영남권	(313)	8.9	37.1	48.9	5.1	46.0	54.0	100.0
	강원	(45)	17.8	60.0	15.6	6.7	77.8	22.2	100.0
	제주	(32)	34.4	37.5	18.8	9.4	71.9	28.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11.9	46.8	38.6	2.7	58.7	41.3	100.0
	중소도시	(531)	14.9	46.3	34.1	4.7	61.2	38.8	100.0
	읍/면	(146)	12.3	52.7	30.1	4.8	65.1	34.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17.4	44.4	36.5	1.7	61.8	38.2	100.0
	중도	(622)	11.7	48.6	35.0	4.7	60.3	39.7	100.0
	보수적	(285)	12.3	47.7	35.8	4.2	60.0	40.0	100.0
종교	불교	(219)	13.7	54.3	29.2	2.7	68.0	32.0	100.0
	기독교	(187)	19.8	49.2	28.3	2.7	69.0	31.0	100.0
	천주교	(51)	13.7	49.0	33.3	3.9	62.7	37.3	100.0
	기타	(8)	0.0	62.5	25.0	12.5	62.5	37.5	100.0
	종교 없음	(708)	11.6	45.1	39.1	4.2	56.6	43.4	100.0
	모름/무응답	(27)	11.1	29.6	51.9	7.4	40.7	59.3	100.0

표 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OO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계
		사례수	%					
■ 전 체 ■		(1200)	30.6	10.7	38.9	5.5	14.3	100.0
성별	남자	(610)	31.6	9.3	35.4	6.6	17.0	100.0
	여자	(590)	29.5	12.0	42.5	4.4	11.5	100.0
연령별	19~29세	(206)	22.8	11.7	37.9	7.3	20.4	100.0
	30대	(200)	22.5	11.5	43.5	6.0	16.5	100.0
	40대	(239)	32.6	8.4	36.4	7.1	15.5	100.0
	50대	(260)	32.7	8.5	42.3	3.8	12.7	100.0
	60대 이상	(295)	38.0	13.2	35.6	4.1	9.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43.9	11.0	34.1	6.1	4.9	100.0
	고졸	(505)	32.3	10.5	40.2	5.3	11.7	100.0
	대재 이상	(613)	27.4	10.8	38.5	5.5	17.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4.3	17.9	57.1	0.0	10.7	100.0
	자영업	(304)	32.9	8.2	34.5	5.9	18.4	100.0
	블루칼라	(313)	32.6	10.5	41.2	5.4	10.2	100.0
	화이트칼라	(301)	25.6	12.3	37.5	7.3	17.3	100.0
	전업주부	(170)	35.3	12.4	40.6	3.5	8.2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38.6	12.3	38.6	5.3	5.3	100.0
	200~299만원	(124)	33.9	12.9	37.1	3.2	12.9	100.0
	300~399만원	(219)	26.9	12.8	42.5	6.8	11.0	100.0
	400만원 이상	(800)	30.5	9.6	38.3	5.5	16.1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28.6	8.2	39.7	6.4	17.1	100.0
	충청권	(154)	21.4	13.0	42.9	8.4	14.3	100.0
	호남권	(142)	35.2	15.5	36.6	2.1	10.6	100.0
	영남권	(313)	36.7	11.2	37.4	4.8	9.9	100.0
	강원	(45)	42.2	6.7	35.6	0.0	15.6	100.0
	제주	(32)	9.4	18.8	37.5	6.3	28.1	100.0
지역크기	대도시	(523)	32.7	9.8	38.6	6.3	12.6	100.0
	중소도시	(531)	30.1	10.9	37.9	3.8	17.3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24.7	13.0	43.8	8.9	9.6	100.0
	진보적	(293)	29.7	9.6	39.9	3.1	17.7	100.0
	중도	(622)	30.7	11.1	37.3	7.2	13.7	100.0
	보수적	(285)	31.2	10.9	41.4	4.2	12.3	100.0
종교	불교	(219)	32.4	11.9	36.5	7.3	11.9	100.0
	기독교	(187)	27.3	13.4	39.0	3.7	16.6	100.0
	천주교	(51)	41.2	11.8	35.3	3.9	7.8	100.0
	기타	(8)	25.0	0.0	50.0	0.0	25.0	100.0
	종교 없음	(708)	29.9	9.6	40.0	5.5	15.0	100.0
모름/무응답	(27)	37.0	11.1	33.3	7.4	11.1	100.0	

표 7.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만약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OO님은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이 다음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계
		사례수	%	%	%				
■ 전 체 ■		(1200)	20.0	13.3	33.9	28.7	4.1	100.0	
성별	남자	(610)	21.6	13.9	32.1	28.9	3.4	100.0	
	여자	(590)	18.3	12.7	35.8	28.5	4.7	100.0	
연령별	19~29세	(206)	21.4	11.2	33.0	29.6	4.9	100.0	
	30대	(200)	18.0	17.5	35.0	26.0	3.5	100.0	
	40대	(239)	15.5	12.6	35.1	33.9	2.9	100.0	
	50대	(260)	21.9	11.2	33.5	29.2	4.2	100.0	
	60대 이상	(295)	22.4	14.6	33.2	25.1	4.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9.5	14.6	30.5	28.0	7.3	100.0	
	고졸	(505)	20.6	13.9	33.7	27.7	4.2	100.0	
	대재 이상	(613)	19.6	12.7	34.6	29.5	3.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8.6	14.3	32.1	17.9	7.1	100.0	
	자영업	(304)	18.4	12.2	32.9	33.6	3.0	100.0	
	블루칼라	(313)	19.5	15.0	32.3	29.4	3.8	100.0	
	화이트칼라	(301)	20.9	13.3	35.5	27.2	3.0	100.0	
	전업주부	(170)	18.2	12.9	38.2	25.9	4.7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25.0	11.9	29.8	22.6	10.7	100.0	
	200~299만원	(124)	21.1	17.5	29.8	22.8	8.8	100.0	
	300~399만원	(219)	18.5	12.1	33.9	27.4	8.1	100.0	
	400만원 이상	(800)	23.3	11.0	34.7	27.4	3.7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9.3	13.9	34.0	29.6	3.3	100.0	
	충청권	(154)	20.6	10.3	40.5	26.1	2.5	100.0	
	호남권	(142)	14.3	14.9	31.8	31.8	7.1	100.0	
	영남권	(313)	19.7	14.1	26.8	31.7	7.7	100.0	
	강원	(45)	20.8	18.2	31.6	27.2	2.2	100.0	
	제주	(32)	22.2	6.7	11.1	48.9	11.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28.1	12.5	25.0	28.1	6.3	100.0	
	중소도시	(531)	19.9	16.1	35.6	25.4	3.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19.8	10.9	32.2	31.8	5.3	100.0	
	진보적	(293)	21.2	12.3	34.2	28.8	3.4	100.0	
	중도	(622)	15.0	9.6	38.9	31.4	5.1	100.0	
	보수적	(285)	19.6	14.6	33.9	28.0	3.9	100.0	
종교	불교	(219)	26.0	14.4	28.8	27.4	3.5	100.0	
	기독교	(187)	22.4	13.2	33.3	26.9	4.1	100.0	
	천주교	(51)	19.3	10.7	33.7	31.6	4.8	100.0	
	기타	(8)	17.6	15.7	45.1	15.7	5.9	100.0	
	종교 없음	(708)	25.0	0.0	25.0	50.0	0.0	100.0	
모름/무응답	(27)	19.2	13.7	33.9	29.2	4.0	100.0		
모름/무응답	(27)	29.6	22.2	22.2	25.9	0.0	100.0		











**표 11.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문) OO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남한과	통일 이후에도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사례수	%	%	%	%	
<b>■ 전 체 ■</b>		(1200)	49.4	27.0	21.9	1.7	100.0
<b>성별</b>	남자	(610)	49.8	25.6	22.6	2.0	100.0
	여자	(590)	49.0	28.5	21.2	1.4	100.0
<b>연령별</b>	19~29세	(206)	50.0	27.7	22.3	0.0	100.0
	30대	(200)	51.0	25.0	22.0	2.0	100.0
	40대	(239)	52.3	25.1	21.3	1.3	100.0
	50대	(260)	48.1	27.7	21.5	2.7	100.0
	60대 이상	(295)	46.8	28.8	22.4	2.0	100.0
<b>교육 수준별</b>	중졸 이하	(82)	50.0	25.6	23.2	1.2	100.0
	고졸	(505)	49.5	26.7	22.0	1.8	100.0
	대재 이상	(613)	49.3	27.4	21.7	1.6	100.0
<b>직업별</b>	농/수/축산업	(28)	35.7	28.6	35.7	0.0	100.0
	자영업	(304)	51.6	28.6	18.4	1.3	100.0
	블루칼라	(313)	47.9	21.7	28.8	1.6	100.0
	화이트칼라	(301)	51.2	27.6	19.6	1.7	100.0
	전업주부	(170)	46.5	30.6	20.0	2.9	100.0
<b>가구 소득수준</b>	200만원 미만	(57)	40.4	31.6	24.6	3.5	100.0
	200~299만원	(124)	41.9	32.3	24.2	1.6	100.0
	300~399만원	(219)	50.7	25.1	21.9	2.3	100.0
	400만원 이상	(800)	50.9	26.4	21.4	1.4	100.0
<b>지역별</b>	수도권	(514)	51.2	27.6	20.6	0.6	100.0
	충청권	(154)	49.4	29.9	18.8	1.9	100.0
	호남권	(142)	47.9	28.9	21.8	1.4	100.0
	영남권	(313)	51.4	20.4	25.2	2.9	100.0
	강원	(45)	40.0	31.1	26.7	2.2	100.0
	제주	(32)	21.9	53.1	18.8	6.3	100.0
<b>지역 크기</b>	대도시	(523)	56.0	23.1	20.3	0.6	100.0
	중소도시	(531)	43.5	30.3	23.4	2.8	100.0
	읍/면	(146)	47.3	28.8	22.6	1.4	100.0
<b>정치적 성향</b>	진보적	(293)	49.1	26.3	23.9	0.7	100.0
	중도	(622)	49.7	27.0	21.9	1.4	100.0
	보수적	(285)	49.1	27.7	20.0	3.2	100.0
<b>종교</b>	불교	(219)	46.6	26.9	22.8	3.7	100.0
	기독교	(187)	41.7	36.9	19.8	1.6	100.0
	천주교	(51)	51.0	25.5	23.5	0.0	100.0
	기타	(8)	62.5	25.0	12.5	0.0	100.0
	종교 없음	(708)	52.1	24.4	22.3	1.1	100.0
	모름/무응답	(27)	48.1	29.6	18.5	3.7	100.0

**표 12.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 OO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계	
		사례수	%	%	%	%		%
<b>■ 전 체 ■</b>		(1200)	12.5	37.7	7.5	23.7	18.7	100.0
<b>성별</b>	남자	(610)	11.1	36.7	9.0	24.8	18.4	100.0
	여자	(590)	13.9	38.6	5.9	22.5	19.0	100.0
<b>연령별</b>	19~29세	(206)	10.2	28.2	12.6	31.1	18.0	100.0
	30대	(200)	12.0	35.5	7.5	23.5	21.5	100.0
	40대	(239)	10.5	41.0	4.6	25.5	18.4	100.0
	50대	(260)	11.9	46.5	8.5	17.7	15.4	100.0
	60대 이상	(295)	16.6	35.3	5.4	22.4	20.3	100.0
<b>교육 수준별</b>	중졸 이하	(82)	20.7	30.5	9.8	23.2	15.9	100.0
	고졸	(505)	13.7	38.2	7.9	22.6	17.6	100.0
	대재 이상	(613)	10.4	38.2	6.9	24.6	19.9	100.0
<b>직업별</b>	농/수/축산업	(28)	17.9	64.3	0.0	10.7	7.1	100.0
	자영업	(304)	13.5	38.2	8.2	21.7	18.4	100.0
	블루칼라	(313)	14.4	37.4	10.2	24.3	13.7	100.0
	화이트칼라	(301)	9.0	40.5	5.6	22.9	21.9	100.0
	전업주부	(170)	13.5	32.4	4.1	26.5	23.5	100.0
<b>가구 소득수준</b>	200만원 미만	(57)	19.3	35.1	7.0	17.5	21.1	100.0
	200~299만원	(124)	16.9	38.7	6.5	16.9	21.0	100.0
	300~399만원	(219)	11.9	34.2	10.0	23.7	20.1	100.0
	400만원 이상	(800)	11.5	38.6	7.0	25.1	17.8	100.0
<b>지역별</b>	수도권	(514)	11.1	41.2	8.0	23.3	16.3	100.0
	충청권	(154)	13.6	31.8	11.7	24.0	18.8	100.0
	호남권	(142)	19.0	43.7	5.6	17.6	14.1	100.0
	영남권	(313)	12.1	28.4	6.1	29.4	24.0	100.0
	강원	(45)	8.9	51.1	6.7	11.1	22.2	100.0
	제주	(32)	9.4	53.1	3.1	15.6	18.8	100.0
<b>지역 크기</b>	대도시	(523)	11.1	33.1	8.8	27.5	19.5	100.0
	중소도시	(531)	13.2	41.4	6.8	21.3	17.3	100.0
	읍/면	(146)	15.1	40.4	5.5	18.5	20.5	100.0
<b>정치적 성향</b>	진보적	(293)	13.3	44.0	7.2	22.5	13.0	100.0
	중도	(622)	12.5	36.7	9.0	22.7	19.1	100.0
	보수적	(285)	11.6	33.3	4.6	27.0	23.5	100.0
<b>종교</b>	불교	(219)	12.8	36.5	6.8	25.6	18.3	100.0
	기독교	(187)	12.8	43.3	4.3	23.0	16.6	100.0
	천주교	(51)	11.8	45.1	3.9	21.6	17.6	100.0
	기타	(8)	12.5	75.0	0.0	0.0	12.5	100.0
	종교 없음	(708)	12.4	35.7	8.6	23.9	19.4	100.0
	모름/무응답	(27)	11.1	33.3	14.8	18.5	22.2	100.0





표 17-1.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선군정치

문) OO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 체 ■	(1200)	3.0	23.8	37.6	35.6	100.0	
성별	남자	(610)	4.3	25.7	40.8	29.2	100.0
	여자	(590)	1.7	21.9	34.2	42.2	100.0
연령별	19~29세	(206)	1.0	18.0	37.9	43.2	100.0
	30대	(200)	2.5	18.0	38.0	41.5	100.0
	40대	(239)	2.5	23.4	40.6	33.5	100.0
	50대	(260)	3.8	29.6	35.8	30.8	100.0
	60대 이상	(295)	4.4	27.1	36.3	32.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4.9	18.3	26.8	50.0	100.0
	고졸	(505)	3.6	26.3	39.0	31.1	100.0
	대재 이상	(613)	2.3	22.5	37.8	37.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32.1	35.7	28.6	100.0
	자영업	(304)	4.3	28.0	38.2	29.6	100.0
	블루칼라	(313)	3.2	22.7	39.0	35.1	100.0
	화이트칼라	(301)	2.0	22.6	36.9	38.5	100.0
	전업주부	(170)	1.8	21.8	32.9	43.5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3.6	19.0	42.9	34.5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8	22.8	26.3	49.1	100.0
	200~299만원	(124)	5.6	24.2	33.9	36.3	100.0
	300~399만원	(219)	2.7	22.4	42.5	32.4	100.0
	400만원 이상	(800)	2.8	24.3	37.6	35.4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8	20.8	41.4	36.0	100.0
	충청권	(154)	3.2	29.9	31.8	35.1	100.0
	호남권	(142)	2.8	24.6	32.4	40.1	100.0
	영남권	(313)	4.2	26.5	36.1	33.2	100.0
	강원	(45)	2.2	17.8	46.7	33.3	100.0
	제주	(32)	12.5	21.9	28.1	37.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1.7	25.8	36.1	36.3	100.0
	중소도시	(531)	3.6	22.4	39.4	34.7	100.0
	읍/면	(146)	5.5	21.9	36.3	3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1.7	25.6	38.2	34.5	100.0
	중도	(622)	3.1	22.3	37.3	37.3	100.0
	보수적	(285)	4.2	25.3	37.5	33.0	100.0
종교	불교	(219)	6.4	24.7	33.8	35.2	100.0
	기독교	(187)	2.7	25.7	35.3	36.4	100.0
	천주교	(51)	3.9	31.4	37.3	27.5	100.0
	기타	(8)	0.0	25.0	50.0	25.0	100.0
	종교 없음	(708)	1.8	22.6	39.4	36.2	100.0
	모름/무응답	(27)	7.4	22.2	33.3	37.0	100.0

표 17-2. 북한 사회 인지도 - ㉕ 주체사상

문) OO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 체 ■	(1200)	7.6	27.3	42.1	23.0	100.0	
성별	남자	(610)	9.0	31.1	39.8	20.0	100.0
	여자	(590)	6.1	23.4	44.4	26.1	100.0
연령별	19~29세	(206)	3.4	23.8	41.7	31.1	100.0
	30대	(200)	5.5	20.0	43.0	31.5	100.0
	40대	(239)	7.5	29.3	41.0	22.2	100.0
	50대	(260)	8.5	33.8	41.2	16.5	100.0
	60대 이상	(295)	11.2	27.5	43.4	18.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1.0	24.4	36.6	28.0	100.0
	고졸	(505)	6.9	29.9	44.4	18.8	100.0
	대재 이상	(613)	7.7	25.6	40.9	25.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42.9	46.4	7.1	100.0
	자영업	(304)	11.5	26.3	46.7	15.5	100.0
	블루칼라	(313)	8.6	24.9	41.5	24.9	100.0
	화이트칼라	(301)	3.3	30.9	38.2	27.6	100.0
	전업주부	(170)	6.5	25.9	41.8	25.9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8.3	25.0	40.5	26.2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7.0	26.3	33.3	33.3	100.0
	200~299만원	(124)	11.3	33.1	33.9	21.8	100.0
	300~399만원	(219)	6.4	28.3	45.7	19.6	100.0
	400만원 이상	(800)	7.4	26.3	43.0	23.4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4.9	23.0	50.8	21.4	100.0
	충청권	(154)	5.2	33.1	35.7	26.0	100.0
	호남권	(142)	13.4	28.2	33.8	24.6	100.0
	영남권	(313)	9.3	28.8	37.7	24.3	100.0
	강원	(45)	11.1	37.8	37.8	13.3	100.0
	제주	(32)	15.6	37.5	18.8	28.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6.3	27.2	40.3	26.2	100.0
	중소도시	(531)	9.8	25.2	43.9	21.1	100.0
	읍/면	(146)	4.1	35.6	41.8	18.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9.6	27.3	40.6	22.5	100.0
	중도	(622)	6.3	25.1	42.4	26.2	100.0
	보수적	(285)	8.4	32.3	42.8	16.5	100.0
종교	불교	(219)	10.5	29.7	37.4	22.4	100.0
	기독교	(187)	9.6	21.4	48.7	20.3	100.0
	천주교	(51)	3.9	35.3	45.1	15.7	100.0
	기타	(8)	12.5	37.5	50.0	0.0	100.0
	종교 없음	(708)	6.4	28.0	41.5	24.2	100.0
	모름/무응답	(27)	7.4	14.8	40.7	37.0	100.0

표 17-3.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천리마운동

문) OO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사례수	%	%	%	%	
<b>전 체</b>		(1200)	6.5	27.5	42.3	23.8	100.0
성별	남자	(610)	8.0	28.5	44.1	19.3	100.0
	여자	(590)	4.9	26.4	40.3	28.3	100.0
연령별	19~29세	(206)	1.9	21.8	47.1	29.1	100.0
	30대	(200)	2.5	24.0	39.0	34.5	100.0
	40대	(239)	3.8	27.6	43.1	25.5	100.0
	50대	(260)	8.8	33.1	40.8	17.3	100.0
	60대 이상	(295)	12.5	28.8	41.7	16.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7.1	19.5	41.5	22.0	100.0
	고졸	(505)	5.7	31.3	43.4	19.6	100.0
	대재 이상	(613)	5.7	25.4	41.4	27.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39.3	42.9	10.7	100.0
	자영업	(304)	10.5	29.3	43.4	16.8	100.0
	블루칼라	(313)	6.1	28.4	42.2	23.3	100.0
	화이트칼라	(301)	3.3	24.9	40.2	31.6	100.0
	전업주부	(170)	6.5	28.2	38.8	26.5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4.8	21.4	52.4	21.4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7.0	29.8	31.6	31.6	100.0
	200~299만원	(124)	14.5	17.7	46.0	21.8	100.0
	300~399만원	(219)	6.4	34.7	40.6	18.3	100.0
	400만원 이상	(800)	5.3	26.9	42.9	25.0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4.1	22.4	49.2	24.3	100.0
	충청권	(154)	7.1	28.6	33.1	31.2	100.0
	호남권	(142)	9.2	25.4	38.0	27.5	100.0
	영남권	(313)	8.0	35.1	38.7	18.2	100.0
	강원	(45)	11.1	24.4	51.1	13.3	100.0
	제주	(32)	9.4	43.8	15.6	31.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5.0	27.7	41.7	25.6	100.0
	중소도시	(531)	7.7	26.4	42.4	23.5	100.0
	읍/면	(146)	7.5	30.8	43.8	17.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4.4	25.6	49.1	20.8	100.0
	중도	(622)	6.3	25.7	40.8	27.2	100.0
	보수적	(285)	9.1	33.3	38.2	19.3	100.0
종교	불교	(219)	9.1	32.9	36.1	21.9	100.0
	기독교	(187)	7.0	22.5	48.1	22.5	100.0
	천주교	(51)	5.9	33.3	51.0	9.8	100.0
	기타	(8)	25.0	75.0	0.0	0.0	100.0
	종교 없음	(708)	5.4	26.7	42.1	25.8	100.0
	모름/무응답	(27)	7.4	14.8	51.9	25.9	100.0

표 17-4.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고난의 행군

문) OO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사례수	%	%	%	%	
<b>전 체</b>		(1200)	6.5	27.3	40.7	25.6	100.0
성별	남자	(610)	8.0	30.5	40.0	21.5	100.0
	여자	(590)	4.9	23.9	41.4	29.8	100.0
연령별	19~29세	(206)	3.4	17.0	41.7	37.9	100.0
	30대	(200)	4.0	21.5	45.5	29.0	100.0
	40대	(239)	5.4	27.6	43.5	23.4	100.0
	50대	(260)	7.7	36.9	35.0	20.4	100.0
	60대 이상	(295)	10.2	29.5	39.3	21.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7.1	19.5	36.6	26.8	100.0
	고졸	(505)	5.1	32.1	40.0	22.8	100.0
	대재 이상	(613)	6.2	24.3	41.8	27.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46.4	35.7	14.3	100.0
	자영업	(304)	7.2	32.6	38.8	21.4	100.0
	블루칼라	(313)	7.0	26.5	42.2	24.3	100.0
	화이트칼라	(301)	3.7	27.2	38.9	30.2	100.0
	전업주부	(170)	8.8	18.2	44.1	28.8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8.3	22.6	42.9	26.2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8.8	29.8	29.8	31.6	100.0
	200~299만원	(124)	12.1	21.8	45.2	21.0	100.0
	300~399만원	(219)	5.0	30.6	41.6	22.8	100.0
	400만원 이상	(800)	5.9	27.0	40.5	26.6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3.3	23.3	47.5	25.9	100.0
	충청권	(154)	5.2	27.9	33.1	33.8	100.0
	호남권	(142)	9.9	31.7	30.3	28.2	100.0
	영남권	(313)	9.6	30.4	39.0	21.1	100.0
	강원	(45)	13.3	24.4	46.7	15.6	100.0
	제주	(32)	9.4	40.6	21.9	28.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4.6	28.5	38.4	28.5	100.0
	중소도시	(531)	8.5	24.5	43.5	23.5	100.0
	읍/면	(146)	6.2	32.9	38.4	2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5.1	26.6	44.4	23.9	100.0
	중도	(622)	6.1	25.2	39.7	28.9	100.0
	보수적	(285)	8.8	32.3	38.9	20.0	100.0
종교	불교	(219)	8.7	32.0	33.3	26.0	100.0
	기독교	(187)	8.0	24.1	43.9	24.1	100.0
	천주교	(51)	3.9	29.4	45.1	21.6	100.0
	기타	(8)	12.5	62.5	25.0	0.0	100.0
	종교 없음	(708)	5.5	26.1	41.9	26.4	100.0
	모름/무응답	(27)	7.4	25.9	40.7	25.9	100.0

표 17-5.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장마당

문) OO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사례수	%	%	%	%	
■ 전 체 ■		(1200)	7.9	25.9	39.8	26.4	100.0
성별	남자	(610)	8.4	29.7	38.9	23.1	100.0
	여자	(590)	7.5	22.0	40.7	29.8	100.0
연령별	19~29세	(206)	2.9	18.4	42.7	35.9	100.0
	30대	(200)	6.5	21.5	45.0	27.0	100.0
	40대	(239)	6.7	27.2	38.9	27.2	100.0
	50대	(260)	9.6	32.7	36.2	21.5	100.0
	60대 이상	(295)	11.9	27.1	38.0	23.1	100.0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82)	15.9	26.8	36.6	20.7	100.0
	고졸	(505)	6.9	28.5	39.0	25.5	100.0
	대재 이상	(613)	7.7	23.7	40.8	27.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35.7	35.7	25.0	100.0
	자영업	(304)	10.9	28.3	39.5	21.4	100.0
	블루칼라	(313)	8.0	28.1	38.7	25.2	100.0
	화이트칼라	(301)	6.6	23.3	38.5	31.6	100.0
	전업주부	(170)	7.6	20.0	43.5	28.8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3.6	27.4	42.9	26.2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8.8	31.6	28.1	31.6	100.0
	200~299만원	(124)	11.3	21.8	39.5	27.4	100.0
	300~399만원	(219)	5.0	28.8	44.7	21.5	100.0
	400만원 이상	(800)	8.1	25.4	39.3	27.3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4.7	23.2	44.6	27.6	100.0
	충청권	(154)	7.8	24.0	31.2	37.0	100.0
	호남권	(142)	7.7	16.2	40.8	35.2	100.0
	영남권	(313)	12.5	36.4	36.7	14.4	100.0
	강원	(45)	8.9	15.6	51.1	24.4	100.0
	제주	(32)	15.6	34.4	12.5	37.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6.7	27.3	41.9	24.1	100.0
	중소도시	(531)	9.4	25.8	36.0	28.8	100.0
	읍/면	(146)	6.8	21.2	45.9	26.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4.8	23.5	43.7	28.0	100.0
	중도	(622)	7.4	25.2	40.8	26.5	100.0
	보수적	(285)	12.3	29.8	33.3	24.6	100.0
종교	불교	(219)	13.2	30.1	34.2	22.4	100.0
	기독교	(187)	7.5	20.3	43.3	28.9	100.0
	천주교	(51)	9.8	27.5	37.3	25.5	100.0
	기타	(8)	12.5	37.5	25.0	25.0	100.0
	종교 없음	(708)	6.1	25.8	40.5	27.5	100.0
	모름/무응답	(27)	11.1	25.9	48.1	14.8	100.0

표 17-6. 북한 사회 인지도 - ㉕ 모란봉 악단

문) OO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사례수	%	%	%	%	
■ 전 체 ■		(1200)	10.5	38.1	40.1	11.3	100.0
성별	남자	(610)	11.6	38.7	38.5	11.1	100.0
	여자	(590)	9.3	37.5	41.7	11.5	100.0
연령별	19~29세	(206)	4.9	30.6	44.7	19.9	100.0
	30대	(200)	7.5	31.5	48.0	13.0	100.0
	40대	(239)	9.2	37.2	41.4	12.1	100.0
	50대	(260)	12.3	43.8	36.9	6.9	100.0
	60대 이상	(295)	15.9	43.4	33.2	7.5	100.0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82)	19.5	42.7	28.0	9.8	100.0
	고졸	(505)	10.3	41.8	38.6	9.3	100.0
	대재 이상	(613)	9.5	34.4	42.9	13.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57.1	25.0	10.7	100.0
	자영업	(304)	13.2	40.8	39.1	6.9	100.0
	블루칼라	(313)	10.9	39.0	39.6	10.5	100.0
	화이트칼라	(301)	7.0	34.6	42.5	15.9	100.0
	전업주부	(170)	12.9	37.6	40.0	9.4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8.3	32.1	41.7	17.9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0.5	43.9	33.3	12.3	100.0
	200~299만원	(124)	20.2	32.3	35.5	12.1	100.0
	300~399만원	(219)	8.7	41.6	37.9	11.9	100.0
	400만원 이상	(800)	9.5	37.6	41.9	11.0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6.6	39.3	43.8	10.3	100.0
	충청권	(154)	7.8	33.8	45.5	13.0	100.0
	호남권	(142)	17.6	32.4	39.4	10.6	100.0
	영남권	(313)	13.7	39.3	35.1	11.8	100.0
	강원	(45)	17.8	42.2	35.6	4.4	100.0
	제주	(32)	12.5	46.9	12.5	28.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8.2	38.8	38.8	14.1	100.0
	중소도시	(531)	13.0	37.7	39.4	10.0	100.0
	읍/면	(146)	9.6	37.0	47.3	6.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10.2	41.6	38.9	9.2	100.0
	중도	(622)	9.3	36.0	41.6	13.0	100.0
	보수적	(285)	13.3	38.9	37.9	9.8	100.0
종교	불교	(219)	14.6	43.4	32.9	9.1	100.0
	기독교	(187)	10.7	37.4	39.6	12.3	100.0
	천주교	(51)	13.7	39.2	41.2	5.9	100.0
	기타	(8)	12.5	75.0	12.5	0.0	100.0
	종교 없음	(708)	9.0	35.9	42.7	12.4	100.0
	모름/무응답	(27)	7.4	44.4	40.7	7.4	100.0



표 18-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해 본 경험

문) OO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	없다 %	계 %
■ 전 체 ■		(1200)	3.3	96.8	100.0
성별	남자	(610)	3.3	96.7	100.0
	여자	(590)	3.2	96.8	100.0
연령별	19~29세	(206)	0.5	99.5	100.0
	30대	(200)	2.0	98.0	100.0
	40대	(239)	1.3	98.7	100.0
	50대	(260)	3.1	96.9	100.0
	60대 이상	(295)	7.8	92.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4.6	85.4	100.0
	고졸	(505)	3.6	96.4	100.0
	대재 이상	(613)	1.5	98.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89.3	100.0
	자영업	(304)	3.6	96.4	100.0
	블루칼라	(313)	3.5	96.5	100.0
	화이트칼라	(301)	1.0	99.0	100.0
	전업주부	(170)	4.1	95.9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4.8	95.2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4.0	86.0	100.0
	200~299만원	(124)	5.6	94.4	100.0
	300~399만원	(219)	4.6	95.4	100.0
	400만원 이상	(800)	1.8	98.3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2.7	97.3	100.0
	충청권	(154)	3.9	96.1	100.0
	호남권	(142)	6.3	93.7	100.0
	영남권	(313)	1.3	98.7	100.0
	강원	(45)	11.1	88.9	100.0
	제주	(32)	3.1	96.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2.9	97.1	100.0
	중소도시	(531)	3.0	97.0	100.0
	읍/면	(146)	5.5	94.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2.7	97.3	100.0
	중도	(622)	2.6	97.4	100.0
	보수적	(285)	5.3	94.7	100.0
종교	불교	(219)	4.1	95.9	100.0
	기독교	(187)	4.8	95.2	100.0
	천주교	(51)	5.9	94.1	100.0
	기타	(8)	0.0	100.0	100.0
	종교 없음	(708)	2.3	97.7	100.0
모름/무응답	(27)	7.4	92.6	100.0	

표 18-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㉕ 유튜브, 웹사이트 등의 매체를 통해 접해본 경험

문) OO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	없다 %	계 %
■ 전 체 ■		(1200)	16.3	83.8	100.0
성별	남자	(610)	18.0	82.0	100.0
	여자	(590)	14.4	85.6	100.0
연령별	19~29세	(206)	21.8	78.2	100.0
	30대	(200)	18.5	81.5	100.0
	40대	(239)	18.0	82.0	100.0
	50대	(260)	13.5	86.5	100.0
	60대 이상	(295)	11.9	88.1	100.0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82)	7.3	92.7	100.0
	고졸	(505)	12.3	87.7	100.0
	대재 이상	(613)	20.7	79.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92.9	100.0
	자영업	(304)	14.1	85.9	100.0
	블루칼라	(313)	16.0	84.0	100.0
	화이트칼라	(301)	19.9	80.1	100.0
	전업주부	(170)	13.5	86.5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20.2	79.8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4.0	86.0	100.0
	200~299만원	(124)	21.8	78.2	100.0
	300~399만원	(219)	13.2	86.8	100.0
	400만원 이상	(800)	16.4	83.6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0.1	89.9	100.0
	충청권	(154)	18.2	81.8	100.0
	호남권	(142)	23.2	76.8	100.0
	영남권	(313)	19.8	80.2	100.0
	강원	(45)	15.6	84.4	100.0
	제주	(32)	40.6	59.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13.0	87.0	100.0
	중소도시	(531)	20.7	79.3	100.0
	읍/면	(146)	11.6	88.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19.1	80.9	100.0
	중도	(622)	15.3	84.7	100.0
	보수적	(285)	15.4	84.6	100.0
종교	불교	(219)	16.9	83.1	100.0
	기독교	(187)	13.9	86.1	100.0
	천주교	(51)	7.8	92.2	100.0
	기타	(8)	25.0	75.0	100.0
	종교 없음	(708)	17.2	82.8	100.0
모름/무응답	(27)	14.8	85.2	100.0	

표 18-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경험

문) OO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 체 ■				
성별	(1200)	23.3	76.7	100.0
남자	(610)	23.1	76.9	100.0
여자	(590)	23.6	76.4	100.0
연령별	(206)	18.0	82.0	100.0
19~29세	(200)	24.0	76.0	100.0
30대	(239)	24.3	75.7	100.0
40대	(260)	22.3	77.7	100.0
50대	(295)	26.8	73.2	100.0
60대 이상	(82)	30.5	69.5	100.0
교육 수준별	(505)	22.2	77.8	100.0
중졸 이하	(613)	23.3	76.7	100.0
고졸	(28)	32.1	67.9	100.0
대재 이상	(304)	24.0	76.0	100.0
직업별	(313)	22.0	78.0	100.0
농/수/축산업	(301)	21.9	78.1	100.0
자영업	(170)	24.1	75.9	100.0
블루칼라	(84)	26.2	73.8	100.0
화이트칼라	(57)	29.8	70.2	100.0
전업주부	(124)	28.2	71.8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219)	26.9	73.1	100.0
가구소득수준	(800)	21.1	78.9	100.0
200만원 미만	(514)	23.2	76.8	100.0
200~299만원	(154)	16.2	83.8	100.0
300~399만원	(142)	23.2	76.8	100.0
400만원 이상	(313)	29.1	70.9	100.0
지역별	(45)	13.3	86.7	100.0
수도권	(32)	18.8	81.3	100.0
충청권	(523)	26.2	73.8	100.0
호남권	(531)	21.3	78.7	100.0
영남권	(146)	20.5	79.5	100.0
강원	(293)	24.2	75.8	100.0
제주	(622)	22.5	77.5	100.0
지역 크기	(285)	24.2	75.8	100.0
대도시	(622)	22.5	77.5	100.0
중소도시	(146)	20.5	79.5	100.0
읍/면	(293)	24.2	75.8	100.0
정치적 성향	(219)	26.0	74.0	100.0
진보적	(187)	21.9	78.1	100.0
중도	(51)	25.5	74.5	100.0
보수적	(8)	37.5	62.5	100.0
종교	(708)	22.5	77.5	100.0
불교	(187)	21.9	78.1	100.0
기독교	(51)	25.5	74.5	100.0
천주교	(8)	37.5	62.5	100.0
기타	(708)	22.5	77.5	100.0
종교 없음	(27)	25.9	74.1	100.0
모름/무응답				

표 18-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

문) OO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 체 ■				
성별	(1200)	1.8	98.3	100.0
남자	(610)	2.1	97.9	100.0
여자	(590)	1.4	98.6	100.0
연령별	(206)	0.5	99.5	100.0
19~29세	(200)	1.0	99.0	100.0
30대	(239)	2.5	97.5	100.0
40대	(260)	1.5	98.5	100.0
50대	(295)	2.7	97.3	100.0
60대 이상	(82)	2.4	97.6	100.0
교육 수준별	(505)	2.0	98.0	100.0
중졸 이하	(613)	1.5	98.5	100.0
고졸	(28)	7.1	92.9	100.0
대재 이상	(304)	2.0	98.0	100.0
직업별	(313)	2.9	97.1	100.0
농/수/축산업	(301)	0.7	99.3	100.0
자영업	(170)	1.2	98.8	100.0
블루칼라	(84)	0.0	100.0	100.0
화이트칼라	(57)	0.0	100.0	100.0
전업주부	(124)	4.0	96.0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219)	1.8	98.2	100.0
가구 소득수준	(800)	1.5	98.5	100.0
200만원 미만	(514)	1.0	99.0	100.0
200~299만원	(154)	1.3	98.7	100.0
300~399만원	(142)	2.8	97.2	100.0
400만원 이상	(313)	1.3	98.7	100.0
지역별	(45)	2.2	97.8	100.0
수도권	(32)	15.6	84.4	100.0
충청권	(523)	1.9	98.1	100.0
호남권	(531)	0.9	99.1	100.0
영남권	(146)	4.1	95.9	100.0
강원	(293)	2.0	98.0	100.0
제주	(622)	1.8	98.2	100.0
지역 크기	(285)	1.4	98.6	100.0
대도시	(622)	1.8	98.2	100.0
중소도시	(146)	4.1	95.9	100.0
읍/면	(293)	2.0	98.0	100.0
정치적 성향	(219)	2.3	97.7	100.0
진보적	(187)	2.1	97.9	100.0
중도	(51)	0.0	100.0	100.0
보수적	(8)	0.0	100.0	100.0
종교	(708)	1.7	98.3	100.0
불교	(187)	2.1	97.9	100.0
기독교	(51)	0.0	100.0	100.0
천주교	(8)	0.0	100.0	100.0
기타	(708)	1.7	98.3	100.0
종교 없음	(27)	0.0	100.0	100.0
모름/무응답				

표 18-5.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

문) OO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	없다 %	계 %
■ 전 체 ■		(1200)	12.6	87.4	100.0
성별	남자	(610)	13.0	87.0	100.0
	여자	(590)	12.2	87.8	100.0
연령별	19~29세	(206)	7.3	92.7	100.0
	30대	(200)	11.0	89.0	100.0
	40대	(239)	12.6	87.4	100.0
	50대	(260)	14.2	85.8	100.0
	60대 이상	(295)	15.9	84.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5.9	84.1	100.0
	고졸	(505)	15.2	84.8	100.0
	대재 이상	(613)	10.0	9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4.3	85.7	100.0
	자영업	(304)	15.8	84.2	100.0
	블루칼라	(313)	14.1	85.9	100.0
	화이트칼라	(301)	7.3	92.7	100.0
	전업주부	(170)	11.2	88.8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16.7	83.3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2.3	87.7	100.0
	200~299만원	(124)	17.7	82.3	100.0
	300~399만원	(219)	12.3	87.7	100.0
	400만원 이상	(800)	11.9	88.1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0.9	89.1	100.0
	충청권	(154)	13.0	87.0	100.0
	호남권	(142)	17.6	82.4	100.0
	영남권	(313)	10.9	89.1	100.0
	강원	(45)	20.0	80.0	100.0
	제주	(32)	21.9	78.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9.8	90.2	100.0
	중소도시	(531)	15.8	84.2	100.0
	읍/면	(146)	11.0	89.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11.6	88.4	100.0
	중도	(622)	13.0	87.0	100.0
	보수적	(285)	12.6	87.4	100.0
종교	불교	(219)	14.6	85.4	100.0
	기독교	(187)	15.0	85.0	100.0
	천주교	(51)	15.7	84.3	100.0
	기타	(8)	12.5	87.5	100.0
	종교 없음	(708)	10.5	89.5	100.0
	모름/무응답	(27)	29.6	70.4	100.0

표 19.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문)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관계인지 다음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명을 만나셨다면 그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세요.

		사례수	가족 및 친척 %	친구 및 가까운 동료 %	친하지는 않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 %	얼굴만 본 적 있음 %	계 %
■ 전 체 ■		(151)	1.3	7.9	23.2	67.5	100.0
성별	남자	(79)	1.3	8.9	22.8	67.1	100.0
	여자	(72)	1.4	6.9	23.6	68.1	100.0
연령별	19~29세	(15)	0.0	0.0	33.3	66.7	100.0
	30대	(22)	0.0	9.1	18.2	72.7	100.0
	40대	(30)	0.0	3.3	16.7	80.0	100.0
	50대	(37)	2.7	5.4	29.7	62.2	100.0
	60대 이상	(47)	2.1	14.9	21.3	61.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3)	0.0	23.1	23.1	53.8	100.0
	고졸	(77)	2.6	9.1	24.7	63.6	100.0
	대재 이상	(61)	0.0	3.3	21.3	7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4)	0.0	0.0	0.0	100.0	100.0
	자영업	(48)	0.0	10.4	16.7	72.9	100.0
	블루칼라	(44)	4.5	9.1	36.4	50.0	100.0
	화이트칼라	(22)	0.0	0.0	27.3	72.7	100.0
	전업주부	(19)	0.0	15.8	10.5	73.7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14)	0.0	0.0	21.4	78.6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7)	0.0	0.0	14.3	85.7	100.0
	200~299만원	(22)	0.0	13.6	36.4	50.0	100.0
	300~399만원	(27)	0.0	14.8	25.9	59.3	100.0
	400만원 이상	(95)	2.1	5.3	20.0	72.6	100.0
지역별	수도권	(56)	0.0	1.8	19.6	78.6	100.0
	충청권	(20)	0.0	5.0	25.0	70.0	100.0
	호남권	(25)	4.0	20.0	36.0	40.0	100.0
	영남권	(34)	2.9	11.8	20.6	64.7	100.0
	강원	(9)	0.0	0.0	11.1	88.9	100.0
	제주	(7)	0.0	14.3	28.6	57.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1)	2.0	5.9	21.6	70.6	100.0
	중소도시	(84)	1.2	9.5	25.0	64.3	100.0
	읍/면	(16)	0.0	6.3	18.8	75.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4)	2.9	8.8	29.4	58.8	100.0
	중도	(81)	0.0	7.4	22.2	70.4	100.0
	보수적	(36)	2.8	8.3	19.4	69.4	100.0
종교	불교	(32)	0.0	9.4	15.6	75.0	100.0
	기독교	(28)	0.0	10.7	35.7	53.6	100.0
	천주교	(8)	12.5	0.0	0.0	87.5	100.0
	기타	(1)	0.0	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74)	1.4	6.8	23.0	68.9	100.0
	모름/무응답	(8)	0.0	12.5	37.5	50.0	100.0

표 20-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선거방식

문) OO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전 체 ■		(1200)	63.9	27.7	7.1	1.3	91.6	8.4	100.0
성별	남자	(610)	66.1	25.4	7.2	1.3	91.5	8.5	100.0
	여자	(590)	61.7	30.0	6.9	1.4	91.7	8.3	100.0
연령별	19~29세	(206)	60.7	28.6	9.2	1.5	89.3	10.7	100.0
	30대	(200)	61.0	28.0	10.5	0.5	89.0	11.0	100.0
	40대	(239)	66.5	25.1	5.4	2.9	91.6	8.4	100.0
	50대	(260)	63.8	28.8	6.5	0.8	92.7	7.3	100.0
	60대 이상	(295)	66.1	27.8	5.1	1.0	93.9	6.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68.3	29.3	1.2	1.2	97.6	2.4	100.0
	고졸	(505)	61.2	29.9	7.7	1.2	91.1	8.9	100.0
	대재 이상	(613)	65.6	25.6	7.3	1.5	91.2	8.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4	14.3	10.7	3.6	85.7	14.3	100.0
	자영업	(304)	60.9	28.9	8.9	1.3	89.8	10.2	100.0
	블루칼라	(313)	65.5	28.8	4.8	1.0	94.2	5.8	100.0
	화이트칼라	(301)	63.8	25.6	9.6	1.0	89.4	10.6	100.0
	전업주부	(170)	62.4	31.2	4.1	2.4	93.5	6.5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77.2	14.0	3.5	5.3	91.2	8.8	100.0
	200~299만원	(124)	62.1	29.8	6.5	1.6	91.9	8.1	100.0
	300~399만원	(219)	61.6	29.7	6.8	1.8	91.3	8.7	100.0
	400만원 이상	(800)	63.9	27.8	7.5	0.9	91.6	8.4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58.8	33.3	7.2	0.8	92.0	8.0
충청권		(154)	69.5	20.1	7.8	2.6	89.6	10.4	100.0
호남권		(142)	73.9	16.9	5.6	3.5	90.8	9.2	100.0
영남권		(313)	63.6	28.8	7.7	0.0	92.3	7.7	100.0
강원		(45)	77.8	13.3	6.7	2.2	91.1	8.9	100.0
제주		(32)	59.4	31.3	3.1	6.3	90.6	9.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63.1	30.0	5.9	1.0	93.1	6.9
	중소도시	(531)	67.2	23.9	7.3	1.5	91.1	8.9	100.0
	읍/면	(146)	54.8	32.9	10.3	2.1	87.7	12.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64.2	30.4	4.8	0.7	94.5	5.5	100.0
	중도	(622)	63.0	27.3	8.0	1.6	90.4	9.6	100.0
	보수적	(285)	65.6	25.6	7.4	1.4	91.2	8.8	100.0
종교	불교	(219)	61.6	27.9	8.7	1.8	89.5	10.5	100.0
	기독교	(187)	66.3	24.6	6.4	2.7	90.9	9.1	100.0
	천주교	(51)	62.7	35.3	2.0	0.0	98.0	2.0	100.0
	기타	(8)	62.5	25.0	12.5	0.0	87.5	12.5	100.0
	종교 없음	(708)	64.5	28.0	6.8	0.7	92.5	7.5	100.0
	모름/무응답	(27)	51.9	25.9	14.8	7.4	77.8	22.2	100.0

표 20-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㉕ 사회복지

문) OO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전 체 ■		(1200)	65.3	25.0	8.1	1.7	90.3	9.8	100.0
성별	남자	(610)	65.4	24.1	8.7	1.8	89.5	10.5	100.0
	여자	(590)	65.1	25.9	7.5	1.5	91.0	9.0	100.0
연령별	19~29세	(206)	68.4	18.9	11.2	1.5	87.4	12.6	100.0
	30대	(200)	62.5	31.0	5.5	1.0	93.5	6.5	100.0
	40대	(239)	64.4	26.4	5.4	3.8	90.8	9.2	100.0
	50대	(260)	64.6	24.6	9.2	1.5	89.2	10.8	100.0
	60대 이상	(295)	66.1	24.4	8.8	0.7	90.5	9.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67.1	23.2	9.8	0.0	90.2	9.8	100.0
	고졸	(505)	62.6	26.3	8.9	2.2	88.9	11.1	100.0
	대재 이상	(613)	67.2	24.1	7.2	1.5	91.4	8.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67.9	25.0	7.1	0.0	92.9	7.1	100.0
	자영업	(304)	64.8	24.3	8.6	2.3	89.1	10.9	100.0
	블루칼라	(313)	63.6	27.8	7.3	1.3	91.4	8.6	100.0
	화이트칼라	(301)	64.5	26.6	7.6	1.3	91.0	9.0	100.0
	전업주부	(170)	64.1	22.9	10.6	2.4	87.1	12.9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77.4	15.5	6.0	1.2	92.9	7.1	100.0
	200~299만원	(124)	66.9	25.0	6.5	1.6	91.9	8.1	100.0
	300~399만원	(219)	63.0	25.1	10.5	1.4	88.1	11.9	100.0
	400만원 이상	(800)	64.6	26.1	7.6	1.6	90.8	9.3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59.9	31.3	7.4	1.4	91.2	8.8
충청권		(154)	72.7	18.8	5.2	3.2	91.6	8.4	100.0
호남권		(142)	61.3	25.4	10.6	2.8	86.6	13.4	100.0
영남권		(313)	69.3	19.5	10.9	0.3	88.8	11.2	100.0
강원		(45)	86.7	11.1	0.0	2.2	97.8	2.2	100.0
제주		(32)	62.5	25.0	6.3	6.3	87.5	12.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60.0	30.0	8.4	1.5	90.1	9.9
	중소도시	(531)	69.7	21.8	7.0	1.5	91.5	8.5	100.0
	읍/면	(146)	67.8	18.5	11.0	2.7	86.3	13.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64.8	25.9	8.2	1.0	90.8	9.2	100.0
	중도	(622)	64.0	26.0	8.7	1.3	90.0	10.0	100.0
	보수적	(285)	68.4	21.8	6.7	3.2	90.2	9.8	100.0
종교	불교	(219)	64.4	23.7	9.6	2.3	88.1	11.9	100.0
	기독교	(187)	66.3	26.2	5.3	2.1	92.5	7.5	100.0
	천주교	(51)	56.9	39.2	3.9	0.0	96.1	3.9	100.0
	기타	(8)	50.0	50.0	0.0	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708)	66.4	24.3	8.2	1.1	90.7	9.3	100.0
	모름/무응답	(27)	55.6	11.1	22.2	11.1	66.7	33.3	100.0

표 20-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언어사용

문) OO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	
■ 전 체 ■ (1200)									
성별	남자	(610)	29.7	51.8	15.2	3.3	81.5	18.5	100.0
	여자	(590)	27.6	55.9	13.4	3.1	83.6	16.4	100.0
연령별	19~29세	(206)	22.3	58.3	16.5	2.9	80.6	19.4	100.0
	30대	(200)	28.5	56.0	13.5	2.0	84.5	15.5	100.0
	40대	(239)	30.5	52.3	11.7	5.4	82.8	17.2	100.0
	50대	(260)	28.8	53.1	16.5	1.5	81.9	18.1	100.0
	60대 이상	(295)	31.5	51.2	13.6	3.7	82.7	17.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36.6	43.9	15.9	3.7	80.5	19.5	100.0
	고졸	(505)	29.7	52.5	14.3	3.6	82.2	17.8	100.0
	대재 이상	(613)	26.8	56.3	14.2	2.8	83.0	17.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46.4	39.3	10.7	3.6	85.7	14.3	100.0
	자영업	(304)	28.6	53.6	14.5	3.3	82.2	17.8	100.0
	블루칼라	(313)	25.6	58.1	14.4	1.9	83.7	16.3	100.0
	화이트칼라	(301)	27.2	55.5	14.3	3.0	82.7	17.3	100.0
	전업주부	(170)	31.2	49.4	14.1	5.3	80.6	19.4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36.8	40.4	14.0	8.8	77.2	22.8	100.0
	200~299만원	(124)	30.6	49.2	16.9	3.2	79.8	20.2	100.0
	300~399만원	(219)	30.1	51.1	15.1	3.7	81.3	18.7	100.0
	400만원 이상	(800)	27.4	56.3	13.8	2.6	83.6	16.4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25.7	59.5	12.3	2.5	85.2	14.8
충청권		(154)	31.2	56.5	9.7	2.6	87.7	12.3	100.0
호남권		(142)	24.6	43.0	27.5	4.9	67.6	32.4	100.0
영남권		(313)	30.7	49.8	16.0	3.5	80.5	19.5	100.0
강원		(45)	48.9	46.7	2.2	2.2	95.6	4.4	100.0
제주		(32)	34.4	46.9	12.5	6.3	81.3	18.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25.4	55.6	16.6	2.3	81.1	18.9
	중소도시	(531)	29.0	55.7	11.7	3.6	84.7	15.3	100.0
	읍/면	(146)	39.0	40.4	15.8	4.8	79.5	20.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29.7	55.3	13.3	1.7	85.0	15.0	100.0
	중도	(622)	27.7	54.0	14.3	4.0	81.7	18.3	100.0
	보수적	(285)	29.8	51.9	15.4	2.8	81.8	18.2	100.0
종교	불교	(219)	31.1	47.9	16.4	4.6	79.0	21.0	100.0
	기독교	(187)	34.8	51.9	11.8	1.6	86.6	13.4	100.0
	천주교	(51)	31.4	54.9	11.8	2.0	86.3	13.7	100.0
	기타	(8)	50.0	50.0	0.0	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708)	26.8	55.6	14.7	2.8	82.5	17.5	100.0
	모름/무응답	(27)	3.7	66.7	14.8	14.8	70.4	29.6	100.0

표 20-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생활품승(관혼상제 등)

문) OO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	
■ 전 체 ■ (1200)									
성별	남자	(610)	23.9	53.0	19.7	3.4	76.9	23.1	100.0
	여자	(590)	26.6	48.8	21.0	3.6	75.4	24.6	100.0
연령별	19~29세	(206)	20.9	50.5	25.2	3.4	71.4	28.6	100.0
	30대	(200)	28.5	50.0	18.5	3.0	78.5	21.5	100.0
	40대	(239)	25.5	50.6	19.7	4.2	76.2	23.8	100.0
	50대	(260)	23.1	56.9	17.3	2.7	80.0	20.0	100.0
	60대 이상	(295)	27.8	46.8	21.4	4.1	74.6	25.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28.0	40.2	23.2	8.5	68.3	31.7	100.0
	고졸	(505)	24.6	50.5	21.2	3.8	75.0	25.0	100.0
	대재 이상	(613)	25.4	52.7	19.2	2.6	78.1	21.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46.4	28.6	25.0	0.0	75.0	25.0	100.0
	자영업	(304)	22.7	50.0	22.7	4.6	72.7	27.3	100.0
	블루칼라	(313)	21.4	56.5	18.5	3.5	78.0	22.0	100.0
	화이트칼라	(301)	23.6	53.8	19.6	3.0	77.4	22.6	100.0
	전업주부	(170)	33.5	45.3	17.6	3.5	78.8	21.2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31.0	41.7	25.0	2.4	72.6	27.4	100.0
	200~299만원	(124)	26.3	49.1	15.8	8.8	75.4	24.6	100.0
	300~399만원	(219)	27.4	47.6	21.8	3.2	75.0	25.0	100.0
	400만원 이상	(800)	24.7	47.5	21.0	6.8	72.1	27.9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25.0	52.5	20.3	2.3	77.5	22.5
충청권		(154)	26.1	51.9	18.9	3.1	78.0	22.0	100.0
충청권		(154)	26.0	53.2	17.5	3.2	79.2	20.8	100.0
호남권		(142)	23.9	48.6	21.8	5.6	72.5	27.5	100.0
영남권		(313)	21.1	51.8	24.0	3.2	72.8	27.2	100.0
강원		(45)	33.3	42.2	22.2	2.2	75.6	24.4	100.0
제주		(32)	43.8	37.5	12.5	6.3	81.3	18.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19.5	55.4	22.2	2.9	75.0	25.0	100.0
	중소도시	(531)	29.2	48.0	18.8	4.0	77.2	22.8	100.0
	읍/면	(146)	31.5	45.2	19.2	4.1	76.7	23.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24.9	56.7	17.1	1.4	81.6	18.4	100.0
	중도	(622)	23.5	51.1	20.9	4.5	74.6	25.4	100.0
	보수적	(285)	29.5	44.6	22.5	3.5	74.0	26.0	100.0
종교	불교	(219)	23.3	49.3	22.8	4.6	72.6	27.4	100.0
	기독교	(187)	34.8	48.1	14.4	2.7	82.9	17.1	100.0
	천주교	(51)	29.4	47.1	21.6	2.0	76.5	23.5	100.0
	기타	(8)	25.0	62.5	12.5	0.0	87.5	12.5	100.0
	종교 없음	(708)	23.4	52.1	21.3	3.1	75.6	24.4	100.0
	모름/무응답	(27)	14.8	55.6	14.8	14.8	70.4	29.6	100.0

표 20-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가족에 대한 중시

문) OO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전 체 ■		사례수	%	%	%	%	%	%	
성별	남자	(610)	16.6	36.1	37.7	9.7	52.6	47.4	100.0
	여자	(590)	16.4	35.4	39.8	8.3	51.9	48.1	100.0
연령별	19~29세	(206)	16.0	36.4	36.9	10.7	52.4	47.6	100.0
	30대	(200)	17.0	37.5	40.0	5.5	54.5	45.5	100.0
	40대	(239)	15.9	34.7	40.2	9.2	50.6	49.4	100.0
	50대	(260)	15.4	33.8	39.6	11.2	49.2	50.8	100.0
	60대 이상	(295)	18.0	36.6	37.3	8.1	54.6	45.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7.1	24.4	43.9	14.6	41.5	58.5	100.0
	고졸	(505)	15.8	35.6	37.6	10.9	51.5	48.5	100.0
	대재 이상	(613)	17.0	37.4	39.0	6.7	54.3	45.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42.9	39.3	14.3	3.6	82.1	17.9	100.0
	자영업	(304)	14.1	33.9	42.8	9.2	48.0	52.0	100.0
	블루칼라	(313)	15.7	33.5	39.6	11.2	49.2	50.8	100.0
	화이트칼라	(301)	14.3	39.2	39.9	6.6	53.5	46.5	100.0
	전업주부	(170)	19.4	38.8	34.7	7.1	58.2	41.8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26.3	29.8	31.6	12.3	56.1	43.9	100.0
	200~299만원	(124)	17.7	38.7	36.3	7.3	56.5	43.5	100.0
	300~399만원	(219)	17.8	33.8	41.6	6.8	51.6	48.4	100.0
	400만원 이상	(800)	15.3	36.3	38.9	9.6	51.5	48.5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2.6	41.1	36.8	9.5	53.7	46.3	100.0
	충청권	(154)	19.5	31.8	42.9	5.8	51.3	48.7	100.0
	호남권	(142)	22.5	35.2	30.3	12.0	57.7	42.3	100.0
	영남권	(313)	16.6	30.0	45.4	8.0	46.6	53.4	100.0
	강원	(45)	26.7	24.4	35.6	13.3	51.1	48.9	100.0
지역 크기	제주	(32)	21.9	43.8	28.1	6.3	65.6	34.4	100.0
	대도시	(523)	15.1	37.3	39.2	8.4	52.4	47.6	100.0
	중소도시	(531)	15.1	34.5	40.1	10.4	49.5	50.5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26.7	34.9	32.2	6.2	61.6	38.4	100.0
	진보적	(293)	17.7	38.2	35.5	8.5	56.0	44.0	100.0
	중도	(622)	15.1	36.5	38.7	9.6	51.6	48.4	100.0
종교	보수적	(285)	18.2	31.6	42.1	8.1	49.8	50.2	100.0
	불교	(219)	15.1	36.5	37.9	10.5	51.6	48.4	100.0
	기독교	(187)	25.1	39.0	29.4	6.4	64.2	35.8	100.0
	천주교	(51)	15.7	43.1	33.3	7.8	58.8	41.2	100.0
	기타	(8)	12.5	25.0	37.5	25.0	37.5	62.5	100.0
	종교 없음	(708)	15.0	34.0	42.1	8.9	49.0	51.0	100.0
	모름/무응답	(27)	11.1	40.7	33.3	14.8	51.9	48.1	100.0

표 20-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㉕ 돈에 대한 중시

문) OO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전 체 ■		사례수	%	%	%	%	%	%	
성별	남자	(610)	19.8	40.3	29.6	10.3	60.1	39.9	100.0
	여자	(590)	21.3	40.0	27.7	11.0	61.3	38.7	100.0
연령별	19~29세	(206)	18.3	40.5	31.5	9.7	58.8	41.2	100.0
	30대	(200)	20.9	40.3	28.2	10.7	61.2	38.8	100.0
	40대	(239)	20.0	44.0	28.5	7.5	64.0	36.0	100.0
	50대	(260)	18.0	40.2	30.1	11.7	58.2	41.8	100.0
	60대 이상	(295)	17.3	40.0	32.3	10.4	57.3	42.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22.7	38.0	28.5	10.8	60.7	39.3	100.0
	고졸	(505)	22.0	31.7	31.7	14.6	53.7	46.3	100.0
	대재 이상	(613)	19.2	39.4	29.1	12.3	58.6	41.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0.1	42.1	29.7	8.2	62.2	37.8	100.0
	자영업	(304)	28.6	42.9	21.4	7.1	71.4	28.6	100.0
	블루칼라	(313)	18.4	35.2	34.9	11.5	53.6	46.4	100.0
	화이트칼라	(301)	22.4	39.3	24.0	14.4	61.7	38.3	100.0
	전업주부	(170)	17.3	42.2	33.2	7.3	59.5	40.5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8.8	45.9	30.0	5.3	64.7	35.3	100.0
	200~299만원	(124)	23.8	42.9	20.2	13.1	66.7	33.3	100.0
	300~399만원	(219)	31.6	42.1	12.3	14.0	73.7	26.3	100.0
	400만원 이상	(800)	25.0	40.3	28.2	6.5	65.3	34.7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5.5	45.7	30.1	8.7	61.2	38.8	100.0
	충청권	(154)	19.4	38.6	30.9	11.1	58.0	42.0	100.0
	호남권	(142)	15.6	44.2	30.0	10.3	59.7	40.3	100.0
	영남권	(313)	25.3	40.9	30.5	3.2	66.2	33.8	100.0
	강원	(45)	25.4	35.9	26.1	12.7	61.3	38.7	100.0
지역 크기	제주	(32)	18.5	35.1	33.5	12.8	53.7	46.3	100.0
	대도시	(523)	37.8	37.8	17.8	6.7	75.6	24.4	100.0
	중소도시	(531)	25.0	46.9	12.5	15.6	71.9	28.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19.5	39.4	32.3	8.8	58.9	41.1	100.0
	진보적	(293)	18.6	41.6	27.5	12.2	60.3	39.7	100.0
	중도	(622)	25.3	38.4	27.4	8.9	63.7	36.3	100.0
종교	보수적	(285)	25.3	38.4	27.4	8.9	63.7	36.3	100.0
	불교	(219)	19.8	43.0	30.4	6.8	62.8	37.2	100.0
	기독교	(187)	18.8	41.0	28.1	12.1	59.8	40.2	100.0
	천주교	(51)	22.1	35.8	31.9	10.2	57.9	42.1	100.0
	기타	(8)	21.5	33.3	33.3	11.9	54.8	45.2	100.0
	종교 없음	(708)	25.7	43.3	24.1	7.0	69.0	31.0	100.0
	모름/무응답	(27)	17.6	45.1	27.5	9.8	62.7	37.3	100.0
	모름/무응답	(27)	12.5	50.0	0.0	37.5	62.5	37.5	100.0
	모름/무응답	(27)	17.9	41.0	30.6	10.5	58.9	41.1	100.0
	모름/무응답	(27)	22.2	44.4	22.2	11.1	66.7	33.3	100.0

표 21.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OO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전 체 ■	(1200)	31.6	50.9	15.8	1.7	82.5	17.5	100.0	
성별	남자	(610)	30.0	52.0	16.2	1.8	82.0	18.0	100.0
	여자	(590)	33.2	49.8	15.4	1.5	83.1	16.9	100.0
연령별	19~29세	(206)	34.0	45.6	18.4	1.9	79.6	20.4	100.0
	30대	(200)	30.5	51.5	15.5	2.5	82.0	18.0	100.0
	40대	(239)	30.1	52.3	16.3	1.3	82.4	17.6	100.0
	50대	(260)	28.5	54.2	16.9	0.4	82.7	17.3	100.0
	60대 이상	(295)	34.6	50.2	12.9	2.4	84.7	15.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35.4	51.2	12.2	1.2	86.6	13.4	100.0
	고졸	(505)	29.9	51.1	17.4	1.6	81.0	19.0	100.0
	대재 이상	(613)	32.5	50.7	15.0	1.8	83.2	16.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5.0	64.3	10.7	0.0	89.3	10.7	100.0
	자영업	(304)	31.9	47.4	19.7	1.0	79.3	20.7	100.0
	블루칼라	(313)	29.4	52.1	17.3	1.3	81.5	18.5	100.0
	화이트칼라	(301)	32.2	51.8	13.3	2.7	84.1	15.9	100.0
	전업주부	(170)	30.6	54.7	12.4	2.4	85.3	14.7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40.5	44.0	14.3	1.2	84.5	15.5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42.1	42.1	12.3	3.5	84.2	15.8	100.0
	200~299만원	(124)	38.7	43.5	16.1	1.6	82.3	17.7	100.0
	300~399만원	(219)	29.7	53.4	16.0	0.9	83.1	16.9	100.0
	400만원 이상	(800)	30.3	52.0	16.0	1.8	82.3	17.8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28.4	53.7	17.3	0.6	82.1	17.9	100.0
	충청권	(154)	31.2	46.8	18.2	3.9	77.9	22.1	100.0
	호남권	(142)	28.2	46.5	21.8	3.5	74.6	25.4	100.0
	영남권	(313)	32.6	54.3	11.8	1.3	86.9	13.1	100.0
	강원	(45)	53.3	35.6	8.9	2.2	88.9	11.1	100.0
	제주	(32)	59.4	34.4	3.1	3.1	93.8	6.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29.1	52.6	16.4	1.9	81.6	18.4
중소도시	(531)	33.0	48.6	16.8	1.7	81.5	18.5	100.0	
읍/면	(146)	35.6	53.4	10.3	0.7	89.0	11.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27.0	53.6	17.4	2.0	80.5	19.5	100.0
	중도	(622)	32.0	50.0	16.4	1.6	82.0	18.0	100.0
	보수적	(285)	35.4	50.2	13.0	1.4	85.6	14.4	100.0
종교	불교	(219)	34.2	46.1	17.4	2.3	80.4	19.6	100.0
	기독교	(187)	35.8	41.2	20.3	2.7	77.0	23.0	100.0
	천주교	(51)	29.4	47.1	19.6	3.9	76.5	23.5	100.0
	기타	(8)	12.5	62.5	12.5	12.5	75.0	25.0	100.0
	종교 없음	(708)	29.2	55.8	14.3	0.7	85.0	15.0	100.0
모름/무응답	(27)	51.9	33.3	7.4	7.4	85.2	14.8	100.0	

표 22.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문) OO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③+④	⑤	계	
		매우 동의 한다	다소 동의 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름
■ 전 체 ■	(1200)	57.6	30.0	7.2	3.6	1.7	87.6	10.8	1.7	100.0	
성별	남자	(610)	59.0	28.9	5.9	4.3	2.0	87.9	10.2	2.0	100.0
	여자	(590)	56.1	31.2	8.5	2.9	1.4	87.3	11.4	1.4	100.0
연령별	19~29세	(206)	55.8	31.6	7.3	1.9	3.4	87.4	9.2	3.4	100.0
	30대	(200)	59.0	30.0	7.0	3.0	1.0	89.0	10.0	1.0	100.0
	40대	(239)	57.3	30.5	7.1	4.6	0.4	87.9	11.7	0.4	100.0
	50대	(260)	53.8	33.5	8.1	3.5	1.2	87.3	11.5	1.2	100.0
	60대 이상	(295)	61.4	25.4	6.4	4.4	2.4	86.8	10.8	2.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53.7	28.0	11.0	4.9	2.4	81.7	15.9	2.4	100.0
	고졸	(505)	59.2	27.9	8.1	2.8	2.0	87.1	10.9	2.0	100.0
	대재 이상	(613)	56.8	32.0	5.9	4.1	1.3	88.7	10.0	1.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42.9	42.9	10.7	0.0	3.6	85.7	10.7	3.6	100.0
	자영업	(304)	58.2	26.0	8.9	4.9	2.0	84.2	13.8	2.0	100.0
	블루칼라	(313)	56.2	31.9	6.7	3.5	1.6	88.2	10.2	1.6	100.0
	화이트칼라	(301)	60.8	31.2	4.3	3.0	0.7	92.0	7.3	0.7	100.0
	전업주부	(170)	52.9	31.8	10.6	4.1	0.6	84.7	14.7	0.6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63.1	25.0	4.8	1.2	6.0	88.1	6.0	6.0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56.1	28.1	7.0	5.3	3.5	84.2	12.3	3.5	100.0
	200~299만원	(124)	67.7	21.8	4.8	3.2	2.4	89.5	8.1	2.4	100.0
	300~399만원	(219)	54.8	30.1	8.2	5.0	1.8	84.9	13.2	1.8	100.0
	400만원 이상	(800)	56.9	31.4	7.3	3.1	1.4	88.3	10.4	1.4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59.3	31.7	5.6	2.5	0.8	91.1	8.2	0.8	100.0
	충청권	(154)	50.0	30.5	8.4	3.9	7.1	80.5	12.3	7.1	100.0
	호남권	(142)	47.9	35.2	9.9	5.6	1.4	83.1	15.5	1.4	100.0
	영남권	(313)	60.1	26.5	8.9	4.5	0.0	86.6	13.4	0.0	100.0
	강원	(45)	77.8	13.3	2.2	2.2	4.4	91.1	4.4	4.4	100.0
	제주	(32)	56.3	34.4	3.1	3.1	3.1	90.6	6.3	3.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53.5	31.2	9.4	3.4	2.5	84.7	12.8	2.5
중소도시	(531)	61.6	27.5	6.2	4.0	0.8	89.1	10.2	0.8	100.0	
읍/면	(146)	57.5	34.9	2.7	2.7	2.1	92.5	5.5	2.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54.9	35.2	7.5	1.7	0.7	90.1	9.2	0.7	100.0
	중도	(622)	56.4	31.2	6.3	4.3	1.8	87.6	10.6	1.8	100.0
	보수적	(285)	62.8	22.1	8.8	3.9	2.5	84.9	12.6	2.5	100.0
종교	불교	(219)	58.0	27.9	7.8	4.6	1.8	85.8	12.3	1.8	100.0
	기독교	(187)	57.8	28.3	5.9	5.9	2.1	86.1	11.8	2.1	100.0
	천주교	(51)	51.0	39.2	3.9	5.9	0.0	90.2	9.8	0.0	100.0
	기타	(8)	87.5	0.0	12.5	0.0	0.0	87.5	12.5	0.0	100.0
	종교 없음	(708)	57.2	31.2	7.8	2.5	1.3	88.4	10.3	1.3	100.0
모름/무응답	(27)	66.7	18.5	0.0	3.7	11.1	85.2	3.7	11.1	100.0	

표 23.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식

문) OO님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계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반반/ 보통이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사례수	%	%	%	%	%	%	%	
■ 전 체 ■		(1200)	9.3	40.8	34.5	12.2	3.3	50.1	15.4	100.0
성별	남자	(610)	9.0	41.3	32.3	14.1	3.3	50.3	17.4	100.0
	여자	(590)	9.5	40.3	36.8	10.2	3.2	49.8	13.4	100.0
연령별	19~29세	(206)	6.8	37.4	37.9	13.6	4.4	44.2	18.0	100.0
	30대	(200)	8.5	34.5	40.5	11.5	5.0	43.0	16.5	100.0
	40대	(239)	9.2	46.0	30.1	12.6	2.1	55.2	14.6	100.0
	50대	(260)	9.6	46.5	32.7	8.8	2.3	56.2	11.2	100.0
	60대 이상	(295)	11.2	38.3	33.2	14.2	3.1	49.5	17.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4.6	32.9	37.8	9.8	4.9	47.6	14.6	100.0
	고졸	(505)	10.3	43.2	32.9	11.9	1.8	53.5	13.7	100.0
	대재 이상	(613)	7.7	40.0	35.4	12.7	4.2	47.6	17.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28.6	57.1	3.6	3.6	35.7	7.1	100.0
	자영업	(304)	8.9	44.1	30.6	12.8	3.6	53.0	16.4	100.0
	블루칼라	(313)	11.2	39.3	36.4	11.5	1.6	50.5	13.1	100.0
	화이트칼라	(301)	9.3	39.9	35.9	10.3	4.7	49.2	15.0	100.0
	전업주부	(170)	7.1	42.9	32.9	13.5	3.5	50.0	17.1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5.8	26.3	45.6	8.8	3.5	42.1	12.3	100.0
	200~299만원	(124)	13.7	41.1	28.2	9.7	7.3	54.8	16.9	100.0
	300~399만원	(219)	10.0	37.9	35.6	14.2	2.3	47.9	16.4	100.0
	400만원 이상	(800)	7.9	42.6	34.4	12.3	2.9	50.5	15.1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6.2	42.2	36.6	13.0	1.9	48.4	15.0	100.0
	충청권	(154)	7.8	29.2	39.6	16.2	7.1	37.0	23.4	100.0
	호남권	(142)	14.1	45.8	28.9	10.6	0.7	59.9	11.3	100.0
	영남권	(313)	12.1	42.5	31.3	11.5	2.6	54.6	14.1	100.0
	강원	(45)	13.3	40.0	37.8	0.0	8.9	53.3	8.9	100.0
	제주	(32)	9.4	37.5	28.1	9.4	15.6	46.9	25.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8.0	40.0	36.3	12.8	2.9	48.0	15.7	100.0
	중소도시	(531)	9.2	42.0	31.8	13.0	4.0	51.2	16.9	100.0
	읍/면	(146)	13.7	39.7	37.7	6.8	2.1	53.4	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8.2	45.7	36.9	8.9	0.3	53.9	9.2	100.0
	중도	(622)	9.8	40.7	33.3	12.5	3.7	50.5	16.2	100.0
	보수적	(285)	9.1	36.1	34.7	14.7	5.3	45.3	20.0	100.0
종교	불교	(219)	9.6	46.6	32.4	9.1	2.3	56.2	11.4	100.0
	기독교	(187)	6.4	38.0	36.9	15.0	3.7	44.4	18.7	100.0
	천주교	(51)	13.7	45.1	23.5	13.7	3.9	58.8	17.6	100.0
	기타	(8)	25.0	50.0	25.0	0.0	0.0	75.0	0.0	100.0
	종교 없음	(708)	9.2	39.8	36.0	11.7	3.2	49.0	15.0	100.0
모름/무응답	(27)	14.8	29.6	18.5	29.6	7.4	44.4	37.0	100.0	

표 24. 북한의 인권 상황

문) OO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사례수	%	%	%	%	%	%	%	
■ 전 체 ■		(1200)	42.8	41.1	14.8	1.3	0.1	83.8	1.3	100.0
성별	남자	(610)	44.3	40.3	14.1	1.1	0.2	84.6	1.3	100.0
	여자	(590)	41.2	41.9	15.6	1.4	0.0	83.1	1.4	100.0
연령별	19~29세	(206)	38.3	46.6	14.1	1.0	0.0	85.0	1.0	100.0
	30대	(200)	45.0	37.5	16.5	1.0	0.0	82.5	1.0	100.0
	40대	(239)	43.1	41.8	13.4	1.3	0.4	84.9	1.7	100.0
	50대	(260)	42.7	41.5	14.6	1.2	0.0	84.2	1.2	100.0
	60대 이상	(295)	44.1	38.6	15.6	1.7	0.0	82.7	1.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41.5	47.6	11.0	0.0	0.0	89.0	0.0	100.0
	고졸	(505)	40.6	40.2	17.4	1.8	0.0	80.8	1.8	100.0
	대재 이상	(613)	44.7	40.9	13.2	1.0	0.2	85.6	1.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64.3	28.6	7.1	0.0	0.0	92.9	0.0	100.0
	자영업	(304)	42.8	39.8	15.1	2.3	0.0	82.6	2.3	100.0
	블루칼라	(313)	37.7	43.8	16.9	1.3	0.3	81.5	1.6	100.0
	화이트칼라	(301)	47.5	40.9	10.6	1.0	0.0	88.4	1.0	100.0
	전업주부	(170)	36.5	42.4	20.6	0.6	0.0	78.8	0.6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49.1	42.1	8.8	0.0	0.0	91.2	0.0	100.0
	200~299만원	(124)	50.0	38.7	9.7	1.6	0.0	88.7	1.6	100.0
	300~399만원	(219)	41.6	37.0	19.6	1.8	0.0	78.5	1.8	100.0
	400만원 이상	(800)	41.5	42.5	14.8	1.1	0.1	84.0	1.3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43.6	40.5	14.2	1.8	0.0	84.0	1.8	100.0
	충청권	(154)	35.7	41.6	21.4	1.3	0.0	77.3	1.3	100.0
	호남권	(142)	44.4	44.4	11.3	0.0	0.0	88.7	0.0	100.0
	영남권	(313)	40.6	42.5	15.7	1.3	0.0	83.1	1.3	100.0
	강원	(45)	57.8	40.0	2.2	0.0	0.0	97.8	0.0	100.0
	제주	(32)	56.3	21.9	18.8	0.0	3.1	78.1	3.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41.5	38.8	18.5	1.1	0.0	80.3	1.1	100.0
	중소도시	(531)	41.6	44.8	11.9	1.5	0.2	86.4	1.7	100.0
	읍/면	(146)	51.4	35.6	12.3	0.7	0.0	87.0	0.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44.0	43.3	11.6	1.0	0.0	87.4	1.0	100.0
	중도	(622)	40.2	42.0	16.1	1.6	0.2	82.2	1.8	100.0
	보수적	(285)	47.0	36.8	15.4	0.7	0.0	83.9	0.7	100.0
종교	불교	(219)	39.7	43.4	16.0	0.9	0.0	83.1	0.9	100.0
	기독교	(187)	55.6	31.0	12.8	0.5	0.0	86.6	0.5	100.0
	천주교	(51)	43.1	37.3	15.7	3.9	0.0	80.4	3.9	100.0
	기타	(8)	62.5	37.5	0.0	0.0	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708)	39.8	43.6	15.0	1.4	0.1	83.5	1.6	100.0
모름/무응답	(27)	48.1	33.3	18.5	0.0	0.0	81.5	0.0	100.0	



표 25-1. 대북정책 도움 정도(북한의 개혁개방) - ㉞ 인도적 대북지원

문) OO님은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with 9 columns: Category, Count,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 3+4, Total. Rows include Gender, Age, Education, Occupation, Household Income, Region, Area Size, Political Stance, and Religion.

표 25-2. 대북정책 도움 정도(북한의 개혁개방) - ㉟ 남북 사회문화교류

문) OO님은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with 9 columns: Category, Count,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 3+4, Total. Rows include Gender, Age, Education, Occupation, Household Income, Region, Area Size, Political Stance, and Religion.







표 27.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한 협력 방식

문) OO님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의 단독 정책 수행	미국, 일본과의 협력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국제사회(유엔 등 국제기구, 국제 NGO 등)와의 협력	계	
		%	%	%	%		
■ 전 체 ■	(1200)	16.6	28.8	7.8	46.9	100.0	
성별	남자	(610)	16.2	30.2	8.5	45.1	100.0
	여자	(590)	16.9	27.3	6.9	48.8	100.0
연령별	19~29세	(206)	16.5	29.1	6.3	48.1	100.0
	30대	(200)	15.0	29.0	10.0	46.0	100.0
	40대	(239)	17.2	25.9	7.9	49.0	100.0
	50대	(260)	15.4	30.4	8.8	45.4	100.0
	60대 이상	(295)	18.3	29.2	6.1	46.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7.1	28.0	2.4	52.4	100.0
	고졸	(505)	17.2	30.7	7.3	44.8	100.0
	대재 이상	(613)	16.0	27.2	8.8	48.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21.4	21.4	46.4	100.0
	자영업	(304)	19.7	33.2	6.3	40.8	100.0
	블루칼라	(313)	15.7	26.5	8.3	49.5	100.0
	화이트칼라	(301)	16.3	27.2	9.3	47.2	100.0
	전업주부	(170)	13.5	30.0	5.9	50.6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5.8	21.1	10.5	52.6	100.0
	200~299만원	(124)	20.2	20.2	8.9	50.8	100.0
	300~399만원	(219)	17.4	33.8	7.3	41.6	100.0
	400만원 이상	(800)	15.9	29.3	7.5	47.4	100.0
	수도권	(514)	14.2	35.6	5.1	45.1	100.0
지역별	충청권	(154)	15.6	20.8	12.3	51.3	100.0
	호남권	(142)	18.3	27.5	9.2	45.1	100.0
	영남권	(313)	21.1	25.6	6.7	46.6	100.0
	강원	(45)	15.6	2.2	15.6	66.7	100.0
	제주	(32)	9.4	31.3	21.9	37.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17.4	35.6	5.9	41.1	100.0
	중소도시	(531)	15.4	23.4	8.9	52.4	100.0
	읍/면	(146)	17.8	24.0	10.3	47.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17.1	25.9	7.2	49.8	100.0
	중도	(622)	16.4	27.8	8.2	47.6	100.0
	보수적	(285)	16.5	33.7	7.4	42.5	100.0
종교	불교	(219)	16.0	32.0	8.2	43.8	100.0
	기독교	(187)	16.6	26.2	7.0	50.3	100.0
	천주교	(51)	19.6	41.2	3.9	35.3	100.0
	기타	(8)	0.0	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708)	16.4	27.5	8.1	48.0	100.0
모름/무응답	(27)	25.9	37.0	11.1	25.9	100.0	

표 28.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OO님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다소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①+②	③+④	계	
		%	%	%	%	%	%		
■ 전 체 ■	(1200)	3.8	50.5	37.3	8.4	54.3	45.8	100.0	
성별	남자	(610)	4.9	48.5	37.9	8.7	53.4	46.6	100.0
	여자	(590)	2.5	52.5	36.8	8.1	55.1	44.9	100.0
연령별	19~29세	(206)	3.4	47.6	40.8	8.3	51.0	49.0	100.0
	30대	(200)	3.0	52.0	37.0	8.0	55.0	45.0	100.0
	40대	(239)	3.8	50.6	37.7	7.9	54.4	45.6	100.0
	50대	(260)	3.5	46.2	39.6	10.8	49.6	50.4	100.0
	60대 이상	(295)	4.7	55.3	32.9	7.1	60.0	4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8.5	52.4	30.5	8.5	61.0	39.0	100.0
	고졸	(505)	2.4	54.3	34.1	9.3	56.6	43.4	100.0
	대재 이상	(613)	4.2	47.1	40.9	7.7	51.4	48.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46.4	39.3	10.7	50.0	50.0	100.0
	자영업	(304)	3.3	52.3	34.2	10.2	55.6	44.4	100.0
	블루칼라	(313)	3.2	48.9	39.6	8.3	52.1	47.9	100.0
	화이트칼라	(301)	4.7	48.8	38.9	7.6	53.5	46.5	100.0
	전업주부	(170)	3.5	58.2	33.5	4.7	61.8	38.2	100.0
가구 소득수준	학생/군인/무직/기타	(84)	4.8	41.7	41.7	11.9	46.4	53.6	100.0
	200만원 미만	(57)	8.8	40.4	38.6	12.3	49.1	50.9	100.0
	200~299만원	(124)	5.6	51.6	30.6	12.1	57.3	42.7	100.0
	300~399만원	(219)	3.7	56.2	32.0	8.2	59.8	40.2	100.0
	400만원 이상	(800)	3.1	49.5	39.8	7.6	52.6	47.4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3.3	58.2	33.7	4.9	61.5	38.5	100.0
	충청권	(154)	3.2	40.3	42.9	13.6	43.5	56.5	100.0
	호남권	(142)	2.8	33.8	45.8	17.6	36.6	63.4	100.0
	영남권	(313)	4.2	56.2	35.1	4.5	60.4	39.6	100.0
	강원	(45)	8.9	28.9	35.6	26.7	37.8	62.2	100.0
	제주	(32)	6.3	25.0	56.3	12.5	31.3	68.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4.0	55.3	35.4	5.4	59.3	40.7	100.0
	중소도시	(531)	3.6	46.0	40.1	10.4	49.5	50.5	100.0
	읍/면	(146)	3.4	50.0	34.2	12.3	53.4	46.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3.1	41.0	46.1	9.9	44.0	56.0	100.0
	중도	(622)	2.3	50.0	39.7	8.0	52.3	47.7	100.0
	보수적	(285)	7.7	61.4	23.2	7.7	69.1	30.9	100.0
종교	불교	(219)	3.7	52.5	37.4	6.4	56.2	43.8	100.0
	기독교	(187)	5.3	43.3	40.6	10.7	48.7	51.3	100.0
	천주교	(51)	5.9	51.0	31.4	11.8	56.9	43.1	100.0
	기타	(8)	0.0	37.5	37.5	25.0	37.5	62.5	100.0
	종교 없음	(708)	3.4	51.7	37.0	7.9	55.1	44.9	100.0
모름/무응답	(27)	0.0	55.6	33.3	11.1	55.6	44.4	100.0	











표 31-7.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코로나 팬데믹 관련 백신지원, 식량지원, 수해복구지원을 해야 한다

문) OO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반반/ 보통이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①+②	④+⑤	계	
		사례수	%	%	%	%	%	%	%	
■ 전 체 ■		(1200)	5.1	30.8	39.3	19.4	5.3	35.9	24.8	100.0
성별	남자	(610)	5.7	29.8	39.3	19.7	5.4	35.6	25.1	100.0
	여자	(590)	4.4	31.9	39.3	19.2	5.3	36.3	24.4	100.0
연령별	19~29세	(206)	5.8	22.8	37.9	25.7	7.8	28.6	33.5	100.0
	30대	(200)	3.0	27.5	43.0	19.5	7.0	30.5	26.5	100.0
	40대	(239)	3.8	34.7	35.6	20.5	5.4	38.5	25.9	100.0
	50대	(260)	6.5	37.7	36.5	16.5	2.7	44.2	19.2	100.0
	60대 이상	(295)	5.8	29.5	43.4	16.6	4.7	35.3	21.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6.1	23.2	43.9	22.0	4.9	29.3	26.8	100.0
	고졸	(505)	5.0	31.7	38.8	18.2	6.3	36.6	24.6	100.0
	대재 이상	(613)	5.1	31.2	39.2	20.1	4.6	36.2	2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32.1	35.7	21.4	7.1	35.7	28.6	100.0
	자영업	(304)	6.9	34.5	34.9	19.7	3.9	41.4	23.7	100.0
	블루칼라	(313)	5.4	31.0	44.1	13.7	5.8	36.4	19.5	100.0
	화이트칼라	(301)	4.7	28.6	38.9	22.3	5.6	33.2	27.9	100.0
	전업주부	(170)	1.8	32.4	39.4	20.6	5.9	34.1	26.5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8.8	22.8	43.9	10.5	14.0	31.6	24.6	100.0
	200~299만원	(124)	4.0	30.6	41.1	16.1	8.1	34.7	24.2	100.0
	300~399만원	(219)	4.6	32.4	37.4	22.4	3.2	37.0	25.6	100.0
	400만원 이상	(800)	5.1	31.0	39.3	19.8	4.9	36.1	24.6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3.7	30.4	40.3	22.0	3.7	34.0	25.7
충청권		(154)	6.5	26.6	41.6	16.9	8.4	33.1	25.3	100.0
호남권		(142)	7.7	43.7	33.1	12.7	2.8	51.4	15.5	100.0
영남권		(313)	4.5	27.2	43.8	19.8	4.8	31.6	24.6	100.0
강원		(45)	6.7	33.3	22.2	22.2	15.6	40.0	37.8	100.0
지역 크기	제주	(32)	12.5	34.4	21.9	12.5	18.8	46.9	31.3	100.0
	대도시	(523)	3.6	29.4	43.2	19.1	4.6	33.1	23.7	100.0
	중소도시	(531)	7.0	32.4	36.9	18.5	5.3	39.4	23.7	100.0
	읍/면	(146)	3.4	30.1	34.2	24.0	8.2	33.6	32.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7.2	30.4	40.6	16.0	5.8	37.5	21.8	100.0
	중도	(622)	4.7	32.3	39.5	18.3	5.1	37.0	23.5	100.0
	보수적	(285)	3.9	28.1	37.5	25.3	5.3	31.9	30.5	100.0
종교	불교	(219)	3.2	31.1	40.2	18.7	6.8	34.2	25.6	100.0
	기독교	(187)	7.5	32.1	42.2	13.9	4.3	39.6	18.2	100.0
	천주교	(51)	7.8	35.3	35.3	17.6	3.9	43.1	21.6	100.0
	기타	(8)	0.0	62.5	12.5	12.5	12.5	62.5	25.0	100.0
	종교 없음	(708)	4.9	30.5	38.6	21.0	4.9	35.5	26.0	100.0
모름/무응답	(27)	3.7	11.1	48.1	25.9	11.1	14.8	37.0	100.0	

표 32. 한국 핵무장 관련 가장 적절한 방식

문) OO님은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전술 핵무기 한국 배치	자체 핵무기 개발	핵무기 보유 반대	잘 모름	계	
		사례수	%	%	%	%	
■ 전 체 ■		(1200)	23.6	49.3	17.8	9.3	100.0
성별	남자	(610)	23.8	51.3	18.7	6.2	100.0
	여자	(590)	23.4	47.1	16.9	12.5	100.0
연령별	19~29세	(206)	22.8	49.5	18.0	9.7	100.0
	30대	(200)	24.0	49.0	16.5	10.5	100.0
	40대	(239)	21.3	50.2	18.8	9.6	100.0
	50대	(260)	23.1	50.8	19.6	6.5	100.0
	60대 이상	(295)	26.1	47.1	16.3	10.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7.1	50.0	17.1	15.9	100.0
	고졸	(505)	27.1	45.0	19.2	8.7	100.0
	대재 이상	(613)	21.5	52.7	16.8	9.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5.7	42.9	10.7	10.7	100.0
	자영업	(304)	29.3	46.1	14.5	10.2	100.0
	블루칼라	(313)	19.8	52.4	21.1	6.7	100.0
	화이트칼라	(301)	21.6	49.8	19.6	9.0	100.0
	전업주부	(170)	21.2	49.4	16.5	12.9	100.0
가구 소득수준	학생/군인/무직/기타	(84)	25.0	48.8	16.7	9.5	100.0
	200만원 미만	(57)	19.3	47.4	14.0	19.3	100.0
	200~299만원	(124)	16.1	52.4	18.5	12.9	100.0
	300~399만원	(219)	27.4	44.3	18.3	10.0	100.0
	400만원 이상	(800)	24.0	50.3	17.9	7.9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29.6	46.7	16.7	7.0	100.0
	충청권	(154)	22.1	45.5	10.4	22.1	100.0
	호남권	(142)	18.3	44.4	32.4	4.9	100.0
	영남권	(313)	20.1	61.0	13.1	5.8	100.0
	강원	(45)	6.7	37.8	35.6	20.0	100.0
지역 크기	제주	(32)	15.6	31.3	28.1	25.0	100.0
	대도시	(523)	27.9	53.2	12.4	6.5	100.0
	중소도시	(531)	20.7	46.0	23.0	10.4	100.0
	읍/면	(146)	18.5	47.3	18.5	15.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26.6	50.9	16.4	6.1	100.0
	중도	(622)	20.7	47.6	20.7	10.9	100.0
	보수적	(285)	26.7	51.2	13.0	9.1	100.0
종교	불교	(219)	27.9	48.9	15.5	7.8	100.0
	기독교	(187)	28.9	38.0	21.4	11.8	100.0
	천주교	(51)	25.5	47.1	17.6	9.8	100.0
	기타	(8)	12.5	37.5	50.0	0.0	100.0
	종교 없음	(708)	20.9	52.7	17.7	8.8	100.0
모름/무응답	(27)	22.2	48.1	7.4	22.2	100.0	





표 33-5.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미국인

문) OO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Table with columns for demographic categories (Gender, Age, Education, Occupation, Household Income, Region, Area Size, Political Attitude, Religion) and response percentages for various levels of familiarity (매우 친근, 다소 친근, etc.).

표 33-6.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동남아시아인 및 남아시아인

문) OO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Table with columns for demographic categories (Gender, Age, Education, Occupation, Household Income, Region, Area Size, Political Attitude, Religion) and response percentages for various levels of familiarity (매우 친근, 다소 친근, etc.).











표 35.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OO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계
		%	%	%	
■ 전 체 ■	(1200)	32.5	53.3	14.2	100.0
성별	남자	(610) 34.6	52.6	12.8	100.0
	여자	(590) 30.3	54.1	15.6	100.0
연령별	19~29세	(206) 24.3	59.2	16.5	100.0
	30대	(200) 31.5	53.0	15.5	100.0
	40대	(239) 30.5	57.3	12.1	100.0
	50대	(260) 35.4	50.4	14.2	100.0
	60대 이상	(295) 38.0	48.8	13.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34.1	51.2	14.6	100.0
	고졸	(505) 34.5	49.3	16.2	100.0
	대재 이상	(613) 30.7	56.9	12.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7.1	32.1	10.7	100.0
	자영업	(304) 37.5	51.0	11.5	100.0
	블루칼라	(313) 31.0	50.8	18.2	100.0
	화이트칼라	(301) 28.2	59.8	12.0	100.0
	전업주부	(170) 28.2	54.7	17.1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40.4	49.1	10.5	100.0
	200~299만원	(124) 36.3	50.8	12.9	100.0
	300~399만원	(219) 30.1	52.5	17.4	100.0
	400만원 이상	(800) 32.0	54.3	13.8	100.0
	수도권	(514) 29.6	60.9	9.5	100.0
지역별	충청권	(154) 28.6	48.7	22.7	100.0
	호남권	(142) 40.1	42.3	17.6	100.0
	영남권	(313) 32.3	52.1	15.7	100.0
	강원	(45) 57.8	33.3	8.9	100.0
	제주	(32) 31.3	43.8	25.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29.1	56.6	14.3	100.0
	중소도시	(531) 34.1	51.4	14.5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39.0	48.6	12.3	100.0
	진보적	(293) 37.5	48.1	14.3	100.0
	중도	(622) 30.5	55.3	14.1	100.0
	보수적	(285) 31.6	54.4	14.0	100.0
	불교	(219) 33.8	51.6	14.6	100.0
종교	기독교	(187) 37.4	43.3	19.3	100.0
	천주교	(51) 23.5	66.7	9.8	100.0
	기타	(8) 50.0	50.0	0.0	100.0
	종교 없음	(708) 31.5	55.4	13.1	100.0
	모름/무응답	(27) 25.9	59.3	14.8	100.0

표 36-1. 한국 거주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㉔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OO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	② 다소 동의	③ 별로 동의 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①+②	③+④	계
		%	%	%	%	%	%	
■ 전 체 ■	(1200)	3.5	52.0	39.6	4.9	55.5	44.5	100.0
성별	남자	(610) 4.4	54.4	36.2	4.9	58.9	41.1	100.0
	여자	(590) 2.5	49.5	43.1	4.9	52.0	48.0	100.0
연령별	19~29세	(206) 2.9	45.6	46.6	4.9	48.5	51.5	100.0
	30대	(200) 2.5	52.0	40.0	5.5	54.5	45.5	100.0
	40대	(239) 3.8	50.6	37.7	7.9	54.4	45.6	100.0
	50대	(260) 3.5	58.1	36.2	2.3	61.5	38.5	100.0
	60대 이상	(295) 4.4	52.2	39.0	4.4	56.6	43.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4.9	46.3	43.9	4.9	51.2	48.8	100.0
	고졸	(505) 3.2	52.1	38.8	5.9	55.2	44.8	100.0
	대재 이상	(613) 3.6	52.7	39.6	4.1	56.3	43.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64.3	21.4	7.1	71.4	28.6	100.0
	자영업	(304) 3.9	52.0	38.2	5.9	55.9	44.1	100.0
	블루칼라	(313) 1.6	55.6	38.3	4.5	57.2	42.8	100.0
	화이트칼라	(301) 3.3	52.2	39.9	4.7	55.5	44.5	100.0
	전업주부	(170) 2.4	50.0	42.4	5.3	52.4	47.6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7.0	47.4	36.8	8.8	54.4	45.6	100.0
	200~299만원	(124) 4.0	47.6	45.2	3.2	51.6	48.4	100.0
	300~399만원	(219) 3.2	52.5	39.7	4.6	55.7	44.3	100.0
	400만원 이상	(800) 3.3	52.9	38.9	5.0	56.1	43.9	100.0
	수도권	(514) 2.5	53.3	41.2	2.9	55.8	44.2	100.0
지역별	충청권	(154) 1.3	52.6	35.7	10.4	53.9	46.1	100.0
	호남권	(142) 2.8	52.8	38.0	6.3	55.6	44.4	100.0
	영남권	(313) 5.4	50.8	40.3	3.5	56.2	43.8	100.0
	강원	(45) 4.4	42.2	51.1	2.2	46.7	53.3	100.0
	제주	(32) 12.5	50.0	15.6	21.9	62.5	37.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2.9	51.8	41.9	3.4	54.7	45.3	100.0
	중소도시	(531) 3.2	52.5	38.4	5.8	55.7	44.3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6.8	50.7	35.6	6.8	57.5	42.5	100.0
	진보적	(293) 2.7	57.0	33.4	6.8	59.7	40.3	100.0
	중도	(622) 3.2	50.6	41.3	4.8	53.9	46.1	100.0
	보수적	(285) 4.9	49.8	42.1	3.2	54.7	45.3	100.0
	불교	(219) 5.9	53.4	37.0	3.7	59.4	40.6	100.0
종교	기독교	(187) 2.7	61.0	31.0	5.3	63.6	36.4	100.0
	천주교	(51) 2.0	47.1	49.0	2.0	49.0	51.0	100.0
	기타	(8) 12.5	62.5	25.0	0.0	75.0	25.0	100.0
	종교 없음	(708) 3.1	49.4	42.1	5.4	52.5	47.5	100.0
	모름/무응답	(27) 0.0	51.9	40.7	7.4	51.9	48.1	100.0









표 39.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OO님은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미국 %	일본 %	북한 %	중국 %	러시아 %	계 %
■ 전 체 ■		(1200)	4.5	8.3	45.8	36.8	4.6	100.0
성별	남자	(610)	4.1	8.0	45.9	37.5	4.4	100.0
	여자	(590)	4.9	8.5	45.8	36.1	4.7	100.0
연령별	19~29세	(206)	5.3	4.9	50.5	35.0	4.4	100.0
	30대	(200)	2.5	8.5	43.0	40.0	6.0	100.0
	40대	(239)	3.3	9.6	46.4	36.0	4.6	100.0
	50대	(260)	5.8	7.3	42.7	40.4	3.8	100.0
	60대 이상	(295)	5.1	10.2	46.8	33.6	4.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6.1	12.2	53.7	25.6	2.4	100.0
	고졸	(505)	5.0	8.1	44.2	38.6	4.2	100.0
	대재 이상	(613)	3.9	7.8	46.2	36.9	5.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14.3	25.0	39.3	10.7	100.0
	자영업	(304)	4.9	5.9	50.0	36.5	2.6	100.0
	블루칼라	(313)	4.2	9.3	40.9	39.3	6.4	100.0
	화이트칼라	(301)	4.7	9.0	44.9	36.5	5.0	100.0
	전업주부	(170)	4.1	8.8	48.8	34.7	3.5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2.4	7.1	53.6	33.3	3.6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5.3	10.5	50.9	26.3	7.0	100.0
	200~299만원	(124)	4.8	5.6	48.4	33.9	7.3	100.0
	300~399만원	(219)	5.5	11.0	37.4	41.1	5.0	100.0
	400만원 이상	(800)	4.1	7.8	47.4	36.9	3.9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4.1	4.5	54.1	34.6	2.7	100.0
	충청권	(154)	8.4	21.4	37.7	26.0	6.5	100.0
	호남권	(142)	5.6	16.2	24.6	48.6	4.9	100.0
	영남권	(313)	1.6	3.2	47.0	42.8	5.4	100.0
	강원	(45)	2.2	15.6	42.2	26.7	13.3	100.0
	제주	(32)	18.8	9.4	40.6	28.1	3.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4.8	6.9	46.8	38.4	3.1	100.0
	중소도시	(531)	2.8	10.2	47.6	33.9	5.5	100.0
	읍/면	(146)	9.6	6.2	35.6	41.8	6.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5.1	11.9	39.6	38.6	4.8	100.0
	중도	(622)	5.5	7.7	46.8	34.7	5.3	100.0
	보수적	(285)	1.8	5.6	50.2	39.6	2.8	100.0
종교	불교	(219)	4.1	7.3	47.9	35.6	5.0	100.0
	기독교	(187)	8.0	9.1	44.4	33.2	5.3	100.0
	천주교	(51)	2.0	13.7	41.2	33.3	9.8	100.0
	기타	(8)	12.5	12.5	12.5	62.5	0.0	100.0
	종교 없음	(708)	3.5	8.1	46.0	38.7	3.7	100.0
모름/무응답	(27)	11.1	3.7	51.9	22.2	11.1	100.0	

표 40. 북·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OO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팀과 미국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 팀 %	미국 팀 %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	기타 %	계 %
■ 전 체 ■		(1200)	38.7	20.7	19.3	21.3	0.1	100.0
성별	남자	(610)	39.3	21.0	18.7	21.0	0.0	100.0
	여자	(590)	38.0	20.3	20.0	21.5	0.2	100.0
연령별	19~29세	(206)	25.2	29.1	20.9	24.8	0.0	100.0
	30대	(200)	31.5	18.5	19.5	30.5	0.0	100.0
	40대	(239)	42.3	19.7	18.8	19.2	0.0	100.0
	50대	(260)	42.3	16.9	21.5	18.8	0.4	100.0
	60대 이상	(295)	46.8	20.3	16.6	16.3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52.4	15.9	14.6	17.1	0.0
교육 수준별	고졸	(505)	41.2	20.4	19.8	18.6	0.0	100.0
	대재 이상	(613)	34.7	21.5	19.6	24.0	0.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4	7.1	14.3	7.1	0.0
직업별	자영업	(304)	42.8	20.1	18.8	18.1	0.3	100.0
	블루칼라	(313)	36.4	19.2	21.7	22.7	0.0	100.0
	화이트칼라	(301)	35.9	21.6	16.9	25.6	0.0	100.0
	전업주부	(170)	35.9	22.4	21.2	20.6	0.0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36.9	26.2	19.0	17.9	0.0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47.4	17.5	15.8	19.3	0.0
가구 소득수준	200~299만원	(124)	41.1	27.4	16.9	14.5	0.0	100.0
	300~399만원	(219)	40.2	16.9	22.8	20.1	0.0	100.0
	400만원 이상	(800)	37.3	20.9	19.0	22.8	0.1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38.9	19.5	25.1	16.5	0.0
충청권		(154)	26.0	20.8	23.4	29.2	0.6	100.0
호남권		(142)	54.2	12.0	16.2	17.6	0.0	100.0
영남권		(313)	34.8	27.2	10.5	27.5	0.0	100.0
강원		(45)	57.8	8.9	8.9	24.4	0.0	100.0
제주		(32)	37.5	31.3	21.9	9.4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35.2	23.3	18.0	23.3	0.2	100.0
	중소도시	(531)	39.0	19.4	21.7	20.0	0.0	100.0
	읍/면	(146)	50.0	15.8	15.8	18.5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39.9	16.0	23.2	20.8	0.0	100.0
	중도	(622)	37.9	21.9	19.0	21.1	0.2	100.0
	보수적	(285)	38.9	22.8	16.1	22.1	0.0	100.0
종교	불교	(219)	45.7	20.1	16.9	17.4	0.0	100.0
	기독교	(187)	50.3	15.5	19.3	15.0	0.0	100.0
	천주교	(51)	41.2	23.5	17.6	17.6	0.0	100.0
	기타	(8)	37.5	12.5	37.5	12.5	0.0	100.0
	종교 없음	(708)	34.3	21.0	20.1	24.4	0.1	100.0
모름/무응답	(27)	11.1	48.1	18.5	22.2	0.0	100.0	

표 41-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㉞ 미국

문) OO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 체 ■ (1200)							
성별	남자	(610)	82.3	12.8	4.8	0.2	100.0
	여자	(590)	82.0	11.4	6.4	0.2	100.0
연령별	19~29세	(206)	87.9	8.3	3.9	0.0	100.0
	30대	(200)	79.0	17.0	4.0	0.0	100.0
	40대	(239)	82.0	10.9	6.7	0.4	100.0
	50대	(260)	81.5	11.9	6.2	0.4	100.0
	60대 이상	(295)	81.0	12.5	6.4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84.1	8.5	7.3	0.0	100.0
	고졸	(505)	80.0	13.1	6.9	0.0	100.0
	대재 이상	(613)	83.7	11.7	4.2	0.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64.3	21.4	14.3	0.0	100.0
	자영업	(304)	80.9	12.5	6.6	0.0	100.0
	블루칼라	(313)	81.5	12.5	6.1	0.0	100.0
	화이트칼라	(301)	83.4	13.0	3.3	0.3	100.0
	전업주부	(170)	83.5	10.0	5.9	0.6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88.1	7.1	4.8	0.0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84.2	5.3	8.8	1.8	100.0
	200~299만원	(124)	83.9	11.3	4.8	0.0	100.0
	300~399만원	(219)	79.0	16.0	4.6	0.5	100.0
	400만원 이상	(800)	82.6	11.6	5.8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83.1	13.8	3.1	0.0	100.0
	충청권	(154)	80.5	13.0	6.5	0.0	100.0
	호남권	(142)	76.8	11.3	11.3	0.7	100.0
	영남권	(313)	84.3	11.2	4.5	0.0	100.0
	강원	(45)	84.4	2.2	11.1	2.2	100.0
	제주	(32)	75.0	6.3	18.8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78.4	15.9	5.7	0.0	100.0
	중소도시	(531)	86.4	7.9	5.5	0.2	100.0
	읍/면	(146)	80.1	13.7	5.5	0.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79.5	13.0	7.5	0.0	100.0
	중도	(622)	80.2	14.1	5.5	0.2	100.0
	보수적	(285)	89.1	6.7	3.9	0.4	100.0
종교	불교	(219)	80.8	13.2	5.5	0.5	100.0
	기독교	(187)	82.9	10.2	7.0	0.0	100.0
	천주교	(51)	72.5	15.7	11.8	0.0	100.0
	기타	(8)	87.5	0.0	12.5	0.0	100.0
	종교 없음	(708)	83.6	12.1	4.1	0.1	100.0
	모름/무응답	(27)	66.7	11.1	22.2	0.0	100.0

표 41-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㉟ 일본

문) OO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 체 ■ (1200)							
성별	남자	(610)	22.0	48.8	24.6	4.7	100.0
	여자	(590)	24.1	47.2	24.4	4.3	100.0
연령별	19~29세	(206)	19.8	50.3	24.7	5.1	100.0
	30대	(200)	22.8	54.9	18.4	3.9	100.0
	40대	(239)	21.0	52.5	23.5	3.0	100.0
	50대	(260)	23.4	45.6	27.2	3.8	100.0
	60대 이상	(295)	21.2	43.8	28.5	6.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21.7	50.0	24.4	8.5	100.0
	고졸	(505)	17.1	50.0	24.4	8.5	100.0
	대재 이상	(613)	21.2	48.5	26.3	4.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3.3	48.8	23.2	4.7	100.0
	자영업	(304)	10.7	46.4	35.7	7.1	100.0
	블루칼라	(313)	22.0	46.7	27.0	4.3	100.0
	화이트칼라	(301)	19.5	48.9	25.6	6.1	100.0
	전업주부	(170)	22.9	51.8	21.6	3.7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23.5	48.8	24.1	3.5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28.6	45.2	20.2	6.0	100.0
	200~299만원	(124)	28.1	47.4	14.0	10.5	100.0
	300~399만원	(219)	21.8	49.2	24.2	4.8	100.0
	400만원 이상	(800)	22.8	48.4	24.2	4.6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21.4	48.9	25.5	4.3	100.0
	충청권	(154)	22.8	51.8	23.7	1.8	100.0
	호남권	(142)	13.6	42.2	33.8	10.4	100.0
	영남권	(313)	20.4	40.1	28.2	11.3	100.0
	강원	(45)	25.6	54.0	18.2	2.2	100.0
	제주	(32)	4.4	44.4	37.8	13.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46.9	25.0	21.9	6.3	100.0
	중소도시	(531)	19.5	53.7	22.4	4.4	100.0
	읍/면	(146)	23.7	45.4	26.0	4.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24.7	43.2	27.4	4.8	100.0
	중도	(622)	21.2	46.8	25.6	6.5	100.0
	보수적	(285)	19.6	50.2	26.5	3.7	100.0
종교	불교	(219)	28.1	47.7	19.3	4.9	100.0
	기독교	(187)	19.6	46.1	29.7	4.6	100.0
	천주교	(51)	23.5	49.2	21.9	5.3	100.0
	기타	(8)	15.7	54.9	19.6	9.8	100.0
	종교 없음	(708)	12.5	62.5	25.0	0.0	100.0
	모름/무응답	(27)	23.2	49.4	23.4	4.0	100.0



표 41-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중국

문) OO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 체 ■ (1200)							
성별	남자	(610)	11.8	28.5	51.6	8.8	100.0
	여자	(590)	10.5	30.3	49.2	8.7	100.0
연령별	19~29세	(206)	11.2	25.2	57.3	6.3	100.0
	30대	(200)	7.5	28.0	56.5	8.0	100.0
	40대	(239)	9.6	34.7	46.0	9.6	100.0
	50대	(260)	11.2	29.6	48.8	10.4	100.0
	60대 이상	(295)	14.9	25.1	51.2	8.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6.1	34.1	50.0	9.8	100.0
	고졸	(505)	11.1	30.5	51.1	7.3	100.0
	대재 이상	(613)	11.9	26.1	52.2	9.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7.9	17.9	60.7	3.6	100.0
	자영업	(304)	12.2	31.3	47.7	8.9	100.0
	블루칼라	(313)	7.7	29.7	52.1	10.5	100.0
	화이트칼라	(301)	11.6	26.6	53.5	8.3	100.0
	전업주부	(170)	12.9	29.4	51.8	5.9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13.1	22.6	53.6	10.7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2.3	24.6	47.4	15.8	100.0
	200~299만원	(124)	11.3	29.8	52.4	6.5	100.0
	300~399만원	(219)	9.1	28.8	50.7	11.4	100.0
	400만원 이상	(800)	11.6	28.5	52.0	7.9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9.1	31.1	55.3	4.5	100.0
	충청권	(154)	10.4	27.3	51.9	10.4	100.0
	호남권	(142)	12.0	33.8	46.5	7.7	100.0
	영남권	(313)	12.1	24.0	51.4	12.5	100.0
	강원	(45)	8.9	24.4	48.9	17.8	100.0
	제주	(32)	37.5	18.8	18.8	25.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9.0	29.1	52.8	9.2	100.0
	중소도시	(531)	12.8	28.1	50.8	8.3	100.0
	읍/면	(146)	13.0	28.1	50.0	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11.9	32.1	48.1	7.8	100.0
	중도	(622)	9.5	28.8	53.1	8.7	100.0
	보수적	(285)	14.0	24.2	51.9	9.8	100.0
종교	불교	(219)	13.2	29.7	50.2	6.8	100.0
	기독교	(187)	13.4	32.6	46.0	8.0	100.0
	천주교	(51)	11.8	23.5	52.9	11.8	100.0
	기타	(8)	25.0	0.0	62.5	12.5	100.0
	종교 없음	(708)	9.6	27.8	53.2	9.3	100.0
	모름/무응답	(27)	14.8	25.9	51.9	7.4	100.0

표 41-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㉕ 러시아

문) OO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 체 ■ (1200)							
성별	남자	(610)	10.8	23.8	55.6	9.9	100.0
	여자	(590)	12.0	24.9	53.4	9.7	100.0
연령별	19~29세	(206)	9.5	22.5	57.8	10.2	100.0
	30대	(200)	10.2	24.3	56.3	9.2	100.0
	40대	(239)	11.0	21.5	55.5	12.0	100.0
	50대	(260)	10.5	23.4	54.8	11.3	100.0
	60대 이상	(295)	10.4	27.3	52.3	1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1.5	22.0	58.6	7.8	100.0
	고졸	(505)	7.3	24.4	62.2	6.1	100.0
	대재 이상	(613)	9.3	25.9	56.2	8.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2.4	21.9	54.2	11.6	100.0
	자영업	(304)	7.1	14.3	71.4	7.1	100.0
	블루칼라	(313)	10.9	25.0	54.6	9.5	100.0
	화이트칼라	(301)	7.3	25.2	55.0	12.5	100.0
	전업주부	(170)	13.6	22.3	54.8	9.3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10.0	25.9	54.7	9.4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15.5	17.9	60.7	6.0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7.0	19.3	59.6	14.0	100.0
	200~299만원	(124)	12.1	26.6	49.2	12.1	100.0
	300~399만원	(219)	8.7	26.9	51.1	13.2	100.0
	400만원 이상	(800)	11.4	22.8	57.5	8.4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7.2	26.1	60.7	6.0	100.0
	충청권	(154)	14.9	24.7	50.0	10.4	100.0
	호남권	(142)	8.5	21.8	58.5	11.3	100.0
	영남권	(313)	14.1	21.4	51.8	12.8	100.0
	강원	(45)	8.9	20.0	53.3	17.8	100.0
	제주	(32)	28.1	18.8	28.1	25.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8.8	23.3	58.9	9.0	100.0
	중소도시	(531)	10.9	24.3	53.1	11.7	100.0
	읍/면	(146)	17.1	23.3	52.7	6.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9.9	24.2	57.0	8.9	100.0
	중도	(622)	10.1	24.4	55.5	10.0	100.0
	보수적	(285)	13.0	21.8	54.4	10.9	100.0
종교	불교	(219)	11.4	25.6	54.8	8.2	100.0
	기독교	(187)	9.6	20.9	61.0	8.6	100.0
	천주교	(51)	9.8	23.5	49.0	17.6	100.0
	기타	(8)	12.5	25.0	62.5	0.0	100.0
	종교 없음	(708)	10.7	24.3	54.7	10.3	100.0
	모름/무응답	(27)	14.8	14.8	59.3	11.1	100.0

표 42-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㉔ 미국

문) OO님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	%	%	%	%	
■ 전 체 ■							
성별	남자	(610)	73.1	2.6	21.5	2.8	100.0
	여자	(590)	69.5	2.9	25.1	2.5	100.0
연령별	19~29세	(206)	66.5	5.3	23.3	4.9	100.0
	30대	(200)	70.0	3.0	24.0	3.0	100.0
	40대	(239)	73.6	0.8	23.0	2.5	100.0
	50대	(260)	70.4	1.5	26.2	1.9	100.0
	60대 이상	(295)	74.6	3.4	20.3	1.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74.4	4.9	19.5	1.2	100.0
	고졸	(505)	70.9	3.2	24.2	1.8	100.0
	대재 이상	(613)	71.3	2.1	23.0	3.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0.0	14.3	32.1	3.6	100.0
	자영업	(304)	74.7	3.0	19.4	3.0	100.0
	블루칼라	(313)	69.6	2.9	25.2	2.2	100.0
	화이트칼라	(301)	69.8	0.7	26.6	3.0	100.0
	전업주부	(170)	71.2	3.5	22.9	2.4	100.0
가구 소득수준	학생/군인/무직/기타	(84)	78.6	3.6	15.5	2.4	100.0
	200만원 미만	(57)	73.7	3.5	22.8	0.0	100.0
	200~299만원	(124)	71.8	4.0	22.6	1.6	100.0
	300~399만원	(219)	71.7	4.6	18.3	5.5	100.0
지역별	400만원 이상	(800)	71.0	2.0	24.8	2.3	100.0
	수도권	(514)	77.2	3.5	17.7	1.6	100.0
	충청권	(154)	66.9	3.9	23.4	5.8	100.0
	호남권	(142)	70.4	2.1	21.8	5.6	100.0
	영남권	(313)	65.2	1.6	31.3	1.9	100.0
	강원	(45)	68.9	0.0	28.9	2.2	100.0
지역 크기	제주	(32)	65.6	3.1	31.3	0.0	100.0
	대도시	(523)	71.7	3.4	22.4	2.5	100.0
	중소도시	(531)	72.9	1.7	22.4	3.0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64.4	4.1	29.5	2.1	100.0
	진보적	(293)	70.0	3.4	24.2	2.4	100.0
	중도	(622)	68.8	3.4	24.4	3.4	100.0
종교	보수적	(285)	78.2	0.7	19.6	1.4	100.0
	불교	(219)	70.3	1.8	27.4	0.5	100.0
	기독교	(187)	72.7	2.1	21.9	3.2	100.0
	천주교	(51)	78.4	0.0	21.6	0.0	100.0
	기타	(8)	50.0	0.0	50.0	0.0	100.0
	종교 없음	(708)	71.3	3.2	22.0	3.4	100.0
모름/무응답	(27)	63.0	7.4	25.9	3.7	100.0	

표 42-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㉕ 일본

문) OO님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	%	%	%	%	
■ 전 체 ■							
성별	남자	(610)	18.2	5.1	67.2	9.5	100.0
	여자	(590)	16.1	4.9	67.3	11.7	100.0
연령별	19~29세	(206)	17.5	6.3	63.6	12.6	100.0
	30대	(200)	14.0	6.0	69.5	10.5	100.0
	40대	(239)	16.3	3.8	69.0	10.9	100.0
	50대	(260)	14.6	5.8	69.6	10.0	100.0
	60대 이상	(295)	22.0	3.7	64.7	9.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8.3	2.4	61.0	18.3	100.0
	고졸	(505)	17.0	5.5	68.1	9.3	100.0
	대재 이상	(613)	17.1	4.9	67.4	10.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14.3	67.9	7.1	100.0
	자영업	(304)	21.4	5.3	65.1	8.2	100.0
	블루칼라	(313)	15.7	3.8	68.4	12.1	100.0
	화이트칼라	(301)	14.3	6.0	69.4	10.3	100.0
	전업주부	(170)	14.7	4.7	68.2	12.4	100.0
가구 소득수준	학생/군인/무직/기타	(84)	25.0	2.4	60.7	11.9	100.0
	200만원 미만	(57)	19.3	0.0	68.4	12.3	100.0
	200~299만원	(124)	24.2	4.8	54.8	16.1	100.0
	300~399만원	(219)	20.1	4.1	65.8	10.0	100.0
지역별	400만원 이상	(800)	15.1	5.6	69.5	9.8	100.0
	수도권	(514)	18.9	5.1	68.1	8.0	100.0
	충청권	(154)	13.0	7.1	63.6	16.2	100.0
	호남권	(142)	14.8	4.2	71.8	9.2	100.0
	영남권	(313)	15.0	5.1	67.1	12.8	100.0
	강원	(45)	24.4	2.2	60.0	13.3	100.0
지역 크기	제주	(32)	31.3	0.0	62.5	6.3	100.0
	대도시	(523)	15.7	4.2	67.9	12.2	100.0
	중소도시	(531)	18.6	4.7	67.8	8.9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17.1	8.9	63.0	11.0	100.0
	진보적	(293)	21.5	3.8	64.8	9.9	100.0
	중도	(622)	12.5	5.8	71.2	10.5	100.0
종교	보수적	(285)	22.8	4.6	61.1	11.6	100.0
	불교	(219)	15.5	6.8	68.9	8.7	100.0
	기독교	(187)	21.9	4.8	62.0	11.2	100.0
	천주교	(51)	23.5	2.0	66.7	7.8	100.0
	기타	(8)	12.5	12.5	75.0	0.0	100.0
	종교 없음	(708)	16.5	4.5	67.8	11.2	100.0
모름/무응답	(27)	3.7	7.4	74.1	14.8	100.0	

표 42-3.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㉔ 중국

문) OO님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	%	%	%	%	
<b>■ 전 체 ■</b>							
	(1200)	1.3	55.8	37.3	5.8	100.0	
성별	남자	(610)	1.0	56.6	36.6	5.9	100.0
	여자	(590)	1.5	54.9	38.0	5.6	100.0
연령별	19~29세	(206)	1.5	54.4	35.0	9.2	100.0
	30대	(200)	1.5	55.0	36.0	7.5	100.0
	40대	(239)	0.4	56.5	37.2	5.9	100.0
	50대	(260)	1.9	57.3	36.9	3.8	100.0
	60대 이상	(295)	1.0	55.3	40.0	3.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2.4	48.8	42.7	6.1	100.0
	고졸	(505)	1.4	56.8	36.2	5.5	100.0
	대재 이상	(613)	1.0	55.8	37.4	5.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0.0	39.3	53.6	7.1	100.0
	자영업	(304)	0.3	57.6	37.5	4.6	100.0
	블루칼라	(313)	1.3	61.0	31.9	5.8	100.0
	화이트칼라	(301)	1.0	51.2	41.5	6.3	100.0
	전업주부	(170)	2.4	52.4	40.6	4.7	100.0
가구 소득수준	학생/군인/무직/기타	(84)	3.6	58.3	28.6	9.5	100.0
	200만원 미만	(57)	5.3	54.4	31.6	8.8	100.0
	200~299만원	(124)	0.8	49.2	41.9	8.1	100.0
	300~399만원	(219)	3.2	55.3	36.1	5.5	100.0
지역별	400만원 이상	(800)	0.5	57.0	37.3	5.3	100.0
	수도권	(514)	0.2	59.1	36.2	4.5	100.0
	충청권	(154)	1.9	50.0	39.0	9.1	100.0
	호남권	(142)	3.5	56.3	36.6	3.5	100.0
	영남권	(313)	1.0	57.5	35.8	5.8	100.0
지역 크기	강원	(45)	4.4	33.3	46.7	15.6	100.0
	제주	(32)	3.1	40.6	50.0	6.3	100.0
	대도시	(523)	1.1	55.3	37.5	6.1	100.0
	중소도시	(531)	1.3	56.5	36.5	5.6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1.4	54.8	39.0	4.8	100.0
	진보적	(293)	2.0	55.6	36.9	5.5	100.0
	중도	(622)	1.1	55.3	37.6	5.9	100.0
종교	보수적	(285)	0.7	56.8	36.8	5.6	100.0
	불교	(219)	2.3	50.2	43.4	4.1	100.0
	기독교	(187)	1.6	50.3	39.0	9.1	100.0
	천주교	(51)	0.0	68.6	29.4	2.0	100.0
	기타	(8)	0.0	50.0	50.0	0.0	100.0
	종교 없음	(708)	0.7	58.5	35.2	5.6	100.0
	(27)	7.4	44.4	40.7	7.4	100.0	

표 42-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㉕ 러시아

문) OO님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	%	%	%	%	
<b>■ 전 체 ■</b>							
	(1200)	1.9	32.8	54.5	10.8	100.0	
성별	남자	(610)	2.1	31.5	55.2	11.1	100.0
	여자	(590)	1.7	34.2	53.7	10.3	100.0
연령별	19~29세	(206)	3.4	31.6	51.5	13.6	100.0
	30대	(200)	1.5	27.0	59.0	12.5	100.0
	40대	(239)	1.3	34.3	56.1	8.4	100.0
	50대	(260)	2.3	36.9	51.5	9.2	100.0
	60대 이상	(295)	1.4	32.9	54.9	10.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2.4	26.8	58.5	12.2	100.0
	고졸	(505)	1.6	34.3	53.5	10.7	100.0
	대재 이상	(613)	2.1	32.5	54.8	10.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0.0	35.7	57.1	7.1	100.0
	자영업	(304)	1.6	33.2	56.9	8.2	100.0
	블루칼라	(313)	3.2	31.6	53.0	12.1	100.0
	화이트칼라	(301)	0.7	30.2	58.1	11.0	100.0
	전업주부	(170)	1.2	35.3	51.8	11.8	100.0
가구 소득수준	학생/군인/무직/기타	(84)	4.8	39.3	42.9	13.1	100.0
	200만원 미만	(57)	5.3	33.3	50.9	10.5	100.0
	200~299만원	(124)	2.4	33.9	50.8	12.9	100.0
	300~399만원	(219)	1.8	35.2	52.5	10.5	100.0
지역별	400만원 이상	(800)	1.6	32.0	55.9	10.5	100.0
	수도권	(514)	1.4	32.5	57.4	8.8	100.0
	충청권	(154)	3.2	35.1	48.7	13.0	100.0
	호남권	(142)	3.5	32.4	50.0	14.1	100.0
	영남권	(313)	0.6	31.9	55.9	11.5	100.0
지역 크기	강원	(45)	4.4	31.1	48.9	15.6	100.0
	제주	(32)	6.3	40.6	50.0	3.1	100.0
	대도시	(523)	1.3	30.8	56.8	11.1	100.0
	중소도시	(531)	2.1	34.3	52.4	11.3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3.4	34.9	54.1	7.5	100.0
	진보적	(293)	3.8	32.8	52.9	10.6	100.0
	중도	(622)	1.3	30.4	58.5	9.8	100.0
종교	보수적	(285)	1.4	38.2	47.4	13.0	100.0
	불교	(219)	2.7	30.6	56.2	10.5	100.0
	기독교	(187)	2.1	34.2	49.2	14.4	100.0
	천주교	(51)	0.0	52.9	41.2	5.9	100.0
	기타	(8)	0.0	37.5	62.5	0.0	100.0
	종교 없음	(708)	1.4	32.2	56.2	10.2	100.0
	(27)	11.1	18.5	55.6	14.8	100.0	

















표 49. 중국·북한 협력에 대한 우려

문) OO님께서서는 최근 다방면에서 중국과 북한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좋게 보십니까, 혹은 좋지 않게 보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매우 우려스럽다	우려스러운 편이다	바람직한 편이다	매우 바람직하다			
		%	%	%	%	%	%	%
■ 전 체 ■	(1200)	31.1	59.5	8.9	0.5	90.6	9.4	100.0
성별	남자	(610)	32.5	57.5	9.7	0.3	90.0	10.0
	여자	(590)	29.7	61.5	8.1	0.7	91.2	8.8
연령별	19~29세	(206)	28.2	61.7	9.2	1.0	89.8	10.2
	30대	(200)	36.0	55.5	7.0	1.5	91.5	8.5
	40대	(239)	32.2	57.3	10.5	0.0	89.5	10.5
	50대	(260)	27.3	63.8	8.8	0.0	91.2	8.8
	60대 이상	(295)	32.2	58.6	8.8	0.3	90.8	9.2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30.5	58.5	9.8	1.2	89.0	11.0
	고졸	(505)	30.7	60.8	8.3	0.2	91.5	8.5
	대재 이상	(613)	31.5	58.6	9.3	0.7	9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9.3	50.0	7.1	3.6	89.3	10.7
	자영업	(304)	32.2	57.9	9.9	0.0	90.1	9.9
	블루칼라	(313)	28.4	62.9	8.3	0.3	91.4	8.6
	화이트칼라	(301)	32.2	58.1	9.3	0.3	90.4	9.6
	전업주부	(170)	28.8	62.4	8.2	0.6	91.2	8.8
가구 소득수준	학생/군인/무직/기타	(84)	34.5	54.8	8.3	2.4	89.3	10.7
	200만원 미만	(57)	43.9	45.6	8.8	1.8	89.5	10.5
	200~299만원	(124)	37.1	55.6	6.5	0.8	92.7	7.3
	300~399만원	(219)	31.5	59.4	8.7	0.5	90.9	9.1
	400만원 이상	(800)	29.1	61.1	9.4	0.4	90.3	9.8
지역별	수도권	(514)	29.0	64.2	6.8	0.0	93.2	6.8
	충청권	(154)	29.2	59.7	9.7	1.3	89.0	11.0
	호남권	(142)	23.2	56.3	19.0	1.4	79.6	20.4
	영남권	(313)	37.1	54.6	8.0	0.3	91.7	8.3
	강원	(45)	48.9	51.1	0.0	0.0	100.0	0.0
	제주	(32)	25.0	56.3	15.6	3.1	81.3	18.8
지역 크기	대도시	(523)	30.8	59.5	9.2	0.6	90.2	9.8
	중소도시	(531)	29.4	61.0	9.4	0.2	90.4	9.6
	읍/면	(146)	38.4	54.1	6.2	1.4	92.5	7.5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28.0	60.4	10.9	0.7	88.4	11.6
	중도	(622)	30.5	59.6	9.3	0.5	90.2	9.8
	보수적	(285)	35.4	58.2	6.0	0.4	93.7	6.3
종교	불교	(219)	30.6	59.8	9.1	0.5	90.4	9.6
	기독교	(187)	28.3	59.9	10.7	1.1	88.2	11.8
	천주교	(51)	33.3	56.9	9.8	0.0	90.2	9.8
	기타	(8)	37.5	62.5	0.0	0.0	100.0	0.0
	종교 없음	(708)	31.4	60.2	8.3	0.1	91.5	8.5
모름/무응답	(27)	40.7	40.7	11.1	7.4	81.5	18.5	

표 50. 미중 갈등 시 한국의 입장

문) OO님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계
		%	%	%	%
■ 전 체 ■	(1200)	33.0	8.9	58.1	100.0
성별	남자	(610)	34.6	8.5	56.9
	여자	(590)	31.4	9.3	59.3
연령별	19~29세	(206)	35.4	8.7	55.8
	30대	(200)	35.5	6.0	58.5
	40대	(239)	29.7	11.7	58.6
	50대	(260)	29.6	7.7	62.7
	60대 이상	(295)	35.3	9.8	54.9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40.2	8.5	51.2
	고졸	(505)	33.1	9.7	57.2
	대재 이상	(613)	32.0	8.3	59.7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1.4	10.7	67.9
	자영업	(304)	30.9	10.5	58.6
	블루칼라	(313)	32.6	8.0	59.4
	화이트칼라	(301)	32.2	8.6	59.1
	전업주부	(170)	34.7	8.2	57.1
가구 소득수준	학생/군인/무직/기타	(84)	45.2	8.3	46.4
	200만원 미만	(57)	28.1	7.0	64.9
	200~299만원	(124)	41.9	6.5	51.6
	300~399만원	(219)	33.3	10.0	56.6
	400만원 이상	(800)	31.9	9.1	59.0
지역별	수도권	(514)	38.3	8.6	53.1
	충청권	(154)	31.2	7.8	61.0
	호남권	(142)	26.8	21.8	51.4
	영남권	(313)	27.8	5.8	66.5
	강원	(45)	31.1	0.0	68.9
	제주	(32)	37.5	6.3	56.3
지역 크기	대도시	(523)	39.6	9.0	51.4
	중소도시	(531)	28.1	7.3	64.6
	읍/면	(146)	27.4	14.4	58.2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29.7	10.9	59.4
	중도	(622)	31.5	9.2	59.3
	보수적	(285)	39.6	6.3	54.0
종교	불교	(219)	27.4	11.0	61.6
	기독교	(187)	35.3	7.5	57.2
	천주교	(51)	33.3	11.8	54.9
	기타	(8)	25.0	0.0	75.0
	종교 없음	(708)	34.3	8.3	57.3
모름/무응답	(27)	29.6	14.8	55.6	













표 54. 정치적 성향

문) OO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계	
		매우 진보적 %	약간 진보적 %	중도 %	약간 보수적 %	매우 보수적 %	%	%	%	
■ 전 체 ■										
성별	남자	(610)	3.4	20.3	52.0	21.1	3.1	23.8	24.3	100.0
	여자	(590)	3.2	21.9	51.7	20.8	2.4	25.1	23.2	100.0
연령별	19~29세	(206)	2.4	29.1	61.2	7.3	0.0	31.6	7.3	100.0
	30대	(200)	3.5	26.5	56.0	12.0	2.0	30.0	14.0	100.0
	40대	(239)	2.1	21.8	59.0	15.9	1.3	23.8	17.2	100.0
	50대	(260)	3.8	21.2	50.0	21.9	3.1	25.0	25.0	100.0
	60대 이상	(295)	4.4	11.2	38.3	40.0	6.1	15.6	46.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7.3	11.0	42.7	31.7	7.3	18.3	39.0	100.0
	고졸	(505)	4.4	18.0	47.9	26.5	3.2	22.4	29.7	100.0
	대재 이상	(613)	2.0	25.0	56.3	15.0	1.8	26.9	16.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7.9	10.7	53.6	14.3	3.6	28.6	17.9	100.0
	자영업	(304)	3.9	18.8	45.4	28.9	3.0	22.7	31.9	100.0
	블루칼라	(313)	3.8	19.5	57.8	16.6	2.2	23.3	18.8	100.0
	화이트칼라	(301)	1.7	25.9	55.1	15.6	1.7	27.6	17.3	100.0
	전업주부	(170)	1.8	18.8	47.1	27.6	4.7	20.6	32.4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3.6	26.2	50.0	16.7	3.6	29.8	20.2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5.3	12.3	45.6	33.3	3.5	17.5	36.8	100.0
	200~299만원	(124)	4.0	15.3	46.0	27.4	7.3	19.4	34.7	100.0
	300~399만원	(219)	3.2	17.4	51.1	24.2	4.1	20.5	28.3	100.0
	400만원 이상	(800)	3.1	23.6	53.4	18.3	1.6	26.8	19.9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2.3	22.8	55.1	17.7	2.1	25.1	19.8	100.0
	충청권	(154)	2.6	23.4	48.7	21.4	3.9	26.0	25.3	100.0
	호남권	(142)	10.6	27.5	51.4	9.9	0.7	38.0	10.6	100.0
	영남권	(313)	2.6	15.3	46.0	32.3	3.8	17.9	36.1	100.0
	강원	(45)	2.2	11.1	57.8	24.4	4.4	13.3	28.9	100.0
제주	(32)	0.0	25.0	65.6	6.3	3.1	25.0	9.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1.5	20.8	53.2	22.6	1.9	22.4	24.5	100.0
	중소도시	(531)	3.8	21.8	50.7	20.5	3.2	25.6	23.7	100.0
	읍/면	(146)	8.2	19.2	51.4	17.1	4.1	27.4	21.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13.7	86.3	0.0	0.0	0.0	100.0	0.0	100.0
	중도	(622)	0.0	0.0	100.0	0.0	0.0	0.0	0.0	100.0
	보수적	(285)	0.0	0.0	0.0	88.4	11.6	0.0	100.0	100.0
종교	불교	(219)	3.2	16.0	42.5	35.2	3.2	19.2	38.4	100.0
	기독교	(187)	3.7	21.4	49.7	21.4	3.7	25.1	25.1	100.0
	천주교	(51)	2.0	23.5	58.8	15.7	0.0	25.5	15.7	100.0
	기타	(8)	12.5	0.0	62.5	12.5	12.5	12.5	25.0	100.0
	종교 없음	(708)	3.4	23.0	53.5	17.5	2.5	26.4	20.1	100.0
	모름/무응답	(27)	0.0	11.1	81.5	7.4	0.0	11.1	7.4	100.0

표 55. 지지정당

문) OO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국회의석순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례수	더불어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	기타	지지정당	모름/	계	
		주당 %	%	%	%	민주당 %	정당 %	없음 %	응답 거절 %	%	
■ 전 체 ■											
성별	남자	(610)	22.7	21.3	1.3	2.8	0.7	0.9	43.8	6.5	100.0
	여자	(590)	24.4	21.3	1.1	3.4	0.5	0.5	42.5	6.2	100.0
연령별	19~29세	(206)	20.4	7.8	1.9	1.5	1.0	1.0	53.9	12.6	100.0
	30대	(200)	21.5	12.5	0.5	2.0	1.5	2.0	52.5	7.5	100.0
	40대	(239)	23.8	14.2	1.3	2.9	1.3	0.8	50.6	5.0	100.0
	50대	(260)	28.1	25.0	1.5	2.7	0.0	0.4	37.7	4.6	100.0
	60대 이상	(295)	19.3	39.3	1.0	4.4	0.0	0.7	30.8	4.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26.8	35.4	0.0	1.2	0.0	0.0	35.4	1.2	100.0
	고졸	(505)	23.4	26.5	0.8	4.4	0.0	1.4	38.2	5.3	100.0
	대재 이상	(613)	21.5	15.2	1.8	1.8	1.3	0.7	49.6	8.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42.9	17.9	0.0	3.6	0.0	0.0	28.6	7.1	100.0
	자영업	(304)	23.7	27.3	0.7	3.0	0.0	1.3	38.5	5.6	100.0
	블루칼라	(313)	23.3	20.4	2.2	3.2	1.0	0.3	45.7	3.8	100.0
	화이트칼라	(301)	21.9	13.6	1.3	1.7	1.3	1.0	50.5	8.6	100.0
	전업주부	(170)	14.1	31.2	0.6	3.5	0.6	1.8	43.5	4.7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29.8	11.9	1.2	3.6	0.0	0.0	38.1	15.5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28.1	26.3	1.8	1.8	0.0	0.0	36.8	5.3	100.0
	200~299만원	(124)	16.9	25.8	0.8	2.4	0.8	1.6	43.5	8.1	100.0
	300~399만원	(219)	19.6	26.0	1.4	1.8	0.0	0.5	47.5	3.2	100.0
	400만원 이상	(800)	24.0	19.0	1.3	3.3	0.9	1.0	43.4	7.3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9.1	22.6	1.0	2.1	0.6	1.4	47.3	6.0	100.0
	충청권	(154)	31.2	21.4	1.3	1.9	1.3	0.6	28.6	13.6	100.0
	호남권	(142)	54.2	4.9	0.7	1.4	0.0	1.4	29.6	7.7	100.0
	영남권	(313)	10.2	28.4	1.6	5.4	1.0	0.3	50.2	2.9	100.0
	강원	(45)	24.4	20.0	0.0	2.2	0.0	0.0	53.3	0.0	100.0
제주	(32)	18.8	6.3	6.3	0.0	0.0	0.0	50.0	18.8	100.0	
지역크기	대도시	(523)	20.1	18.5	0.8	3.3	0.8	0.8	48.6	7.3	100.0
	중소도시	(531)	22.8	22.8	2.1	2.4	0.8	1.1	42.9	5.1	100.0
	읍/면	(146)	31.5	26.0	0.0	2.7	0.0	0.7	30.1	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49.1	11.9	1.4	1.0	1.4	0.7	30.7	3.8	100.0
	중도	(622)	16.9	9.3	1.6	1.8	0.3	1.1	59.8	9.2	100.0
	보수적	(285)	8.1	57.2	0.4	7.0	0.7	0.7	22.5	3.5	100.0
종교	불교	(219)	21.0	37.9	2.7	3.7	0.0	0.5	32.0	2.3	100.0
	기독교	(187)	26.2	20.9	0.0	5.9	1.1	3.2	36.9	5.9	100.0
	천주교	(51)	25.5	17.6	0.0	2.0	2.0	2.0	47.1	3.9	100.0
	기타	(8)	12.5	0.0	0.0	0.0	0.0	0.0	87.5	0.0	100.0
	종교 없음	(708)	22.6	16.9	1.1	1.8	0.7	0.4	49.2	7.2	100.0
	모름/무응답	(27)	11.1	18.5	3.7	3.7	0.0	0.0	29.6	33.3	100.0

표 56. 현 대통령 직무 평가

문) OO님은 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 하고 있다	매우 잘못 하고 있다				
	사례수	%	%	%	%	%	%	%	
■ 전 체 ■		(1200)	4.1	33.0	43.8	19.1	37.1	62.9	100.0
성별	남자	(610)	5.1	32.8	42.8	19.3	37.9	62.1	100.0
	여자	(590)	3.1	33.2	44.9	18.8	36.3	63.7	100.0
연령별	19~29세	(206)	4.4	22.8	54.4	18.4	27.2	72.8	100.0
	30대	(200)	2.5	27.5	52.5	17.5	30.0	70.0	100.0
	40대	(239)	2.1	28.0	49.8	20.1	30.1	69.9	100.0
	50대	(260)	3.1	35.8	40.0	21.2	38.8	61.2	100.0
	60대 이상	(295)	7.5	45.4	29.2	18.0	52.9	47.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4.9	39.0	30.5	25.6	43.9	56.1	100.0
	고졸	(505)	4.4	39.4	39.6	16.6	43.8	56.2	100.0
	대재 이상	(613)	3.8	26.9	49.1	20.2	30.7	69.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0.0	39.3	32.1	28.6	39.3	60.7	100.0
	자영업	(304)	5.3	36.8	37.5	20.4	42.1	57.9	100.0
	블루칼라	(313)	3.2	33.2	43.8	19.8	36.4	63.6	100.0
	화이트칼라	(301)	3.3	27.9	51.8	16.9	31.2	68.8	100.0
	전업주부	(170)	4.1	40.0	41.8	14.1	44.1	55.9	100.0
가구 소득수준	학생/군인/무직/기타	(84)	7.1	20.2	46.4	26.2	27.4	72.6	100.0
	200만원 미만	(57)	5.3	36.8	33.3	24.6	42.1	57.9	100.0
	200~299만원	(124)	8.9	37.9	34.7	18.5	46.8	53.2	100.0
	300~399만원	(219)	5.0	36.5	42.9	15.5	41.6	58.4	100.0
지역별	400만원 이상	(800)	3.0	31.0	46.3	19.8	34.0	66.0	100.0
	수도권	(514)	4.3	31.7	50.4	13.6	36.0	64.0	100.0
	충청권	(154)	5.2	37.0	40.9	16.9	42.2	57.8	100.0
	호남권	(142)	1.4	14.1	23.9	60.6	15.5	84.5	100.0
	영남권	(313)	3.8	45.7	41.2	9.3	49.5	50.5	100.0
지역 크기	강원	(45)	6.7	17.8	44.4	31.1	24.4	75.6	100.0
	제주	(32)	6.3	15.6	65.6	12.5	21.9	78.1	100.0
	대도시	(523)	2.9	34.2	44.6	18.4	37.1	62.9	100.0
정치적 성향	중소도시	(531)	4.9	31.8	45.4	17.9	36.7	63.3	100.0
	읍/면	(146)	5.5	32.9	35.6	26.0	38.4	61.6	100.0
	진보적	(293)	3.1	18.4	49.5	29.0	21.5	78.5	100.0
종교	중도	(622)	1.4	28.9	50.3	19.3	30.4	69.6	100.0
	보수적	(285)	10.9	56.8	23.9	8.4	67.7	32.3	100.0
	불교	(219)	4.6	47.0	32.9	15.5	51.6	48.4	100.0
	기독교	(187)	4.8	26.2	46.5	22.5	31.0	69.0	100.0
	천주교	(51)	0.0	27.5	37.3	35.3	27.5	72.5	100.0
	기타	(8)	0.0	12.5	50.0	37.5	12.5	87.5	100.0
	종교 없음	(708)	4.2	31.2	47.5	17.1	35.5	64.5	100.0
모름/무응답	(27)	0.0	29.6	29.6	40.7	29.6	70.4	100.0	

표 57.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영방식 만족도

문) OO님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매우 만족한다	다소 만족한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사례수	%	%	%	%	%	%	%	
■ 전 체 ■		(1200)	4.0	55.7	35.3	5.0	59.7	40.3	100.0
성별	남자	(610)	4.9	53.1	36.9	5.1	58.0	42.0	100.0
	여자	(590)	3.1	58.3	33.7	4.9	61.4	38.6	100.0
연령별	19~29세	(206)	4.4	52.4	38.3	4.9	56.8	43.2	100.0
	30대	(200)	4.0	54.0	38.0	4.0	58.0	42.0	100.0
	40대	(239)	3.3	51.9	38.9	5.9	55.2	44.8	100.0
	50대	(260)	3.5	58.5	31.5	6.5	61.9	38.1	100.0
	60대 이상	(295)	4.7	59.7	31.9	3.7	64.4	35.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6.1	47.6	39.0	7.3	53.7	46.3	100.0
	고졸	(505)	4.2	59.4	31.3	5.1	63.6	36.4	100.0
	대재 이상	(613)	3.6	53.7	38.2	4.6	57.3	42.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50.0	32.1	7.1	60.7	39.3	100.0
	자영업	(304)	3.3	56.3	35.5	4.9	59.5	40.5	100.0
	블루칼라	(313)	5.1	50.8	37.7	6.4	55.9	44.1	100.0
	화이트칼라	(301)	4.3	57.5	34.9	3.3	61.8	38.2	100.0
	전업주부	(170)	1.8	62.9	31.8	3.5	64.7	35.3	100.0
가구 소득수준	학생/군인/무직/기타	(84)	3.6	52.4	35.7	8.3	56.0	44.0	100.0
	200만원 미만	(57)	5.3	54.4	31.6	8.8	59.6	40.4	100.0
	200~299만원	(124)	5.6	54.8	32.3	7.3	60.5	39.5	100.0
	300~399만원	(219)	5.0	56.6	33.8	4.6	61.6	38.4	100.0
지역별	400만원 이상	(800)	3.4	55.6	36.5	4.5	59.0	41.0	100.0
	수도권	(514)	5.4	58.9	34.0	1.6	64.4	35.6	100.0
	충청권	(154)	3.9	50.6	41.6	3.9	54.5	45.5	100.0
	호남권	(142)	3.5	30.3	41.5	24.6	33.8	66.2	100.0
	영남권	(313)	2.6	67.4	27.5	2.6	70.0	30.0	100.0
지역 크기	강원	(45)	2.2	48.9	44.4	4.4	51.1	48.9	100.0
	제주	(32)	0.0	34.4	62.5	3.1	34.4	65.6	100.0
	대도시	(523)	4.2	59.7	32.5	3.6	63.9	36.1	100.0
정치적 성향	중소도시	(531)	3.4	52.9	38.0	5.6	56.3	43.7	100.0
	읍/면	(146)	5.5	51.4	35.6	7.5	56.8	43.2	100.0
	진보적	(293)	3.8	48.8	39.9	7.5	52.6	47.4	100.0
종교	중도	(622)	2.9	53.1	38.6	5.5	55.9	44.1	100.0
	보수적	(285)	6.7	68.4	23.5	1.4	75.1	24.9	100.0
	불교	(219)	3.7	70.8	20.5	5.0	74.4	25.6	100.0
	기독교	(187)	5.9	54.0	32.6	7.5	59.9	40.1	100.0
	천주교	(51)	0.0	51.0	43.1	5.9	51.0	49.0	100.0
	기타	(8)	0.0	50.0	37.5	12.5	50.0	50.0	100.0
	종교 없음	(708)	3.8	52.1	40.3	3.8	55.9	44.1	100.0
모름/무응답	(27)	7.4	48.1	29.6	14.8	55.6	44.4	100.0	

표 58-1. 사회기관 신뢰정도 - ㉞ 중앙 정부 부처

문) OO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사례수	%	%	%	%	%	%	
■ 전 체 ■		(1200)	1.8	40.6	46.8	10.8	42.4	57.6	100.0
성별	남자	(610)	2.1	43.0	43.3	11.6	45.1	54.9	100.0
	여자	(590)	1.5	38.1	50.3	10.0	39.7	60.3	100.0
연령별	19-29세	(206)	1.5	35.4	51.9	11.2	36.9	63.1	100.0
	30대	(200)	1.5	38.0	51.0	9.5	39.5	60.5	100.0
	40대	(239)	1.3	38.9	47.7	12.1	40.2	59.8	100.0
	50대	(260)	1.5	37.3	50.4	10.8	38.8	61.2	100.0
	60대 이상	(295)	3.1	50.2	36.3	10.5	53.2	46.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2	41.5	39.0	18.3	42.7	57.3	100.0
	고졸	(505)	2.0	41.2	46.5	10.3	43.2	56.8	100.0
	대재 이상	(613)	1.8	40.0	48.0	10.3	41.8	58.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35.7	39.3	17.9	42.9	57.1	100.0
	자영업	(304)	0.7	42.4	47.0	9.9	43.1	56.9	100.0
	블루칼라	(313)	2.6	35.8	47.9	13.7	38.3	61.7	100.0
	화이트칼라	(301)	1.3	43.2	45.2	10.3	44.5	55.5	100.0
	전업주부	(170)	2.9	44.7	45.9	6.5	47.6	52.4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1.2	35.7	51.2	11.9	36.9	63.1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3.5	42.1	40.4	14.0	45.6	54.4	100.0
	200~299만원	(124)	3.2	40.3	47.6	8.9	43.5	56.5	100.0
	300~399만원	(219)	3.2	44.3	45.2	7.3	47.5	52.5	100.0
	400만원 이상	(800)	1.1	39.5	47.5	11.9	40.6	59.4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2	40.3	51.9	6.6	41.4	58.6	100.0
	충청권	(154)	3.9	42.9	40.3	13.0	46.8	53.2	100.0
	호남권	(142)	2.1	23.9	34.5	39.4	26.1	73.9	100.0
	영남권	(313)	1.3	50.5	43.1	5.1	51.8	48.2	100.0
	강원	(45)	6.7	20.0	66.7	6.7	26.7	73.3	100.0
	제주	(32)	0.0	40.6	56.3	3.1	40.6	59.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2.5	42.4	43.8	11.3	44.9	55.1	100.0
	중소도시	(531)	0.8	40.9	50.8	7.5	41.6	58.4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3.4	32.9	42.5	21.2	36.3	63.7	100.0
	진보적	(293)	0.3	34.8	47.4	17.4	35.2	64.8	100.0
	중도	(622)	1.6	35.2	52.6	10.6	36.8	63.2	100.0
종교	보수적	(285)	3.9	58.2	33.3	4.6	62.1	37.9	100.0
	불교	(219)	1.4	45.2	44.3	9.1	46.6	53.4	100.0
	기독교	(187)	2.7	44.4	46.0	7.0	47.1	52.9	100.0
	천주교	(51)	2.0	35.3	45.1	17.6	37.3	62.7	100.0
	기타	(8)	0.0	12.5	75.0	12.5	12.5	87.5	100.0
	종교 없음	(708)	1.6	39.4	47.6	11.4	41.0	59.0	100.0
모름/무응답	(27)	7.4	25.9	44.4	22.2	33.3	66.7	100.0	

표 58-2. 사회기관 신뢰정도 - ㉟ 지방 자치 정부

문) OO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사례수	%	%	%	%	%	%	
■ 전 체 ■		(1200)	2.6	41.8	45.1	10.6	44.3	55.7	100.0
성별	남자	(610)	3.1	41.3	44.9	10.7	44.4	55.6	100.0
	여자	(590)	2.0	42.2	45.3	10.5	44.2	55.8	100.0
연령별	19-29세	(206)	3.4	38.8	48.5	9.2	42.2	57.8	100.0
	30대	(200)	2.5	36.5	51.0	10.0	39.0	61.0	100.0
	40대	(239)	1.7	39.3	46.9	12.1	41.0	59.0	100.0
	50대	(260)	0.8	40.4	47.3	11.5	41.2	58.8	100.0
	60대 이상	(295)	4.4	50.5	35.3	9.8	54.9	45.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3.7	46.3	34.1	15.9	50.0	50.0	100.0
	고졸	(505)	3.2	40.4	45.5	10.9	43.6	56.4	100.0
	대재 이상	(613)	2.0	42.3	46.2	9.6	44.2	55.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50.0	32.1	10.7	57.1	42.9	100.0
	자영업	(304)	3.3	44.4	42.8	9.5	47.7	52.3	100.0
	블루칼라	(313)	2.2	39.3	44.7	13.7	41.5	58.5	100.0
	화이트칼라	(301)	2.0	40.5	47.5	10.0	42.5	57.5	100.0
	전업주부	(170)	1.8	44.7	47.6	5.9	46.5	53.5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3.6	36.9	45.2	14.3	40.5	59.5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0.5	33.3	40.4	15.8	43.9	56.1	100.0
	200~299만원	(124)	4.8	46.8	36.3	12.1	51.6	48.4	100.0
	300~399만원	(219)	4.6	45.2	43.4	6.8	49.8	50.2	100.0
	400만원 이상	(800)	1.1	40.6	47.3	11.0	41.8	58.3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9	36.2	54.1	7.8	38.1	61.9	100.0
	충청권	(154)	2.6	53.9	32.5	11.0	56.5	43.5	100.0
	호남권	(142)	2.8	31.0	34.5	31.7	33.8	66.2	100.0
	영남권	(313)	2.9	50.8	39.6	6.7	53.7	46.3	100.0
	강원	(45)	6.7	37.8	51.1	4.4	44.4	55.6	100.0
	제주	(32)	3.1	37.5	53.1	6.3	40.6	59.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2.5	42.4	44.2	10.9	44.9	55.1	100.0
	중소도시	(531)	1.7	42.2	48.4	7.7	43.9	56.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6.2	37.7	36.3	19.9	43.8	56.2	100.0
	진보적	(293)	1.4	34.1	48.8	15.7	35.5	64.5	100.0
	중도	(622)	2.3	40.0	48.7	9.0	42.3	57.7	100.0
종교	보수적	(285)	4.6	53.3	33.3	8.8	57.9	42.1	100.0
	불교	(219)	0.9	47.9	42.9	8.2	48.9	51.1	100.0
	기독교	(187)	3.2	44.4	42.2	10.2	47.6	52.4	100.0
	천주교	(51)	3.9	31.4	51.0	13.7	35.3	64.7	100.0
	기타	(8)	0.0	25.0	62.5	12.5	25.0	75.0	100.0
	종교 없음	(708)	3.0	40.7	45.3	11.0	43.6	56.4	100.0
모름/무응답	(27)	0.0	25.9	59.3	14.8	25.9	74.1	100.0	

표 58-3. 사회기관 신뢰정도 - ㉔ 국회

문) OO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사례수	%	%	%	%	%	%	
■ 전 체 ■		(1200)	1.0	16.3	46.8	35.9	17.3	82.8	100.0
성별	남자	(610)	1.0	16.9	44.8	37.4	17.9	82.1	100.0
	여자	(590)	1.0	15.6	49.0	34.4	16.6	83.4	100.0
연령별	19~29세	(206)	1.5	18.9	45.6	34.0	20.4	79.6	100.0
	30대	(200)	1.0	13.0	44.0	42.0	14.0	86.0	100.0
	40대	(239)	1.3	15.5	45.6	37.7	16.7	83.3	100.0
	50대	(260)	1.2	15.8	48.1	35.0	16.9	83.1	100.0
	60대 이상	(295)	0.3	17.6	49.5	32.5	18.0	82.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2.4	15.9	43.9	37.8	18.3	81.7	100.0
	고졸	(505)	0.8	17.0	48.7	33.5	17.8	82.2	100.0
	대재 이상	(613)	1.0	15.7	45.7	37.7	16.6	83.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25.0	50.0	17.9	32.1	67.9	100.0
	자영업	(304)	0.3	16.8	46.7	36.2	17.1	82.9	100.0
	블루칼라	(313)	0.6	16.3	44.4	38.7	16.9	83.1	100.0
	화이트칼라	(301)	1.7	15.3	44.9	38.2	16.9	83.1	100.0
	전업주부	(170)	0.6	18.8	52.9	27.6	19.4	80.6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1.2	9.5	50.0	39.3	10.7	89.3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3.5	19.3	43.9	33.3	22.8	77.2	100.0
	200~299만원	(124)	2.4	17.7	48.4	31.5	20.2	79.8	100.0
	300~399만원	(219)	0.5	21.9	49.3	28.3	22.4	77.6	100.0
	400만원 이상	(800)	0.8	14.3	46.1	38.9	15.0	85.0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0.4	12.8	51.9	34.8	13.2	86.8	100.0
	충청권	(154)	1.3	28.6	45.5	24.7	29.9	70.1	100.0
	호남권	(142)	2.8	7.7	38.0	51.4	10.6	89.4	100.0
	영남권	(313)	1.0	18.2	40.6	40.3	19.2	80.8	100.0
	강원	(45)	2.2	15.6	51.1	31.1	17.8	82.2	100.0
	제주	(32)	0.0	31.3	65.6	3.1	31.3	68.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1.1	17.0	42.8	39.0	18.2	81.8	100.0
	중소도시	(531)	0.4	15.8	52.7	31.1	16.2	83.8	100.0
	읍/면	(146)	2.7	15.1	39.7	42.5	17.8	82.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0.3	15.4	42.0	42.3	15.7	84.3	100.0
	중도	(622)	1.1	15.8	47.6	35.5	16.9	83.1	100.0
	보수적	(285)	1.4	18.2	50.2	30.2	19.6	80.4	100.0
종교	불교	(219)	0.5	20.5	48.9	30.1	21.0	79.0	100.0
	기독교	(187)	0.5	15.0	51.9	32.6	15.5	84.5	100.0
	천주교	(51)	2.0	5.9	51.0	41.2	7.8	92.2	100.0
	기타	(8)	0.0	0.0	62.5	37.5	0.0	100.0	100.0
	종교 없음	(708)	1.3	16.0	44.6	38.1	17.2	82.8	100.0
	모름/무응답	(27)	0.0	22.2	40.7	37.0	22.2	77.8	100.0

표 58-4. 사회기관 신뢰정도 - ㉔ 청와대(대통령 집무실 및 그 기관)

문) OO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사례수	%	%	%	%	%	%	
■ 전 체 ■		(1200)	2.5	30.0	46.9	20.6	32.5	67.5	100.0
성별	남자	(610)	2.5	32.1	45.6	19.8	34.6	65.4	100.0
	여자	(590)	2.5	27.8	48.3	21.4	30.3	69.7	100.0
연령별	19~29세	(206)	1.0	28.6	52.4	18.0	29.6	70.4	100.0
	30대	(200)	2.0	26.5	49.5	22.0	28.5	71.5	100.0
	40대	(239)	2.1	27.6	48.5	21.8	29.7	70.3	100.0
	50대	(260)	2.3	28.8	45.8	23.1	31.2	68.8	100.0
	60대 이상	(295)	4.4	36.3	41.0	18.3	40.7	59.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2.4	29.3	42.7	25.6	31.7	68.3	100.0
	고졸	(505)	3.0	33.3	42.8	21.0	36.2	63.8	100.0
	대재 이상	(613)	2.1	27.4	50.9	19.6	29.5	70.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32.1	42.9	17.9	39.3	60.7	100.0
	자영업	(304)	2.0	34.2	45.1	18.8	36.2	63.8	100.0
	블루칼라	(313)	2.6	28.8	44.1	24.6	31.3	68.7	100.0
	화이트칼라	(301)	1.3	29.2	49.5	19.9	30.6	69.4	100.0
	전업주부	(170)	5.3	27.6	50.0	17.1	32.9	67.1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1.2	26.2	50.0	22.6	27.4	72.6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8.8	29.8	36.8	24.6	38.6	61.4	100.0
	200~299만원	(124)	5.6	29.8	45.2	19.4	35.6	64.5	100.0
	300~399만원	(219)	3.2	34.7	44.7	17.4	37.9	62.1	100.0
	400만원 이상	(800)	1.4	28.8	48.5	21.4	30.1	69.9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9	29.4	52.7	16.0	31.3	68.7	100.0
	충청권	(154)	1.9	33.1	51.3	13.6	35.1	64.9	100.0
	호남권	(142)	2.1	11.3	33.1	53.5	13.4	86.6	100.0
	영남권	(313)	3.2	39.3	39.0	18.5	42.5	57.5	100.0
	강원	(45)	4.4	24.4	53.3	17.8	28.9	71.1	100.0
	제주	(32)	6.3	25.0	62.5	6.3	31.3	68.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2.3	28.9	47.0	21.8	31.2	68.8	100.0
	중소도시	(531)	2.8	32.6	46.5	18.1	35.4	64.6	100.0
	읍/면	(146)	2.1	24.7	47.9	25.3	26.7	73.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1.0	23.5	50.9	24.6	24.6	75.4	100.0
	중도	(622)	1.0	25.4	50.3	23.3	26.4	73.6	100.0
	보수적	(285)	7.4	46.7	35.4	10.5	54.0	46.0	100.0
종교	불교	(219)	2.7	35.2	44.7	17.4	37.9	62.1	100.0
	기독교	(187)	2.1	38.0	41.2	18.7	40.1	59.9	100.0
	천주교	(51)	2.0	21.6	43.1	33.3	23.5	76.5	100.0
	기타	(8)	0.0	0.0	75.0	25.0	0.0	100.0	100.0
	종교 없음	(708)	2.5	27.5	49.2	20.8	30.1	69.9	100.0
	모름/무응답	(27)	3.7	22.2	44.4	29.6	25.9	74.1	100.0

표 59. 결혼 여부

문) OO님은 결혼하셨습니다가?

	사례수	미혼	기혼	이혼/별거	사별	계	
		%	%	%	%	%	
■ 전 체 ■	(1200)	25.5	71.3	1.7	1.6	100.0	
성별	남자	(610)	29.0	69.5	1.5	0.0	100.0
	여자	(590)	21.9	73.1	1.9	3.2	100.0
연령별	19~29세	(206)	92.7	7.3	0.0	0.0	100.0
	30대	(200)	44.5	54.5	0.5	0.5	100.0
	40대	(239)	6.3	91.6	0.8	1.3	100.0
	50대	(260)	3.8	92.3	3.5	0.4	100.0
	60대 이상	(295)	0.3	92.2	2.7	4.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1.2	84.1	1.2	13.4	100.0
	고졸	(505)	11.3	85.9	2.0	0.8	100.0
	대재 이상	(613)	40.5	57.4	1.5	0.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89.3	0.0	3.6	100.0
	자영업	(304)	7.2	89.1	2.0	1.6	100.0
	블루칼라	(313)	30.4	66.5	2.2	1.0	100.0
	화이트칼라	(301)	43.5	55.8	0.7	0.0	100.0
	전업주부	(170)	0.6	92.4	1.8	5.3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65.5	31.0	2.4	1.2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17.5	57.9	7.0	17.5	100.0
	200~299만원	(124)	25.8	64.5	7.3	2.4	100.0
	300~399만원	(219)	21.5	76.3	1.4	0.9	100.0
	400만원 이상	(800)	27.1	71.9	0.5	0.5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27.6	70.2	1.2	1.0	100.0
	충청권	(154)	27.3	68.2	3.2	1.3	100.0
	호남권	(142)	18.3	77.5	0.7	3.5	100.0
	영남권	(313)	24.9	71.6	1.9	1.6	100.0
	강원	(45)	26.7	68.9	4.4	0.0	100.0
	제주	(32)	18.8	75.0	0.0	6.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27.9	69.4	1.9	0.8	100.0
	중소도시	(531)	25.0	71.4	1.5	2.1	100.0
	읍/면	(146)	18.5	77.4	1.4	2.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34.8	62.8	0.7	1.7	100.0
	중도	(622)	28.1	68.8	1.8	1.3	100.0
	보수적	(285)	10.2	85.3	2.5	2.1	100.0
종교	불교	(219)	6.8	89.0	0.5	3.7	100.0
	기독교	(187)	21.9	75.9	1.1	1.1	100.0
	천주교	(51)	19.6	78.4	2.0	0.0	100.0
	기타	(8)	25.0	75.0	0.0	0.0	100.0
	종교 없음	(708)	32.1	64.7	2.1	1.1	100.0
	모름/무응답	(27)	40.7	51.9	3.7	3.7	100.0

표 60. 가구 소득 계층

문)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OO님택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계	
		중간보다 훨씬 높다	중간보다 약간 높다	중간과 비슷하다	중간보다 약간 낮다	중간보다 훨씬 낮다				%
■ 전 체 ■	(1200)	0.3	5.6	57.7	31.8	4.7	5.9	36.4	100.0	
성별	남자	(610)	0.3	5.7	55.7	33.8	4.4	6.1	38.2	100.0
	여자	(590)	0.3	5.4	59.7	29.7	4.9	5.8	34.6	100.0
연령별	19~29세	(206)	0.5	6.3	65.0	26.2	1.9	6.8	28.2	100.0
	30대	(200)	0.0	5.0	64.0	27.0	4.0	5.0	31.0	100.0
	40대	(239)	0.8	4.6	56.5	34.3	3.8	5.4	38.1	100.0
	50대	(260)	0.0	8.1	54.6	35.0	2.3	8.1	37.3	100.0
	60대 이상	(295)	0.3	4.1	51.9	33.9	9.8	4.4	43.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0.0	1.2	40.2	39.0	19.5	1.2	58.5	100.0
	고졸	(505)	0.6	4.4	53.5	37.0	4.6	5.0	41.6	100.0
	대재 이상	(613)	0.2	7.2	63.5	26.4	2.8	7.3	29.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0.0	7.1	67.9	21.4	3.6	7.1	25.0	100.0
	자영업	(304)	0.0	6.6	56.3	33.6	3.6	6.6	37.2	100.0
	블루칼라	(313)	0.6	5.1	53.0	36.1	5.1	5.8	41.2	100.0
	화이트칼라	(301)	0.0	6.6	65.4	24.9	3.0	6.6	27.9	100.0
	전업주부	(170)	1.2	2.9	57.6	31.2	7.1	4.1	38.2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0.0	4.8	48.8	38.1	8.3	4.8	46.4	100.0	
가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7)	0.0	0.0	22.8	47.4	29.8	0.0	77.2	100.0
	200~299만원	(124)	0.8	1.6	42.7	38.7	16.1	2.4	54.8	100.0
	300~399만원	(219)	0.5	4.6	46.1	44.7	4.1	5.0	48.9	100.0
	400만원 이상	(800)	0.3	6.9	65.6	26.0	1.3	7.1	27.3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0.2	3.9	55.8	36.6	3.5	4.1	40.1	100.0
	충청권	(154)	0.0	7.8	65.6	24.0	2.6	7.8	26.6	100.0
	호남권	(142)	0.0	6.3	57.0	31.0	5.6	6.3	36.6	100.0
	영남권	(313)	0.6	5.8	56.5	31.3	5.8	6.4	37.1	100.0
	강원	(45)	0.0	8.9	55.6	20.0	15.6	8.9	35.6	100.0
	제주	(32)	3.1	12.5	65.6	15.6	3.1	15.6	18.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23)	0.0	4.6	56.0	35.0	4.4	4.6	39.4	100.0
	중소도시	(531)	0.8	6.0	56.1	32.0	5.1	6.8	37.1	100.0
	읍/면	(146)	0.0	7.5	69.2	19.2	4.1	7.5	23.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293)	0.3	6.1	60.1	30.4	3.1	6.5	33.4	100.0
	중도	(622)	0.5	5.5	59.0	31.2	3.9	5.9	35.0	100.0
	보수적	(285)	0.0	5.3	52.3	34.4	8.1	5.3	42.5	100.0
종교	불교	(219)	1.4	6.8	50.2	33.3	8.2	8.2	41.6	100.0
	기독교	(187)	0.0	5.9	55.6	34.2	4.3	5.9	38.5	100.0
	천주교	(51)	0.0	3.9	60.8	31.4	3.9	3.9	35.3	100.0
	기타	(8)	0.0	12.5	50.0	37.5	0.0	12.5	37.5	100.0
	종교 없음	(708)	0.1	5.2	59.6	31.1	4.0	5.4	35.0	100.0
	모름/무응답	(27)	0.0	3.7	77.8	18.5	0.0	3.7	18.5	100.0

표 61. 사회 계층

문) OO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①+②	③+④	⑤+⑥	계	
		상의 상	상의 하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	%	%	%		
■ 전 체 ■	(1200)	0.3	1.4	27.1	55.8	12.6	2.8	1.8	82.8	15.4	100.0	
성별	남자	(610)	0.3	1.5	26.9	56.1	12.5	2.8	1.8	83.0	15.2	100.0
	여자	(590)	0.3	1.4	27.3	55.4	12.7	2.9	1.7	82.7	15.6	100.0
연령별	19~29세	(206)	0.5	1.9	29.1	60.7	5.8	1.9	2.4	89.8	7.8	100.0
	30대	(200)	0.0	1.5	28.5	58.0	10.5	1.5	1.5	86.5	12.0	100.0
	40대	(239)	0.4	1.7	27.2	54.0	14.2	2.5	2.1	81.2	16.7	100.0
	50대	(260)	0.4	1.5	25.0	59.2	11.9	1.9	1.9	84.2	13.8	100.0
	60대 이상	(295)	0.3	0.7	26.4	49.2	18.0	5.4	1.0	75.6	23.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0.0	1.2	18.3	41.5	32.9	6.1	1.2	59.8	39.0	100.0
	고졸	(505)	0.6	0.6	22.4	58.4	15.2	2.8	1.2	80.8	18.0	100.0
	대재 이상	(613)	0.2	2.1	32.1	55.5	7.7	2.4	2.3	87.6	1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0.0	3.6	39.3	42.9	7.1	7.1	3.6	82.1	14.3	100.0
	자영업	(304)	0.3	1.3	28.0	57.2	11.5	1.6	1.6	85.2	13.2	100.0
	블루칼라	(313)	0.3	1.0	22.4	59.7	13.7	2.9	1.3	82.1	16.6	100.0
	화이트칼라	(301)	0.3	1.7	32.2	55.1	8.6	2.0	2.0	87.4	10.6	100.0
	전업주부	(170)	0.0	1.8	24.7	51.8	18.2	3.5	1.8	76.5	21.8	100.0
가구 소득수준	학생/군인/무직/기타	(84)	1.2	1.2	23.8	50.0	16.7	7.1	2.4	73.8	23.8	100.0
	200만원 미만	(57)	0.0	0.0	10.5	40.4	29.8	19.3	0.0	50.9	49.1	100.0
	200~299만원	(124)	0.8	0.8	16.1	52.4	24.2	5.6	1.6	68.5	29.8	100.0
	300~399만원	(219)	0.0	1.4	18.3	60.7	15.5	4.1	1.4	79.0	19.6	100.0
	400만원 이상	(800)	0.4	1.6	32.4	56.0	8.8	0.9	2.0	88.4	9.6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0.6	0.4	24.1	61.3	12.8	0.8	1.0	85.4	13.6	100.0
	충청권	(154)	0.6	1.3	35.1	55.2	5.8	1.9	1.9	90.3	7.8	100.0
	호남권	(142)	0.0	3.5	25.4	53.5	14.8	2.8	3.5	78.9	17.6	100.0
	영남권	(313)	0.0	1.6	25.9	51.8	14.7	6.1	1.6	77.6	20.8	100.0
	강원	(45)	0.0	0.0	26.7	48.9	15.6	8.9	0.0	75.6	24.4	100.0
지역 크기	제주	(32)	0.0	9.4	56.3	28.1	6.3	0.0	9.4	84.4	6.3	100.0
	대도시	(523)	0.4	0.6	23.9	58.3	13.6	3.3	1.0	82.2	16.8	100.0
	중소도시	(531)	0.4	2.1	26.4	55.0	13.7	2.4	2.4	81.4	16.2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0.0	2.1	41.1	49.3	4.8	2.7	2.1	90.4	7.5	100.0
	진보적	(293)	1.0	2.7	25.9	54.6	12.6	3.1	3.8	80.5	15.7	100.0
	중도	(622)	0.0	1.1	28.1	58.0	10.9	1.8	1.1	86.2	12.7	100.0
	보수적	(285)	0.4	0.7	26.0	51.9	16.1	4.9	1.1	77.9	21.1	100.0
	불교	(219)	1.4	1.8	26.9	48.4	17.8	3.7	3.2	75.3	21.5	100.0
종교	기독교	(187)	0.0	1.1	29.4	57.2	9.6	2.7	1.1	86.6	12.3	100.0
	천주교	(51)	0.0	3.9	17.6	70.6	5.9	2.0	3.9	88.2	7.8	100.0
	기타	(8)	0.0	0.0	25.0	62.5	12.5	0.0	0.0	87.5	12.5	100.0
	종교 없음	(708)	0.0	1.3	26.3	57.2	12.4	2.8	1.3	83.5	15.3	100.0
	모름/무응답	(27)	3.7	0.0	51.9	37.0	7.4	0.0	3.7	88.9	7.4	100.0

표 62. 생활 수준 개선도

문) OO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OO님의 현재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①+②	③	④+⑤	⑥	계
		훨씬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약간 나빠졌다	훨씬 나빠졌다	잘 모르겠다	%	%	%	%	
■ 전 체 ■	(1200)	18.6	45.9	26.5	5.8	1.4	1.8	64.5	26.5	7.2	1.8	100.0
성별	남자	(610)	18.7	44.6	28.5	4.8	1.5	2.0	63.3	28.5	6.2	100.0
	여자	(590)	18.5	47.3	24.4	6.8	1.4	1.7	65.8	24.4	8.1	100.0
연령별	19~29세	(206)	13.1	41.3	33.0	7.3	1.0	4.4	54.4	33.0	8.3	100.0
	30대	(200)	11.5	48.5	31.0	6.0	1.0	2.0	60.0	31.0	7.0	100.0
	40대	(239)	16.3	48.5	27.6	5.0	2.1	0.4	64.9	27.6	7.1	100.0
	50대	(260)	17.7	51.2	23.1	4.6	1.5	1.9	68.8	23.1	6.2	100.0
	60대 이상	(295)	29.8	40.7	21.0	6.1	1.4	1.0	70.5	21.0	7.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2)	30.5	35.4	20.7	8.5	2.4	2.4	65.9	20.7	11.0	100.0
	고졸	(505)	17.8	47.5	27.9	3.8	1.4	1.6	65.3	27.9	5.1	100.0
	대재 이상	(613)	17.6	46.0	26.1	7.0	1.3	2.0	63.6	26.1	8.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0.0	28.6	17.9	0.0	0.0	3.6	78.6	17.9	0.0	100.0
	자영업	(304)	20.1	47.4	26.0	4.3	1.6	0.7	67.4	26.0	5.9	100.0
	블루칼라	(313)	14.4	44.7	28.8	8.3	2.2	1.6	59.1	28.8	10.5	100.0
	화이트칼라	(301)	16.9	52.2	23.9	4.7	0.7	1.7	69.1	23.9	5.3	100.0
	전업주부	(170)	17.6	42.9	29.4	7.1	1.8	1.2	60.6	29.4	8.8	100.0
가구 소득수준	학생/군인/무직/기타	(84)	26.2	34.5	26.2	4.8	0.0	8.3	60.7	26.2	4.8	100.0
	200만원 미만	(57)	22.8	33.3	19.3	14.0	3.5	7.0	56.1	19.3	17.5	100.0
	200~299만원	(124)	25.8	39.5	17.7	8.9	4.8	3.2	65.3	17.7	13.7	100.0
	300~399만원	(219)	24.2	34.2	33.3	5.9	1.8	0.5	58.4	33.3	7.8	100.0
	400만원 이상	(800)	15.6	51.0	26.5	4.6	0.6	1.6	66.6	26.5	5.3	100.0
지역별	수도권	(514)	10.7	52.5	27.8	6.2	1.4	1.4	63.2	27.8	7.6	100.0
	충청권	(154)	20.8	43.5	24.7	6.5	1.9	2.6	64.3	24.7	8.4	100.0
	호남권	(142)	24.6	40.1	24.6	5.6	3.5	1.4	64.8	24.6	9.2	100.0
	영남권	(313)	24.9	42.2	28.4	4.2	0.3	0.0	67.1	28.4	4.5	100.0
	강원	(45)	26.7	35.6	13.3	8.9	0.0	15.6	62.2	13.3	8.9	100.0
지역 크기	제주	(32)	34.4	28.1	21.9	6.3	3.1	6.3	62.5	21.9	9.4	100.0
	대도시	(523)	12.4	53.0	28.1	5.2	0.4	1.0	65.4	28.1	5.5	100.0
	중소도시	(531)	20.7	40.9	27.3	6.2	2.1	2.8	61.6	27.3	8.3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32.9	39.0	17.8	6.2	2.7	1.4	71.9	17.8	8.9	100.0
	진보적	(293)	22.5	45.4	24.9	5.1	0.7	1.4	67.9	24.9	5.8	100.0
	중도	(622)	15.1	44.5	29.6	6.6	2.3	1.9	59.6	29.6	8.8	100.0
	보수적	(285)	22.1	49.5	21.4	4.6	0.4	2.1	71.6	21.4	4.9	100.0
	불교	(219)	26.5	45.7	21.9	4.6	0.9	0.5	72.1	21.9	5.5	100.0
종교	기독교	(187)	19.3	51.3	21.4	5.9	1.1	1.1	70.6	21.4	7.0	100.0
	천주교	(51)	13.7	43.1	33.3	5.9	0.0	3.9	56.9	33.3	5.9	100.0
	기타	(8)	12.5	25.0	12.5	37.5	0.0	12.5	37.5	12.5	37.5	100.0
	종교 없음	(708)	16.4	45.6	28.5	5.8	1.8	1.8	62.0	28.5	7.6	100.0
	모름/무응답	(27)	18.5	29.6	37.0	3.7	0.0	11.1	48.1	37.0	3.7	100.0

표 63. 만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문) OO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	%	%	%	%	%	%	%	%	
■ 전 체 ■	(1200)	12.7	5.8	4.3	3.6	2.3	4.5	2.9	13.1	5.1	
성별	남자	(610)	13.0	5.4	4.4	3.1	2.3	4.3	3.3	13.8	5.4
	여자	(590)	12.4	6.3	4.1	4.1	2.4	4.7	2.5	12.4	4.7
연령별	19~29세	(206)	18.9	5.3	5.3	5.8	3.9	6.8	2.4	17.5	3.4
	30대	(200)	18.5	6.0	5.5	6.0	2.0	4.0	4.0	15.5	4.0
	40대	(239)	15.1	7.9	3.8	1.7	2.9	4.6	2.9	14.6	4.2
	50대	(260)	6.5	5.0	4.6	3.1	2.7	4.2	2.7	10.0	6.2
	60대 이상	(295)	7.8	5.1	2.7	2.4	0.7	3.4	2.7	9.8	6.8
	중출 이하	(82)	4.9	1.2	1.2	0.0	1.2	1.2	3.7	9.8	8.5
교육 수준별	고졸	(505)	10.1	5.3	3.2	3.2	2.4	3.8	2.2	13.7	7.1
	대재 이상	(613)	15.8	6.9	5.5	4.4	2.4	5.5	3.4	13.1	2.9
	농/수/축산업	(28)	0.0	0.0	0.0	0.0	0.0	3.6	3.6	10.7	3.6
직업별	자영업	(304)	10.2	5.3	3.3	4.6	1.6	3.6	2.0	14.5	6.3
	블루칼라	(313)	10.2	4.8	4.5	3.8	2.2	6.4	3.2	16.3	3.8
	화이트칼라	(301)	17.9	8.0	6.0	2.0	4.0	4.0	4.7	11.0	3.7
	전업주부	(170)	15.9	4.1	2.9	2.9	1.2	2.9	2.4	10.6	6.5
	학생/군인/무직/기타	(84)	9.5	9.5	4.8	7.1	2.4	6.0	0.0	9.5	8.3
	200만원 미만	(57)	0.0	3.5	7.0	0.0	0.0	3.5	1.8	7.0	8.8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124)	8.1	4.0	2.4	5.6	2.4	2.4	1.6	8.9	11.3
	300~399만원	(219)	8.2	4.1	3.2	4.6	2.7	3.2	1.8	16.0	5.0
	400만원 이상	(800)	15.5	6.8	4.6	3.3	2.4	5.3	3.5	13.4	3.9
	수도권	(514)	27.6	1.0	0.4	8.0	1.4	1.9	0.2	29.4	3.7
	충청권	(154)	2.6	0.0	0.0	0.6	0.0	27.9	0.0	0.0	0.6
지역별	호남권	(142)	1.4	0.0	0.0	0.0	14.8	0.0	0.0	1.4	0.0
	영남권	(313)	0.6	20.8	15.7	0.0	0.0	0.3	10.5	0.3	0.6
	강원	(45)	2.2	0.0	0.0	2.2	0.0	0.0	0.0	2.2	84.4
	제주	(32)	3.1	0.0	0.0	0.0	0.0	0.0	3.1	6.3	3.1
	대도시	(523)	20.3	10.1	9.0	5.9	4.2	8.4	5.9	6.9	1.5
	중소도시	(531)	7.9	3.2	0.8	2.1	0.9	1.5	0.6	18.5	8.3
정치적 성향	읍/면	(146)	2.7	0.0	0.0	0.7	0.7	1.4	0.7	15.8	6.2
	진보적	(293)	14.3	5.8	2.0	4.1	3.1	3.4	2.4	13.0	4.1
	중도	(622)	13.5	5.9	4.0	3.9	2.1	4.7	2.4	15.9	4.8
	보수적	(285)	9.1	5.6	7.0	2.5	2.1	5.3	4.6	7.0	6.7
	불교	(219)	5.0	7.3	5.0	2.3	2.3	2.3	3.7	8.2	6.8
종교	기독교	(187)	13.9	4.8	3.7	5.3	4.8	7.0	1.6	8.6	5.9
	천주교	(51)	17.6	3.9	2.0	9.8	2.0	9.8	0.0	13.7	2.0
	기타	(8)	0.0	25.0	0.0	0.0	0.0	0.0	0.0	12.5	37.5
	종교 없음	(708)	14.0	5.6	4.5	3.1	1.8	4.0	3.4	15.8	4.4
	모름/무응답	(27)	25.9	3.7	0.0	3.7	0.0	11.1	0.0	11.1	0.0

표 64. 만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계속)

문) OO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례수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외국	계	
		%	%	%	%	%	%	%	%	
■ 전 체 ■	(1200)	4.3	7.3	7.0	9.0	8.3	2.2	0.1	100.0	
성별	남자	(610)	4.9	7.4	7.4	8.4	8.4	2.1	0.0	100.0
	여자	(590)	3.6	7.3	6.6	9.7	8.3	2.2	0.2	100.0
연령별	19~29세	(206)	3.9	4.9	4.9	4.4	4.4	1.9	0.0	100.0
	30대	(200)	5.0	7.0	4.5	5.5	4.5	2.5	0.5	100.0
	40대	(239)	3.3	7.1	5.4	8.4	9.2	2.5	0.0	100.0
	50대	(260)	5.4	8.5	8.8	11.9	8.1	2.7	0.0	100.0
	60대 이상	(295)	3.7	8.5	9.8	12.5	13.2	1.4	0.0	100.0
	중출 이하	(82)	2.4	8.5	9.8	20.7	22.0	1.2	0.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05)	5.1	7.1	8.5	9.7	7.9	1.6	0.0	100.0
	대재 이상	(613)	3.8	7.3	5.4	6.9	6.9	2.8	0.2	100.0
	농/수/축산업	(28)	0.0	25.0	7.1	32.1	0.0	14.3	0.0	100.0
직업별	자영업	(304)	5.9	6.3	8.2	10.5	8.6	2.0	0.0	100.0
	블루칼라	(313)	5.1	4.8	8.0	9.3	8.9	1.0	0.3	100.0
	화이트칼라	(301)	4.0	9.3	3.7	6.0	7.0	2.3	0.0	100.0
	전업주부	(170)	1.2	8.2	7.1	8.2	11.2	2.4	0.0	100.0
	학생/군인/무직/기타	(84)	3.6	6.0	10.7	7.1	7.1	2.4	0.0	100.0
	200만원 미만	(57)	3.5	8.8	10.5	15.8	14.0	10.5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124)	6.5	5.6	8.1	8.9	15.3	2.4	0.0	100.0
	300~399만원	(219)	5.5	7.8	6.4	10.0	10.0	2.3	0.0	100.0
	400만원 이상	(800)	3.6	7.4	6.8	8.3	6.4	1.5	0.1	100.0
	수도권	(514)	2.1	4.7	6.2	7.2	3.9	0.0	0.2	100.0
	충청권	(154)	25.3	40.3	0.6	0.6	1.3	0.0	0.0	100.0
지역별	호남권	(142)	0.0	0.7	31.7	49.3	0.7	0.0	0.0	100.0
	영남권	(313)	0.0	0.3	1.0	0.0	24.3	0.0	0.0	100.0
	강원	(45)	2.2	0.0	4.4	0.0	2.2	0.0	0.0	100.0
	제주	(32)	0.0	0.0	3.1	0.0	0.0	81.3	0.0	100.0
	대도시	(523)	1.1	3.4	3.4	8.6	4.2	0.0	0.0	100.0
	중소도시	(531)	6.0	9.0	11.7	5.6	10.0	3.6	0.2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46)	8.9	15.1	2.7	22.6	17.1	4.8	0.0	100.0
	진보적	(293)	4.1	10.2	6.8	14.3	3.8	2.4	0.0	100.0
	중도	(622)	4.8	5.8	8.2	8.2	7.1	2.7	0.2	100.0
	보수적	(285)	3.2	7.7	4.6	5.3	15.8	0.7	0.0	100.0
	불교	(219)	5.5	7.8	7.3	5.5	12.3	2.3	0.0	100.0
종교	기독교	(187)	1.6	12.3	13.4	11.2	4.8	0.5	0.0	100.0
	천주교	(51)	0.0	5.9	3.9	11.8	3.9	2.0	0.0	100.0
	기타	(8)	0.0	0.0	12.5	12.5	0.0	0.0	0.0	100.0
	종교 없음	(708)	4.8	6.4	5.5	9.0	8.8	2.4	0.1	100.0
	모름/무응답	(27)	7.4	0.0	3.7	14.8	0.0	7.4	0.0	100.0



설문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RB No. 2305/002-006



## 2023 통일외식조사

--	--	--	--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조사로, 우리 국민의 통일외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74세인 분들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는데 약 20분 내외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귀하께서 본 설문문에 참여하실 경우 소정의 답례품으로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국민의 통일외식을 더 잘 이해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으며 설문지는 즉시 폐기됩니다.

이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교수이며, 조사연구 중 수집된 개인정보(나이, 성별, 거주지역, 직업, 결혼 유무, 최종학력,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선호 정당, 정치적 성향)는 코딩된 이후 원본은 연구책임자의 관리 감독 하에 폐기됩니다.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 코딩본은 연구보관되며, 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되어 제3의 연구자도 원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면 동의서의 경우는 3년 동안 보관됩니다. 이 조사결과가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은 물론 식별 가능한 다른 어떤 개인정보도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적으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타 개인정보는 조사활동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사책임자가 무작위로 추출된 설문지에 대하여 응답자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될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자료처리 후 폐기 처리됩니다.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김병로 교수(031-5176-2338)에게, 참여자의 권리를 문의할 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2-880-5153, irb@snu.ac.kr)에 문의해 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김 범 수

연구 주관 기관 :



2023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자 박재형  
담당연구원 장은혜 / 백해민  
실사연구원 정재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원장 : 김범수 ☎ : 031-5176-2330

<input type="checkbox"/> 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input type="checkbox"/> 지역크기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input type="checkbox"/> 성 별 :	1. 남자	2. 여자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 세 → 만 18세 이하, 만 75세 이상 조사 중단

###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과제명	2023 통일외식조사
연구책임자명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김범수

-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 나는 연구 참여와 자료 제공에 동의한 응답자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위험과 이득에 관한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내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2-880-5153)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사진을 찍어 보관하겠습니다.
- 나는 응답한 설문자료가 익명화된 데이터로 코딩된 파일 형태(xlsx, sav)로 사회과학자료원에 제공되어 제3의 연구자들의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여일	2023년 7월 ( ) 일
참여자 성명	
동 의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비 고	

조사지점명	동의 받는 연구원(조사원) 이름	설문지 ID
	(서명)	

연구 주관	실사 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보기카드 1 제시)

○○님은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1.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 2.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 3.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 4.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 5.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2)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 3. 반반/보통이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3) (보기카드 2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
- 2.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 3.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
- 4. 현재대로가 좋다
- 5.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4)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기적 남북회담'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1	2	3	4
㉤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 북한 비핵화	1	2	3	4
㉧ 인도적 대북 지원	1	2	3	4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1	2	3	4
㉪ 남북한 경제 협력	1	2	3	4

문 6)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1. 같은 민족이니까
-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 3.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 6.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7) (보기카드 4 제시)

만약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님은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1.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 2.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 3.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 4.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 5.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 6.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8)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9)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10)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통일이 되면...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빈부격차	1	2	3	4	5
㉡ 부동산투기	1	2	3	4	5
㉢ 실업문제	1	2	3	4	5
㉣ 범죄문제	1	2	3	4	5
㉤ 지역갈등	1	2	3	4	5
㉥ 이념갈등	1	2	3	4	5

문 11) (보기카드 5 제시)

○○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1.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 3.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 4. 통일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 12) (보기카드 6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3)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 타협이 가능한 상대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가능하다
-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 3. 별로 가능하지 않다
- 4. 전혀 가능하지 않다

문 14)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원한다
- 2. 다소 원한다
-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5)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많이 변하고 있다
- 2. 약간 변하고 있다
-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 4.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문 16)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많이 있다
- 2. 약간 있다
- 3. 별로 없다
- 4. 전혀 없다

문 17)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매우 잘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㉔ 선군정치	1	2	3	4
㉕ 주체사상	1	2	3	4
㉖ 천리마운동	1	2	3	4
㉗ 고난의 행군	1	2	3	4
㉘ 장마당	1	2	3	4
㉙ 모란봉 악단	1	2	3	4

문 18)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북한과 관련하여 아래 경험을 한적...	있다	없다
㉚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	1	2
㉛ 유튜브, SNS, 웹사이트 등의 매체를 통해 접해 본 경험	1	2
㉜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경험	1	2
㉝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	1	2
㉞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	1	2

☞ "㉞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에서 "1.있다" 응답자의 경우 다음 19번 문항에 답변해주시고, "2.없다" 응답자는 20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항 18번에서 "㉞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이 "1.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추가 응답)

문 19)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관계인지 다음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명을 만나 션다면 그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기준으로 답변해 주세요.

- 1. 가족 및 친척
- 2. 친구 및 가까운 동료
- 3. 친하지는 않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
- 4. 얼굴만 본 적 있음

문 2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거방식'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남북한 간의 차이가...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㉚ 선거방식	1	2	3	4
㉛ 사회복지	1	2	3	4
㉜ 언어사용	1	2	3	4
㉝ 생활용품(관혼상제 등)	1	2	3	4
㉞ 가족에 대한 중시	1	2	3	4
㉟ 돈에 대한 중시	1	2	3	4

문 21)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문 22)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동의한다
- 2. 다소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잘 모름

문 23) ○○님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반반/보통이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찬성한다
- 2. 다소 찬성한다
- 3. 반반/보통이다
- 4. 다소 반대한다
- 5. 매우 반대한다

문 24) ○○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심각하다
- 2. 다소 심각하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심각하지 않다
- 5. 전혀 심각하지 않다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5)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북한의 개혁개방에...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㉚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㉛ 남북 사회문화교류	1	2	3	4
㉜ 남북 경제협력	1	2	3	4
㉝ 대북 제재	1	2	3	4

문 26) ○○님은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북한의 비핵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㉚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㉛ 남북 경제협력	1	2	3	4
㉜ 대북 제재	1	2	3	4
㉝ 군사적 억지력 강화	1	2	3	4

문 27) (보기카드 7 제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 1. 한국의 단독 정책 수행
- 2. 미국, 일본과의 협력
- 3.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 4. 국제사회(유엔 등 국제기구, 국제 NGO 등)와의 협력

문 28)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만족
- 2. 다소 만족
- 3. 다소 불만족
- 4. 매우 불만족

문 29) (보기카드 8 제시)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의 목표로 다음 중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 1. 남북통일
- 2. 남북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
- 3.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경제공동체 통합
- 4.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30) (보기카드 8 제시)

"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 31)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보통이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다음의 의견에...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보통이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1	2	3	4	5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	2	3	4	5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 대북빠라 실모는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1	2	3	4	5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1	2	3	4	5
㉦ 코로나 팬데믹 관련백신 지원, 식량지원, 수해복구 지원을 해야 한다	1	2	3	4	5

문 32) 한국의 핵무장에 관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미국 전용 핵무기 한국 배치
2. 자체 핵무기 개발
3. 핵무기 보유 반대
4. 잘 모름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33)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반반/보통이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탈주민'은요?

조사원 다음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자에 대해...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반반/보통이다	별로 친근하지 않음	전혀 친근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	1	2	3	4	5
㉡ 조선족(중국동포)	1	2	3	4	5
㉢ 중국인(한족)	1	2	3	4	5
㉣ 고려인	1	2	3	4	5
㉤ 미국인	1	2	3	4	5
㉥ 동남아시아인 및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남아시아인 (네팔, 스리랑카, 인도 등)	1	2	3	4	5
㉦ 일본인	1	2	3	4	5
㉧ 중동인 (예멘, 이란, 이라크 등)	1	2	3	4	5

문 34) ○○님은 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보통이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동네 이웃'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북한이탈주민들과 관계를 맺는데 대해...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보통이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동네 이웃	1	2	3	4	5
㉡ 직장 동료	1	2	3	4	5
㉢ 사업 동업자	1	2	3	4	5
㉣ 결혼상대자	1	2	3	4	5
㉤ 학교 교사	1	2	3	4	5
㉥ 지역 대표 (국회의원, 구청장)	1	2	3	4	5

문 35) (보기카드 9 제시)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6)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의견들에 대해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4
㉢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1	2	3	4
㉣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4

문 37)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보통이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를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다음의 의견에...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보통이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1	2	3	4	5

㉢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과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1	2	3	4	5
㉣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학교나 직장생활 등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1	2	3	4	5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38)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9)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40)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1. 북한 팀
2. 미국 팀
3.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1)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2)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한반도에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도와 것이다	북한을 도와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3)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남북한의 통일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4)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통일을 위해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5) (보기카드 10 제시)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남북 간 협력
2. 한미 간 협력
3. 한중 간 협력
4. 모두 중요하다

문 46) (보기카드 11 제시)

○○님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한일 간 협력'의 강화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한미 간 협력'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 한미 간 협력	1	2	3	4
㉡ 한중 간 협력	1	2	3	4
㉢ 한일 간 협력	1	2	3	4

문 47) ○○만일 북한이 핵 공격을 개시한다면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모든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 48) ○○님은 중국의 부상(강대국화 및 주변국 영향력 확대)이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2.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3.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4.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문 49) ○○님께서서는 최근 다방면에서 중국과 북한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좋게 보십니까, 혹은 좋지 않게 보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매우 우려스럽다
2. 우려스러운 편이다
3. 바람직한 편이다
4. 매우 바람직하다

문 50) (보기카드 11 제시)

○○님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3. 중립을 지켜야 한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51)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과 본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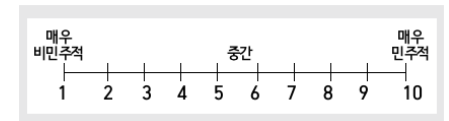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 한국의 경제 상황	1	2	3	4
㉡ 본인의 경제 상황	1	2	3	4

문 52) (보기카드 12 제시)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문 53) ○○님은 다음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비교적 찬성', '비교적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집회 및 시위 자유 보장	1	2	3	4
㉡ 국가보안법 폐지	1	2	3	4
㉢ 경제성장보다는 복지 중심	1	2	3	4
㉣ 고소득자에게 현재보다 세금 더 부과	1	2	3	4
㉤ 이주 노동자 및 난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	1	2	3	4
㉥ 성평등 정책 확대 ex) 여성할당제	1	2	3	4
㉦ 재벌규제 지극히 더 강화	1	2	3	4

문 54)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문 55)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국회의 석순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정의당
4.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6. 기타 정당
7. 지지정당 없음
8. 모름/응답 거절

문 56) ○○님은 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문 57) ○○님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다소 만족한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만족한다
2. 다소 만족한다
3.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4.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문 58) ○○님은 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중앙 정부 부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주요 사회기관들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중앙 정부 부처	1	2	3	4
㉡ 지방 자치 정부	1	2	3	4
㉢ 국회	1	2	3	4
㉣ 청와대	1	2	3	4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등)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중장비/트럭운전자, 숙련공 등)
5. 일반직업직 (토목 관계의 현장직업, 청소, 수위, 육체 노동자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 교사, 회사 소속 디자이너·프로그래머·개발자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의사, 예술가, 종교인, 고소득 프리랜서 등)
9. 전업주부
10. 학생 (대학생/대학원생)
11. 직업군인/경찰
12. 무직/은퇴
13. 기타(적을 것 : \_\_\_\_\_ )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1. 미혼
2. 기혼
3. 이혼/별거
4. 사별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조사원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 재학/대학 졸업
5. 대학원 재학 이상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천주교 (가톨릭)
4. 기타(적을 것 : \_\_\_\_\_ )
98. 종교 없음
99. 모름/무응답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1. 월 49만원 이하     | 7. 월 300 ~ 349만원  |
| 2. 월 50 ~ 99만원   | 8. 월 350 ~ 399만원  |
| 3. 월 100 ~ 149만원 | 9. 월 400 ~ 499만원  |
| 4. 월 150 ~ 199만원 | 10. 월 500 ~ 599만원 |
| 5. 월 200 ~ 249만원 | 11. 월 600 ~ 699만원 |
| 6. 월 250 ~ 299만원 | 12. 월 700만원 이상    |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D 7) (보기카드 13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의 상
2. 상의 하
3. 중의 상
4. 중의 하
5. 하의 상
6. 하의 하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나 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훨씬 나빠졌다
6. 잘 모르겠다

D 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 |        |          |
|--------|----------|
| 1. 서울  | 10. 충청북도 |
| 2. 부산  | 11. 충청남도 |
| 3. 대구  | 12. 전라북도 |
| 4. 인천  | 13. 전라남도 |
| 5. 광주  | 14. 경상북도 |
| 6. 대전  | 15. 경상남도 |
| 7. 울산  | 16. 제주도  |
| 8. 경기도 | 17. 북한   |
| 9. 강원도 | 18. 외국   |

오랜 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D


### 면접 후 기록 (※조사원이 기록)

응답자 기본 정보	주소			
	성명			
응답자 연락처 (※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기입)	1. 일반전화 (       )-(       )-(       )			
	2. 휴대폰 (       )-(       )-(       )			
조사 일시	2023년 7월 (       )일			
응답 시간	① 오전    ② 오후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       분간) 응답 (※ 반드시 적어 주세요)			
협조 정도	1. 상	2. 중	3. 하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 에디팅 (editing) 기록표

조사원	성명			
	ID			
실사 감독원	1차(현장) 에디팅	1. 완료	2. 미완료	(서명)
	2차 에디팅	1. 완료	2. 미완료	(서명)
자료 검증원	성명			
	ID			
	검증 여부	1. 완료	2. 미완료	(서명)

### 답례품 인수확인서

답례품 품목	상품권 5천원권 1매		
참여일	2023년 7월 (       )일		
참여자 성명			
동의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답례품 인수 서명)
비 고			
연구 주관		실사 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